

中原文化研究叢書 第 5 冊

原州 鴿原山城・海美山城

地表調査 報告書



1998

原 州 市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原州 鵠原山城 海美山城

地表調査 報告書

차용걸 신호철

노병식 박중균



1998

原 州 市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표지사진설명]

앞면 : 영원산성 동남벽 曲城모습

뒷면 : 해미산성 남벽 雉城 서측면 모습

目 次

도 면 목 차

사 진 목 차

I. 조사 경위와 경과	17
1. 조사경위	17
2. 조사방법	18
3. 조사단의 구성	18
II. 영원산성의 조사	20
1. 영원산성의 위치와 지리적환경	20
2. 영원산성의 역사성	22
3. 영원산성의 현황	26
4. 영원산성의 주변 유적	46
5. 영원산성 수습 유물	47
6. 영원산성의 성격과 특징	61
7. 영원산성의 정비와 복원에 대한 견해	65
III. 해미산성 : 금대성(금대산성)의 조사	70
1. 해미산성의 명칭과 역사적 배경	70
2. 해미산성의 위치와 지리적 환경	72
3. 해미산성의 현황	73
4. 해미산성 수습 유물	83

5. 해미산성의 성격과 특징	89
6. 해미산성의 정비와 보존 방안에 대한 견해	90
IV. 합단적의 침입과 원충압의 영원성(치악성) 승첩	신 호 철 / 92
1. 합단적의 침입과 고려 정치상황	92
2. 원주에서의 원충압의 항전 - 영원성(치악성) 승첩 -	95
3. 원주 승첩 이후 합단적의 패도	99
4. 합단적 침입이 고려에 미친 영향	100
5. 원충압의 중앙진출과 정치활동	102

도 면

사 진

도면 목록

- [도면 1] 영원산성·해미산성 위치도(1/25,000)
- [도면 2] 영원산성 주변 지형도(대동여지도)
- [도면 3] 영원산성 주변 지형도(1/5,000)
- [도면 4] 영원산성 실측도
- [도면 5] 영원산성 현황 및 단면 실측지점 표시도
- [도면 6] 영원산성 단면도(# 1)
- [도면 7] 영원산성 단면도(# 2·# 3)
- [도면 8] 영원산성 단면도(# 7)
- [도면 9] 영원산성 단면도(# 8)
- [도면 10] 영원산성 단면도(# 9)
- [도면 11] 영원산성 단면도(# 10)
- [도면 12] 영원산성 단면도(# 11·# 12)
- [도면 13] 영원산성 단면도(# 13·# 14)
- [도면 14] 영원산성 단면도(# 15)
- [도면 15] 영원산성 단면도(# 16·# 17)
- [도면 16] 영원산성 단면도(# 18·# 19)
- [도면 17] 영원산성 단면도(# 24·# 25)
- [도면 18] 영원산성 단면도(# 26·# 27)
- [도면 19] 영원산성 단면도(# 28)
- [도면 20] 영원산성 북벽 雉城 및 北門址 평면도
- [도면 21] 영원산성 북문지 단면도(# 22·# 23)
- [도면 22] 영원산성 남문지 평면도
- [도면 23] 영원산성 남문지 단면도(# 4·# 5·# 6)
- [도면 24] 영원산성 남문지 들짜귀 실측도
- [도면 25] 영원산성 남벽 水口址 평면도

- [도면 26] 영원산성 북벽 雉城 부분 단면도(# 20 · # 21)
- [도면 27] 영원산성 북벽 건물지 평면도
- [도면 28] 영원산성 북쪽 숯가마 평면도
- [도면 29] 영원산성 북쪽 숯가마 단면도
- [도면 30] 영원사 내 연화문대좌편 실측도
- [도면 31] 해미산성 주변 지형도(1/5,000)
- [도면 32] 해미산성 실측도
- [도면 33] 해미산성 현황 및 단면 실측지점 표시도
- [도면 34] 해미산성 북벽 단면도(# 7)
- [도면 35] 해미산성 남벽 雉城 부분 단면도(# 8, # 9)
- [도면 36] 해미산성 남벽 雉城 부분 입면도
- [도면 37] 해미산성 남벽 南門址 옆 단면도(# 10)
- [도면 38] 해미산성 동벽 단면도(# 3)
- [도면 39] 해미산성 동벽 단면도(# 4)
- [도면 40] 해미산성 북문지 평면도
- [도면 41] 해미산성 북문지 단면도(# 5 · # 6)
- [도면 42] 해미산성 북문지 동쪽 돌쩌귀 실측도
- [도면 43] 해미산성 북문지 서쪽 돌쩌귀 실측도
- [도면 44] 해미산성 남문지 평면도
- [도면 45] 해미산성 남문지 단면도(# 11 · # 12)
- [도면 46] 해미산성 남암문지 평면도
- [도면 47] 해미산성 남암문지 입면도
- [도면 48] 해미산성 남암문지 단면도(# 13)
- [도면 49] 해미산성 동암문지 평면도
- [도면 50] 해미산성 동암문지 단면도(# 1 · # 2)
- [도면 51] 해미산성 남쪽 건물지 돌확 실측도
- [도면 52] 영원산성 수습 토기구연부편 · 어깨부편 · 저부편 실측도
- [도면 53] 영원산성 수습 경질토기 동체부편 실측도
- [도면 54] 영원산성 수습 경질토기 동체부편 실측도

- [도면 55] 영원산성 수습 경질토기 동체부편 실측도
- [도면 56] 영원산성 수습 경질토기 동체부편 실측도
- [도면 57] 영원산성 수습 경질토기 동체부편 실측도
- [도면 58] 영원산성 수습 경질토기 동체부편 실측도
- [도면 59] 영원산성 수습 경질토기 동체부편·백자 구연부편 실측도
- [도면 60] 영원산성 수습 청해파문·선조문 숫기외편 실측도
- [도면 61] 영원산성 수습 청해파문·선조문 숫기외편 실측도
- [도면 62] 영원산성 수습 무문 암기외편 실측도
- [도면 63] 영원산성 수습 무문 암기외편 실측도
- [도면 64] 영원산성 수습 선조문 암기외편 실측도
- [도면 65] 영원산성 수습 사선문·어골문 암기외편 실측도
- [도면 66] 영원산성 수습 태선 어골문 암기외편 실측도
- [도면 67] 영원산성 수습 집선문 암기외편 실측도
- [도면 68] 영원산성 수습 草文 암기외편 실측도
- [도면 69] 영원산성 수습 복합문·격자문 암기외편 실측도
- [도면 70] 영원산성 수습 집선문·청해파문 암기외편 실측도
- [도면 71] 해미산성 수습 토기편 실측도
- [도면 72] 해미산성 수습 선조문 숫기외편 실측도
- [도면 73] 해미산성 수습 선조문·어골문 숫기외편 실측도
- [도면 74] 해미산성 수습 선조문 암기외편 실측도
- [도면 75] 해미산성 수습 선조문 암기외편 실측도
- [도면 76] 해미산성 수습 선조문 암기외편 실측도
- [도면 77] 해미산성 수습 집선문 암기외편

사 진 목 차

- [사진 1] 영원산성에서 본 치악골 모습
- [사진 2] 영원산성에서 본 해미산성 모습
- [사진 3] 영원사에서 영원산성에 이르는 등산로 모습
- [사진 4] 영원산성 동남벽 남단 모습
- [사진 5] 영원산성 동남벽 남단 모습
- [사진 6] 영원산성 동남벽 남단 석축 잔존부 모습
- [사진 7] 영원산성 동남벽 모습 : #1 지점(북→남)
- [사진 8] 영원산성 동남벽 모습 : #1 지점(남→북)
- [사진 9] 영원산성 동남벽 단면모습 : #1 지점(북→남)
- [사진 10] 영원산성 동남벽 모습 : #1~#2 구간(남→북)
- [사진 11] 영원산성 동남벽 모습 : #1~#2 구간(남→북)
- [사진 12] 영원산성 동남벽 모습 : #1~#2 구간(남→북)
- [사진 13] 영원산성 동남벽 모습 : #1~#2 구간(북→남)
- [사진 14] 영원산성 동남벽 석축 붕괴 모습 : #1~#2 구간(북→남)
- [사진 15] 영원산성 동남벽 모습 : #2~남문지 구간(남→북)
- [사진 16] 영원산성 동남벽 모습 : #2~남문지 구간(남→북)
- [사진 17] 영원산성 동남벽 여장 입면 모습 : #3 지점(안쪽에서)
- [사진 18] 영원산성 동남벽 여장 입면 모습 : #2~남문지 구간(남→북)
- [사진 19] 영원산성 동남벽 여장 입면 모습 : #2~#3 구간(남→북)
- [사진 20] 영원산성 동남벽 여장 단면 모습 : #3 지점(남→북)
- [사진 21] 영원산성 남문지 모습(북→남)
- [사진 22] 영원산성 남문지 안쪽 숲가마 모습
- [사진 23] 영원산성 남문지 문쩌귀 모습
- [사진 24] 영원산성 남문지 모습(밖에서)
- [사진 25] 영원산성 남문지 남쪽 외부 석축 모습

- [사진 26] 영원산성 남문지 북쪽 외부 석축 모습
- [사진 27] 영원산성 동남벽 모습 : #6~#3 구간(북→남)
- [사진 28] 영원산성 동남벽 남문지 위쪽 모습
- [사진 29] 영원산성 동남벽 모습 : 남문지~#3 구간(북→남)
- [사진 30] 영원산성 동남벽 모습 : #7~남문지 구간(북→남)
- [사진 31] 영원산성 동남벽 모습 : #7~남문지 구간(북→남)
- [사진 32] 영원산성 동남벽 모습 : #7 지점(북→남)
- [사진 33] 영원산성 동남벽 모습 : #8 지점(북→남)
- [사진 34] 영원산성 동남벽 모습 : #8 지점 曲部 내려다 봄
- [사진 35] 영원산성 동남벽 모습 : #8~#9 구간 봉괴 지역(북→남)
- [사진 36] 영원산성 #9 지점에서 본 북벽 866.1고지 장대 모습
- [사진 37] 영원산성 동남벽 모습 : #8~#9 구간 봉괴지역(남→북)
- [사진 38] 영원산성 동남벽 모습 : #9 지점 석축 잔존부
- [사진 39] 영원산성 동남벽 모습 : #9~#10 구간(남→북)
- [사진 40] 영원산성 동남벽 모습 : #9~#10 구간(북→남)
- [사진 41] 영원산성 동남벽 모습 : #9~#10 구간(남→북)
- [사진 42] 영원산성 동남벽 모습 : #10~#11 구간(남→북)
- [사진 43] 영원산성 동남벽 모습 : #10 지점(남→북)
- [사진 44] 영원산성 동남벽 모습 : #10~#11 구간(남→북)
- [사진 45] 영원산성 동남벽 모습 : #10~#11 구간(북→남)
- [사진 46] 영원산성 동남벽 모습 : #10~#11 구간(남→북)
- [사진 47] 영원산성 동남벽 모습 : #11~#12 구간(남→북)
- [사진 48] 영원산성 동남벽 모습 : #11~#12 구간(남→북)
- [사진 49] 영원산성 동남벽 모습 : #12~#11 구간(북→남)
- [사진 50] 영원산성 동남벽 모습 : #11~#14 구간(남→북)
- [사진 51] 영원산성 동남벽 모습 : #13~#12 구간(북→남)
- [사진 52] 영원산성 동남벽 모습 : #12~#15 구간(남→북)
- [사진 53] 영원산성 동남벽 모습 : #12~#14 구간(남→북)
- [사진 54] 영원산성 동남벽 모습 : #14~#12 구간(북→남)

- [사진 55] 영원산성 #10 지점에서 본 정상부(甬道) 모습
- [사진 56] 영원산성 동남벽 모습 : #14~#15 구간(남→북)
- [사진 57] 영원산성 甬道 아래 #13 지점 건물지 모습
- [사진 58] 영원산성 甬道 아래 건물지 및 석축 모습 : #14~#15 구간(북→남)
- [사진 59] 영원산성 甬道 모습 : #15~정상부 구간
- [사진 60] 영원산성 甬道 정상부 모습 : #16~#17 구간
- [사진 61] 영원산성 甬道 정상부에서 본 서벽 866.1고지 능선 남쪽 모습
- [사진 62] 영원산성 甬道에서 본 원주시 모습
- [사진 63] 영원산성 북벽 모습 : #18 지점
- [사진 64] 영원산성 북벽 모습 : #18 지점
- [사진 65] 영원산성 북벽 모습 : #18~#19 구간(남→북)
- [사진 66] 영원산성 북벽 안쪽 숯가마 모습
- [사진 67] 영원산성 북벽 안쪽 숯가마 화구 모습
- [사진 68] 영원산성 북벽 모습 : #19 지점(동→서)
- [사진 69] 영원산성 북벽 모습 : #19 지점 바깥쪽
- [사진 70] 영원산성 북문지 모습(밖에서)
- [사진 71] 영원산성 북문지 남벽 석축 모습
- [사진 72] 영원산성 북벽 雉城 남벽 모습
- [사진 73] 영원산성 북벽 雉城 남벽 모습
- [사진 74] 영원산성 북문지 왼쪽 건물지 모습
- [사진 75] 영원산성 서벽 866.1고지에서 본 甬道쪽 모습
- [사진 76] 영원산성 서벽 모습 : #24 지점
- [사진 77] 영원산성 서벽 내환도 모습 : #24 지점(북→남)
- [사진 78] 영원산성 서벽 헬리포트 모습(북→남)
- [사진 79] 영원산성 서벽 내환도 모습 : #24~#25 구간(북→서)
- [사진 80] 영원산성 서벽 모습 : #25 지점(북→남)
- [사진 81] 영원산성 서벽 모습 : #25 지점(남→북)
- [사진 82] 영원산성 서벽 모습 : #25 지점 부근 단면(남→북)
- [사진 83] 영원산성 서벽 모습 : #25~#27 구간 부근(남→북)

- [사진 84] 영원산성 서벽 모습 : #27 지점 바깥쪽
- [사진 85] 영원산성 서벽 암벽 모습
- [사진 86] 영원산성 서벽 水口址 모습
- [사진 87] 영원산성 서벽 水口址 모습
- [사진 88] 영원산성 서벽 水口址 남쪽 잔존석축 모습 : #28 지점(서→동)
- [사진 89] 영원산성 서벽 水口址 남쪽 잔존석축 단면 모습 : #28 지점(북→남)
- [사진 90] 영원사 모습(원경)
- [사진 91] 영원사 모습(근경)
- [사진 92] 영원사 내 연화문 대좌편 모습
- [사진 93] 영원산성 수습 회청색 토기 구연부편·어깨부편
- [사진 94] 영원산성 수습 토기 저부편(이면)
- [사진 95] 영원산성 수습 경질토기 동체부편(표면)
- [사진 96] 영원산성 수습 경질토기 동체부편(이면)
- [사진 97] 영원산성 수습 경질토기 동체부편(표면)
- [사진 98] 영원산성 수습 경질토기 동체부편(이면)
- [사진 99] 영원산성 수습 경질토기 동체부편(표면)
- [사진 100] 영원산성 수습 경질토기 동체부편(이면)
- [사진 101] 영원산성 수습 경질토기 동체부편(표면)
- [사진 102] 영원산성 수습 경질토기 동체부편(이면)
- [사진 103] 영원산성 수습 경질토기 동체부편(표면)
- [사진 104] 영원산성 수습 경질토기 동체부편(이면)
- [사진 105] 영원산성 수습 경질토기 동체부편(표면)
- [사진 106] 영원산성 수습 경질토기 동체부편(이면)
- [사진 107] 영원산성 수습 청해파문·선조문 숫기와편(표면)
- [사진 108] 영원산성 수습 청해파문·선조문 숫기와편(이면)
- [사진 109] 영원산성 수습 청해파문·무문 암기와편(표면)
- [사진 110] 영원산성 수습 청해파문·무문 암기와편(이면)
- [사진 111] 영원산성 수습 무문 암기와편(표면)
- [사진 112] 영원산성 수습 무문 암기와편(이면)

- [사진 113] 영원산성 수습 무문 암기와편(표면)
- [사진 114] 영원산성 수습 무문 암기와편(이면)
- [사진 115] 영원산성 수습 선조문 암기와편(표면)
- [사진 116] 영원산성 수습 선조문 암기와편(이면)
- [사진 117] 영원산성 수습 사선문·어골문 암기와편(표면)
- [사진 118] 영원산성 수습 사선문·어골문 암기와편(이면)
- [사진 119] 영원산성 수습 태선 어골문 암기와편(표면)
- [사진 120] 영원산성 수습 태선 어골문 암기와편(이면)
- [사진 121] 영원산성 수습 집선문 암기와편(표면)
- [사진 122] 영원산성 수습 집선문 암기와편(이면)
- [사진 123] 영원산성 수습 草文 암기와편(표면)
- [사진 124] 영원산성 수습 草文 암기와편(이면)
- [사진 125] 영원산성 수습 복합문·격자문 암기와편(표면)
- [사진 126] 영원산성 수습 복합문·격자문 암기와편(이면)
- [사진 127] 영원산성 수습 집선문·청해파문 암기와편(표면)
- [사진 128] 영원산성 수습 집선문·청해파문 암기와편(이면)
- [사진 129] 해미산성에서 본 금대리 모습
- [사진 130] 해미산성에서 본 제천방면 모습
- [사진 131] 해미산성에서 본 영원산성 모습
- [사진 132] 해미산성 동남쪽 모습
- [사진 133] 해미산성 남벽 수구터 모습(원경)
- [사진 134] 해미산성 남벽 수구터 모습(근경)
- [사진 135] 해미산성 남벽 수구터~동문 구간 잔존 성벽 모습
- [사진 136] 해미산성 남벽 수구터~동문 구간 잔존 성벽 모습
- [사진 137] 해미산성 남벽
- [사진 138] 해미산성 남벽
- [사진 139] 해미산성 남벽
- [사진 140] 해미산성 동암문지 모습(북→남)
- [사진 141] 해미산성 동암문지 門道모습(안쪽→바깥쪽)

- [사진 142] 해미산성 동암문지 북벽 모습
- [사진 143] 해미산성 동암문지~627.5m 고지 구간 내환도 모습(남→북)
- [사진 144] 해미산성 동암문지 북벽 모습
- [사진 145] 해미산성 동벽 동암문지~627.5m 고지 구간 회절부 모습
- [사진 146] 해미산성 동벽 동암문지~627.5m 고지 구간 잔존 석축 모습
- [사진 147] 해미산성 동벽 동암문지~627.5m 고지 구간 석축잔존부 모습 : #3지점
- [사진 148] 해미산성 동벽 동암문지~627.5m 고지 구간 석축잔존부 모습 : #3지점
- [사진 149] 해미산성 동벽 동암문지~627.5m 고지 구간 석축잔존부 모습 : #3지점
- [사진 150] 해미산성 동벽 627.5m 고지 안쪽 평탄지 모습
- [사진 151] 해미산성 동벽 627.5m 고지 석축 모습 : #4 지점
- [사진 152] 해미산성 동벽 627.5m 고지~북문지 구간 건물지 모습(남→북)
- [사진 153] 해미산성 동벽 627.5m 고지~북문지 구간 건물지 모습(북→남)
- [사진 154] 해미산성 북문지 모습(바깥쪽에서)
- [사진 155] 해미산성 북문지 모습(안쪽에서)
- [사진 156] 해미산성 북문지 동쪽 석축 모습
- [사진 157] 해미산성 북문지 서쪽 석축 모습
- [사진 158] 해미산성 북벽 석축 모습
- [사진 159] 해미산성 북벽 석축 모습
- [사진 160] 해미산성 북벽 여장 모습 : #7 지점
- [사진 161] 해미산성 북벽 석축 모습 : #7 지점
- [사진 162] 해미산성 북벽 석축 붕괴 모습 : #7 지점
- [사진 163] 해미산성 북벽 석축 모습 : #7 지점
- [사진 164] 해미산성 북벽 남단 안쪽 모습
- [사진 165] 해미산성 서벽 水口址 모습
- [사진 166] 해미산성 서벽 안쪽 우물터 모습
- [사진 167] 해미산성 서벽 안쪽 우물터 모습
- [사진 168] 해미산성 남벽 치성 안쪽 건물지 돌쩌귀 모습
- [사진 169] 해미산성 남벽 雉城 서측면 모습 : #8 지점
- [사진 170] 해미산성 남벽 雉城 前面 모습

- [사진 171] 해미산성 남벽 雉城 동측면 모습
- [사진 172] 해미산성 남벽 雉城 동측면 모습
- [사진 173] 해미산성 남벽 치성 동측면 단면 모습
- [사진 174] 해미산성 남벽 雉城~남문 구간 잔존 성벽 모습(#10 지점)
- [사진 175] 해미산성 남문지 모습(밖에서)
- [사진 176] 해미산성 남문지 門道 모습(안쪽→바깥쪽)
- [사진 177] 해미산성 남문지 서벽 잔존 석축 모습
- [사진 178] 해미산성 남문지 동벽 잔존 석축 모습
- [사진 179] 해미산성 남암문지 石物 모습(전면)
- [사진 180] 해미산성 남암문지 石物 모습(후면)
- [사진 181] 해미산성 수습 토기 구연부편·동체부편(표면)
- [사진 182] 해미산성 수습 토기 구연부편·동체부편(이면)
- [사진 183] 해미산성 수습 선조문 숫기외편(표면)
- [사진 184] 해미산성 수습 선조문 숫기외편(이면)
- [사진 185] 해미산성 수습 선조문·어골문 숫기외편(표면)
- [사진 186] 해미산성 수습 선조문·어골문 숫기외편(이면)
- [사진 187] 해미산성 수습 선조문 암기외편(표면)
- [사진 188] 해미산성 수습 선조문 암기외편(이면)
- [사진 189] 해미산성 수습 선조문 암기외편(표면)
- [사진 190] 해미산성 수습 선조문 암기외편(이면)
- [사진 191] 해미산성 수습 선조문 암기외편(표면)
- [사진 192] 해미산성 수습 선조문 암기외편(이면)
- [사진 193] 해미산성 수습 집선문 암기외편(표면)
- [사진 194] 해미산성 수습 집선문 암기외편(이면)

I. 조사 경위와 경과

1. 조사 경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山城들과 주변의遺蹟들에 대하여는 이미江原道·原州市와 社團法人 江原郷土文化研究에서 광범위한 조사를 하여 1994년에『原州郡의 歷史와 文化遺蹟』이란 책을 만들고, 이어서 1997년에는『原州의 歷史와 文化遺蹟』이라는 수정·보완된 것에 그 대체적인 연혁과 규모 및 성격 등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황의 파악은 위의 두 책에 의하여 성격의 파악이 가능하다. 그러나 산성의 실제적인 상황을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견지에서 파악하므로서 이들 산성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알 필요가 있으며, 더구나 성의 보존과 정비·복원 등을 위한 실태의 정확한 파악이 요망되어 왔다.

이번의 조사는 1997년 4월 21일 원주시청 문화체육담당관실의 박종수 연구사에게서 原州 雉岳山에 소재한 鵠原山城과 海美山城에 대한 지표조사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당초 이 조사는 춘천 소재의 翰林大學校에 가능 여부가 타진된 것이나, 崔永禧 교수(문화재위원)와 金正基 교수(문화재위원)는 이 조사의 책임자로 충북대학교의 車勇杰 교수(문화재전문위원)를 추천하였다는 내용의 서신이 동봉되어 있었다.

이 조사는 조사 대상인山城이 워낙 험준한 곳에 위치하여 있을 뿐 아니라, 규모가 大型에 속하여 적은 예산으로서는 하나의 산성에 대한 조사도 불가능한 상태임을 전화로 얘기 하였으나, 이들 성곽에 대한 객관적 학술 조사가 긴급히 요구되고, 우리나라 성곽의 발달사 뿐만 아니라 역사 사실의 구명을 위하여도 꼭 필요한 것이라 여겨졌으므로 조사에 임하기로 작정하였다.

조사의 대상은 우리들이 소재한 청주에서는 약 2시간 30분이 소요되어서야 산성이 있는 산의 아래에 도착 할 수 있고, 다시 산성까지는 1시간을 등산하여야 되었다. 이러한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조사 기간이 많이 필요하였고, 여기에 동원되는 실제 조사에 임하는 요원은 여러 가지 악조건을 견디어야만 하였다. 보조원들은 암반에서의墜落에 대비하여 각종의 안전 장치가 필요하였고, 실측을 비롯한 현상의 파악 능력이 어느 정도 훈련되어 두루 파악할 안목을 갖춘 사람이어야 되었다.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에서는 당초 이 조사를 1997년 6월에 시작하여 1998년 4월까지를 예정하여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다시 조정되어 1997년 8월에 시작하여 약 1년간의 조사 기간을 가지기로 학술 조사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현장에 대한 조사는 먼저 영원산성에 대하여 실시하고, 1997년 12월까지 해미산성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다. 1998년에 이르러 간헐적인 조사를 하다가 여름 방학이 되어서야 보완 조사를 하므로서 많은 의문을 해소하게 되었다.

그간 문헌 자료와 현장 조사를 토대로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구명을 하고자 하였으나 아직도 역대로 전개되어 온 역사 사실의 많은 부분은 의문으로 남아 있다.

결국 조사 기간이 촉박하여 그간의 조사 사실을 정리하여 1998년 8월 초에 이르러 보고서를 내 놓게 되었다.

2. 조사 방법

雉岳山에 있는 세 개의 산성 가운데 이번 조사의 대상이 된 것은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산 2번지 소재의 鶴原山城과 海美山城(金臺山城)이었다. 이 두 산성은 치악산의 남서쪽 치악골 계곡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인다. 당초의 계획은 치악산에 있는 세개의 산성을 모두 조사하려 하였으나, 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 金頭山城(金後山城 : 海美山城)에 대하여는 조사 기간 내에 조사가 어려우므로 결국 앞의 두 산성에 대하여는 조사를 하고, 나머지로 남겨 놓게 되었다.

당초의 계획은 평면 실측을 축척 1 : 3,000 이상으로 하고, 성벽의 단면과 주요한 입면은 축척 1 : 100 이상으로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성곽의 정확한 실태를 도면으로 나타내기 위하여는 보다 큰 축척으로 실측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1 : 1,000 으로 평면 실측을 하고, 성벽의 단면은 1 : 50 혹은 1 : 40의 축척으로하여 실측하게 되었다.

이 조사의 목적이 유적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역사적·고고학적 가치를 드러내며, 산성의 성격을 밝혀 향후 문화재 정책과 행정의 자료로 활용토록 하기 위하여는 보다 정밀한 조사가 요망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이들 산성에 대한 정확한 학술적 정보를 파악하여 學界에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절벽으로 사람이 기어오르기 힘든 곳까지 위험을 무릅 쓸 수밖에 없었다. 이 두 산성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고자 유물의 수습을 시도하였으나, 성내의 대부분이 수목으로 덮혀 있고, 낙엽이 두텁게 쌓여 있어서 한계가 있었다. 발굴 조사를 하지 않고서는 유물의 수습은 기와 조각 몇 개에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3. 조사단의 구성

이번 조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단을 구성하였다. 처음 구성된 조사단에 필요에 따라 약간의 인원을 보완하여 실시하였다.

지도 위원 : 최영희(한림대 교수, 문화재위원회 3분과 위원장)

: 김정기(한림대 교수, 문화재위원)

: 정영호(교원대 교수, 문화재위원)

- 조사단장 : 박선주(충북대 교수, 중원문화연구소장, 인류학)
- 책임조사원 : 차용걸(충북대 교수, 문화재전문위원, 역사고고학)
- 조사위원 : 양기석(충북대 교수, 한국고대사)
 : 신호철(충북대 교수, 고려시대사)
 : 김정표(충북대 교수, 한국전축사)
- 조사원 : 노병식(충북대 대학원, 역사고고학)
 : 강민식(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조교, 한국고대사)
 : 박중균(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연구원, 역사고고학)
 : 한병길(충북대 대학원, 역사고고학)
- 조사보조원 : 조순흠(충북대 역사교육과 4년)
 : 윤대식(충북대 역사교육과 4년)
 : 김정길(충북대 사학과 3년)
 : 최동호(충북대 사학과 3년)
 : 전일현(충북대 사학과 3년)
 : 황원하(충북대 사학과 3년)
 : 황규일(충북대 사학과 3년)
 : 박은규(충북대 사학과 3년)
 : 한성수(충북대 역사교육과 2년)
 : 김남섭(충북대 역사교육과 2년)
 : 임택주(충북대 사학과 2년)
 : 유하승(충북대 체육교육과 졸업)

현장의 실측과 유물 수습 등의 작업은 차용걸의 총괄로 노병식이 보조원을 통솔하여 진행하였다. 보완 조사에는 박중균이 참여하여 도왔다. 문헌 자료의 조사에는 특히 신호철 교수가 수고하여 주었다. 자료의 정리인 도면 트레이싱, 유물 실측과 탁본, 유물 촬영은 노병식과 박중균이 보조원과 함께 하였다. 유구의 현장 사진은 차용걸과 노병식이 하였다.

보고서의 총괄적 집필은 차용걸이 하였으며, 유물의 설명은 노병식과 박중균이 하였다. 행정 사항은 강민식이 담당하였다. 험준한 산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고생하면서 불편한 잠자리를 견디어준 보조원들에게 다시한번 감사한 마음을 느낀다.

Ⅱ. 鵠原山城의 조사

1. 영원산성의 위치와 지리적 환경

鵠原山城은 雉岳山에 있다. 雉岳山은 원주시의 동부에 있으면서 횡성군·영월군·제천군에 걸쳐 웅장한 산세를 뽐내고 있다. 치악산의 가장 높은 산줄기는 해발 1,288m의 毘盧峰(飛盧峰)이며, 북으로 梅花山(1,084.1m) 남으로 香爐峰(1,042.9m)과 南台峰(1,181.5m)이 있어서 원주시와 橫城郡 講林面과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치악산의 서쪽은 蟾江이 흘러 경기도 여주로 향하며, 동쪽은 酒泉江이 흘러 영월로 흘러간다.[도면 1·2·3]

雉岳山은 名山으로 世宗實錄의 地理志 江原道에서 명산의 첫째로 기록하였고, 原州에서는 원주의 沿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高句麗 : 平原郡
- 新羅 文武王 : 北原小京
- 高麗 太祖 23年(940) : 原州
 - 顯宗 9年(1018) : 知原州事
 - 高宗 45年(1258) : 一新縣(逆命)
 - 元宗 元年(1260) : 知原州事
 - 元宗 10年(1269) : 靖原都護府(林惟茂 外鄉)
 - 忠烈王 17年(1291) : 益興都護府(哈丹之亂 堅壁固守)
 - 忠烈王 34年(1308) : 原州牧
 - 忠宣王 2年(1310) : 成安府
 - 恭愍王 2年(1353) : 原州牧(安胎于雉岳山)

이와 같은 행정적 단위 등급의 변화에 중지부를 찍고 원주가 모사의 고을로 굳어진 것은 恭愍王의 安胎와 관련된다. 名山인 雉岳은 조선 시대에도 국가에서 쉼을 내려 小祀를 지내도록 한 곳이다. 아마도 香爐峰은 이러한 致祭와 관련된 곳이 아니었을까 여겨진다.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는 原州의 鎮山이 雉岳山이며, 雉岳山祠는 山頂에 있고, 이 사당을 俗稱 普門堂이라 부르며 봄과 가을에 향을 내려 致祭한다고 하였다. 현재는 원주시 반곡동과 행구동에서 동쪽으로 향로봉을 오르는 등산로 중턱을 오르면 국향사를 지나 약 40분 올라 보문사라는 사찰이 있고, 거기서 다시 50분을 올라야 향로봉 정상이 된다. 이 雉岳에의 致祭는 언제부터 있어온 것인지 분명치 않으나 新羅의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高麗 시기에 시작된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輿地圖書』의 原州牧 山川에서는 雉岳山과 별도로 毘盧峯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관문의 동쪽 50리의 거리이고, 봉우리 위에 鐵馬가 있다고 하고, 諺傳이라하여 仙人이 와서 놀던 곳이라는 얘기를 적고 있다. 그리고 壇廟에서는 雉岳山祠에 대하여 관문의 동쪽 15리의 山頂에 있으며, 俗稱 普門堂이라 부르고 있다고 하였다. 결국 雉岳山祠는 치악산의 최고봉인 毘盧峰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원주 관아에서 보다 가까운 산정에 위치해 있었다고 여겨진다.

이 산을 배경으로 한 原州의 교통로에 대하여는 현재의 국도 5호선에 해당하는 길로 관문의 동쪽 5리에 丹丘驛이 있고, 여기서 加里破峙를 넘어 神林驛까지가 45리라 하였다. 치악산에 있는 고개들에 대하여는 관아에서 동으로 통하는 고개로서

- 加里破峙 : 동쪽 30리 길이 堤川과 酒泉으로 향한다
- 松 峙 : 동쪽 85리에 있다
- 稷 峙 : 동쪽 55리에 있다
- 高頓峙 : 동쪽 20리에 있다
- 車轍嶺 : 동쪽 60리에 있다. 雉岳山の 北麓으로 세상에 전해 오기로는 太宗大王이 覺林寺로 갈 때 이 고개를 經由하였으므로 그렇게 이름하였다고 한다

라고 하였다. 加里破峙는 오늘날의 5번 국도와 중앙선 철도가 또아리굴을 지나는 가리파굴을 넘는 길이다. 高頓峙란 오늘날의 곧은치로서 원주시 행구동의 관음사로부터 횡성군 강림면 부곡리 신태골과 곧은치골을 오가는 향로봉의 북쪽을 동서로 넘는 고개이다. 그리고 車轍嶺은 오늘날의 수리넘이재로서 비로봉과 매화산 사이의 안부를 동서로 넘는 고개이다.

이 밖에는 길아재와 쥐넘이 고개, 배너미재, 원통재 등의 험한 고개들이 있다.

치악산의 세 개의 산성은 모두 香爐峰의 남쪽과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향로봉의 정상에서 남서로 내려가 金頭山城(金後山城)이 있다. 이 성은 당초 土築으로 파악된 것이며, 치악골의 길아치 마을에서 북으로 오르거나, 원주시 반곡동 한가터에서 동으로 오르는 길이 있고, 향로봉을 오르는 길로 올라 보문사에서 남으로 오르는 길이 있다.

이 금두산성에서 서남쪽으로 뻗어 내린 산맥의 보다 남쪽으로 海美山城(金臺山城)이 있다.¹⁾ 이 성은 치악골의 일론 마을에서 북으로 오르는 길이 있고, 원주 관설동에서 오르거나, 금대리의 양금대에서 오르는 길이 있다.

다음으로는 鵠原山城이 있다. 이 산성은 치악골의 중간에 다시 솟은 산봉에 있어서 영원사에서 오르거나, 길아치에서 동쪽의 계곡을 따라 오르거나 향로봉과 남태령 사이의 능선에서 안부를 지나 오르는 길이 있다.

1) 이 산성을 현행의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지도에는 해미산성이라 하고 있다.(成地文化社, 1998. 『전국도로관광세밀도 1/100,000도로지도』)

2. 鵠原山城의 역사성

鵠原山城과 직접 관련된 기록으로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新增東國輿地勝覽』의 원주목 고적에 나타난 鵠原城이다. 여기서는 『三國史記』의 열전에 있는 梁吉에 대한 기록을 소개하고 諺傳이라하여 梁吉이 所據한 성이라 하였다. 조선시대 초기에는 이 산성이 梁吉이 응거하였던 성이고, 뒤에 元沖甲 등이 哈丹을 물리치고 승리한 곳으로 전해 내려왔던 것이다.²⁾

이러한 기록은 이 성이 후삼국의 격동기까지 축조 연대가 소급될 것임을 예전케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선 초기의 기록인 『世宗實錄』의 地理志에서는 이 산성이 당시까지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려주며, 성안에 倉庫가 있었다는 사실도 기록하고 있다. 즉 지리지의 靈原山石城이 그것으로서 州의 동쪽 30리에 있다고 하고서, 둘레가 646步이고 두 개의 샘이 있어서 사철 마르지 않으며, 9間 규모의 창고가 있다고 하였다.³⁾

그런가 하면 조선 후기의 지리서인 『輿地圖書』에서는 이러한 梁吉과 元沖甲에 이어서 壬辰倭亂 때에 原州牧使 金悌甲과 驪州牧使 元豪가 이곳 鵠原山城에서 패한 사실을 전하고 있다.⁴⁾

雉岳山은 원주 고을의 鎮山이다. 그리고 이 산에는 3개의 산성이 있다. 3개의 산성은 鵠原山城과 金頭山城과 海美山城이라 불린다. 이 세 개의 산성은 서로 바라보이는 위치이며, 각각 규모와 위치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다르다.

지리지의 기록에 앞선 原典을 보면, 弓裔와 梁吉에 대하여는 景福元年 壬子(서기 892 : 진성여왕 5)년에 弓裔가 北原의 梁吉에게 투항하니 梁吉은 그를 잘 대우하여 일을 맡기었다. 군사를 나누어 동쪽의 지역을 공략케 하니, 弓裔가 雉岳山 石南寺에 나아가 자면서 酒泉 등의 고을을 습격하여 모두 항복케 하였다고 하였다.⁵⁾ 이 내용에는 특정한 산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豪族으로서의 梁吉이 北原(원주) 지역을 중심으로 國原(충주) 등 30여 고을을 세력권 아래 두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2)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6 原州牧 古跡 鵠原城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在雉岳山南脊 石築周三千七百四十九尺 內有一井五泉 今廢 ○三國史 弓裔投北原賊梁吉 吉委之以事 使東略地 於是出宿於雉岳山石南寺 行襲酒泉奈城鬱烏御珍等縣 皆降之 諺傳 此城梁吉所據 後元沖甲據此破丹兵」

3) 『世宗實錄』 卷153 地理誌 江原道 原州牧에서 靈原山石城 在州東三十리라 하고 「周回六百四十六步 有二泉 四時不渴 又有倉九間」 이라 하였다.

4) 『輿地圖書』 江原道 原州 城池 鵠原山城 「在雉岳山南麓 石築周三千七百四十九尺 內有一井五泉 今廢○三國史弓裔投北原賊梁吉 吉委之以事 使東略酒泉奈城鬱烏御珍等郡縣皆降之 後元沖甲 據此城 破丹兵有功 宣廟壬辰 原州牧使金悌甲 與驪州牧使元豪 爲倭奴所敗」

5) 『三國史記』 卷 50 列傳 第 10 弓裔 「大順二年 辛亥 投竹州賊魁箕萱 箕萱侮慢不禮 善宗鬱悒不自安 潛結箕萱麾下元會申煊等爲友 景福元年壬子 投北原賊梁吉 吉善遇之 委任以事 遂分兵 使東略地 於是出宿雉岳山石南寺 行襲酒泉奈城鬱烏御珍等縣 皆降之 乾寧元年入溟州--四年丁巳 仁物縣降 善宗謂松岳郡漢北名郡 山水奇秀 遂定以爲都 擊破孔巖黔浦穴口等城 時梁吉猶在北原 取國原等三十餘城有之 聞善宗地廣民衆 大怒 欲以三十餘城勁兵襲之 善宗潛認 先擊大敗之」

이 지역에 대한 축성의 기록은 新羅 文武王 18년(678)에 小京을 설치하여 大阿湊 吳起를 진수시키고⁶⁾ 神文王 5년(685)에 둘레 1,031步의 성을 축조한 것이 처음으로 보인다.⁷⁾ 이 성이 오늘날의 어떤 성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高麗 시기의 기록에서도 산성의 구체적인 이름은 雉岳城이거나 原州山城, 혹은 古城이 보일 뿐이다.

雉岳이란 이름은 『大東地志』에 의하면 혹은 赤岳이라고도 썼으며, 朝鮮 太宗이 아직 왕위에 오르지 않았을 때 太宗臺 동쪽의 覺林寺에서 독서한 바 있으며, 太宗 원년에는 進士 元天錫을 耘谷으로 찾아 갔으며, 후일 太宗이 머물던 바위를 太宗臺라 이름했다고 한다. 또 橫城에서 講武할 때에도 각림사에 머물렀다고 한다. 산에는 上峰이 毘盧峰이고, 그 서쪽에 文殊寺가 있으며, 남쪽에 九龍寺가 있다고 하였다.⁸⁾

雉岳城은 高麗 후기 忠烈王 17년(1291) 哈丹의 침입 때 元沖甲 등과 관련되어 보이는 것으로, 당시의 전투 상황이 자세한 『高麗史』의 기록은 매우 큰 시사를 준다. 즉, 당시의 雉岳城 싸움의 양상을 분석하면

- ① 哈丹賊이 原州에 둔치고 50騎가 雉岳城 아래를 노략질 함
- ② 元沖甲이 步卒 6명으로 賊을 쫓고, 말 8필을 빼앗아 옴
- ③ 賊 都刺閭와 禿於乃 및 李蘭 등이 400의 병력으로 성 아래에 이르러 祿米를 실어감
- ④ 元沖甲은 仲山 등 7인과 이를 엿보다가 仲山이 먼저 敵陣에 돌입하여 하나를 斬하고 荊門밖에 이르니 적들이 말을 버리고 도주함
- ⑤ 防護別監 卜奎가 크게 기뻐하여 말 25필 모두를 줌
- ⑥ 적이 다시 와서 성을 에워싸고 한사람이 書信을 가지고 와서 誘引하니, 元沖甲이 갑자기 나가서 목베고 서신을 머리에 매달아 던져 버림
- ⑦ 적이 물러났다가 많은 攻城 機具를 동원하여 오니 성내가 두려워 술렁거림
- ⑧ 적이 포로된 여자 둘을 보내어 와서 유인하니 元沖甲이 또 목베
- ⑨ 적이 북치고 떠들면서 진격하여 여러 방법으로 공격하여 화살이 비오듯하고 성이 거의 함락될 지경이 됨
- ⑩ 興元倉 判官 曹愼이 성을 나서서 싸우고, 元沖甲은 급히 내달아 東峯으로 올라가 적 하나를 목베니 적은 조금 어지러워 하고, 別將 廉伯松 등 30여인이 도움

6) 『三國史記』 卷 7 新羅本紀 7, 文武王 下 18年 春正月

7) 『三國史記』 卷 35 雜志 4 地理 2 朔州 北原京 「本高句麗平原郡 文武王置北原小京 神文王五年築城 周一千三十一步 景德王因之 今原州」

8) 『大東地志』 卷 15 江原道 原州 山水 雉岳山(一云赤岳東二十五里峻高雄盤洞府幽深泉石淨潔○本朝 太宗元年親訪高麗進士元天錫于耘谷後人名其駐輦岩曰太宗臺東有覺林寺 太宗潛邸時讀書于此後講武于橫城時駐蹕是寺山之上峰曰毘盧西有文殊寺南有九龍寺)

- ⑪ 州吏 元玄傳·行蘭·元鍾秀와 國學生 安守貞 등 100여인이 西峰으로 내려가서 夾攻함
- ⑫ 曹愼은 복채를 잡고 복을 치며 사기를 돈구다가 화살을 오른쪽 팔에 맞았으나 복소리가 여전하였다. 적의 전봉이 약간 패하자 뒤쪽이 요란해지고 자기네끼리 밟고 굴렀다. 州兵이 합세하여 공격하여 함성이 산악을 울렸다. 10여차례 싸워 都刺閤 등 68인을 斬하고 활로 쏘아 죽인 것이 거의 절반이나 되었다.⁹⁾

이러한 전투의 상황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서기 1290년 정월에 시작된 哈丹의 침입에 대비하여 高麗는 군대를 국경 지대에 배치하고, 10월에는 都城의 婦人과 老弱者를 江華에 이사시키고, 州郡마다 山城과 海島에 入保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이미 몽고와의 항쟁 과정에서 얻은 전략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었다.

原州의 경우에는 이미 高宗 44년(1257) 4월에 安悅 등이 古城에서 叛하자 장군 尹君正과 郎將 權贊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토벌하게 하였고, 尹君正은 興元倉에서 난군을 대파하였고, 安悅을 斬하여 항복하는 사람이 있자 입성하여 巨魁 松庇 敦正 唐老 등 몇 사람을 斬하고 위협에 복종한 사람들을 섬으로 徙置한 바 있었다.¹⁰⁾ 이와 관련된 古城은 아마도 金臺城에 대하여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 설명한 바와 서로 관련된 듯하니, 金臺城에 대한 설명에서 州人 松弼이 이곳에 웅거하여 반란했으므로 州가 一新縣으로 降等되었다는 것이다.¹¹⁾ 이에 대하여는 『大東地志』에서도 기록하고 있으나, 高麗 高宗 46년(1259)이라 하였다.¹²⁾ 이와 같은 오류는 『高麗史』 地理志의 기록을 그대로 轉載한 것으로 여겨진다.¹³⁾ 이러한 것에서 『高麗史』의 古城은

- 9) 『高麗史』 卷 104 列傳 17 元冲甲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元冲甲 原州人 短小精悍 眼有電光 能臨難忘身 以鄉貢進士 隸本州別抄 忠烈時 哈丹賊逾鐵嶺闖入 州縣望風奔潰 莫有當者 賊來屯原州 有五十騎剽掠雄岳城下 冲甲率步卒六人逐之 奪賊馬八匹還 賊都刺閤禿於乃孛蘭等 領兵四百 又至城下 取祿轉米 冲甲與敢死士仲山等七人覬之 仲山先入賊中斬一人 追至荊門外 賊棄鞍馬遁走 防護別監卜奎大喜 悉以所獲馬二十五匹與之 賊復來 多張旗幟 圍城數重 使一人齎書來誘 冲甲突出斬之 繫其書於頭擲之 賊退 多修攻具 城中震懼賊又遣所俘二女來誘 冲甲又斬之 賊鼓譟而進 百計攻之 矢下如雨 城幾陷 興元倉判官曹愼 出城與戰 冲甲急馳上東峯 斬一級 賊稍亂 別將廉伯松等三十餘人助之 州吏元玄傳行蘭元鍾秀 與國學生安守貞等百餘人 下西峯夾攻 愼援桴鼓之 矢貫右肱 鼓音不衰 賊前鋒小北 後者驚擾 自相踰經 州兵合擊 聲振山岳 前後十戰 大敗之 斬都刺閤等六十八人 射殺者幾半 皆冲甲力也 以功轉爲三司右尹 吳祈以譏佞得幸 離間王父子 陷害忠良人皆切齒 畏禍莫有言者 冲甲率五十餘人 極言祈罪惡 執送于元 語在祈傳 忠宣時 拜鷹揚軍上護軍 忠肅六年式目都監 請加褒獎 賜推誠奮勇定亂匡國功臣號 越二年卒 年七十二 子大明大材大器」여기의 吳祈는 列傳 38 姦臣 1의 吳潛이다.
- 10) 『高麗史』 卷 24 世家 24 高宗 3 44年 夏四月 乙亥 「原州賊安悅等據古城叛 遣將軍尹君正 郎將權贊領兵討之 丙子 君正與賊三百餘人戰于興元倉 大敗之 有人斬安悅出降 君正入城 斬其巨魁松庇敦正唐老等數人 脅從者徙置于島」
- 11) 『新增東國輿地勝覽』 卷 46 原州牧 古跡 金臺城 「在州東三十里雄岳山腰 石築周六千六十尺 內有三井 今廢 州人松弼據此城叛 降州爲一新縣」
- 12) 『大東地志』 卷 15 原州 城池 金臺城 「東三十里雄岳之腰 周六千六十尺 井三 高麗高宗四十六年 州人松弼據此城叛 降州爲一新縣」
- 13) 『高麗史』 卷 56 志 第 10 地理 1 楊廣道 原州 「原州本高句麗平原郡 新羅文武王置北原小京 太祖二十三年改今名 顯宗九年爲知州事 高宗四十六年以州人逆命 降爲一新縣 元宗元年 復知州事」라하여 1259년에

곧 金臺城이라 하는 사실이 이 지역에 전해 내려왔다고 여겨진다.

古城은 아마도 몽고의 침입기 이전부터 있어 온 것으로 여겨지며, 元沖甲 등과 관련된 雉岳城과는 구분되는 듯하다. 『高麗史』에서 雉岳城이라 한 것을 鵠原山城이라 보는 것도 이 지역의 주민들이 것처럼 기억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鵠原山城에 대한 朝鮮 王朝 시기의 최초의 기록에는 靈原山石城이라 되어 있으나, 다음에는 鵠原城이라 기록되었다. 鵠原은 그 의미가 특별한 이름이다. 鵠은 척령(鵠鵠)으로서 할미새를 뜻하며, 척령재원(鵠鵠在源)이란 熟語는 “할미새가 있는 곳에서 형제가 급한 일이나 어려운 일을 당하여 서로 돕는 것”을 비유할 때 쓰이는 용어이다. 할미새는 항상 걸어다니면서 꼬리를 부지런히 아래 위로 흔들며 火急한 일을 알리는 것 같은 행동을 하는데서 비롯된 말이다.

金臺城과 鵠原城은 서로 마주 보이는 성이라 여겨진다. 香爐峰의 남서 사면에 있는 金頭山城에서 서쪽으로 흘러내린 영원성에서 건너다 보이는 능선 서쪽에 海美山城이 있다. 海美山城에 대하여는 역대의 지리지에 기록이 없으나, 석축의 산성터가 남아 있다.

영원산성은 壬辰倭亂 때에 다시 싸움이 벌어진 곳이다. 성이 함락되고 金梯甲과 元豪 등은 열심히 성을 지키려 하였으나, 결국 패하였다. 왜군의 제 4번대로 毛利吉成이 이끈 군대가 한성에서 포천·김화·회양·고성·간성·양양·강릉·삼척에 이른 후, 원주로 침입하여 벌어진 싸움이였다. 왜군은 이후 평창·영월·정선을 거쳐 다시 삼척을 지나 울진으로 향하였다. 당시 왜군은 강원도의 전체 고을을 일시 점령한 바였다. 1592년 『輿地圖書』에 의하면 임진왜란의 싸움이 끝나고, 성안에는 山城寺를 두고 僧將을 임명하여 산성을 守護하도록 하였고, 이미 英祖 때에는 성은 무너지고 사찰도 폐지되어 軍器와 軍餉은 州內로 옮겼으며, 다만 산성사의 서쪽 언덕에 壇을 쌓고 가뭄에는 관리를 보내어 여기서 제사를 올려 戰亡한 將士들을 위로하였다고 한다.¹⁴⁾ 그리고 鵠原寺가 치악산의 西麓에 있다고 하였다. 이 영원사는 현재의 영원사와 그 터전 이 크게 달라진 것이 아니다.

이를 통하여 鵠原城은 적어도 高麗 때에는 雉岳城으로 기록되고 조선시기에 이르러 鵠原城으로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壬辰倭亂 이후 山城寺가 성안에 있으면서 僧將이 임명되어 한때 경영되다가 폐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 남은 성벽의 일부는 적어도 17세기 초엽에 수축되어 이루어진 부분도 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의 기록인 『增補文獻備考』와 『大東地志』에서는 鵠原城의 둘레가 1,031步라고 하고 있다.¹⁵⁾ 특히 이 성을 神文王 때인 서기 685년에 축조한 둘레 1,031步의 北原京城과 동일한 城

강등되어 이듬해에 복구된 것이라 하였다.

14) 『輿地圖書』 江原道 原州 寺刹 山城寺 「在鵠原城中 壬辰倭亂牧使金梯甲領兵入據 賊兵猝陷 州軍及避亂人民俱沒 梯甲死之 厥後設置僧將 守護山城矣 城圯寺廢 遂罷僧將 移置軍器餉穀於州內 寺之西岸築壇 天旱則遣官致祭于此 以慰戰亡將士」

15) 『增補文獻備考』 卷 28 輿地考 16 關防 4 城郭 4 「原州鵠原山城 在雉岳山南麓 石築周一千三十一步 內有

으로 보고 있는 『大東地志』의 경우는 주목된다. 만약 이러한 기록을 그대로 믿을 수만 있다면 新羅의 北原京城이 高麗 때에는 雉岳城으로 불리우고 朝鮮 시대에는 鵠原城이라 불린 것이 된다.

그러나 이 鵠原山城 이전의 이른바 古城이 오늘날의 海美山城(金臺城·金臺山城) 혹은 金頭山城(金後山城)이라면, 고려와 그 이전으로 소급될 수 있는 산성은 오히려 海美山城(金臺城·金臺山城) 혹은 金頭山城(金後山城)일 가능성이 보다 크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문헌상의 기록은 고고학적 조사에 의하여 다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3. 鵠原山城의 현황

(1) 城壁 : 體城과 女牆[도면 4·5]

현존하는 영원산성은 해발 970.9m의 북동쪽 정상부에서 서남향한 계곡을 능선으로 감돌아 서남부의 谷部를 에워싸고 있다. 성벽이 가장 낮은 위치를 통과하는 곡부는 해발 약 670m의 높이로서, 最高處와의 높이 차가 무려 300m에 달한다. 성벽의 총 연장은 약 2.4km로 파악되며, 이는 기록의 3,749尺을 布帛尺으로 환산한 길이인 $3,749尺 \times 46.73cm \approx 1,752m$ 와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조선 후기의 기록에서 밝힌 둘레인 1,031步의 경우는 1步를 5尺으로 환산하여 5,155척이 되고, 여기에 포백척을 계산하면 2,408.9m로 되어 현존 둘레와 비슷하게 된다.

성벽은 서남향한 계곡을 에워싸고 있는 능선을 대부분 이용하였다. 전체의 평면은 삼각형에 가까운 불규칙한 부정타원형(不定橢圓形)이며, 북벽과 서벽 그리고 남동벽을 크게 보면 삼각형에 가깝다. 전체의 평면은 부메랑 혹은 사람의 간(肝)의 모양이라고 할 수 있다.

성벽이 능선을 따라 축조되고 굴곡이 심한 능선이 가지 능선으로 회절(回折)하는 위치마다 곡성(曲城)을 마련하여, 성밖으로 작게 계곡을 이루는 곳마다 좌우에 밖으로 돌출한 곡성이 있어서 방어에 가장 유리하도록 축조되었다.

성문은 북쪽 성벽의 가장 낮은 곳을 통과하는 안부(鞍部)의 외면에 치성(雉城)을 동반한 것이 있고, 남쪽 성벽의 곡부 상단에 개구부(開口部)가 남아 있으며, 서남쪽 계곡의 북편으로 통행로가 있고 수문터가 있다. 따라서 성으로의 통행은 당초에 계곡을 이용하여 이루어 졌다고 여겨진다.

동북쪽의 정상부는 동벽과 북벽이 만나는 지점에서 약 100m의 길이로 용도(甬道)가 되어 있다. 이러한 용도는 서남쪽의 암벽 밖으로도 약간의 흔적을 남긴 곳이 있다.

井一泉五, 大東地志 卷 15 江原道 原州 城池 鵠原山城 「在雉岳山之南 新羅神文王築 高麗改築 本朝改築 周一千三十一步 井泉六 四面皆峻險」

성벽은 원칙적으로 내외겸축(內外夾築)의 할석축이며, 성벽의 상단에서는 평여장(平女牆)을 역시 작은 할석으로 석축하고, 안쪽에 가끔 등계(磴階)를 만든 듯한 흔적이 있으나, 대부분 안쪽 성벽의 높이가 낮으므로 성벽으로 오르내리는 별도의 등(磴)은 만들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경사가 가파른 곳에서는 안쪽의 성벽에 계제(階梯)식의 석축을 하므로서 높이 차이가 심한 성벽 위에서의 이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 있다.

성벽은 능선의 바로 외측면 경사를 이용하여 축조되었으므로, 성벽의 내면은 능선 정상부로 바로 이어진다. 북쪽에서는 일부의 구간에서 석축 성벽의 안쪽으로 토루(土壘)의 흔적이 남아 있고, 서쪽 성벽의 남반부는 절반 이상이 천연의 암벽을 이용하고 있다. 천연의 암반을 이용한 곳에서는 일부에서 암반 위에도 형식화된 석축을 한 부분이 있다.

영원산성의 성벽은 甬道 부분·북쪽 성벽·서쪽 성벽·동남쪽 성벽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각의 성벽은

- ① 동남쪽 성벽 : 현재 영원사에서 오르는 등산로로 올라서서 시작하여 성의 동북 모서리까지 가장 길다란 성벽이며, 중간에서 남쪽으로 치우쳐 남문터가 있다.
- ② 甬道 부분 : 성의 가장 높은 부분으로 성 전체의 동북쪽 모서리에서 연결된 부분.
- ③ 북쪽 성벽 : 성의 동북쪽 모서리에서 서북쪽 모서리의 886.1m 봉우리 외곽의 서쪽 성벽이 시작 되는 回折部 까지이며, 서쪽으로 치우쳐 가장 낮은 위치에 북문터가 있다.
- ④ 서쪽 성벽 : 성의 북서 모서리 866.1m 봉우리의 외곽 回折部에서 능선을 타고 내려와 수구를 이룬 곳을 지나, 성의 가장 남쪽 현재의 등산로 까지이며, 암벽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고, 계곡의 물이 빠지는 곳에 수구와 서문이 있었다고 여겨지고 있다.

이들 성벽은 기본적으로 축조 방식에 큰 차이가 없으나, 성벽의 잔존 양상이 다르므로 보다 자세한 설명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위의 구분대로 설명하고 女牆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하겠다.

1) 동남쪽 성벽

영원산성의 동남쪽 성벽은 삼각형의 긴 변과 같이 가장 길어서 총 연장이 900m를 약간 넘는다.

동남쪽 성벽은 해발 700m 정도의 높이에서 시작하여 930m에 가까운 곳까지 산능선의 굴곡을 따라 축조되었으며, 현재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성벽의 윗면이나 성벽 안쪽의 內環道를 따라 등산한다. 성벽의 完存 부분이 가장 많으며, 성 밖의 계곡으로 향하는 위치에 南門의 유구가 남아 있다.

치악골 계곡[사진 1]을 따라 오르다가 길아치 방면에서 흘러 내리는 계곡물과 아들바위 쪽

에서 서쪽으로 흘러온 물이 합류하는 곳에서 길은 나뉜다. 이곳에서 동쪽으로 아들바위 쪽 길이 영원사로 향하는 길이다. 영원사에 이르러서는 아들바위 쪽의 계곡으로 영원산성에서 내려온 작은 계곡의 물이 합류한다. 이 영원사에서 남쪽으로 계곡을 건너 북향하면서 산등성이를 타고 오르는 길이 등산로로 이용되고 있다. 이 길은 가파른 산능선을 타고 오르며, 급기야는 암반이 솟아 단절된 鞍部를 통과한다. 이곳에는 등산객을 위한 철제의 사다리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 사다리를 지나면서 자연 암반이 양쪽에 솟은 石門을 이룬 곳을 통과한다.[사진 3] 이곳을 지나 다시 능선을 올라 가파른 암벽의 계단식 사다리를 올라 성벽에 닿는다.[사진 4]

또 하나의 성벽에 이르는 길은 영원사에서 계속하여 절 뒤로 오르는 길이 있다. 계곡을 따라 오르는 길이며, 군데군데에 험한 암벽이 가로막았다. 급이를 돌고 돌며 올라 수구의 북편, 혹은 남편으로 성내로 진입하여, 남쪽의 절벽으로 올라서게 된다.

성벽은 이 동남벽의 시작점에서 작은 鞍部를 이룬 곳을 지나 가파른 경사를 계단상으로 올라 암반에 다다른다.[사진 4·5·6] 이 암반이 있는 곳에서 성벽은 비교적 가파르지 않고 능선의 외연을 따라 남문터까지 이른다. 이 구간의 성벽은 곳곳이 무너지긴 하였으나, 매우 인상적인 축조 부분들이 대체로 잘 남아 있다.[사진 7~20]

[도면 6 : 단면 #1]은 동남벽의 시작인 등산로에서 동쪽으로 가파르게 올라가 성벽이 다시 북쪽으로 回折하는 부분에서 직각으로 단면을 그린 것이다. 이곳은 전체 동남벽으로 보아서는 남서쪽에서 가장 잘 남은 곳이며, 그림은 전형적인 부분의 성벽 단면을 그린 것이다.[사진 7~9]

성벽은 좁은 산능선의 외연에 내외 접촉된 석축이며, 성벽의 안쪽으로 너비 2m의 內環道가 있다. 이 내환도에서 성의 안쪽으로는 급경사로 절벽을 이룬다.

성벽의 외면은 역시 급한 경사면으로 약 30도의 경사가 2.5m쯤 나가 경사는 더욱 가파르게 되어 있다. 성벽은 산능선 정상부의 외연에 아래 너비 4.5m이며, 안쪽은 7~8층을 1.5~1.8m의 높이로 축조하였다. 외면은 體城과 女牆을 합쳐 18층을 2.6m의 높이로 축조하였다. 이 외면은 아랫 부분에서 위로 오르면서 석재의 크기가 작아진 느낌이며, 성벽의 기울기는 홀(笏)형을 취하고 있다. 안쪽에서는 거의 수평을 이룬 體城의 윗면을 이루고 외연에 맞추어 너비 1.1m이고 높이가 50~60cm의 女牆을 쌓았다. 그리하여 여장 안쪽으로 체성의 윗면으로 다닐 수 있는 城上의 길을 이루고 있다. 이 城上은 여장쪽으로는 작은 석재로 수평되게 덮고, 안쪽 성벽으로는 커다란 성석으로 계단이 봉긋된 모양으로 마무리하므로써 성벽 윗면에 떨어지는 빗물이 밖을 향하여 내려가도록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사진 7·8·9]

[도면 7 : 단면 #2]는 남문의 서측 문구부 측벽에서 서남쪽으로 거의 곧게 100m의 지점 성벽의 단면을 그린 것이다. 이 부분은 능선의 정상부가 좁고 길다란 대지를 이루고 있으며, 건물지로 여겨지는 곳이다. 성의 바깥에 암반이 있으며, 성벽은 이 암반을 이용하여 기초를 만들고 있다. 능선의 외연을 이용한 성벽은 안쪽에서는 낮게 접촉의 모양이 보인다. 성벽의 안쪽은

너비 5.5m의 평탄지로 內環道를 이루며,[사진 11·12] 성 안쪽으로는 급경사를 이룬다. 성벽의 아랫 부분의 너비는 3.6m이고 성벽의 외측 하부에는 암반에서 석재를 보완해 올린 듯한 부분이 있다. 이곳에는 위에서 여장의 일부가 무너져 내린 석재도 덮혀 있다. 성벽은 거의 수직을 이루며, 외면은 여장을 포함하여 12층을 2m의 높이로 축조하였다. [사진 10~14]

내면은 석재가 세워진 것이 있으며 2~3단의 석축 흔적이 관찰된다. 體城의 윗면은 여장 안쪽으로 1~1.1m의 너비는 작은 할석을 촘촘히 깔아 이동로를 만들고, 그 안쪽으로는 계단상으로 만들었다. 여장은 眉石의 구분이 없이 1.3m의 너비로 2~3층 남아, 남은 높이가 70cm에 불과하나, 석재는 오히려 體城을 축조한 것보다도 큰 것을 사용하였다. 여장은 큰 석재의 중심에 작은 할석 조각을 채우고 있으며, 이는 體城의 윗면에서 중심에 작은 석재가 있는 것과 전혀 동일한 방법이다. 이러한 축조 방법은 이 영원산성의 특징적인 석축 방법이며, 전형적인 內外夾築과 外築內托 방식을 혼합한 듯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사진 15·16]

[도면 7 : 단면 #3]은 앞의 [도면 7 : #2]에서 남문쪽으로 10여m 떨어진 곳으로 가장 전형적인 성벽 모습을 보여주는 지점에 대한 단면을 그린 것이다.

능선의 정상에서 성안 쪽으로 약간 내려선 곳에 內環道가 약 1.5m의 너비로 있고, 그 안쪽은 절벽을 이룬다. 성벽은 능선 정상의 외면이고, 성벽 외측 아래로는 기초를 보강하기 위한 부분이 마치 성벽이 붕괴되어 밖에 떨어진 것과 함께 40도 기울기로 있어서 外面 基壇補築처럼 보이고 있다.[사진 17~20]

체성과 여장의 구분을 하는 미석이 없으며, 안쪽 벽면은 지면 위로 3~4단의 대형 할석 축조이고, 높이는 60cm이다. 체성의 윗면은 중앙에 역시 작은 할석을 깔고 있으며, 여장 안쪽의 체성 上面은 너비가 1.5m이다. 체성의 아래 너비는 역시 3m이고, 외면은 여장까지 합친 전체 높이가 3.25m이다. 체성은 80도의 기울기로 축조하여 13층까지 쌓은 다음 경사를 높혀 여장 부분에서는 70~75도의 기울기를 보인다. 여장부분은 체성 상면을 기준으로 아래 너비가 1.1m이고, 높이가 80cm이며, 윗면 너비가 70cm이다. 여장의 윗쪽은 거의 평탄하지만 당초는 더 높았다고 판단된다.

이곳으로부터 남문까지는 5군데가 무너진 양상을 보이지만 비교적 성벽이 잘 남아 있다. 남문터를 지난 성벽은 동쪽으로 내만하면서 가파르게 올라가 갑자기 回折하여 성벽이 북쪽을 향한다. 이 회절부까지는 성벽이 다 무너지고, 회절부를 지나서야 외면 석축이 일부 남아 있다. 이 회절부에는 당초 雉城이나 曲城을 마련하여 남문으로 향하여 오르는 계곡을 控制하였고, 그 곳으로 오르는 능선을 지켰다고 여겨진다.[사진 27·28·29]

회절부를 지난 성벽은 곧장 북쪽을 향하다가[사진 30·31] 다시 한번 내만하면서 동쪽으로 올라가 암반에 의지한 곡성부의 회절처에 이른다.[사진 32] 이 회절처는 해발 약 825m이며, 암반이 있는 곳에서 능선이 남향하는 곳을 회절하는 부분이다. 이곳은 성벽이 비교적 온전히 남

아 있다.

[도면 8 : 단면 #7]은 이 회절부 曲城 부분을 남북으로 자르는 단면을 그린 것이다. 성벽은 능선을 이용하여 그 외연의 자연 암반 사이를 메우거나, 암반 위로 축조되었다. 성벽의 내외는 가파른 경사를 이루고 있고, 성벽은 여장 부분이 구분되면서 주머니 처럼 회절한다.[사진 30 · 31 · 32]

성벽의 내측으로는 석재가 무너진 상태이고, 체성의 평탄면 너비는 약 2m로 내환도처럼 되어 있다. 안쪽에서의 여장은 2~3층만 지표상으로 보이고, 여장 윗면의 너비는 1.5m이다. 성벽의 외면은 암반이 1.5~1.8m의 높이 이고, 이 암반 위로 다시 쌓겨 나온 암반이 있으며, 이것을 기초로하여 27~28층을 2m의 높이로 축조하였다.

[도면 9 : 단면 #8]은 앞의 회절부 曲城에서 암반 지역을 따라 성벽이 비교적 잘 남은 곳의 성벽 단면을 그린 것이다. 이처럼 암반에 의하여 지형이 험한 곳에서의 성벽은 거의 여장만을 시설한 것처럼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內環道는 암반 사이로 좁으며, 성내로도 절벽이다. 성 외로는 커다란 암반을 성벽으로 삼고 그 위에 여장을 쌓았는데 암반은 70도의 경사를 이루고 여장은 78도의 기울기를 가져 체성의 역할과 여장처럼 쌓은 부분이 조화를 이루게 되어 있다.

실제로 쌓은 성벽은 외면에서 높이 1.8m이고, 안쪽을 기준한 윗쪽 부분은 너비 1.4m이고 높이가 90cm이며, 윗 부분의 너비가 1.2m이다. 이 벽체의 외면 아래 암반의 높이가 2m나 된다. [사진 33 · 34]

성벽은 이곳을 지나 다시 능선의 外緣을 따라 크게 彎曲하면서 완만한 경사로 오르다가 급한 경사를 오르면서 방향을 동쪽으로 回折한다.[사진 37] 수평 높이가 약 50m를 가파르게 오르면서 彎曲한 부분을 내려다 보는 회절처에서 성벽은 다시 북쪽을 향하여 정상부로 향한다.

이 부분의 성벽은 경사가 완만한 곳에서는 여장이 없어졌을 정도이나, 경사가 급한 곳에서는 조금씩의 석축 흔적을 보일 뿐 거의 무너졌다. 동남벽의 동북부 마지막 회절처에서 성벽은 다시 잘 남은 부분이 많아진다. [사진 35 · 37]

[도면 10 : 단면 #9]는 이 마지막 회절부의 남북 방향 단면을 그린 것이다.[사진 38] 성벽 안쪽으로는 內環道가 있으나, 이 단면은 남쪽으로 이어지는 능선을 회절한 부분의 남쪽 외벽면에서 성벽 종단면을 나타낸다. 이 회절처도 거대한 암반을 이용하여 성벽을 축조하되 여장의 흔적이 없다. 암반은 약 1.7m의 높이로 75도의 기울기로 절벽을 이루며, 그 윗면에서 쌓은 성벽은 80도의 경사로 7~8층을 70cm의 높이로 축조한 부분만 남아 있다. 이 부분의 잔존 상황으로 보아 당초부터 여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성벽의 윗면과 여장이 붕괴되었다고 여겨진다.[사진 38]

[도면 11 : 단면 #10]은 회절부에서 60m를 북쪽으로 간 지점으로 성벽이 거의 完存된 부분에 대한 단면을 그린 것이다.

능선의 정상에 군데군데 노출된 암반이 있고, 능선의 외연을 따라 성벽이 축조되었다. 성벽

은 아랫 부분의 너비가 2.7m이고, 내면은 4층을 60cm의 높이로 거의 垂直에 가깝게 축조하였고, 외면은 체성과 여장의 구분 없이 1.7m의 높이를 15층으로 쌓되 70~75도의 기울기로 되어 있다. 체성의 윗면은 안쪽에서 1.2m의 너비를 평탄하게 하였는데 역시 여장 쪽으로 작은 할석을 사용하였다. [사진 39·40·41]

여장은 별도의 眉石이 없이 단면이 사다리꼴(梯形)을 이룬다. 아랫부분의 너비는 체성 내측 上面을 기준으로 1.2m이며, 윗면의 너비는 75cm, 높이는 역시 체성 안쪽 윗면을 기준으로 70~75cm를 7층으로 축조하였다.

동남쪽 성벽의 북동쪽으로는 조금씩 능선의 생김새에 따라 굴곡이 있으나, 200m 이상의 길이를 이룬 석축의 성벽은 안쪽으로 內環道를 가지면서 대체로 끝은 성벽이 잘 남아 있다. [사진 42·43·44]

성 전체의 동북단에 있는 석축 시설물에서 동남벽을 따라 110m의 지점에 가장 잘 남은 곳의 단면을 그린 것이 [도면 12 : 단면 #11]이다.

이곳은 성벽의 안쪽으로 너비 3.5m 쯤의 평탄한 능선의 대지가 좁고 길게 있으며, 안쪽으로는 가파른 경사이다. 성벽은 능선 외연에 아래 너비 3m로 축조되었으며, 안쪽은 3~4층을 50cm의 높이로 거의 수직으로 쌓고, 외면은 여장의 구분 없이 1.3m의 높이를 13~14층으로 쌓아 기울기가 78도를 보인다. 체성의 윗면 안쪽 너비는 1.7m 정도이고, 여장은 역시 眉石의 구분이 없이 안쪽 윗면 높이를 기준하여 아래 너비 90cm, 윗면 너비 70cm, 높이 50cm를 5층으로 축조하여 사다리꼴의 단면을 이룬다. 여장은 윗면의 일부가 교란되거나 무너진 흔적이 있으며, 체성의 안쪽 벽면도 교란된 흔적이 있다. [사진 44~48]

[도면 12 : 단면 #12]는 [도면 12 : 단면 #11]에서 북쪽으로 가면서 성벽이 안쪽으로 만곡한 부분의 단면을 그린 것이다. 이 부분은 능선 정상 안쪽으로 內環道가 있고, 능선 외측 사면은 암반이 아니다. 성벽은 아랫 쪽의 너비가 3m이고, 내면의 경우 3층까지는 약간씩 內收하여 축조하고, 그 위로는 현저히 외면 쪽으로 함몰되듯이 기울었다. 외면은 45도 기울기의 경사면 상단에서 거의 85도의 기울기를 보이며, 여장까지 포함하여 16층 1.8m의 높이로 축조하였다. 이 體城의 상단은 안쪽에서 중앙으로 경사지고, 약 90cm너비의 평탄면을 이룬다. 그 바깥으로 眉石이 없이 여장이 있다. 여장은 너비 90cm에 높이는 체성 상면을 기준으로 50cm가 남아 있다. 여장의 단면은 사다리꼴이 아니며, 비교적 큰 할석으로 축조하였다. [사진 49~54]

2) 甬道 부분 [사진 55~62]

이 산성의 가장 높은 위치에 해당하며, 성의 전체로 보면 동북 모서리에서 보다 높은 산봉우리를 이어서 꼬리처럼 된 부분이다. 이 산성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의 하나이다.

甬道는 동남쪽 성벽의 北端과 북쪽 성벽의 東端이 마주치는 모서리에서 시작하여 가장 높

은 970.9m의 정상상을 향하여 약 30m의 높이를 가파르게 올라가, 정상부에 좁고 길다란 대지를 마련하고 있다.

전체의 평면 모양은 'ㄷ'형으로 굽고 있으며, 정상부에서는 너비가 불규칙하나 비교적 좁고 鞍部와 정상으로 오르는 사면 부분은 7~8m의 너비로 넓혀져 만들었다. 특히 정상에서 鞍部로 내려오는 곳은 계단을 만들었던 자취를 보여주고 있다. 이 사면부의 북측 성벽은 무너져 내렸고, 암반이 노출된 부분을 포함하여 만든 석축의 성벽은 윗면에 여장을 만들었던 흔적이 남아 있다.

[도면 13]에서 [도면 15]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성벽의 단면을 그린 것이다.

[도면 13 : 단면 #13]은 북동 모서리의 석축된 방형의 시설물이 있는 부분으로 약 4m의 2~3단으로 할석을 쌓은 방형 축대가 얇게 남아 있고, 그 동쪽으로 거의 평탄하게 석재가 깔려 있다.[사진 57·58·59]

[도면 13 : 단면 #14]는 甬道 부분과 동북 모서리의 연결 부분이며 북쪽 성벽의 東端과 동남쪽 성벽의 北端에서 성벽의 양상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중간에는 이 지점의 石築 方形的 시설물이 북쪽에서 5단 이상의 축대로 축조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방형의 석축은 마치 동남쪽 성벽의 안쪽 처럼 보이나, 이 부분에서 마무리 된 것이어서 별도의 시설물로 판단된다. 동남쪽 성벽은 성벽의 상단에 여장의 아랫 부분이 남아 있고, 성내쪽으로 평탄한 內環道가 여장의 내측 한계선 안쪽으로 약 2m의 너비가 된다. 이 동남쪽 성벽은 외측면이 약 75도의 기울기로 10층을 쌓아 올려 높이가 1.2m가 되며, 그 위에 眉石이 없이 여장을 축조한 모양이다. 이 여장은 아래 부분의 너비가 1m 내외이고, 안쪽에 3층만이 40cm의 높이로 남아 있다.

이 부분의 북쪽 성벽은 가파른 경사면 위에 최대 높이 1.3m가 남아 있다. 성벽은 외측에서 역시 약 75도의 기울기로 9~10층을 축조하고, 성벽 윗면에서 안쪽으로 약 1.3m까지 석축을 확인할 수 있으나, 보다 안쪽으로는 경사가 느슨한 內環道를 이루었다. 그리하여 동남쪽 성벽의 외측면 아래와 북쪽 성벽의 외측면 아래 사이의 거리는 13m를 약간 넘는다. 또한 동남쪽 성벽의 외측면 아래에서 석축 시설물의 기단 아래까지의 거리는 6.5m이고, 여기서 북쪽 성벽의 외측 아래와의 거리도 동일하게 6.5m로 되어 있다.

[도면 14 : 단면 #15]는 鞍部の 가장 잘 보존된 甬道 남측 성벽의 단면을 그린 것이다. 성벽은 2.3m 너비의 기초에서 50cm의 높이로 축조되었고, 그 위에 바깥 성벽면에 이어 축조된 女牆은 역시 眉石이 없이 축조되었다. 그리하여 여장과 체성이 다만 체성 윗면 안쪽의 段에 의하여 구분된다. 외측의 높이는 1.4m이고, 경사도는 80도이며, 女牆 부분은 체성의 윗면에서 80cm를 좁혀 女牆 부분만의 너비가 1.3m이고 높이가 90cm로 쌓아 올렸다. 그리하여 여장은 8층으로 석축되었고, 여장 윗면의 너비는 80~90cm가 된다. 이 부분에서는 북쪽 성벽에서 연장된 성벽은 사면으로 완전히 붕괴되어 있다. 따라서 본디는 일정한 능선의 폭을 두고 좌우로 동일한 구

모의 甬道 城壁을 마련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정상부에 이르는 경사면의 용도에서는 최대의 너비가 10m에 달하였다고 추측된다.[사진 59]

이 좌우의 성벽은 해발 960m의 부분에 이르러 그 너비가 급격히 좁아들면서 정상부로 올라간다.

정상부의 성벽은 한줄기의 내외접축(內外夾築)된 성벽의 양상으로 남아 있다. 가장 높은 부분에서의 성벽의 단면이 [도면 15 : 단면 #16]과 [도면 15 : 단면 #17]이다.

[도면 15 : 단면 #16]은 영원산성의 가장 높은 위치의 甬道에 의해 도달한 곳의 성벽으로 넓은 부분의 단면을 그린 것이다. 한쪽은 비교적 잘 석축이 남아 있고, 다른 한쪽으로는 일부 붕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산의 정상부 능선에서 북쪽과 남쪽으로 경사진 곳에 성벽을 석축해 올린 것으로 기초부의 너비는 5.7m이고 북쪽에서는 12층을 1.2m의 높이로 축조하였고, 반대쪽에서는 12~13층을 축조하였으나 윗쪽으로는 함몰 붕괴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성벽의 윗면은 석재가 일부 노출된 비교적 평탄한 면을 이루고 있고, 기와 조각이 발견되고 있다.

[도면 15 : 단면 #17]은 성벽이 보다 좁게 축조된 부분이다. 기초부의 너비는 3.6m에 불과하고, 성벽은 북쪽에서 8층 1.1m의 높이가 확인된다. 남쪽에서는 역시 7층 1.1m의 높이로 축조하였으나, 기초 위로 오르면서 현저히 內收시키면서 축조하였다.

이 정상부의 성벽은 東北端에 이르러 가파르게 능선을 따라 鞍部로 내려가는 등산로에 의하여 일부의 성벽은 파괴되었으나, 전체적인 모양을 유지하고 있다.[사진 60] 너비가 일정하지 않은 것은 당초 이 산 정상부의 능선 지형이 그러한 것을 그대로 이용한 때문으로 보이며, 이곳에서 가장 展望이 좋다. 향로봉 쪽의 북쪽으로 金頭山城이 멀리 올려다 보이며, 서쪽으로 멀리 金臺山城이 보일 뿐만 아니라 원주 시가지가 서북쪽으로 멀리 보인다.[사진 61·62] 영원산성의 다른 곳에서는 이만한 전망이 없다.

이 부분에 특별히 甬道를 마련하고 성벽을 만든 것은 다른 지역과의 연락에 유리한 곳일 뿐만 아니라, 南台嶺 방면에서 능선을 타고 접근하는 적을 쉽사리 관찰하고 공격할 수 있는 위치 때문이었다고 여겨진다. 만일 적이 이곳을 점거한다면, 적은 아랫쪽으로 공격하게 되므로, 아군은 결정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이곳으로부터는 남동벽을 따라 쉽게 산능선을 따라 내려갈 수도 있으며, 북쪽 성벽을 따라 북문쪽으로도 쉽게 내리닥칠 수가 있다.

3) 북쪽 성벽

북쪽 성벽은 甬道에서 서쪽으로 내려가 북문터에 이르고, 거기서 다시 해발 866.1m의 봉우리로 올라가 回折하여 南向하는 곳까지이다. 북벽의 총 연장은 약 850m나 된다. 여기에다 北門 북측의 치성의 길이까지 합하면 더욱 길다.

북쪽 성벽은 역시 산의 능선 생김새를 따라 성벽이 구불거리도록 되었으나, 능선의 바깥 사

면으로 성벽이 뿔겨 나간 부분이 곧 北門이 마련된 곳이다.

[도면 4]에서 보듯이 동북 모서리에서 능선의 외곽을 따라 내려간 성벽은 솟가마가 있는 곳에 이르러 작은 谷部를 에워싸면서 안쪽으로 彎曲하여, 다시 능선 외곽을 따라 내려간다. 해발 820.1m의 지역에 이르러서 성벽은 능선으로 이어지는 鞍部의 외측으로 뿔겨나가 북문터와 雉城을 만들고, 그 안쪽에 아마도 연못이 있었다고 생각되는 凹地를 포용하였다. 여기서 다시 능선의 外向 사면을 타고 올라 해발 866.1m의 봉우리를 凸形으로 휘감아 돌며, 이곳의 북측에 있는 巖盤 露頭를 이용하여 성벽을 回折시키고 있다.

북쪽 성벽의 대부분은 가장 심하게 붕괴되었다. 외측으로 무너져 내린 성벽을 축조하였던 석재가 성벽 외측 사면으로 붕괴되어 흘러내린 곳이 많다. 뿐만 아니라 솟가마 근처에서는 흘러내린 석재의 외곽에 外環道 모양의 턱을 이룬 부분도 있다. 北門의 동편에서는 성벽이 심히 파괴되어 흔적만 보이는 곳이 있다. 이러한 곳에서는 성벽의 양상이 마치 土壘처럼 보이는 곳이 적지 않다.

성벽의 안쪽으로는 內環道가 있으나, 北門 부근에서는 성벽의 안쪽 능선을 따라 길이 나 있다. 북쪽 성벽의 바깥은 길아치꼴을 향하여 계곡이 서쪽으로 향하며, 이 계곡을 따라 오가는 길이 가장 평탄하게 이 산성으로 진입하는 길이 된다.

[도면 16 : 단면 #18]은 북쪽 성벽의 동북단에서 능선 외연을 따라 내려간 성벽이 솟가마가 있는 부근에 이르러 回折하기 앞서 남아 있는 석축부의 단면을 그린 것이다. 북쪽 성벽 동단에서는 130m 떨어진 지점이다.[사진 63·64] 성벽은 능선의 정상 외연에 上端이 보이며, 밖으로는 경사면 위에 체성과 여장의 구분 없이 중간 부위가 밖으로 뿔겨진 상태로 남아 있다. 이 성벽의 안쪽에 별도의 체성 내면 석축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 상태로만 보면, 벽면의 아래 너비는 2.1m이고, 내면 높이는 60cm, 외면 높이는 2m이다. 윗면의 너비는 90cm로서 다른 지역 성벽의 여장 윗면 너비에 해당된다. 성벽은 안쪽에서 바깥으로 내리 미는 압력을 받아 붕괴되기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압력은 벽체 안쪽의 능선에서 외측을 향하여 작용하는 土壓이 가장 큰 요인이라 여겨지며, 당초 이 부분의 벽체가 내면의 체성을 제대로 만들지 않았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도면 16 : #19]은 북쪽 성벽이 솟가마가 있는 곳에서 만곡한 다음 북문으로 내려가는 구간에서 성벽이 가장 잘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한 단면을 그린 것이다. 이곳은 성안에 해발 866.2m로 표시된 舌狀의 臺地가 있고, 이곳에서 솟가마가 있는 곳에 연결되는 곳으로서 성내와 성밖으로의 경사는 가파르나, 성벽 안쪽의 좌우는 거의 평탄하게 성벽이 지나는 곳이다. 성벽의 안쪽으로는 너비 3m의 內環道가 있고, 그 외연으로 1m의 너비로 석재가 깔려 있으며, 너비 1.2m의 기초에서 안쪽은 1.1m의 높이로 축조하고, 바깥 편은 1.3m의 높이로 축조하여 벽체를 만들었다. 벽의 윗쪽으로 갈수록 내면에서 현저히 좁혔으며, 바깥 편은 아래는 크고 위

로 80도의 경사를 이루도록 축조하였다. 성벽은 35도의 경사를 보이고 있다.[사진 68·69]

북쪽 성벽의 이와 같은 모습은 다른 낮은 부분의 성벽 구조와는 다른 것으로서 일단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면 17 : 단면 #24]는 북쪽 성벽의 서쪽 끝부분의 외면 상태의 단면을 그린 것이다. 이 곳은 해발 866.1m의 북쪽 봉우리에서 서쪽으로, 성벽이 이 봉우리를 동쪽에서 북쪽을 거쳐 서쪽으로 휘감아 돌아 남향하기 직전의 지점이다. 866.1m의 산봉우리 정상은 평탄면을 이룬 건물 지이며, 너비가 7~8m이다. 여기서 경사지게 내려와 너비 4m의 內環道이고,[사진 77] 성벽은 外向의 경사면에 석축한 것이다. 성벽의 아랫 부분의 너비는 알 수 없으나, 석축은 외면에서 높이 1.2m로 8~9층을 축조하되, 아랫 쪽의 돌보다 윗쪽의 돌을 內收시키며 축조하는 계단상으로 되었다. 성벽의 윗면은 너비 90cm를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이 여장이라 여겨진다. 보다 안쪽으로는 토사가 덮혀 있어서 채성의 내면이 있는지의 여부는 지표상의 관찰로는 확인하기 어렵다.[사진 76]

4) 서쪽 성벽

영원산성의 서쪽 성벽은 북쪽의 866.1m 봉우리 서측 回折部에서 시작하여 헬리포트[사진 78]를 지나 암반으로 이루어진 절벽에 이르고, 여기서 다시 南向하여 彎曲한 다음 능선 외곽을 내려가 다시 거대한 암반 절벽부에 이르고, 다시 암반을 따라 彎曲한 성벽은 암반을 타고 가장 낮은 水口까지 내려온다. 水口를 가로지른 후 성벽은 다시 암벽 위로 이어져 현재 등산로로 이용되는 능선 위로 올라선 곳 까지이다. 총 연장은 약 650m이지만 水口의 좌우에 있는 암벽 부분의 험준한 지역이 많고, 수구 북측의 암벽을 올라가 서측으로 이어진 암벽을 따라서도 석축을 한 甬道 모양의 부분이 있어 虎口를 이루도록 된 부분의 길이를 합치면 성벽의 길이는 더 길었음을 알 수 있다. 암벽이 있는 곳을 이용하여 雉城과 曲城의 모양으로 축조된 부분이 4곳이나 있으며, 水口로서 지금 성내의 대부분의 물이 흘러 내려가는 谷口의 북측에 출입 시설로서의 문이 있었다고 여겨진다.

암반 절벽의 부분은 성벽이 잘 남은 곳이 있는가 하면 거의 석재가 흘러 내려가 흔적만 남은 부분이 적지 않다. 암반이 아닌 곳에서는 헬리포트의 남쪽에서 성벽이 거의 본디의 모습대로 남은 곳이 10~20m씩 그대로 보존된 곳도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서쪽 성벽은 동남쪽 성벽에 비하여 높은 위치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서쪽 성벽의 중간부보다 북쪽에서는 동남쪽 성벽 위의 사람이 편히 내려다 보일 정도로 전망이 좋다. 성벽의 바깥 사면은 매우 가파르거나 절벽을 이루고 있으며, 성의 내부도 남쪽으로 가면서 절벽과 가파른 경사를 이루어 매우 험준하다. 서쪽 성벽에서 성안 쪽으로 남향한 사면에는 3개의 작은 골짜기를 형성하고 있으며, 가파르지만 군데군데에 좁은 대지가 있고, 기와나 도기

조각이 발견되고 있어서, 이 남향 사면이 단순한 절벽으로서만 존재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서쪽 성벽의 경우도 성벽의 축조 방법은 다른 지역과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북쪽의 약 150m의 구간은 외면에 약간씩의 석재가 보일 뿐 성벽은 본디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헬리포르트를 중심한 길다란 능선 위의 대지는 건물터로 여겨진다.[사진 79]

[도면 17 : 단면 #25]는 북쪽에서 똑바로 내려온 서쪽 성벽이 첫 번째의 曲城部를 이루는 능선으로 내려가기 전의 곳으로 안쪽에는 능선상의 평탄한 대지가 있어 건물터가 있는 외면이다. 성벽 안쪽의 평탄지 너비는 10m 이상이며, 성벽 안쪽으로 內環道가 있다. 성벽은 외면과 여장처럼 생긴 상면이 드러나 있으며, 외면은 78도의 경사로 16층 1.7m의 높이로 남아 있다. 윗쪽은 너비 1.1m이며, 안쪽으로 3단의 석축이 보인다. 외면을 축조한 석재는 아래에서 위로 오르며 작아지고 있다.[사진 80·81·82]

[도면 18 : 단면 #26]은 능선이 갈라지면서 가지능선을 따라오던 성벽이 갑자기 回折하는 곳의 암반을 이용하여 곡성을 만든 곳에 해당된다. 이곳은 서쪽 성벽을 이룬 주능선에서 서쪽으로 갈라진 작은 가지 능선의 부분으로, 이곳에 있는 암반 노두를 이용하여 주머니 모양으로 성벽을 감아 돌리고 있다. 이 성벽은 암반 위를 돌아 작은 谷部の 상단을 東向하여 가로질러 다시 능선의 외곽 경사면을 따라 내려가기 때문에, 마치 성벽에서 연장된 曲城 혹은 甬道를 만든 것이다. 그리하여 가지능선을 타고 오르는 적을 막고, 관찰하기 용이하며, 좌우의 계곡으로 오르는 적을 공격하기에도 알맞는 시설을 만들고 있다. 남쪽의 만곡한 성벽은 주능선과 가지능선 사이를 虎口로 만들고 있다.

이 곳의 성벽은 주머니 처럼 좁고 길게 굽어져 있다. 성벽의 내부는 경사가 완만하며, 좌우의 성벽은 女牆을 겸한 것으로 마련되었다. 바깥쪽 가지능선 서측면으로 내려가는 성벽은 외면의 기울기를 70도로 쌓다가 중간의 윗쪽에서는 60도의 경사를 이루며, 2층으로 약 2m의 높이로 축조하였다. 석재는 비교적 작고 얇은 것을 사용하였다. 안쪽 면에는 4층 50cm의 높이로 여장 안쪽 벽이 있으며, 그 아래 안쪽으로도 석재가 일부 보인다. 윗면은 외측이 붕괴되었으며, 너비 90cm를 보이고 있다.

동쪽의 성벽은 외면 높이 1m를 11층으로 쌓아 80도의 경사를 이루며, 역시 석재는 얇다. 내면은 65cm의 높이로 윗쪽으로 오를수록 수렴되게 축조하여 윗면의 너비는 80cm이다.[사진 83]

서쪽 성벽은 이 回曲한 부분을 지나 능선을 따라 내려면서 두 번째의 回曲部를 가지는 바, 이 사이에 비교적 평평한 부분을 지나는 성벽이 잘 남은 부분이 있다. 이곳의 단면을 그린 것이 [도면 18 : 단면 #27]이다.

[도면 18 : 단면 #27]은 서쪽 성벽의 거의 중간 쯤에 해당하는 곳으로 이 부근의 성벽은 무너진 부분과 남아 있는 부분이 비슷하게 분포한다. 성벽은 안쪽으로 능선을 따라 내려가는 평탄한 內環道가 6m의 너비를 가지며, 그 외면에 단면이 사다리꼴인 성벽이 있다. 여장의 구분

이 없으며, 외면은 바깥으로 내민 기초석을 두고, 현저히 안쪽으로 들어서 축조하였다.[사진 84] 22~23층을 이룬 성벽은 높이 약 2m를 75도의 경사로 쌓았으며, 내면은 10층으로 1m의 높이로 남아 있다. 윗면은 너비 1m로 약간 교란되어 무너진 상태이다. 이러한 축조 상태는 북쪽 성벽과 서쪽 성벽의 축조 방법이 서로 비슷함을 알려 준다.

이곳을 지나서 성벽은 암반으로 된 구간이 된다. 주능선을 따라 내려간 성벽은 암반에 의하여 갈라진 작은 가지능선에 이르러 또 한 번 回曲하는 부분을 만든 뒤 벼랑으로 내달아 수구에 이른다. 이 回曲部의 외면으로는 한층 떨어진 암반이 역시 虎口를 이루며, 그 외측 암반 절벽을 따라서도 甬道처럼 석축을 하였던 흔적이 남아 있다.[사진 85]

水口를 이룬 곳의 동남쪽으로는 水口部의 협곡을 이룬 암벽 사이를 곧게 막아 쌓은 성벽이 있다. 현재 물이 나가는 남동쪽으로 약 35m의 구간이 비교적 폭이 넓은 성벽으로 되어 있고, 그 성벽의 안쪽과 바깥에 약간의 평탄지가 있다.

[도면 16 : 단면 #18]은 이 수구 남측의 성벽에서 가장 잘 남은 부분의 단면을 그린 것이다. 성벽은 안쪽에서는 토사가 쌓여 벽면이 불확실 하지만 다른 부분으로 보아서는 내외 접촉의 성벽을 이룬 것으로 판단된다. 성벽의 외측으로는 많은 석재가 흘러 내렸고, 기단을 보호한 것처럼 석재가 10여m나 외면으로 흘러 내려 있다. 성벽은 아래가 거대한 석재를 많이 사용하고 위로 오르면서 석재가 작아진 느낌이다. 외면 아래에서 거의 垂直에 가까운 기울기로 7~9층을 2m의 높이로 쌓고, 거기서 현저히 내측으로 좁혀서 60~70도의 기울기로 다시 2m의 높이로 10~12층을 쌓아 올렸다. 윗면에서는 4.5m의 너비이고, 그 외면에 1m의 너비로 女牆을 쌓았던 흔적이 남아 있다.[사진 88·89] 이처럼 벽의 중간에서 段을 이룬 것은 아랫 부분의 성벽이 1차적인 성벽이었다가, 무너진 이후 윗면을 정리하고, 수축을 할 때에 성벽의 너비를 좁혀, 당초의 성벽 잔존부를 기초로하여 축조하였다고 생각되어 진다.

이 부분, 즉 水口가 있는 부분의 성벽이 이와 같이 전체의 성벽 가운데서 가장 튼튼한 성벽을 축조한 것은 당연하다고 여겨진다. 이 위치는 영원산성 전체에서 가장 낮은 위치를 성벽이 통과하며, 계곡의 물길만 따라 오르면 도달 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적과 1차적으로 대적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성내의 계곡물이 빠지는 곳이므로 갑작스런 폭우에 전될 수 있도록 제방을 겸한 튼튼한 성벽이 요구되었다고 여겨진다.

이 곳의 남동쪽은 암반으로 된 절벽이다. 성벽은 이 절벽에 잇대어 가로지르며, 암반 위로도 좁은 성벽을 축조하여 마치 이 암반의 위가 雉城이나 曲城의 구실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 암반 위에서 수구쪽의 성벽 바깥을 향하여는 돌과 기와 조각 등을 던지면 적의 접근이 어렵도록 되어 있다.

(2) 城門과 水口

1) 洞행로와 성내 洞행로

영원산성에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성내의 대부분의 작은 골짜기의 물이 모여서 서남쪽 수구로 排水된다. 이곳에 수구가 있으며, 아마도 문도 있었다고 추측된다. 한편 동남쪽 성벽에 하나의 문터가 자취를 남기고 있고, 북쪽의 성벽에서도 성벽이 능선의 외곽보다 현저히 계곡으로 내려간 곳에 문터의 유구가 남아 있다. 그리하여 오늘날 확인되는 문터는 많지 않다. 다만 성벽이 무너진 곳으로서 현재 등산로로 되어 있는 서쪽 성벽의 남단과 동북 甬道의 끝에서 鞍部로 내려가는 곳은 본디 문터로 여길 수 있는 시설이 남아 있지 않다. 그리고 북벽의 숫가마 부근은 물이 별도의 계곡으로 빠지는 곳이어서 별도의 水口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석축이 무너진 상태라서 확인 할 수 없었다. 또한 북문터의 바로 동쪽에 있는 雉城의 동쪽도 현재 물이 빠지는 곳이고, 성벽이 훼손된 형태여서 排水 시설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또 북문터의 바로 서쪽도 성내의 물이 빠져야 되는 곳으로 역시 배수 시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서쪽 성벽에서도 回曲하는 성벽의 彎曲된 부분은 배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곳에는 소규모의 水口나 暗門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시굴 조사나 발굴 조사 등에 의하여 확인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영원산성의 성문은 성의 내부와 외부를 넘나드는 시설로서 그 위치가 모두 계곡 방향에 있다. 영원산성으로 진입하고자 할 때에는 첫째로 영원사에서 계곡을 따라 수구로 오르는 길, 둘째로 아들바위골로 들어가다가 아들바위 못미처서 북쪽의 계곡을 타고 오르는 길, 셋째로는 길아치골에서 동쪽으로 계곡을 타고 오르다가 남향하여 계곡을 타고 오르는 길의 세 길이 가장 용이하게 성에 접근하는 길이다. 따라서 이 방면에 각기 문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서문은 첫 번째 길에 있으면서 水口와 함께 가장 편리한 통로였다고 여겨진다. 남문은 두 번째 길에 있으면서 아들바위골쪽과 통하며, 북문은 세 번째 길에 있으면서 길아치골과 통하는 문이었다고 여겨진다.

성문은 한쪽에서 들어와 다른 쪽으로 향하면서, 성내의 주요 통행로를 서로 연결하였다고 여겨진다. 이 경우 서문에서 계곡을 계속 거슬러 올라 성내의 중앙에 이르러, 남문으로 가기도 하고, 북문으로가기도 하는 길이 가장 평탄하다. 이 길은 북문에서 남문으로 통하는 길과 이어지며, 성내 중앙에서 북서쪽 866.1m의 봉우리로 통하는 길과도 이어진다. 성내 통행로는 성을 한바퀴 도는 內環道가 서쪽 성벽의 남부 바위 절벽에서는 끊어진다. 이곳에서는 성벽 안쪽의 좁고 가파른 계곡을 따라 통행이 가능하다.

성내의 진입을 북문에서 하는 경우는 동쪽과 서쪽, 그리고 성내 중앙과 남문 및 서문으로 가장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 이 경우는 말을 타고 달려서도 가능하다. 이 성의 동문으로 진입

할 경우는 먼저 진입이 가장 어려운 가파른 계곡이고, 서문쪽과 성내 중앙으로의 길은 좋으나, 서쪽 성벽과 북쪽 성벽 및 동남쪽 성벽의 윗쪽으로의 길은 역시 가파르다. 성의 서쪽 통로를 통하여 진입할 경우 계곡을 따라 오르기 때문에 상류쪽으로는 계속 경사를 올라야 된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그리고 성문에 부대된 시설로 보아 이 성을 지키는데 가장 신경을 쓴 곳은 북문이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북문은 치악골을 올라와 길아치골을 지나서야 들어올 수 있는 서북쪽의 우회하는 가장 거리가 먼 통행로였다.

2) 南門

영원산성의 남문은 동남쪽 성벽의 해발 760m 쯤의 彎曲하여 들어간 곳에 있다. 현재 영원사에서 등산로를 따라 올라 줄곧 동남쪽 성벽을 따라가면 평탄부를 지나면서 이 남문터가 있고, 이곳을 지나면서는 성벽이 동쪽으로 휘어지면서 급경사로 오르게 된다.

남문은 바깥으로 급경사를 이룬 계곡을 향하고 있다.[사진 21] 문의 開口部는 비교적 뚜렷하게 흔적을 남기고 있다. 개구부의 좌우는 특히 측벽을 넓게 축조하여 성의 안쪽에서 보면 안쪽으로 門道의 양쪽에 보다 넓혀서 석축으로 되어 있는 門墩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즉, 남문을 중심하여 그 좌우의 성벽은 다른 곳에 비하여 차츰 벽체를 넓게 축조하였고, 開口部の 좌우에는 長方形으로 보다 성의 안쪽까지 側壁을 구성하고 있다.[도면 22][사진 25·26]

남문의 開口部 외측에서는 성벽의 아래에 별도의 벽체로 마치 補築을 만든 듯하다. 이 부분은 그 흔적이 약 16m의 길이까지 남아 있다. 성벽 아래에서 외측으로 1.2~1.5m의 범위에 걸쳐 기단을 보호한 것처럼 되어 있다. [도면 23 : 단면 #6]과 같이 성벽의 외측으로 1.7m의 너비에서 시작하여 1.4m의 높이를 4~5층으로 쌓아 70도의 경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 윗면의 너비가 1.2~1.3m로 되어 있다. 성벽은 이러한 외측의 보축 안쪽에 너비 3.6~3.7m로 축조하되 위로 오르면서 좁혀 사다리꼴 단면을 이루며, 女牆의 구분은 안쪽에서만 이루어졌다. 여장의 너비는 이처럼 補築이 있는 곳에서 더욱 넓혀졌다. 그리하여 여장 윗면의 너비가 1.5~1.6m에 달한다. 이 여장의 부분이 開口部の 측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長方形의 開口部 측벽을 만들었다. 이 부분은 남서측의 것이 너비가 3.2m이고 길이는 개구부 측벽의 길이와 같이 아래에서 5m이고 위에서 4.5m이다. 동북쪽의 것은 경사를 오르면서 붕괴되어 크기가 분명하지 않으나, 길이는 비슷하나, 너비는 5m 이상이었다고 여겨진다. [도면 23 : 단면 #4]는 남문의 개구부 횡단면을 그린 것이다. 개구부는 너비가 1.9m이며 양쪽의 측벽은 2~4층을 쌓은 것이 남아 있다.

[도면 23 : 단면 #5]는 개구부의 종단면으로 성안으로 약 5m의 평탄지가 있고, 성밖으로는 경사를 이룬다. 문의 통행로에는 계단을 만들었다고 여겨지는 섬돌이 박혀 있고, 그 바깥으로 보충된 부분이 있다.

이 남문은 문박이 절벽과 같은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甕城이나 별도의 雉城을 만들

공간이 없다. 때문에 문밖에 좁은 범위를 補築하여 길로 이용하였다고 여겨진다. 이 補築된 길은 문밖의 좌우로 통하므로, 일단 남문으로 들어서기 위하여는 이 좁은 보축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 이 경우 몸은 문의 좌우에 있는 성벽 바로 아래에 드러나게 되며, 따라서 적이 이곳으로 접근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게 배려된 것이었다고 여겨진다.

이 남문에는 현재 문화재 안내판이 세워져 있고, 문터의 안쪽 북편의 경사면으로 올라서는 지점에 돌쩌귀 하나가 남아 있다. 구멍이 난 돌쩌귀는 가로와 세로가 46cm이며, 두께가 19cm 크기의 화강석 중앙에 직경 13~14cm의 圓孔이 깊이 16cm로 'U'자 모양으로 파여진 것인데, 밑이 깨어져 구멍이 나 있다.[도면 24, 사진 23] 이 돌쩌귀가 문에 사용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남문의 開口部 좌우를 성벽을 넓게 축조한 것은 이곳의 중요성과 함께, 아마도 門樓가 건축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규모로 보아 정면 3칸, 측면 2칸(30cm×7척)의 건물이거나, 정면 3칸에 측면 1칸의 건물이 충분히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이 남문을 들어서면 성벽을 따라 위로 올라가는 길과, 성벽을 따라 내려가는 길, 그리고 성안으로 경사면을 돌아 북문에 통하는 길이 있다. 북문으로 향하는 길로 들어서면 좁지만 평탄한 곳에 솟가마 하나가 모습을 남기고 있다.[사진 22]

3) 北門 [사진 70·71]

영원산성의 북문은 성의 북쪽 봉우리인 866.1m 고지에서 동쪽으로 내려가 鞍部를 이룬 곳의 외측 사면에 있다. 문의 안쪽에 있는 鞍部는 북쪽 성벽의 가장 낮은 곳으로 북문을 들어와 이 안부를 넘어서면 서남향으로 다시 계곡을 이룬다. 이 鞍部는 해발 820.1m이며, 여기서 북쪽으로 계곡을 이룬다. 문은 이 계곡의 상단을 감아 도는 성벽이 외측으로 경사가 심하지 않은 곳에 위치하여 開口部가 서쪽을 향하여 만들어 졌다. 이 개구부의 북쪽으로는 雉城이 있으며, 치성의 동쪽으로는 성벽이 단절된 排水處가 되어 있다.[도면 20]

북문은 내측 서편으로 타원형의 평탄지가 있다. 이 부분은 동서 방향으로 길이 약 25m이고 너비가 약 15m의 범위가 낮게 되어 있어서, 건물지 혹은 연못이 있었다고 여겨진다.

문은 開口部가 일부 남아 있다. 開口部는 너비가 약 2.5m이며, 開口部の 서쪽 側壁은 1.4m의 높이로 7층의 석축이 남아 있다.[사진 71] 그러나 동측으로는 거의 무너지고, 겨우 2층의 側壁 흔적이 있을 뿐이다.[도면 21 : 단면 #23]

開口部の 외측으로는 겨우 하나의 開口 外側 先端의 石築 흔적이 있다. [도면 21 : 단면 #22]에서 보듯이 성의 안쪽에서 바깥으로 낮은 경사를 이루며, 외측 선단을 지나서는 약 30도의 경사를 이루며 낮아진다.

開口部の 서측 側壁은 커다란 석재로 축조하였으며, 성안쪽으로는 안쪽의 벽면이 보이지 않

는다. 외측으로는 기초에서 위로 오르면서 內收시켜서 성벽을 축조한 부분이 彎曲되어 일부 남아 있다.

開口部の 동측으로는 성벽이 무너졌으나, 약 9m를 나가서부터는 雉城이 있다. 雉城은 開口部 서측 측벽을 기준으로 23m의 거리까지 길다란 모양이며, 그 동측 벽은 무너졌으나, 암반 위로 축조한 雉城은 완전한 모습을 복원할 수 있을 만큼 잘 남은 부분이 있다.

북문은 길아치 방면에서 들어와 성벽 안쪽의 內環道를 따라 동북쪽의 甬道 쪽과 북서쪽의 고지로 갈 수 있으며, 곧바로 문터 내측의 鞍部로 올라서서 사방으로 통한다. 문의 바깥은 가장 경사가 완만하며, 문의 동측에 있는 雉城이 불쑥 튀어나가 문 밖의 좌우에 彎曲되어 들어온 곳을 控制할 수 있도록 배려된 형식을 취하고 있다. 현재는 성내로부터 토사가 문의 開口部 바깥으로 많이 흘러내린 흔적이 있으나, 당초의 북문은 서쪽으로 작은 배수구를 동반하여 계곡 방향으로 곧장通行할 수 있는 곳에 시설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水口와 西門[도면 25]

영원산성은 전체적으로 보아 동북에서 남서쪽으로의 직선 길이가 약 700m이고, 서북에서 남동으로의 너비가 약 350m가 되는 거의 삼각형에 가까우므로, 성내의 면적은 약 130,000㎡ 이상에 달하여 거의 40,000평 이상이나 된다. 이곳은 남서쪽으로 계곡을 이루어 성내 대부분의 물이 배수 된다. 따라서 서남쪽의 계곡은 성내에 집중적인 비가 올 경우 많은 물이 한꺼번에 내려가게 된다.

성안의 물은 계곡 상류에서는 중앙부로 모여서 약간의 굴곡을 이루며 서남향 하며, 항상 흐르는 물의 양은 많지 않다. 그러나 당초 이 성의 축조에서는 집중적인 豪雨에 대비하여 수문을 만들지 않으면 아니되었다고 여겨진다. 더구나 성내에 거주민이 있어서, 성내에 임야가 적어지고, 밭이 있었다면, 土砂의 유출은 보다 많았을 것이다. 지금은 성내에 수목이 울창하고 낙엽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사태가 날 염려는 그만큼 줄었다고 할 수 있다.

水口 근처는 남북으로 커다란 바위 절벽이 있다. 이 바위 절벽 사이는 직선 거리가 약 40m이다. 바위 절벽 사이는 당초 山城이 築造되기 이전에 이미 수구로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협곡이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협곡은 수구에서 성을 나가 서남향하여 내려가면서 여러 곳에 양쪽이 바위 절벽이어서 기어오르지 못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가장 유리한 곳을 택하여 수구에 삼았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수구는 遺構를 남기지 않고 있다. 다만 수구의 좌우는 거대한 석재가 많고, 물이 항상 흐르는 곳에서 바깥으로는 급경사로 물이 내려가는데, 이곳에 좁고 깊은 물골이 나 있다.[사진 86·87] 이 물골은 수량이 적을 때에도 물이 내려가며, 자연 암반을 이용하여 비교적 큰 할석으로 너비 60cm의 크기로 축조한 곳이 있다. 이 곳의 안쪽으로는 너비가 4~5m에 이르도록 큰

돌 사이에 작은 할석이 박혀 그 안쪽에 물이 고이도록 되어 있다. 이 곳은 마치 제방이 무너지고 남은 두둑을 형성하고 있고, 좌우로 수로를 따라 축조된 성벽은 북측에서 약 40m나 이어져 있고, 물의 흐름과 같은 방향이다. 남측으로도 약 20m에 걸쳐 석축의 흔적이 있으나 많이 붕괴된 모습이다. 두 석축 사이의 너비는 8~9m에 달하며, 안쪽으로는 보다 좁다.

수구 부분의 안쪽으로는 석축이 좁게 된 곳이 있으며, 성내의 물길은 대체로 이러한 석벽을 좌우로하여 흘러내리고 있다.

수구의 남측으로는 약 30m의 구간이 성벽으로 되어 있다. 이 부분의 안쪽은 약간의 평탄지가 있고, 솟가마가 하나 남아 있다.

수구의 북측으로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성벽이 가로지르는 방향과 직교하여 물이 흐르는 방향을 따라 석축이 되어 있고, 이 석축부의 북측에 거대한 암반이 있다. 이 암반의 위에서 성벽은 이어져 계속하여 암반을 타고 올라가며 축조되었다.

이처럼 암반 아래로 나 있는 석축에 의한 길은 밖을 향하여 경사져 있다. 이 길은 지금은 이용되지 않는 길이지만 너비가 2m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통행로로 이용되었다고 여겨진다. 석재가 흘러 내렸으나, 계단식으로 되었던 흔적이 있다. 이 길을 통과하는 경우 북측의 바위 위로부터 控制되며, 물길을 따라 올라와 이곳에 이르면 좌우로 바위 절벽이어서 기어오르기 어렵게 되어 있다. 이 길이 최근의 산림 벌채를 위한 길이 아님은 이 아래로 도저히 차가 오르지 못하는 협곡이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하겠다.

(3) 雉城과 曲城

영원산성에는 雉城과 曲城의 형태를 취한 성벽의 부분이 여러 곳이 있다. 이들 모두는 성벽이 통과하는 지점의 지형이 급히 回曲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지점이거나, 성벽의 통과 지점이 외향으로 뺀 곳에 축조되었고, 모두가 암반의 절벽을 적절히 이용하여 만들어 졌다.

영원산성의 성벽은 너비가 좁고, 체성과 여장의 구분이 외면에서는 불가능하며, 내면에서만 확인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雉城과 曲城의 경우도 마치 甬道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성벽의 회곡처가 아닌 곳에 만들어진 것으로는 북문에 있는 치성이 있다. 북문은 開口部가 西向하였는데, 성안에서 보아 오른쪽의 측벽에서 곧장 북쪽으로 이어져 내민 치성이 있다. 이 치성의 평면 형태는 마치 男根을 연상케 하며, 거대한 암반을 이용하여 암반 위에 좁고 길다랗게 축조하였다.[도면 20]

이 치성은 길이가 17m이며, 외면의 석축은 비교적 잘 남아 있다. 여장이 돌아가고 있는 모습은 다른 곳에서의 성벽 모습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이 치성은 당초의 성벽 축조시에 동시에 축조된 것이며, 문을 만들면서 의식적으로 만들었다고 여겨진다. 치성의 全面은 북향하였으며, 좌우로 도는 성벽이 둥글게 돌아가므로 曲城의 형태로 되어 있다. 全面으로의 단면을 그린 것

이 [도면 26 : 단면 #20]인데, 외측의 암반 위에서 2m를 물려서 높이 2.7m를 20~22층으로 축조하였다. 성벽은 70도 이상의 경사를 이루며, 윗면에 너비 1.5m의 여장 흔적이 있다. 여장은 다 무너지고 아랫 부분의 일부만 있다.[사진 72·73]

[도면 26 : 단면 #21]은 이 치성의 거의 先端 부분의 성벽 동서 방향의 단면을 그린 것이다. 양쪽의 외면은 거의 같은 높이까지 축조되고, 중앙에 甬道 모양의 길을 두고 양쪽으로 1.5~1.6m 너비의 여장을 두른 것이다. 성벽은 70도 경사로 2.5~2.8m의 높이까지 남아 있다.

(4) 建物址

영원산성은 대부분의 성벽이 암반으로 된 등성의 外緣을 따라 축조되고, 성내의 지형이 가파르지만 곳곳에 평탄한 대지가 있어서 건물지가 많은 편이다. 건물지는 주초가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것은 두세 곳에 불과하며, 석축의 기단이 있는 곳은 한 곳에 불과하다. 그러나 요소 요소에 평탄면이 있거나 돌로 축조한 축대, 혹은 표면으로 보아 층단을 이룬 평탄지 등이 많다.

영원산성 내부에 건물이 있었다는 것은 기록상으로도 확인된다. 즉 『世宗實錄』 地理志에서는 9間 규모의 倉이 있다고 한 것이고, 『輿地圖書』에서는 山城寺에 대하여 壬辰倭亂 이후에 僧將을 두고 산성을 守護하였다가 성이 무너지고 사찰이 폐지되자 드디어 승장을 혁파하고 軍器와 餉穀을 州內로 옮겼으며, 사찰의 西岸에 壇을 쌓아 가뭄 때에는 관리를 보내어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므로서 戰亡한 將士들을 위로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 산성 안에는 세종 때에는 분명히 9間 규모의 倉이 경영되었고, 이후 임진왜란 뒤에는 山城寺라는 사찰을 두고 僧將을 두었으며, 軍器와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가 운영되었다가 이들은 옮겨지고, 여지도서가 편찬된 英祖 때에는 산성의 경영이 거의 폐지되고 다만 사찰 西岸에 단이 있어서 祈雨祭를 지내거나 전몰한 장사들에 대한 慰靈壇의 역할을 하였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산성 안에는 많은 건물터가 있으나, 어떤 건물터가 어떠한 용도의 것이었는지 알 수가 없다. 규모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건물터는 평탄한 대지로 된 곳과 석축의 축대로 된 곳, 그리고 주초라고 여겨지는 석재가 있는 대지 등이 있다.

성내의 중앙부는 매우 넓고 층단을 이룬 평탄 대지가 남향하여 있다. 최대 규모의 건물들이 있었던 곳으로 여겨지며, 여러 가지 기와 조각이 간혹 지표에서 발견된다. 이 중앙부의 건물지를 중심으로 그 서쪽의 남향한 능선 위로도 평탄지가 마련되어 있다. 약간씩의 축대를 동반한 이 건물터들이 아마도 고려 시대 이래 가장 중요한 건물들이 자리잡고 있었던 곳으로 여겨지며, 조선 후기의 사찰과 기우단도 이곳과 서쪽의 능선 위에 걸쳐 있었다고 여겨진다.

동쪽의 가장 높은 곳과 서쪽의 가장 높은 곳에도 건물이 있었다고 여겨진다. 동쪽의 경우는 석축이 이중으로 된 유구의 일부가 남아 있다.[도면 13], [도면 27]

동남쪽 성벽의 북단이면서 북쪽 성벽의 동단에 이르러 성의 동북으로 이어지는甬道와 합쳐지는 곳에 삼각형의 대지가 있고, 암반이 약간 드러난 곳을 이용하여 동남벽에 거의 치우쳐서 장방형으로 할석을 축조한 것이 그것이다. 암반을 이용한 석축은 약 7m 사방의 정방형 석축 위에 동으로 치우쳐 방향을 달리한 남북 5m, 동서 4m의 장방형 축대가 위에 있다. 이는 언뜻 보아서는 하나의 돌무더기 같이 보이지만 서로 방향이 다른 上下의 두 석축으로 되어 있다. 아래의 것을 1차적인 건물지로 보면, 위의 장방형은 2차적인 것이 되며, 2차의 축대는 정확히 남북 방향으로 길게 되어 있다. 이 건물지가 무슨 용도의 것이었는지는 지표조사로서는 밝힐 수 없다.

건물지의 집중적인 분포지는 앞의 성내 중앙부 이외에 서쪽 성벽의 북쪽 구역 성내측이다. 성의 북쪽 봉우리인 866.1m의 고지 정상에 직경 7~8m의 부분이 있고, 여기에 둥근 주초가 드러난 것이 있으므로 이 봉우리 위에 건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남향 및 동남향으로 능선을 따라 평탄지가 조성되어 있고, 헬리포트가 마련된 곳과 같이 길이가 약 40m, 너비가 약 20m나 되는 곳도 있다. 그 남쪽으로도 약간의 층단을 이루어 경사가 완만한 대지가 있으며, 능선을 따라 내려가면서는 불과 4~5m의 평탄 대지가 군데군데 남아 있다.

서쪽 성벽의 능선에서 성안의 남향 내지 동남향한 곳으로는 두 개의 가지능선이 있으며, 이 가지능선의 윗쪽에도 평탄지가 있다. 또한 이 가지능선 사이의 가파른 경사를 이루는 계곡에도 석축을 하여 만들었던 작은 규모의 평탄지들이 있다.

서쪽 성벽을 따라 북에서 남으로 내려가면서 간헐적으로 남은 평탄 대지가 있는 것처럼, 동남쪽 성벽을 따라서도 작은 규모의 평탄 대지가 마련된 곳이 있다. 성내로 뻗은 작은 가지능선의 윗쪽과 이러한 평탄지들은 거의 작은 규모의 시설물들이 배치되었던 건물터들로 여겨진다.

水口의 안쪽에는 성벽과 숲가마 사이와, 그 반대편인 서쪽 기슭에 석축의 축대를 동반한 건물터가 있고, 보다 윗쪽으로 암반 사이마다 기와조각이 흩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성내는 언뜻 보아 매우 험준한 암반과 절벽과 가파른 경사면이지만 이들을 교묘히 이용하고 피하면서 요소마다 건물이 들어서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 井泉과 기타 시설

『世宗實錄』地理志에서는 靈原山石城에 샘이 두 개가 있어서 사철 마르지 않는다고 하였고 이후 『新增東國輿地勝覽』 이후의 지리지들은 우물(井) 하나와 샘(泉)이 다섯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현재의 영원산성 내부의 水源이 시기가 지남에 따라 다르게 파악되었음을 알려준다.

현재 이 산성에는 동북쪽에서 서남쪽으로 작은 계곡을 이루어 성내의 빗물이 계곡을 따라 서남쪽 수구로 흘러내려 간다. 이것을 渠라 하지 않고 다만 우물이나 샘을 언급한 것은 이 渠

가 성내에 여러 시설이 있었을 당시에는 飲用水로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성내에 있었다는 우물은 성내 북쪽에 있는 대단위 건물지로 여겨지는 곳에 우물터의 흔적으로 여겨지는 곳이 있으나 거의 매워져 있고, 또 샘이 있다는 것은 어디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다만 북문의 안쪽인 작은 계곡에는 갈대가 우거진 반달모양의 低地가 있고, 이곳이 옛날 연못이 있었던 자리라고 주민들이 말하고 있음을 보아 적어도 우물이나 샘으로 파악된 것의 하나로 여겨진다.

다음으로는 북쪽 성벽 솟가마가 있는 곳으로서,[사진 65] 이곳도 작은 계곡의 상단부가 되며, 반달 모양의 濕地로 된 가운데에 솟가마가 자리하고 있어서 우물 혹은 샘의 자리로 추측할 수 있다. 이밖에 성내의 계곡 곳곳에는 움푹 파여진 곳들이 많이 있다. 다만 지금은 土砂가 덮히고 수목이 우거진 상태라서 구분하기가 힘들다.

이밖에 현재 성안에 남아 있는 뚜렷한 유구는 세곳에서 확인된 솟가마이다. 솟가마는 水口의 안쪽과 남문의 안쪽, 그리고 북쪽 성벽의 동쪽 回曲한 곳의 彎曲部 안쪽에 남아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뚜렷한 모습을 남긴 것이 북쪽 성벽 동쪽 彎曲部 안쪽의 것이다. 이곳은 능선의 외연을 따라 성벽이 갑자기 回曲하여 彎曲한 곳으로, 작은 골짜기의 상단을 성벽이 돌아가고 있다. 성벽은 솟가마 앞쪽이 심히 붕괴되어 좌우의 성벽이 연결된 것인지 혹은 작은 水口나 문터가 있었을 곳으로 추정되며, 성벽 안쪽은 평탄하게 반달 모양의 대지이다. 이곳의 솟가마는 처음 우물이나 저수지터로 오인할 만큼 부근이 凹地처럼 되었고, 더구나 물이 많은 곳에서 자라는 풀들과 버드나무까지 있었다. 자세히 보면 이것이 솟가마임을 알 수 있으니, 불을 때는 火口와 그 뒤쪽에 작은 굴뚝 시설이 있기 때문이다.

[도면 28]은 이 솟가마의 평면을 그린 것이고, [도면 29]는 이 솟가마의 단면을 나타낸 그림이다.[사진 66·67]

이 솟가마는 둥근 燒成室을 할석으로 축조하고, 그 앞쪽(지형에 따라 서쪽)에 역시 석축한 사다리꼴의 불때는 아궁이 시설이 있다. 이 아궁이 시설과 소성실 사이는 좁게 만들고 위에 큰 장대석 모양의 할석을 얹어 놓았다. 소성실은 직경이 3m이나 똑바른 圓은 아니다. 석축으로 5~6층을 70cm의 높이로 축조한 부분이 윗쪽에 보인다. 그 앞으로 너비가 60~70cm크기의 開口部를 두고 그 위에 장대석을 올려 놓았으며, 이 開口部の 앞쪽으로 약 2m의 길이까지 앞쪽의 넓은 곳의 너비가 1.2m가 되도록 아궁이 시설을 역시 4~6층 할석으로 축조하였다. 아궁이의 前面은 좌우로 雉城모양의 석축을 하였다. 쌓은 방법은 아랫쪽에서 둥글게 터를 잡아 위에서는 방대형으로 만들고 있다. 이 솟가마 유구의 언저리의 전체 크기는 남북 6m, 동서 5m의 규모이다.

나머지 두곳의 솟가마도 동일한 형식의 것에 속하나, 완형을 유지하지는 못하고 있다.

4. 鵠願寺 및 주변 유적

영원산성으로 오르는 계곡에 鵠願寺라는 사찰이 있다. 이 사찰은 금대리 1388번지로 영원산성의 남서쪽으로 치악골에서 길아치골과 나뉘는 골짜기인 아들바위골로 들어서서 계곡을 따라 오르다가 영원산성에서 내려오는 작은 계곡으로 올라선 왼편에 자리잡고 있다. 터전은 계단식으로 되어 있으며, 일부는 석축으로 쌓은 축대를 마련하고 있으며, 가파른 산비탈에 마련되었다. [사진 90] 현재는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倭式 기와를 덮은 팔작지붕으로 된 대웅전과 정면 3칸 측면 2칸의 골기와 팔작지붕의 山神閣의 건물, [사진 91] 그리고 현대식으로 지은 요사채 및 신축중인 건물로 어수선하며,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대지까지 1964년에 住持 金秉俊에 의하여 인공으로 조성된 부분이 많다.

이 영원사의 본 건물 좌측 처마 아래에 鵠願寺重修記가 편액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新羅文武王 在位15年 丙子(676)년에 義湘 祖師가 창건하였고, 康熙 4年 甲辰(1664)년 즉 顯宗 5년에 化主 比丘尼 印環이 중수하고, 1939년에 住持 李桂湖가 새로 창건하였다. 이 중수기는 化主 林東熙가 지은 것이며, 이어서 林基英의 重修韻이 있다. 이 글에는 [名高斯刹鶴城東 瑞日光昭釋氏風 雉岳山跨青嶂裡 鵠原寺入白雲中] 云云하는 글귀가 있어서 鵠願寺를 鵠原寺로 표기하고 있다.

이 사찰에 남아 있는 오래된 유구는 불명이지만, 뜰에 텅구는 기와 조각은 고려 후기 이래의 것들이 있으며, 연꽃 무늬가 조각된 석물 조각이 있다. [도면 30]은 이 석물을 그린 것이다. 길이 40cm, 너비 32cm, 두께 12cm의 화강암으로 되어 있으며, 본디는 4매 이상의 것이 깨어져 한쪽 파편만 남은 것이다. 중앙에 각을 이룬 깊이 4cm, 한쪽 변의 길이 7cm의 구멍을 파고 주변에 경사를 주어 蓮瓣을 겹으로 조각하였다. 蓮瓣은 조각 수법이 정교한 편에 속하나, 수법은 고대의 것으로는 보기 힘들다. 이것은 碑石의 座臺나 혹은 佛像의 座臺, 또는 塔의 部材로 여겨지며, 현존의 사찰 이전에 파괴를 입은 것으로 여겨지므로 적어도 임진왜란 이전의 것으로 여겨진다. [사진 92]

金垆里 3구 171~172번지의 원동(院洞)마을에 있는 절터는 1991년에 조사되었다. 이 절터는 고려 시대의 것인 [太平丁卯四月日四天□□]라 새긴 銘文 기와와 [□天王寺金堂]이라 새긴 명문 기와가 나와서 고려 顯宗 18년인 1027년에 창건되거나 蓋瓦의 繡瓦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찰은 다른 문헌 기록에도 없는 것으로서 이 부근이 불교문화의 유적이 집중되어 있었음을 알려준다.

영원산성의 남쪽으로 加里破 고개를 넘으면 神林面의 신림리가 된다. 이곳은 조선시대에 驛이 있던 곳이며, 이 신림리의 북쪽에 치악산의 남록에 해당되는 城南里가 있다. 성남리의 윗성남 북서쪽에 절골이 있는데 이곳이 石南寺의 터전이다. 이 절터에서는 [石南□] [□□] [□大平□南寺] 등의 명문이 있는 기와가 발견되어 본디 이 마을은 石南이 城南으로 기록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石南寺는 豪族의 시기 弓裔와 관련된 곳이다. 궁예는 처음 竹州의 호족인 箕萱에게 투신하였다가 신임을 받지 못하자 元會·申煊과 모의하고 北原(原州)의 호족인 梁吉에게 投托하였다. 양길의 부하인 궁예는 雉岳山 石南寺에 있으면서 酒泉 등의 고을을 점령하였다. 이 궁예의 근거지인 석남사는 조선 후기 까지 6間의 사찰로 있었던 기록이 있으며, 기와의 명문은 궁예의 시기에서 100여년 뒤의 1021~1030년 사이의 년호를 보여주고 있다.

石南寺에서 더욱 올라가 성남 2리 781번지에는 上院寺가 있다. 이 사찰은 新羅 文武王 때에 義湘이 창건하였다고도 하고, 新羅 말기 敬順王 때에 王師였던 無着 大師가 창건하였다고도 한다.

이 上院寺는 無着 禪師와 함께 雉岳山의 산 이름이 생겨난 緣起 說話가 전해오는 곳이다. 즉, 無着 禪師가 修道하던 중에 큰 구렁이 뱀에게 잡혀 먹히게 된 꿩(雉)을 구해주었더니, 한밤중에 구렁이 암놈이 나타나 남편의 원수를 갚겠다고 하고는 새벽이 될 때까지 흰 절의 종이 울리지 않으면 뱀에게 죽게된 위급한 상황에서, 은혜를 갚으려고 꿩이 머리로 종을 들이받아 울리게 하므로서 무차 선사가 생명을 구했다는 얘기가 그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산의 이름이 赤岳에서 雉岳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이 전설과 연관이 있는 사찰은 상원사 외에도 구룡사·보문사·국향사·영원사·입석사 등의 사찰이 더 있다.

5. 영원산성 수습 유물

영원산성에서 수습된 유물은 고려~조선시대에 이르는 회청색 경질토기(도기)와 기와류 등 약간의 것들로서 성의 규모에 비하여 수습된 유물의 종류나 수량은 그리 많지 않다. 이는 낙엽이나 토사의 퇴적 등 자연적인 요인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古式山城에서 다양한 유물이 집중적으로 많이 발견되는 것과 비교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물이 수습되는 지역은 주로 城內 水源을 따라 올라가면서 곳곳에 펼쳐진 건물지로 추정되는 지역과, 각 문지 부근, 성벽 붕괴 지역, 그리고 성벽을 따라가면서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회청색경질토기(陶器)는 주로 일상 생활 용기로서 물을 담아 운반하거나 저장 등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甕類의 파편들이며, 기와류가 곳곳에서 찾아지고 있는 것은 주로 건물지로도 볼 수 있겠으나, 성벽의 女牆 윗면을 덮거나, 유사시 投石戰에서 돌을 대신하여 사용되었던 것들로 볼 수 있다.

수습된 유물들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토기·자기류

수습된 토기·자기류는 종류나 수량은 적지만, 몇 가지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토기류는 이른바 陶器라고 불리는 회청색 내지 흑회색을 띠는 경질의 것들로서 타날수법에 의해 성형하여 표면에 격자문이 남아 있는 것들도 있고, 표면을 매끈하게 지워버린 것이나, 표면을 매끈하게 처리하고 침선문이나 파상문을 돌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면에서 보이는 속성은 대부분 고려시대 토기에서 보이는 물레질 흔적이 테를 두른 것처럼 층을 이루는 것이 많고, 이면에 樹枝文의 도개 자국이 남아 있는 것, 이면에 도개 자국을 완전히 지워버린 것 등으로 구분되어 진다.

토기류의 태토는 약간의 모래질을 함유하는 정선된 것은 기심이 짙은 적갈색을 띠는 것들이고, 다량의 모래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들은 경질이지만 기심의 색깔 구분이 없고 표면이 거칠다.

이러한 회청색 경질토기는 고려~조선 시대에 사용하던 일상용기로서 성행하였던 것들이다. 자기류는 백자 구연부편 2점 뿐으로 표면의 유조가 맑은 양질의 것들이다.

• [도면 52-①, 사진 93-①]

회청색 경질토기 구연부편으로 목이 'C'자 형으로 짧게 외반하여 구연을 약간 평외반시키고 구순을 동그랗게 처리하였다. 정선된 태토로 성형하였으며 기심은 짙은 적갈색을 띠고 있다. 표면은 물손질하였으며 성형시 생긴 물레질 흔적이 보인다.

• 복원구경 : 11.2cm • 남아 있는 높이 : 3.8cm • 두께 : 0.4cm

• [도면 52-②, 사진 93-②]

암갈색 연질토기 구연부편으로 보이며, 단면의 형태는 평외반하여 끝을 도톰하게 처리한 모습이다. 암갈색 태토에 모래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표면에는 성형시 생긴 물레질 흔적이 보인다.

• 크기 : 4.0×3.0×0.6cm

• [도면 52-③, 사진 93-③]

표면이 회청색을 띠는 대형옹류의 어깨부편이다. 표면 일부에 얇게 격자문이 남아 있고, 물손질 흔적도 보인다. 가는 모래질을 함유한 태토로 소성되었으며, 기심은 적갈색을 띤다.

• 크기 : 13.5×7.5×1.0cm

• [도면 52-④, 사진 94-①]

회색 연질토기 저부편으로 편평미를 이루며, 밑으로부터 둔각으로 이어지는 기벽 단면은 약간 배가 부른 형태이다. 이면에는 성형시 생긴 물레질 흔적이 층을 이루고 있어 두께가 일정하지 않다. 가는 모래질을 함유한 정선된 태도로 소성되었다.

• 저부직경 : 20.0cm • 남아 있는 높이 : 13.0cm • 두께 : 1.0cm

• [도면 52-⑤, 사진 94-②]

표면이 흑회색을 띠는 경질의 토기편이다. 복원시 기벽은 둔각을 이루면서 사선으로 올라가는 모양이다. 이면에는 성형시 생긴 물레질 흔적이 층을 이루고 있어 두께가 일정치 않다. 태토는 비교적 정선되었고, 굵은 모래질을 함유하고 있다.

• 저부직경 : 21.0cm • 남아 있는 높이 : 5.5cm • 두께 : 1.0cm

• [도면 53-①, 사진 95-①·96-①]

표면이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토기편으로 두께가 비교적 얇고, 표면에는 넓게 複線 波狀文과 횡방향의 복선 평행 침선문이 시문되었으며 이면에는 물레질 흔적이 보인다. 태토는 비교적 정선되었으며, 가는 모래질을 함유하고 있다. 기심은 적갈색을 띠고 있다.

• 크기 : 5.5×3.0×0.5cm

• [도면 53-②, 사진 95-②·96-②]

표면이 흑회색을 띠는 경질의 토기편으로 표면에 횡방향으로 침선이 돌려졌고, 유약이 흐르고 있다. 이면에는 성형시 생긴 물레질 흔적이 보인다. 태토는 비교적 정선되었으며, 가는 모래알갱이를 함유하고 있다. 기심은 짙은 적갈색을 띠고 있다.

• 크기 : 11.0×6.0×0.8cm

• [도면 53-③, 사진 95-③·96-③]

표면이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토기편으로 표면 한쪽으로 넓게 複線의 평행 침선문이 남아 있다. 이면에는 성형시 생긴 도개자국 위로 물레질 흔적이 보이고 있다. 가는 모래질을 다량 함유한 태토로 성형되었고, 기심은 짙은 적갈색을 띠고 있다.

• 크기 : 4.5×8.0×0.8cm

• [도면 54-①, 사진 97-① · 98-①]

회청색 경질토기편으로 표면은 매끈하게 처리하였으며 유약이 흐르고 있다. 이편은 樹枝文이 타날되었다. 가는 모래질을 함유한 정선된 태도로 소성되었으며, 기심은 적갈색을 띤다.

• 크기 : 9.5×6.0×0.7cm

• [도면 54-②, 사진 97-② · 98-②]

회청색 경질토기편으로 표면에는 격자문을 타날하여 성형한 후 매끈하게 지워버렸다. 이편은 격자문이 타날되었으며, 면이 거칠다. 태도는 비교적 정선되었으며, 가는 모래알갱이를 함유하고 있다.

• 크기 : 6.5×5.0×0.6cm

• [도면 54-③, 사진 97-③ · 98-③]

회색 경질토기편으로 표면에는 격자문이 얇게 보인다. 이편은 도개자국이 불규칙하게 타날되었으며, 면이 거칠다. 정선된 태도로 소성되었으며, 기심은 갈색을 띠고 있어 층을 이룬다.

• 크기 : 4.5×5.0×0.6cm

• [도면 54-④, 사진 97-④ · 98-④]

회청색 경질 토기편으로 표면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었고, 유약이 흐르고 있다. 이편은 겹쳐 타날된 도개자국이 보인다. 태토에는 다량의 모래질이 섞여 있다.

• 크기 : 7.0×3.5×0.75cm

• [도면 55-①, 사진 99-① · 100-①]

회청색 경질 토기편으로 표면에는 얇게 격자문이 남아 있으며, 이편은 겹쳐 타날된 도개자국이 남아 있어 면이 거칠다. 태토에는 다량의 모래질이 섞여 있다.

• 크기 : 12.0×12.0×0.65cm

• [도면 55-②, 사진 99-② · 100-②]

회청색 경질토기편으로 표면에는 얇게 격자문이 남아 있으며, 이편은 겹쳐 타날된 도개자국이 남아 있어 면이 거칠다. 태토에는 다량의 모래질이 섞여 있다.

• 크기 : 9.0×9.5×0.7cm

• [도면 56-①, 사진 101-① · 102-①]

회청색 경질토기편으로 표면은 성형시 격자문을 타날한 후 일부를 지워버렸다. 이면은 손자국 및 도개자국이 남아 있고, 물손질 흔적도 보인다. 가는 모래질을 함유한 정선된 태토로 소성되었으며, 기심은 짙은 적갈색을 띤다.

• 크기 : 20.0×14.0×0.8cm

• [도면 56-②, 사진 101-② · 102-②]

회청색 경질토기편으로 표면은 매끈하게 처리하였고, 이면은 도개자국 위로 횡방향의 물레질 흔적이 보인다. 가는 모래질을 함유한 태토로 소성되었으며, 기심은 적갈색을 띤다.

• 크기 : 5.0×4.5×0.6cm

• [도면 56-③, 사진 101-③ · 102-③]

회색 경질토기 기벽 하단부편으로 보인다. 표면에는 사격자문이 타날되었고, 아래쪽으로 물레질 흔적이 보인다. 이면은 도개자국 위로 물레질 흔적이 보이는데, 물레질흔이 층을 이루고 면의 두께가 일정하지 않다. 가는 모래질을 함유한 정선된 태토로 소성되었다.

• 크기 : 4.0×6.0×1.0~1.4cm

• [도면 56-④, 사진 101-④ · 102-④]

회청색 경질토기편으로 표면은 성형시 격자문을 타날한 후 일부 지워버렸다. 이면은 樹枝文이 타날된 위로 물레질한 흔적이 보인다. 가는 모래질을 함유한 정선된 태토로 소성되었으며, 기심은 적갈색을 띤다.

• 크기 : 14.5×7.5×0.6~0.7cm

• [도면 57-①, 사진 103-① · 104-①]

회청색 경질토기편으로 표면은 매끈하게 처리하고, 물손질 하였다. 이면은 물레질 흔적이 층을 이루어 두께가 일정하지 않다. 모래질을 함유한 태토로 소성되었으며, 기심은 짙은 적갈색을 띤다.

• 크기 : 10.5×8.5×0.5~0.65cm

• [도면 57-②, 사진 103-② · 104-②]

회청색 경질토기편으로 표면을 매끈하게 처리하였다. 이편은 물레질 흔적이 보이고 두께가 일정치 않다. 정선된 태토로 소성되었으며 기심은 적갈색을 띤다.

• 크기 : $12.0 \times 9.0 \times 0.9 \sim 1.0\text{cm}$

• [도면 57-③, 사진 103-③ · 104-③]

회청색 경질토기편으로 표면을 매끈하게 처리하였다. 이편은 횡방향으로 물레질 흔적이 돌아가고 있으며 두께가 일정치 않다. 가는 모래질이 섞인 정선된 태토로 소성되었다.

• 크기 : $7.0 \times 5.5 \times 0.5 \sim 0.6\text{cm}$

• [도면 58-①, 사진 105-①]

회청색 경질 토기편으로 표면은 성형시 생긴 격자문을 일부 지워버렸으며, 이편의 타날흔도 지워버렸다. 정선된 태토로 소성하였으며, 기심은 짙은 적갈색을 띠고 있다.

• 크기 : $12.0 \times 8.5 \times 0.6 \sim 0.8\text{cm}$

• [도면 58-②, 사진 105-②]

회청색 경질토기 어깨부편이다. 표면 어깨부 이하로 넓게 격자문이 남아 있으며, 이편은 물레질 흔적이 횡방향으로 나란하게 골을 이루고 있다. 태토에는 모래질이 많이 섞여 있다.

• 크기 : $6.0 \times 9.5 \times 0.65\text{cm}$

• [도면 58-③, 사진 105-③]

회청색 경질토기편으로 표면을 매끈하게 처리하였으나, 넓게 격자문이 남아있으며, 이편은 물레질 흔적이 보인다. 태토에는 모래질이 많이 섞여 있다.

• 크기 : $7.5 \times 7.0 \times 0.8 \sim 0.9\text{cm}$

• [도면 59-①, 사진 106-①]

회청색 경질토기편으로 표면에는 물손질을 하였으며, 이편에는 물레질 흔적이 층을 이루고 있다. 기심은 적갈색을 띠고 있으며, 가는 모래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 크기 : $7.0 \times 5.5 \times 0.8 \sim 0.9\text{cm}$

• [도면 59-②, 사진 106-②]

백자 사발 구연부편이다. 복원시 기형이 'V'자 형을 이루며 올라와 구연부 단면을 동그랗게 처리하여 안쪽으로 약간 휘어지고 있는 모양이다. 기벽 안팎으로 유약처리하였으며, 빙열이 심하다. 태토는 정선되었으며 회백색으로 소성되었다.

• 복원구경 : 19.0cm • 남아 있는 높이 : 5.0cm • 두께 : 0.5cm

• [도면 59-③, 사진 106-③]

백자 사발 구연부편이다. 복원시 기벽이 곡면으로 휘어져 올라오며, 구순은 단면을 동그랗게 처리하였다. 기벽 안팎으로 유약 처리하였으며 표면의 유조는 투명하다. 태토는 정선되었으며 회색으로 소성되었다.

• 복원구경 : 18.0cm • 남아 있는 높이 : 3.0cm • 두께 : 0.4cm

(2) 기와편

영원산성에서 수습된 기와편들은 종류나 수량이 얼마 되지 않으나, 성의 축성시기나 증축 등 사용 기간과 연관하여 볼 수 있는 것들이다.

수습되는 기와류는 모두 파편들로 원형은 없지만, 표면상의 문양이나 이면의 포목흔, 측면의 와도흔, 단부면의 처리, 두께 등에 있어서 몇가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숫기와의편의 경우 표면에 청해파문이 시문된 것들이 가장 많이 눈에 띄며, 태선의 선조문이나 무문의 것도 수습되었다.

암기와편의 경우 무문 및 청해파문이 성내에 가장 많이 산재하고 있으며, 종방향이나 좌하향·우하향으로 타날된 굽은 선조문, 사선문, 세선 어골문, 태선 어골문, 복합문, 집선문, 격자문 등도 수습되었다. 그리고 이형의 草文을 타날한 것은 아마도 이 지역의 독특한 양식으로 보이며, '北'字로 보이는 銘文은 '北原' 이라는 지명의 '北'을 연상케 한다.

영원산성에서 수습되는 기와 가운데 굽은 선문이 종방향이나 횡방향으로 타날 된 것이나 어골문, 복합문 등은 고려시대의 것으로 여겨진다. 가장 많이 수습되는 청해파문 기와는 조선시대의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영원산성은 적어도 2~3번 이상의 사용 시기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실제 성벽의 절토지 부분에서 태선 어골문와편이나 무문와편 등이 수습되었는데, 영원산성의 사용 하한을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로 본다면 당연히 이전에 사용하였던 성곽을 개축 내지 보수하였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면의 포목흔이나 측면의 와도흔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모두 원통형 와통에 의해 제작된 것들로 이른 시기의 속성은 발견할 수 없고, 측면의 와도흔도 모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얇게 그은 것들 뿐이다. 기와의 두께는 대체적으로 두꺼운 것들이 많다.

영원산성에서 수습되는 청해파문의 기와는 인접한 해미산성 북문지 부근에서도 집중적으로 수습되고 있다. 선조문 기와도 해미산성에서 수습되고 있는데, 해미산성의 것은 측면 와도흔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자른 것이 많아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 숫기와편

• [도면 60-①, 사진 107-① · 108-①]

표면에 얇게 청해파문이 타날된 회청색 경질의 미구기와편이다. 미구부분이 약간 남아 있으며, 언강 부분은 낮고 직각으로 처리되었다. 이면에는 포목흔이 보이고 한측면으로 안에서 밖으로 그은 와도흔이 얇게 보인다. 태토에는 모래질이 많이 섞여 있으며, 두께가 비교적 두껍다.

• 크기 : 12.0×14.0×3.0cm

• [도면 60-②, 사진 107-② · 108-②]

표면 단부 쪽으로 좌하향의 선문이 나란히 타날되고, 그 아래쪽으로 청해파문이 타날된 회색 경질의 숫기와편이다. 이면에는 포목흔이 약간 보이고 한측면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얇게 그은 와도흔이 약간 남아 있다. 단부 부분은 약간 사면으로 조정하였으며, 단부면에도 좌하향의 타날문이 넓게 타날되었다. 태토에는 모래질이 많이 섞였으며, 두께가 비교적 두껍다.

• 크기 : 12.5×14.0×2.2cm

• [도면 60-③, 사진 107-③ · 108-③]

표면에 우하향의 집선문이 타날된 회색경질의 숫기와편이다. 이면에는 포목흔이 보이고, 한측면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얇게 그은 와도흔이 보인다. 태토에는 모래질이 많이 섞였다.

• 크기 : 7.0×9.5×1.6~2.0cm

• [도면 60-④, 사진 107-④ · 108-④]

성형시 표면에 타날한 사선문을 지워버려 문양이 넓게 남아 있는 무문화된 숫기와편이다. 이면에는 포목흔이 보이며, 분할선을 따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얇게 그은 와도흔이 보인다. 포목흔 가운데로 평편하게 깎아낸 흔적이 있다. 태토는 정선되었으며, 소성도는 경질이다.

• 크기 : 8.5×10.0×1.8~2.0cm

• [도면 61-①, 사진 109-① · 110-①]

표면에 청해파문이 타날된 회청색 경질의 솜기와편이다. 이면에는 포목흔이 보이고, 한측면으로 분할선을 따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얇게 그은 와도흔이 보인다. 단부 내면을 사면으로 조정하였다. 태토에는 모래질이 다량 함유하고 있다.

• 크기 : 16.5×17.5×2.5~2.8cm

• [도면 61-②, 사진 109-② · 110-②]

표면에 얇게 사선문이 보이는 연질의 솜기와편이다. 이면에는 포목흔이 보이고, 한측면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은 와도흔이 보인다. 정선된 태토로 소성하였다.

• 크기 : 13.0×16.0×1.8~2.1cm

• [도면 61-③, 사진 109-③ · 110-③]

성형시 표면에 타날한 사선문을 지워버린 무문의 솜기와편이다. 이면에는 포목흔이 보이고 한측면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2/3정도 그은 와도흔이 보인다. 가는 모래질을 함유한 태토로 소성되었으며 회색 경질이다.

• 크기 : 8.5×8.0×1.9~2.1cm

2) 암기와편

• [도면 62-①, 사진 111-① · 112-①]

회청색 경질의 암기와편이다. 표면에는 종방향의 집선문을 타날한 후 지워버려 희미하게 보이며, 이면에는 布目痕과 絲切痕이 선명하고, 상단으로 輪綴痕도 보인다. 한측면에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약 1/2정도 자른 瓦刀痕이 보인다. 상단부의 내면은 斜面으로 조정하였다. 태토에는 모래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 크기 : 19.0×23.5×1.7~2.0cm

• [도면 62-②, 사진 111-② · 112-②]

표면이 흑회색을 띠는 연질의 무문 암기와편이다. 이면에는 포목흔과 윤철흔이 보이며 한측면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약 1/3정도 자른 와도흔이 보인다. 정선된 태토로 소성하였다.

• 크기 : 12.5×19.0×2.3~2.5cm

• [도면 62-③, 사진 111-③ · 112-③]

회색 연질의 암기와편이다. 표면에는 종방향의 집선문을 타날한 후 지워버려 희미하게 보이며, 이면에는 포목흔이 선명하다. 한측면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4/5정도 그은 와도흔이 보이며, 상단부 내면은 사면으로 조정한 후 물손질 하였다. 태토에는 모래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 크기 : $12.0 \times 16.0 \times 1.7 \sim 1.9 \text{cm}$

• [도면 62-④, 사진 111-④ · 112-④]

적갈색 연질의 무문 암기와편으로 표면은 물손질하였고, 이면에는 포목흔과 윤철흔이 보인다. 모래질을 함유한 태토로 소성하였다.

• 크기 : $14.0 \times 13.0 \times 2.3 \sim 2.4 \text{cm}$

• [도면 63-①, 사진 113-① · 114-①]

회색 연질의 무문 암기와편으로 표면에는 물손질을 하였다. 이면에는 포목흔이 선명하고, 가운데로 윤철흔이 돌아가고 있다. 모래질을 많이 함유한 태토로 소성하였다.

• 크기 : $9.5 \times 10.5 \times 1.8 \text{cm}$

• [도면 63-②, 사진 113-② · 114-②]

흑회색 경질의 무문 암기와편으로 표면에 물손질을 하였으며, 이면에는 포목흔이 남아 있다. 한측면으로 분할선을 따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얇게 그은 와도흔이 보이며, 상단부 내면을 약간 사면으로 조정하였다. 태토에는 모래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 크기 : $10.0 \times 11.0 \times 1.9 \sim 2.1 \text{cm}$

• [도면 63-③, 사진 113-③ · 114-③]

회색 경질의 무문기와편으로 표면에 물손질을 하였으며, 이면에는 포목흔을 제거하면서 생긴 물자국이 보인다. 모래질을 많이 함유한 태토로 소성하였다.

• 크기 : $11.0 \times 10.0 \times 2.0 \sim 2.2 \text{cm}$

• [도면 63-④, 사진 113-④ · 114-④]

적갈색 연질의 무문 암기와편 단부이다. 표면에는 성형시 생긴 자국이 단을 이루고 있으며, 단부 표면은 곡면으로 처리하였다. 이면에는 와도흔이 선명하고 윤철흔도 보인다. 가는 모래질

을 함유한 정선된 태토로 소성하였다.

· 크기 : $8.5 \times 7.0 \times 1.4 \sim 1.5\text{cm}$

· [도면 63-⑤, 사진 113-⑤ · 114-⑤]

흑회색 경질의 무문 암기와편으로 표면에는 물손질하였으며, 이면에는 포목흔이 보인다. 측면 한쪽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얇게 그은 와도흔이 보인다. 모래질을 많이 함유한 태토로 소성되었으며, 두께가 얇다.

· 크기 : $5.0 \times 7.0 \times 1.2\text{cm}$

· [도면 64-①, 사진 115-① · 116-①]

황갈색 연질의 암기와편으로 표면에 종방향으로 길게 내려가는 선조문을 타날하였다. 이면에는 포목흔이 보이며, 한 쪽으로 점토를 이어붙인 듯한 선을 따라 표면이 탈락되었다. 가는 모래질을 많이 함유한 태토로 소성되었다.

· 크기 : $10.0 \times 12.0 \times 2.0\text{cm}$

· [도면 64-②, 사진 115-② · 116-②]

회청색 경질의 암기와 편으로 표면에 좌하향의 선조문이 타날되었다. 이면에는 포목흔이 선명하고, 한측면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얇게 그은 와도흔이 보인다. 단부쪽이 약간 외반하고, 단부면은 오목하게 곡면으로 처리하였다. 모래질이 많이 함유된 태토로 소성되었다.

· 크기 : $9.0 \times 12.0 \times 1.8 \sim 2.6\text{cm}$

· [도면 64-③, 사진 115-③ · 116-③]

표면에 좌하향의 굵은 선조문이 약간 남아 있는 회청색 경질 암기와편이다. 표면 상단은 문양을 지워 버리고 물손질하였다. 이면에는 포목흔이 보이고 한측면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약 1/4정도 그은 와도흔이 보인다. 모래질이 많이 함유된 태토로 소성하였다.

· 크기 : $6.0 \times 10.0 \times 2.0 \sim 2.2\text{cm}$

· [도면 64-④, 사진 115-④ · 116-④]

표면에 우하향의 굵은 선조문이 타날된 연질의 암기와편이다. 이면에는 포목흔이 선명하다. 모래질을 많이 함유한 태토로 소성하였다.

· 크기 : $8.0 \times 7.0 \times 2.0 \sim 2.1\text{cm}$

• [도면 64-⑤, 사진 115-⑤ · 116-⑤]

표면에 좌하향의 굵은 선조문이 타날된 경질의 암기외편이다. 이면에는 포목흔이 선명하고 한측면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얇게 그은 와도흔이 보인다. 모래질이 많이 함유된 태토로 소성하였다.

· 크기 : $5.0 \times 7.0 \times 2.2\text{cm}$

• [도면 65-①, 사진 117-① · 118-①]

표면에 좌하향의 평행 사선문을 약 4.5cm 간격으로 타날한 회색 연질의 암기외편이다. 이면에는 포목흔과 사절흔이 보인다. 모래질이 많이 함유된 태토로 소성되었으며, 두께가 두껍다.

· 크기 : $9.0 \times 9.0 \times 2.4 \sim 2.6\text{cm}$

• [도면 65-②, 사진 117-② · 118-②]

표면에 우하향의 평행 사선문이 약 4.0cm 간격으로 타날된 회청색 경질의 암기외편이다. 이면에는 포목흔이 약간 남아 있고, 한측면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얇게 와도흔이 보인다. 모래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 크기 : $5.0 \times 6.0 \times 1.8\text{cm}$

• [도면 65-③, 사진 117-③ · 118-③]

표면에 종방향으로 좌우대칭의 가는 어골문을 중첩하여 타날한 회청색의 경질 암기외편이다. 이면에는 와도흔이 보인다. 태토는 모래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 크기 : $11.0 \times 12.0 \times 1.9 \sim 2.1\text{cm}$

• [도면 66-①, 사진 119-① · 120-①]

표면에 종방향으로 좌우 대칭의 태선 어골문을 타날한 회색 경질의 암기외편이다. 표면 단부면쪽으로는 매끈하게 정면한 후 물손질하였다. 단부 이면은 사면으로 조정하였으며 그 아랫쪽으로 포목흔이 보인다. 가는 모래가 많이 함유된 정선된 태토로 소성하였다.

· 크기 : $12.0 \times 14.0 \times 2.1 \sim 2.3\text{cm}$

• [도면 66-②, 사진 119-② · 120-②]

표면에 종방향으로 좌우대칭의 태선 어골문을 타날한 회색 연질의 암기외편이다. 이면에는

포목을 제거할 때 생긴 자국이 보인다. 가는 모래질을 함유한 정선된 태토로 소성하였다.

· 크기 : $9.5 \times 7.5 \times 2.2 \sim 2.3\text{cm}$

· [도면 67-①, 사진 121-① · 122-①]

표면에 횡방향의 어골문을 겹쳐 시문한 듯한 문양이 타날된 암기와편으로 단부면 쪽은 매끈하게 정면하여 문양을 지워버렸다. 이면은 단부 쪽을 곡사면으로 조정하였으며, 단부 조정면 아래쪽의 포목흔은 지워져서 보이지 않는다. 한쪽 측면에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약 2/3 정도 자른 와도흔이 보인다. 태토는 정선되었으며, 가는 모래질을 함유하고 있다.

· 크기 : $15.0 \times 12.0 \times 2.3 \sim 2.5\text{cm}$

· [도면 67-②, 사진 121-② · 122-②]

표면에 사선문이 겹쳐 타날된 집선문의 적갈색 암기와편이다. 표면의 단부쪽은 약간 곡면으로 처리하여 단부면과 거의 직각을 이루고 있으며, 이면 전면에 포목흔이 보인다. 가는 모래질이 함유된 정선된 태토로 소성되었다.

· 크기 : $12.0 \times 14.5 \times 1.9 \sim 2.2\text{cm}$

· [도면 68, 사진 123 · 124]

표면에 종방향으로 길게 좌우대칭의 草文을 타날하였다. 장판의 고판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고판 간격은 약 4.0cm이다. 표면 草文은 가시처럼 생겼으며 다른 지역에서 흔히 보이지 않는 이형의 문양이어서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면에는 가는 포목흔이 남아 있으며, 한측면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약 1/4 정도 자른 와도흔이 보인다. 모래질이 많이 함유된 태토로 소성된 경질이며 두께가 두껍다.

· 크기 : $17.0 \times 19.0 \times 2.2 \sim 2.8\text{cm}$

· [도면 69-①, 사진 125-① · 126-①]

회청색 경질 암기와편으로 표면에 좌하향·우하향하는 2조의 평행사선이 교차하여 마름모상의 테두리를 형성하고, 그안쪽으로 '北'字 문양이 횡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나란히 시문되었다. 단순한 문양이라기 보다는 銘文으로 여겨진다. 이 銘文기와편은 '北原'의 '北'字를 연상케 한다. 이면에는 포목흔이 보이며, 횡방향으로 윤철흔이 돌아가고 있다. 한측면에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얇게 자른 와도흔이 보인다. 모래질을 함유한 태토로 소성하였다.

· 크기 : $13.0 \times 16.0 \times 1.8 \sim 2.0\text{cm}$

• [도면 69-②, 사진 125-② · 126-②]

회청색 경질 암기와편으로 평편하며, 표면에 넓게 좌하향 · 우하향의 사선문이 타날되었으며, 이면에는 포목흔이 보이고 단부 쪽으로 윤철흔이 보인다. 단부면은 별도의 조정은 하지 않아 평면을 이루고 있다. 태토에는 모래질이 많이 함유되었고, 두께가 얇다.

• 크기 : $8.0 \times 10.0 \times 1.8 \sim 1.9\text{cm}$

• [도면 69-③, 사진 125-③ · 126-③]

표면에 좌하향 · 우하향의 사선문이 중첩 교차하여 격자문상을 이루는 문양이 타날된 암기와편이다. 이면에는 사절흔이 종방향으로 겹쳐져 있다. 한측면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넓게 와도흔이 보인다. 모래질이 많이 함유된 태토로 소성되었으며, 회청색 경질이다.

• 크기 : $5.5 \times 9.0 \times 1.8\text{cm}$

• [도면 70-①, 사진 127-① · 128-①]

표면에 좌하향으로 길게 가는 집선문을 타날한 회청색 경질 암기와편이다. 이면에는 포목흔과 사절흔이 보이고 가운데로 윤철흔도 보인다. 측면에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약 1/2 정도 그은 와도흔이 보인다. 가는 모래질을 함유한 태토로 소성되었으며 두께가 얇다.

• 크기 : $7.0 \times 8.0 \times 1.7\text{cm}$

• [도면 70-②, 사진 127-② · 128-②]

표면에 청해파문과 평행 선문이 넓게 타날된 흑회색 경질의 암기와편이다. 이면에는 포목흔이 선명하고, 한 측면으로 분할선이 보인다. 모래질이 많이 함유된 태토로 소성하였다.

• 크기 : $8.5 \times 14.0 \times 2.5\text{cm}$

• [도면 70-③, 사진 127-③ · 128-③]

표면에 횡방향의 짧은 선문이 중첩되어 청해파문과 유사하며, 마름모꼴의 문양도 보인다. 이면에는 포목흔이 보인다. 태토에는 모래질이 많이 함유되었으며, 회색 경질이다.

• 크기 : $12.0 \times 14.0 \times 1.8 \sim 2.2\text{cm}$

• [도면 70-④, 사진 127-④ · 128-④]

표면에 횡방향의 짧은 선문이 중첩되어 청해파문처럼 보이는 문양이 넓게 남아 있으며, 물

손질 되었다. 이면은 탈락이 심하고, 약간의 포목흔과 윤철흔이 남아 있다. 가는 모래질을 함유한 정선된 태토로 소성되었으며 두께가 두껍다.

· 크기 : 12.0×9.5×2.5cm

6. 鵠原山城의 性格과 特徵

鵠原山城은 성벽의 축조 방법이 특이하고, 위치와 지형의 선정 또한 특별한 면이 있다. 성벽의 구성에 있어서도 다른 산성들에서 보기 힘든 구조를 보여준다.

鵠原山城은 雉岳山의 남쪽 산줄기가 南台峰으로 이어지다가 서쪽으로 뺏어내린 능선이 다시 높아져서 서남쪽으로 계곡을 만든 산위에 축조되었다. 따라서 치악골 계곡의 상류에 있는 길아치골과 아들바위골이 성의 북쪽과 남쪽에 있고, 그 외곽은 雉岳山의 산줄기가 香爐峰에서 남쪽과 서쪽으로 뺏어내려 감싸고 있다. 이러한 위치는 이 산성의 사방으로부터 山城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리적 조건을 형성하고 있는 곳을 택하여 산성이 축조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동쪽과 북쪽에서의 접근은 1,000m 이상의 높은 산줄기를 넘어서 다시 계곡을 건너 山城으로 오는 험한 지세를 이룬다. 서쪽에서의 접근은 원주↔제천간의 교통로에서 긴 치악골로 들어오거나, 혹은 원주에서 치악산의 서쪽 줄기를 넘어 통할 수 있어서 접근이 북쪽과 남쪽보다는 용이하지만, 쉬운 길은 결코 아니다.

이러한 지형상의 잇점을 이용하여 택정된 산성은 성의 동북쪽에서 서남쪽으로 계곡을 이룬 부분에 작은 물줄기가 있고, 성내의 여러 곳에 물이 있어서 장기간의 入保 籠城에 적합한 지형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의 능선을 타고 축조된 때문에 성내의 內環道를 따라 각 방향의 계곡과 맞은편 산줄기를 바라보면서 적의 접근을 감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러한 산성의 입지 조건은 이 산성으로 하여금 성벽을 특별히 높지 않게 축조해도 견딜 수 있도록 하였다. 산의 지형이 위낙 가파른 경사면으로 되어 있으므로 성벽은 능선의 상단부 外緣을 따라 축조하였다. 이 능선들은 이미 露頭가 매우 발달되어 있었으므로, 석재를 구하기에도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여겨진다. 다만 지질구조에 있어서 이 지역은 쥐라기의 흑운모 화강암과 선캄브리아기의 편마암계, 그리고 섬록암 및 화강섬록암 등이 분포되어 있어서, 이들 암석들은 장방형이나 방형 등으로 쉽게 다듬어지지 않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성을 축조한 석재들은 자연 처음 떼어낸 할석을 거의 그대로 이용한 것이 대부분이고, 비교적 대형으로서 면이 반듯한 석재는 문의 개구부 등 특별히 중요한 곳에 사용하고 있다.

성벽은 능선의 정상을 그대로 이용한 동북쪽의 甬道 부분과 서쪽 성벽의 암반 밖으로 돌출하여 내려간 甬道 이외에는 능선의 外緣을 이용하므로 성벽이 쉽게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고 적은 양의 석재로서 벽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성벽은 너비가 좁고, 높이도 높지 않은 특징을 가진다. 성벽의 평균 너비가 3.6m와 3m, 그리고 2.4m 등으로 되어 있으며, 女牆을 외벽면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안쪽의 體城 윗면에서만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眉石이 없는 여장을 만들어 외면에서는 체성과 여장의 구분이 없다. 안쪽에서는 체성의 벽면이 낮으므로 별도의 城磴을 시설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外築 內托의 방법이 아니고, 일단 內外 夾築의 형식을 취한 것은 여장 아래의 체성이 무너지기 쉬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함과 동시에, 이 체성의 내외를 비교적 큰 할석으로 쌓으면서 城心에 작은 할석을 채우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과 관련된다고 여겨진다.

鵠原山城의 성벽은 평탄지를 지나는 성벽과 가파른 경사면을 오르는 성벽 가운데 현존하는 성벽은 역시 평탄지에 축조되거나, 암반을 기초로 한 성벽이 잘 남아 있다. 평탄한 곳이라 하여도 외측 아래의 기초가 흙으로 된 부분은 무너진 곳이 있다. 경사면의 성벽은 한쪽 경사면이 아니고, 이중경사(성벽의 내부와 외부로의 경사와, 성벽의 앞쪽과 뒷쪽으로의 경사)면에 축조된 경우 무너진 정도가 심하다. 이러한 곳은 성벽에 대하여 성안에서 외부로의 압력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의 압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무너지기 쉬웠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이러한 곳은 보다 높은 곳에서 아래로 경사를 이룬 부분이 현저히 內彎한 성벽이 된다. 이 무너지기 쉬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높은 곳의 回曲處를 曲城으로 처리하여, 內彎된 부분의 谷部를 조감하기에 편리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곳은 동남쪽 성벽에서 4곳이 있으며, 북쪽 성벽에서 4곳, 서쪽 성벽에서 4곳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回曲處는 능선이나 암반 위로 되어 있다. 이는 능선을 타고 오르는 길이 적의 공격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특별히 지형을 고려한 곳이며, 동시에 좌측 혹은 우측의 谷部를 조감하면서 좌우에서 挾攻하기에 좋도록 고려된 것이다.

鵠原山城에는 성벽이 평탄하고 곧게 뻗은 곳이 없다. 계속되는 굴곡으로 말미암아 內彎된 곳은 좌우의 外彎된 곳에서 斜射가 가능하다. 따라서 별도의 雉城을 만들지 않았다. 그러나 北門의 동측으로는 거대한 암반이 있는 곳을 이용하여 雉城을 마련하였다. 이곳은 북문 자체가 능선의 外緣을 이용하여 마련된 것이 아니고, 문의 내부에 연못 등의 시설이 필요하여 공간을 확보하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866.1m의 고지를 돌아가는 성벽에서 조감하고 문밖을 노리는 적을 공격하기에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별도의 雉城이 필요하였다고 여겨진다. 이 雉城을 만듦으로서 북문의 서쪽과 동쪽의 작은 谷部로 오는 적을 좌우의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는 위치와 함께 좌우에서의 挾攻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고 여겨진다.

성벽은 가장 낮은 곳인 水口 근처에서는 가장 너비가 넓고 높이가 높게 축조되었으며, 비록 암반과 절벽으로 된 곳도 절벽이 떨어지는 지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석축을 하였다. 성벽은 대체로 몇가지의 기본적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 ① 甬道 : 동북쪽 甬道로서 甬道로 오르는 성벽은 좁아져서 계단상으로 올라가 능선을 성벽으로 만들었다. 좌우로 여장을 만들었다고 여겨지며, 성벽의 경사도는 75~80도이고 여장은 남아 있지 않다. 능선의 너비에 따라 너비가 다른 성벽을 축조하여 성벽의 너비

는 5.7m~3.6m, 여장은 용도로 통하는 鞍部에서 남은 곳의 경우 아랫쪽 너비 1.3m, 윗쪽 너비 최대 90cm로 높이 90cm에 이르므로 이와 유사한 규모였다고 여겨진다.

② 성벽과 여장의 단면이 사다리꼴을 이루는 것으로서, 체성의 외측 상단에서 여장이 眉石이 없이 축조된 것은 공통이나, 성벽의 단면이 사다리꼴로서 경사도는 70~75도를 가진다.

- 아랫부분의 너비 4.5m, 여장 너비 1.1m 내외인 것.
- 아랫 부분의 너비 3.6m, 여장 너비 1.3m인 것.
- 아랫 부분의 너비 3m, 여장 너비 아래 1.1m, 윗쪽 너비 70cm, 높이 80cm인 것.
- 아랫부분의 너비 2.7m, 여장 너비 아래 1.2m, 윗쪽 너비 75cm, 높이 75cm인 것.

등으로 나뉜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산성의 성벽은 너비를 30cm 정도의 用尺으로 계산하여 각기 지역에 따라 19척·15척·12척·10척·9척 등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여장의 너비는 3척·4척과 비슷하며 여장의 높이는 가장 높이 남아 있는 곳이 3척이 되므로, 2~3척의 높이가 지역에 따라 사용되었다고 여겨진다.

이 산성의 경우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성벽과 여장이 확실히 구분되면서도 외면에서는 구분이 없다는 점이며, 또한 여장에는 射穴이 없다는 점이다. 즉 眉石을 두지 않고 있으며, 평여장이 연속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별도의 垛口가 없다는 점이다. 여장 아래의 체성도 여장을 만들기 위한 기초처럼 여겨질 정도로 축조되어 있다.

石築 城郭의 女牆은 이미 高句麗의 初期 都邑地인 지금의 中國 吉林省 集安 일대의 石築山城에서도 남아 있다. 즉, 丸都山城의 경우에는 女牆의 아랫 부분 너비가 73cm로부터 1m 이고, 높이가 78cm로부터 1.3m의 규모로 되어 있으며,¹⁶⁾ 霸王朝山城에서는 서쪽과 북쪽 및 동쪽 성벽에 여장이 있는데, 너비 1m 내외이고, 높이는 일반적으로 50cm 정도로 되어 있다. 이들 여장은 體城의 외면에서 眉石이 없이 줄곧 쌓아 올린 것이고, 양쪽면을 할석으로 쌓고 틈을 작은 돌부스러기로 채워 만들었다.¹⁷⁾ 물론 이들 여장에는 안쪽에 柱洞이 일정한 간격으로 있는 것이지만, 초기의 여장이 이와 같이 외면 석축을 그대로 연장하고, 안쪽에서만 구분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에는 공통된다. 忠州 南山城의 동쪽 성벽에서는 성벽의 외면과 함께 축조된 여장이 너비 115cm를 기준으로 眉石이 없이 만들어 졌다가 훗날에는 이 女牆의 아래를 기초로하여 眉石을 이용하여 여장의 기초를 넓혀 1.2~1.3m의 너비로 축조한 것이 조사된 바 있고,¹⁸⁾ 堤川 月岳山の 德周山城에는 여장이 남아 있는 곳이 있다. 이들 산성의 여장은 서로 다른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충주 남산성의 경우는 미석으로 보기 어려울 만큼 성벽의 외면 위에 곧

16) 李殿福 『高句麗 丸都山城』(文物, 1982년 6期).

17) 方起東 『吉林 輯安 高句麗 霸王朝山城』(考古, 1961년 11期).

18) 金顯吉·車勇杰 『忠州山城 및 直洞古墓群 發掘調査 報告書』(1986, 忠州市·忠州工業專門大學博物館).

장 축조된 평여장으로 되었던 것이 2차로 수축될 때에 眉石을 갖춘 것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 주며, 이러한 古式의 경우 射穴 등의 시설이 없고, 덕주산성의 것은 銃穴과 壕口가 남아 있는 조선시대 후반의 것이 잘 남아 있다. 이런 점으로 보아 鵠原山城의 여장은 보다 古式의 전통을 그대로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조선시대의 경우 특히 그 후기에 만들어진 여장은 平女牆이거나 凸形 女牆의 경우에도 銃眼과 射穴, 혹은 炮穴이나 壕口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鵠原山城의 것에는 이러한 시설이 있었던 흔적이 전혀 없는 것이다.

성벽 윗면의 처리는 안쪽과 바깥 쪽에서 할석으로 쌓아 올리면서 그 중간을 보다 작은 할석과 돌 부스레기로 채운 것으로서, 고구려의 석축 산성에서 흔히 사용된 방법이 그대로 적용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女牆의 경우에도 대체로 동일한 수법을 보이고 있다.

한편 석재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아래 부분 쪽의 석재는 비교적 큰 할석을 사용하고, 위로 오르면서는 점차 석재의 크기가 작아지고 있다. 이러한 양상도 高句麗에서 발전한 석축성곽의 축성 공법과 공통적 특징을 가지는 점이다. 그러나 高句麗의 성벽에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계단 모양의 굽도리식 축조 방법과 성들을 잘 다듬어 사각추 모양으로 한 점 등은¹⁹⁾ 이곳 鵠原山城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다.

鵠原山城에서 지표 수습한 유물들은 陶器片과 기와편이 있다. 陶器片들은 매우 높은 온도로 구워진 平底의 그릇 조각들이며, 格子文이 시문되거나, 器壁의 안쪽에 누른 자욱이 있거나 혹은 테쌓기 하듯 胎土를 굴곡되게 올리면서 회전시킨 흔적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그릇들은 대략 高麗 時代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들이다. 기와에 있어서도 특별한 것들은 없으나, 銘文을 나타낸 것 가운데는 “北”이란 글자로 판독되는 것이 있다. 이 하나의 글자로서는 이 명문이 어떤 성격인지 불명이나, 原州의 新羅 때 이름이 北原이었던 점과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 대부분의 기와들은 고려시기에 유행한 이른바 魚骨文, 그리고 조선시대의 청해파문 등이다.

현존의 영원산성 내에는 지상 건축물이 없으며, 다만 건물터와 숫가마터 등이 남아 있다. 건물터로서는 다음과 같은 곳이 있다.

- ① 동북 정상부 甬道 : 기와가 발견되며 동북쪽으로 이어지는 능선과 좌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위치이다. 작은 망대류의 건물터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 ② 북벽과 동벽의 연결부 : 석축으로 네모진 기단이 있다.
- ③ 북벽 외환도(外環道)가 있는 안쪽 : 숫가마터가 있으며, 평탄지로서 건물터였을 가능성이 크다.
- ④ 북문지 안쪽 : 평탄한 곳의 안쪽으로 기와가 발견되며 약 150평 정도의 평탄지가 있다.
- ⑤ 북문지 안쪽 능선의 남향 건물지 : 가장 넓고 평탄하며, 계단식으로 대지가 조성되어

19)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1 『조선고고학전서』—중세편 1 (고구려)—.

있다. 성안에서 가장 평탄하고 넓으며 서남향하여 계곡의 중간을 흐르는 도랑의 좌우로 계속하여 건물지가 이어진다.

- ⑥ 북벽과 서벽의 연결부 정상 : 해발 866.1m의 정상과 그 서쪽의 헬리포트까지 남향하여 평탄지가 넓고, 남쪽으로 계곡 건너의 남벽쪽이 가장 잘 조망된다.
- ⑦ 서남쪽 수구의 안쪽 북편 : 석축의 건물지 축대의 일부가 남아 있으며, 기와가 수습된다. 계곡을 오르면서 북편으로는 계단을 이룬 석축의 건물 대지가 중턱까지 있고, 기와편이 산전된다.
- ⑧ 수구의 안쪽 남측 : 평탄지가 조성되어 있고, 숯가마의 남서쪽으로 기와편이 발견된다.
- ⑨ 서남쪽 끝의 현 등산로 바로 북측 : 암반 위에도 석축의 축대를 마련하였으며 서남쪽 계곡을 내려다 보는 위치이다. 기와편이 많이 발견되며, 이와 마주 보는 수구의 북편 암반 위에도 동일한 여전이고 기와가 많아 망대류의 건물이 수구의 좌우 높은 위치에 시설되었다고 여겨진다.
- ⑩ 동남벽 서단의 약 750m 고지 지역 : 성벽의 안쪽으로 좁고 길게 평탄지가 이어져 남문 터에 이른다. 성벽을 따라 안쪽에 작은 건물들이 있었다고 여겨지며, 기와편도 약간씩 발견된다.
- ⑪ 동남벽 중앙부 : 성벽을 따라 안쪽으로 좁고 길다란 대지가 있고 기와편이 약간 보인다.

이 밖에도 성안의 거의 1/3의 범위는 남향 혹은 동남향하여 좁다란 대지가 계단식을 이룬 곳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 이들 건물지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기에 어떤 건물의 터전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이처럼 많은 공간이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곳이었다는 것은 이 산성이 단순히 평상시에 군창만 두고 있다가, 적이 침입하여 얼마간 籠城만 하던 곳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많은 주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산성이란 점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8. 鶴原山城의 정비와 복원에 대한 견해

영원산성의 성벽은 동남벽이 이어져서 크게 한줄기를 이루고, 북벽과 서벽이 역시 이어져 큰 줄기를 이룬다. 현재는 영원사에서 남쪽의 작은 개울을 건너 나있는 등산로를 따라 올라 성의 서남단에 이르며, 여기서 동북 방향으로 평탄지와 가파른 경사지를 교대로 지나 최고봉에 이른다. 이 등산로는 가장 많이 이용되며, 성벽과 성벽의 안쪽으로 이어지는 길이 이용된다. 성벽의 잔존 상태도 가장 좋다.

성벽의 구분은 앞으로의 이 산성을 관리하는 데도 필요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성벽을 앞의

구분 대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기로 한다.

㉓ 동남벽 : 동남벽은 서남단의 현 등산로 남측에서 시작하여 동북쪽 모서리의 석축 건물터가 있는 곳까지의 구간이다. 성벽이 잘 보존된 부분이 가장 많다. 그러나 성벽이 기단까지 허물어지거나, 현재도 붕괴가 진행되는 곳도 있다.

우선 현 등산로로 진입한 위치에서 좌우의 용도 모양 성벽을 복원하여 가파른 곳을 계단식으로 축조하여야 한다. 바로 위에서 성벽이 회절하는 곳부터는 정비·복원이 가능하며, 754.1m의 부분에서 기단까지 밀려난 부분도 계단식 절토 후에 기단부터 축조하여 좌우의 성벽이 연속적으로 붕괴하는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남문터까지의 구간은 거의 완벽한 복원이 가능하다.

남문터는 발굴을 하고 정비를 하며, 건물의 흔적을 찾아 복원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문구부와 측벽의 문돈부(門墩部)도 거의 제모습에 가깝다. 이 경우 높이가 높아지는 부분도 약 30~40m 구간에 대하여 복원하여야 할 것이다.

남문지에서 높아지면서 경사를 이룬 구간은 급경사 지역이 심하게 붕괴된 상태이다. 이 지역은 복원이 가능하지만 일의 양이 많으므로 다른 구간이 완성된 후에 복원하는 구간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을 듯하다.

성벽이 가장 잘 보존된 약 250m의 구간은 동남벽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 간헐적으로 무너진 성벽의 일부에 대한 보수공사로 완전히 복원이 가능한 구간이다. 곡성과 여장 및 일부의 무너진 성벽을 가장 쉽게 보수·복원할 수 있는 곳이다.

㉔ 동북쪽 용도(甬道) : 가장 높은 곳으로 정상부의 길이가 약 100m이다. 성벽은 훼손이 심하지만 북벽과 동벽이 만나는 지점에서 좌우로 갈라진 성벽이 합쳐지듯이 좁아 들며 올라가 정상부에서는 좁고 긴 용도를 이루고 있다. 좌우의 성벽에서 남은 부분의 예에 따라 정비와 복원이 가능하며, 급경사의 계단도 복원되어야 더 이상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이곳은 복원에 앞서서 건물지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시굴 조사가 필요하다.

㉕ 북벽 : 북벽과 동벽이 만나는 지점의 용도에서 서향하며 내려가 북문지를 거쳐 서쪽 봉우리(해발 866.1m)의 북쪽을 돌아 서쪽으로 향하는 回折部까지의 구간이다. 길아치에서 계곡을 따라 들어오는 가장 평탄한 곳에 북문터가 있다. 문터의 동측에는 거의 원상을 잘 보존한 치성이 있다. 성벽은 남아 있는 부분이 적고, 토루와 외환도의 양상이 보이는 곳도 있다. 다만 우선적으로는 이 길이 영원산성의 향후 활용과 가장 관계가 깊어질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즉 길아치까지 나 있는 도로가 이 바깥의 계곡 해발 약 700m까지만 연결되어 개설된다면, 영원산성으로의 관광객과 등산객은 매우 편리하게 되며, 이 경우에는 옛 주요 통로였던 북문으로 출입하게 된다. 북문은 좌우의 개구부 측면의 석축이 일부 남아 있고, 동측의 치성이 거의 제모

습을 보이므로 정비와 복원이 필요하다. 북문지는 발굴 조사하여 복원하고, 이와 아울러 치성을 정비 복원하며, 이와 연결된 좌우의 부분은 약 100m 구간을 우선 정비 차원에서 복원할 필요가 있다. 북문터 안쪽의 건물지와 평탄한 우물 혹은 연못터로 생각되는 곳에 대하여는 시굴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단계를 지나 북쪽 성벽의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는 석축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보존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㉔ 서벽 : 서벽은 북벽과 이어지는 서쪽 봉우리 回折部 서쪽에서 능선을 타고 내려가 水口에 이르르고, 다시 남향으로 올라 현 등산로까지의 구간이다. 지세가 험하여 자연 암반이 있는 곳이 많다. 성벽은 헬리포트를 지나 해발 약 760m에 이르는 구간에서 매우 잘 보존되어 있으며, 일부에 대하여는 정비와 복원이 필요하다. 소나무와 잡목으로 시야가 가리워져 있으나, 잡목의 일부를 제거하면 가장 경치가 좋은 곳으로 여겨진다. 다만 암벽 구간인 해발 760m 지점보다 아래로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많고, 성벽의 복원도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등산로는 성의 내부로 작은 소로를 개설하여 우회하도록 함이 필요하다.

서벽에서 가장 중심 되는 곳은 계곡의 수문 부근이다. 옛 통행로와 수구의 원형은 보존을 위하여도 복원이 필요하다. 성내를 향하여 내만(內灣)한 성벽은 일부가 남아 있으므로 이를 보수하고 나머지 약 30m의 구간을 복원하되, 수구와 문터를 시굴 조사한 결과에 따라 복원함이 필요하다. 이 방면으로의 등산로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등산로로 성내에 진입한 위치에 대하여도 석축을 보완하여 정비하여야 하며, 수구로 내려가는 소로도 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전체적인 보수와 정비를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이 鵠原山城의 位相을 똑바로 정립하여야 한다. 이 작업의 첫 번째는 文化財로서의 位相을 높이는 일이라 여겨진다. 현재 鵠原山城은 江原道 記念物 第27號로 指定(1979년 5월 30일 지정)되어 있다. 이 山城은 江原道の 記念物로 되어 있는지조차도 전국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고 여겨진다.

鵠原山城은 적어도 豪族의 時代에 처음 가장 큰 세력으로 등장한 北原의 梁吉과 결부된 史蹟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다음은 弓裔와 관련되어 있는 史蹟이다. 우리나라의 교과서에 등장하는 이 重要人物에 관련된 史蹟일 뿐만 아니라 高麗 忠烈王 17年(1291)에 哈丹의 侵略軍을 이곳에서 元冲甲으로 대표되는 地域의 防衛軍이 통쾌히 적을 무찌른 國難克復의 史蹟으로 人口에 膾炙되는 곳이다. 이어서 이곳은 壬辰倭亂때에 原州 일대의 주민들이 들어와 牧使 金悌甲의 지휘 아래 항전하다가 함락되어 수많은 장졸들이 목숨을 잃은 비극의 현장이기도 하다. 이후 한 동안 이 산성은 한강 상류의 要鎭으로 경영되다가 폐허가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史實은 이 산성의 가치를 충분히 말해주고 있다. 築城의 형식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山城 築造 방식에 있어서 가장 典型的인 山城의 완전한 모습을 보여준다. 位置의 選定,

甬道 施設의 活用, 女牆의 完전한 殘存, 城門과 雉城의 構造 등에서 高麗時代 山城의 특징을 가장 잘 알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國家 史蹟으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으며, 국민들에 대한 歷史教育의 산 現場으로서의 價値가 가장 높은 山城의 하나이다.

다음으로는 이 산성이 가지는 역사적 중요성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어떠한 일들이 먼저 추진되어야 할 것인지를 살펴 보기로 하자.

鵠原山城의 성벽은 일부가 남아 있다. 이 남아 있는 부분들도 간헐적으로 무너지고 있다. 성벽이 무너지는 양상을 보면, 기반이 암반인 곳에서는 암반 자체의 경사가 심한 곳에서 석재가 경사면을 타고 밀려 내려간 양상을 보이며, 암반이 아닌 곳에서는 基盤土의 함몰이나 붕괴로 말미암아 성벽이 외측으로 밀려 허물어지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성벽이 평탄한 지형을 통과하는 곳에서 보다는 이중의 경사를 이룬 곳에서 심한 붕괴 현상을 보여 준다.

더 이상의 붕괴를 막고 현재의 성벽을 유지하거나, 현재의 성벽에 대한 보수를 통하여 본디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점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 ① 성벽 자체의 붕괴의 원인을 보면 순수한 석축 성벽이 가지는 지탱력에 문제가 있다. 즉 성벽의 안쪽과 바깥쪽을 할석으로 쌓으면서 성벽 중심에는 이가 맞지 않는 작은 석재로 채운 곳에서 붕괴가 일어나고 있다. 성벽의 너비가 넓지 않아서 성벽 중심에 채워 넣은 석재의 양도 한정되어 있으나, 지속적인 압력에 의하여 중간부위가 바깥으로 뒹겨지는 현상을 보인다. 따라서 새로 보수되는 성벽은 외면과 내면을 같은 크기의 할석으로 축조 하되, 첫 번째의 층을 가로로 쌓고, 윗층을 세로로 쌓아 이 층위의 교대 때마다 가로 세로를 번갈아 축조하여 돌이 압력에 의하여 밀려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성벽의 기초 부분에 대하여는 성벽을 해체하거나, 기초부를 발굴하지 않아 확실한 것은 아니나, 무너진 곳에서 보면 기울기가 있는 벽면을 그대로 이용한 듯하다. 성벽의 보수에서는 기초 부분의 기단을 계단식으로 정리하고, 성돌을 수평으로 축조하여 점차 內收시키며 쌓아 기울기가 70도 정도로 되도록 쌓으므로서 견고함을 높여야 할 것이라 여겨진다.
- ③ 성벽은 부분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가 있으나, 현존하는 성벽의 너비대로 축조하여야 한다. 만약 전체가 무너진 경우이고 비탈이 심한 곳에서는 성벽 아래의 너비를 3.6m를 기준하고, 안쪽의 쌓은 높이가 1m 이상이 된 다음 외측으로 1.2m의 너비로 여장을 축조하여 여장의 높이가 90cm까지 쌓도록 하되, 단면을 사다리꼴로 쌓아 여장의 윗면 너비가 60~70cm가 되도록 쌓아야 될 것으로 여겨진다. 경사를 따라 축조되는 성벽은 약 3~3.6m 마다 단을 주어 수평을 잡은 후 축조하고 윗면의 여장도 차례로 계단식의 단을 이루어 오르도록 한다. 성의 내벽도 이에 따르며, 성벽 안쪽으로는 조밀한 계단을 만들어 內環道를 조성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④ 성벽의 보수와 정비 및 복원에는 당초 사용된 성석을 이용하도록 한다. 성내에는 별도로 석재를 채취할 수 있는 암반이 많이 있으나, 자칫 경관을 해칠 수 있으므로, 무너진 석재를 끌어 모아 사용하되, 여기에 보태져야 할 석재는 가능한 한 당초 성벽에 사용한 석재와 동질의 것을 전제로 하고, 새로운 석재의 유입 비율을 50%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당초의 모습과 근사한 성벽으로 복원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성벽은 구간별로 단면도에 예시된 상태를 기준하여 설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설계는 기초를 놓기 위한 기반의 굴착과 정리·기초에서 일정한 높이까지의 석축·내면 체성과의 접축·여장부분의 축조를 고려하여야 하며, 입면도의 작성은 사진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자칫 입면을 직선이나 모자이크하여 설계하므로써 발생하는 축조면의 이질화를 최대한 방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에 유의하여 정비하되, 한꺼번에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예산과 물자의 구득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 급한 곳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 완료되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대략 다음과 같은 순서로 보다 정확한 실태의 파악과 정비 공사를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1차년도 : 동남벽 등산로로 올라선 지점에서 鞍部와 경사면, 석축이 비교적 잘 남은 남문터 직전까지의 보수 작업. 남문터와 숲가마의 발굴작업. 수구 부분과 숲가마의 발굴 작업. 사적 지정과 향후 연차적 정비 계획의 수립. 영원사 방면과 길아치 방면의 입도 확보 문제의 해결.
- 2차년도 : 동남벽 남문지의 복원 공사와 해발 902m까지의 성벽 복원 작업. 수구 부근의 성벽 복원 작업. 동북 모서리의 석축 건물터와 甬道 부분의 발굴 작업. 북문터 일원과 치성 동측 및 숲가마 부분의 발굴 작업.
- 3차년도 : 동남벽 해발 902m 이상지역과 甬道 부분의 복원 작업. 북쪽 성벽 북문지 동측 부분의 복원 작업. 북쪽 866.1m 봉우리 정상과 주변의 건물지 등의 발굴 작업.
- 4차년도 : 북쪽 성벽 서측 구간 및 북문지 복원 작업. 서측 성벽 북반부 복원 작업. 성내 중앙부 건물지 발굴 작업.
- 5차년도 : 서측 성벽 남반부 복원 작업. 성내 주요 건물지 및 주요 유적 정비 작업. 성내 주요 부분에 대한 안내판 설치. 간이 휴게 시설 마련.

이러한 예정으로 鶴原山城을 정비하려면 해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 기초단체의 힘과 지방 정부의 힘으로는 부족하며, 국가 차원의 예산 마련과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Ⅲ. 海美山城：金臺城(金臺山城)의 조사

1. 해미산성의 명칭과 역사적 배경

海美山城의 명칭은 문헌 기록에 보이지 않으나, 『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에서 치악산에 있는 산성에 대하여

(A) 板富面 金垆里 雉岳山の 1. 國有林 金後山城이라 부른다고 하고, 吉嶸時의 북방 약 15町인 雉岳山の 西方 中腹 峰筋에 있는 土城으로 둘레가 약 21町인데 전부 붕괴되어 겨우 형적이 있다. 甲種要存豫定林野.

(B) 板富面 金垆里 雉岳山の 1. 國有林 領原山城이라 칭하며, 치악산의 西方 山腹에 있는 石城인데 주위 약 25町, 높이 약 5間, 거의 붕괴되었고, 新羅 神文王 때에 쌓고, 弓裔가 여기에 웅거하였으며, 高麗 때 元冲甲, 壬辰倭亂 때 金梯甲이 여기에 웅거하였다고 이름. 甲種要存林野.

(C) 板富面 觀雪里 一部가 雉岳山の 1. 國有林이고 一部는 私有田垆. 金臺山城이라 칭하며 雉岳山の 西方 山腰에 있는 石城으로 둘레가 약 13町이고, 높이가 약 3間으로 거의 붕괴됨. 州人 松弼이 일찍이 이 성에 웅거하여 반란하였다 함. 甲種要存林野.

라고 기록하였다.²⁰⁾ 이처럼 파악한 세 개의 산성은 현재의 치악산 香爐峰 정상의 남서쪽 사면에 있는 것(金後山城：金頭山城), 鵠原山城, 금대리 일론 마을 뒷산에 있는 것(海美山城：金臺山城)을 말함이다. 이 세 산성에 대하여는 (A)를 金頭山城·金後山城으로 파악하고, (B)는 鵠原山城(靈原山石城), 그리고 (C)를 海美山城·下尾山城·金臺山城 등으로 부르고 있다.²¹⁾

『新增東國輿地勝覽』의 경우에는 金臺城에 대하여

在州東三十里 雉岳山腰 石築周六千六十尺 內有三井 今廢 州人松弼據此城叛 州爲一新

이라 하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상의 金臺城은 위의 (C)에 해당하는 해미산성이라 부르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산성은 치악산의 香爐峰에서 서남쪽으로 뻗어 내려와 현저히 낮아진 능선 상에 솟은 산봉과 거기서 파생된 작은 가지능선을 에워싼 산성에 해당하며 석축의 산성이다.

20) 朝鮮總督府, 1942 『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 530面.

21) 原州郡·江原郷土史研究會, 1994 『原州郡의 歷史와 文化遺蹟』에서는 이 두 산성의 명칭에 대하여 고증하고 있으나, 金臺山城을 현지 주민들은 海美山城이라 하고, 현행 관광용 지도류에도 해미산성이라 표기하고 있음을 참작하였다.

이 성은 『輿地圖書』에서는 金臺山城이라 보이며, 『大東地志』에서는 金臺城이라 하였고, 뒤에다가

新羅聖德王二十年徵何瑟羅丁夫二千築北原京城

이라고 하였다. 이 기록은 『三國史記』의 新羅本紀 聖德王 20년(721)의 기록에서

秋七月 徵何瑟羅道丁夫二千 築長城於北境

이라는 기록과는 달라서, 『大東地志』의 撰者가 무엇인가를 혼동한 것으로 여겨진다. 『高麗史』의 高宗 44年 夏四月 乙亥에는

原州賊安悅等 據古城叛 遣將軍尹君正 郎將權贊 領兵討之

라 하고, 이어서 丙子일의 기록에는

君正與賊三百餘人 戰于興元倉 大敗之 有人斬安悅出降 君正入城 斬其巨魁松庇·敦正·唐老等數人 脅從者徙置于島

라 하였다. 이 기록은 『高麗史節要』에서도 동일하게 보이고 있다. 그러나 『高麗史』의 地理志에서는 高宗 46년에 “以州逆命 降爲一新縣”이라고 하여 松庇의 반란이 있는 2년 뒤에야 一新縣으로 강등된 사실을 적고 있다. 따라서 이후 조선시대의 지리지들이 마치 松弼이 高宗 46年(1259)에 반란한 것으로 오인하도록 기록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반란이 있었던 것은 高宗 44年(1257)의 일이었고, 이후 이듬해인 1258년에 강등되거나,²²⁾ 혹은 『高麗史』 地理志의 기록대로 1259년에 강등되었으나, 바로 이듬해인 元宗 元年(1260)에 아마도 새로운 왕의 등극으로 다시 州로 회복되었다.

1257년의 반란은 安悅·松庇·敦正·唐老 등이 주동자인데, 지리지에서는 松弼이라 기록되었다. 松庇와 松弼은 동일인의 다른 표기로 여겨진다. 庇는 음이 “비”로서 뜻은 덮는 것과 감싸거나 보호한다·의지한다·그늘 등으로 새긴다. 弼은 음이 “필”이며, 뜻은 돕다·보좌하다라는 뜻으로 새긴다. 이처럼 비슷한 의미의 한자어로 표기된 점으로 보아 동일 인물로 여겨도 좋을 듯하다.

이들이 반란을 일으킨 곳을 古城이라 하였다. 이 古城이 곧 金臺城이라면, 당시에는 이미 金臺城 이외에 새로운 성이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 이 새로운 성이 곧 金臺城을 대신하여 雉岳城으로 역할을 한 鵠原山城이라 여겨진다. 왜냐하면 영원산성에서는 정상부가 아니고서는 직접 원주시가 바라다 보이지 않고, 원주시로부터는 더욱 멀리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다. 또한 산성의 축조 방법에 있어서 금대성은 영원산성보다 古式에 속하는 석축 산성이다. 금대성은 일종의 山

22) 『世宗實錄』 地理志에서는 高宗四十五年戊午로서 1258년이라 하고 있다.

頂式山城에 해당되나, 영원산성은 성안에 작은 계곡이 있어서 보다 籠城을 장기간 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그리고 성을 포위하기에도 더 어려운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처럼 계곡을 포용하고, 오랜 동안 농성할 수 있는 산성은 이미 후삼국 시기에 전국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며, 고려 시대의 후기에는 거의 일반화되는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2. 해미산성의 위치와 지리적 환경

海美山城(金臺城 혹은 金臺山城)이라 불리는 산성이 위치한 곳은 原州市 觀雪洞과 原州市 板富面 金垆里의 경계를 이루는 산(699.2m)에서 남쪽으로 뻗은 산(해발 629.7m와 627.5m의 두 봉우리에서 서남쪽으로 뻗은 5개의 가지능선을 포용) 위에 있다. 山城의 남쪽 산 아래 마을의 행정적인 地名이 금대리(金垆里)이다.[사진 129] 이 금대리의 서쪽에서는 原州 ↔ 堤川을 오가는 5번 국도와 중앙선 철도가 加里破 고개를 넘는다.[사진 129·130] 이 가리파 고개[사진 130]에서 발원한 계곡 물이 서북쪽으로 흘러 내려가 금대리의 치악골 골짜기에서 흘러 내린 물을 합류하는데, 이 합류 지점에 있는 마을이 “함박골”이다. 함박골에서 북쪽으로 치악골 계곡을 따라 올라 가면 금대 초등학교의 일론 분교가 있다. 소쩍새 마을이 있어서 유명하기도 한 이 마을이 “일론” 마을이다. 성은 이 일론 마을에서 북서쪽으로 작은 계곡을 타고 올라 다시 동쪽으로 올라가게 된다.[도면 1·31]

성이 위치한 산은 최고봉이 해발 629.7m이며, 이 봉우리의 남서쪽에 627.5m의 봉우리가 있다. 산 모양은 서쪽과 남쪽으로 낮아지면서 5개의 가지능선과 4개의 작은 계곡을 만들고 있으며, 성벽은 이 골짜기들의 상단부를 돌아가고 있다.

해미산성은 치악산의 향로봉에서 남쪽으로 뻗은 南台峰과 시명봉의 높은 산줄기가 동편을 막아선 반면, 향로봉에서 남남서 방향으로 현저하게 낮아져 뻗은 산줄기가 원주시와 판부면의 경계를 이루면서 서쪽으로 원주시를 볼 수 있는 곳에 있다. 향로봉과 해미산성을 잇는 능선에 길아재라 불리는 고개가 있으며, 이 고개는 원주시 관설동의 숯둔 마을과 반곡동의 안가터 마을에서 똑바로 고개를 넘어 영원산성으로 가는 길목이 된다. 이 길아재의 남쪽으로 해발 744.9m의 봉우리로 올라 다시 서쪽으로 산능선을 타고 가다가 해발 699.2m의 봉우리에서 똑바로 남쪽의 鞍部를 지나 오르면 산성에 도달한다.

산성의 북쪽에 있는 鞍部는 해발 588m의 고개가 있으며, 이 고개는 서쪽으로는 옥개골, 동남으로는 가래골을 잇는다. 산성의 서쪽으로는 옥개골과 송골이라 부르는 골짜기가 있으며, 송골 골짜기는 이 산성에서 내려가는 2개의 골짜기 물을 아우른다.

이 산성의 남쪽으로는 굴곡을 이루어 산봉우리가 이어지며, 남서쪽으로 느릅실골이라 불리는 골짜기가 있다. 이 느릅실골 골짜기가 양금대에서 올라가는 길이다. 이 성의 남동쪽으로는 치악골의 일론 마을로 통하는 두 개의 골짜기가 있다.

이러한 위치는 해미산성이 치악산의 남쪽에 있는 가장 중요한 교통로를 控制하기에 알맞는 위치라는 점을 알려준다. 5번 국도와 중앙선이 지나는 협곡은 이 산성에서 남쪽과 남서쪽으로 내려가는 계곡을 아우르게 된다. 한편 원주에서는 가장 쉽게 치악산의 줄기에 있는 이 산성으로 入保할 수 있다.

이 산성에서는 동쪽으로 영원산성이 멀리 건너다 보인다.[사진 131] 그러나 향로봉 쪽의 금두산성은 같은 산줄기로 연결되지만 가물거리고, 일부는 산줄기의 연봉들이 가로막고 있다.

성내는 깊은 계곡이 없이 산능선과 작은 谷部の 상단을 돌아가는 성벽이어서 山頂式, 혹은 테뫼꼴의 형식에 속한다. 그러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방의 골짜기 부분은 각기 독립된 공간을 갖추고 있다. 성벽의 안쪽을 따라가며, 內環道가 있거나, 성벽 위로 한바퀴를 돌 수 있다.

3. 해미산성의 현황

(1) 성의 평면 형태와 규모[도면 32]

앞에서 언급한 것 처럼, 이 산성은 해발 629.7m와 627.5m의 봉우리를 가장 높은 곳으로 하여, 거기서 남쪽과 서쪽으로 뻗은 산줄기를 따라 성벽이 축조되었다.

전체적인 평면 구조는 매우 복잡하다. 성의 가장 북쪽인 가장 높은 봉우리에 북문터가 있다. 이곳에서 출발한 성벽은 서쪽으로는 능선의 外緣을 따라 내려가 서북쪽 回曲部에 있는 동문터에 이른다. 이 성벽은 성 전체의 북쪽이므로 일단 북쪽 성벽이라 하겠다. 이 북쪽 성벽의 길이는 약 340m이다.

북문터의 동측 開口部 側壁에서 시작하여 동남향하여 627.5m의 고지를 돌아 다시 서남향하여 彎曲한 부분을 지나 回曲하는 곳까지는 성의 동쪽이 되므로, 동쪽 성벽이라 할 수 있다. 이 동쪽 성벽의 남단에서는 성벽이 回曲하며, 성 밖으로 鞍部를 지나 572m의 봉우리가 있다. 이 동쪽 성벽은 길이가 약 410m이다.

동쪽 성벽의 남단인 回曲部에서 현저히 낮아지며 성벽은 서쪽으로 내려가 가장 큰 谷部를 횡단하여 가장 남쪽인 553.5m의 봉우리를 回曲하며 돌아 다시 彎曲한 다음 539.9m의 치성 부분에 이른다. 이 구간은 성의 남쪽 면에 해당 하므로 남쪽 성벽이라 할 수 있고 세군데의 문터와 남쪽 수구터가 있다. 이 남쪽 성벽의 길이는 약 720m이다.

북쪽 성벽의 서단에서 남쪽 성벽의 서단까지는 두 개의 골짜기를 가지며, 중간에 해발 555m의 능선을 돌아 감고 있다. 이 구간은 성의 서쪽면에 해당되므로 서쪽 성벽이라 할 수 있다. 이 서쪽 성벽의 길이는 약 350m이다

그리하여 전체 성벽의 길이는 약 1,820m가 된다. 이 길이는 금대산성에 대한 기록에서 보이는 6,060尺과 어떤 관계일가가 문제이다. 6,060척을 布帛尺으로 환산하면, $6,060 \times 46.73\text{cm}$ 는

2,832m가 되며, 營造尺으로는 $6,060 \times 31.24\text{cm} \approx 1,893\text{m}$ 가 된다. 결국은 이 산성에 대한 기록이 아니거나,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성의 둘레를 1,860m로 파악한 것으로 보아,²³⁾ 이 산성은 영조척으로 잴 값으로 기록되었을 경우에는 가까운 수치라 할 수 있다.

(2) 성벽

해미산성의 성벽은 석축된 외면이 남아 있는 곳이 있으므로 석축 산성이라는 기록과 맞는다. 성벽은 대부분이 붕괴되었으며, 심하게 유실되어 당초의 성벽 안쪽 土砂가 밖으로 유출되는 곳도 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곳에서는 성벽의 벽면이 잘 남아 있어서 본디의 웅장한 성벽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곳도 있다.

성벽은 전체적으로 동일한 수법으로 축조된 양상은 아니고, 곳에 따라서 남아 있는 양상도 다르다. 또 굴곡과 경사가 심한 곳과 평탄한 곳이 있어서 복잡한 구조를 보이므로 구간을 나누어 차례로 설명 하기로 하겠다.[도면 33]

1) 북쪽 성벽

앞에서 나눈 것 처럼 북쪽 성벽은 성벽이 성내의 가장 높은 지점을 통과하는 곳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능선을 타고 내려간다. 북문의 開口部 서측의 側壁에서 서쪽으로 가장 높은 부분은 직경 10m 정도의 둥근 대지로 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북쪽으로 능선을 따라 낮아지는 鞍部쪽으로 내려다 보기에 가장 좋은 위치이고, 성내 전역을 보기에 가장 좋은 위치여서 망루나 장대 등의 시설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 성벽은 붕괴되어 축조된 부분이 드러나 있지 않으며, 바깥으로는 작은 谷地를 이루고 있어서 성벽은 안쪽으로 만곡하는 평면 형태를 가지고 서쪽으로 낮아진다. 이 성벽의 안쪽으로는 內環道를 이루고 있으며, 민묘가 있는 곳으로 부터는 능선의 정상을 타고 내려간다. 성벽의 잔존부는 민묘에서 서쪽으로 더 내려간 곳에서 짧게 새 곳이 있다. 산 능선을 따라 능선 外緣으로 따라가다가 성벽은 약간 방향을 바꾸어 서남향 한다. 이 완만한 回折部는 북쪽 성벽의 거의 중간이 되며, 밖으로 가지능선이 뻗은 곳이다. 아마도 이 부분에는 능선을 타고 오르는 적을 가상하여 별도의 시설물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된다. 이 지점을 지나 서남향하여 경사는 가파르게 된다. 성벽은 두차례 완만하게 안쪽으로 彎曲되고 있어서 지형을 충실하게 이용하고 있다. 석축의 외벽면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와 암반을 이용한 성벽이 외면을 드러낸 곳이 있으며, 성벽의 축조된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다.[사진 158·159]

북쪽 성벽의 西端 가까이에 이르러 성벽은 완만하게 彎曲하고 있으며, 이 지점에 석축이 남

23) 原州郡·江原郷土文化硏究會, 1994 『原州郡의 歷史와 文化遺蹟』.

은 부분이 약 20m가 된다. 그 가운데서도 女牆의 시설 일부가 남은 곳의 단면을 그린 것이 [도면 34 : 단면 #7]이다.[사진 160]

이 부분의 성벽은 아래에서 위로 오르면서 외면의 면석을 內收시키며 축조하여 70도의 경사를 이루고 있다. 여장의 부분과는 외면에서 眉石의 구분이 없으며, 18층을 3m의 높이로 축조하였다. 여장의 윗면은 너비가 1m에 불과 하고, 안쪽으로는 3층으로 축조한 60cm 높이의 여장이 남아 있다. 이 여장의 안쪽으로는 석재가 일부 덮이고, 경사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축조된 성벽은 북쪽 성벽의 전체에 걸쳐 거의 동일한 축조 방법을 이루고 있었다고 여겨지며, 석재는 대체로 외면을 장방형으로 다듬어 수평을 이루며 축조하되, 아래에서 위로 오르면서 4~8cm씩 물려 쌓는 계단식 외면 쌓기를 하고 있다.[사진 161·162·163]

2) 서쪽 성벽

해미산성의 서쪽 성벽은 서북쪽으로 가지능선을 舌狀으로 回曲한 성벽의 先端에서 시작하여 西向한 두 개의 계곡을 횡단하여 다시 서남향한 곳의 능선 선단에 있는 雉城까지를 말한다.

성벽은 계곡 부분이 지속적인 沙汰로 말미암아 거의 붕괴되고, 중앙의 회절부 일부와 서쪽 성벽 남단의 치성 가까이에서만 잘 남은 외면을 볼 수 있다.

서쪽 성벽의 북쪽은 북쪽에서 서쪽으로 내려가는 능선이며, 좁고 길게 능선을 감아 돌렸다. 여기서 남쪽으로 서쪽 성벽 중앙의 555m능선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바라다 보이며, 이 555m의 능선 성안 선단에 송전선 철탑이 있다. 계곡은 안쪽으로 약간의 평탄지를 가지며, 이 산성의 남쪽 계곡과 함께 가장 큰 계곡이다. 성내 서북부의 물은 이 계곡으로 흘러 나가며, 그 때문에 중앙에는 물이 흘러가면서 土砂가 유출되어 작은 도랑을 이루고 있다. 평상시에는 표면으로 물이 흐르는지는 않는다. 그러나 좁게 파여진 아래로 평상시에도 적은 양의 물이 배수되며 이곳의 안쪽으로 우물터가 있다. [사진 164·165·166]

이곳의 좌우는 거의 같은 높이로 성벽이 계곡을 돌아가고 있다.

서쪽 성벽의 중앙부는 이 산성의 중앙에서 서쪽으로 갈라진 능선이 서쪽을 향하여 뻗어내려 해발 555m의 지점 외곽에서 성벽이 回折한다. 이곳에 송전탑이 있으며, 이 송전탑의 외곽 서측과 남측으로 압반의 위로 축조된 성벽은 일부가 외면을 남기고 있다. 다시 남쪽으로 계곡을 지나면서 성벽은 사태로 무너져 자취가 없다. 이처럼 가장 많이 훼손된 것은 이 계곡의 안쪽에 우물터로 보이는 곳이 있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서쪽 성벽의 남쪽 부분은 다시 중앙에서 서남향한 능선을 回曲하여 돌아간다. 이 부분에는 넓은 건물터의 흔적이 있고, 화돌 하나가 있다. 이 건물지는 길이 80m, 너비 20m 정도이며, 이곳에 있는 화돌은 1m 길이에 90cm의 너비의 타원상의 돌 위에 중앙부에 깊이 10cm, 직경 14cm의 U자형의 단면으로 둥근 구멍을 파낸 것이다.[도면 51·사진 168]

이 건물터의 외곽을 돌아간 성벽은 이 산성에서 가장 잘 남아 있는 석축의 모습을 보여 준다.[사진 169] 그리고 이 능선을 감아 도는 곳의 선단에 치성으로 처리한 곳이 있으며,[사진 170] 그 남단을 계단식으로 만들어 꺾여 통행하는 작은 암문을 만들고 있다. [사진 171·172]

3) 남쪽 성벽

해미산성의 남쪽 성벽은 가장 낮은 지역을 통과하면서 가장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 서쪽 성벽의 남단인 雉城에서 시작하여 동향으로 彎曲하여 들어와 남서문터가 있고, 이 문터를 지나 남향한 성벽은 북쪽의 가장 높은 곳에서 남향한 주능선의 선단에 이르러 가장 길다랗게 능선 대지를 감싸 回曲하여 다시 남쪽 계곡을 만난다. 가장 큰 남쪽 계곡을 지나면서 높아지기 시작하여 동문터에 이르기까지 지형에 따라 굴곡을 가진다.

남쪽 성벽은 두 개의 계곡사이로 하나의 능선이 길게 뻗어 나온 부분으로서, 이 뻗어나온 능선 선단은 평탄한 대지를 이루었다. 이곳에는 두 개의 송전선 첩탑이 있고 민묘들이 자리잡고 있다. 남쪽으로 길게 뻗어 나온 능선의 동측과 서측은 각기 동쪽과 서쪽에 있는 계곡을 좌우에서 내려다보며, 각기 건너편 능선의 선단과 마주 보면서 계곡 자체를 虎口로 만들고 있다.

이 남쪽 성벽은 거의 무너지고 잔존된 석축의 외면이 남은 곳은 드물다. 그러나 윤곽은 內環道를 따라 뚜렷하게 남아 있다.

남쪽 성벽에는 두 개의 문터와 하나의 水口 터가 있다. 문은 남쪽 성벽의 서쪽인 서남 雉城의 동측 계곡부에 남서문터가 있으며, 중앙의 남쪽으로 길다랗게 뻗은 능선을 돌아가는 곳의 서쪽 성벽이 작게 內曲한 곳에 남문터가 있다. 그리고 남향의 가장 큰 계곡의 중앙부에 물이 빠지는 수구터가 있었을 것이나, 沙汰로 자취를 분간하기 어렵다. 이 수구터의 안쪽으로 우물이 있어서 지금도 식수로 이용된다.

남쪽 성벽의 서쪽에 해당하는 남문터의 서측에 남은 성벽이 있다. 이 지점의 단면을 그린 것이 [도면 37 : 단면 #10]이다. 성벽은 할석이 비교적 고르고, 외면 밖으로 무너진 석재가 흘러 내려 쌓여 있다. 외면은 안쪽에서의 압력으로 성벽의 중간 부분이 통겨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성벽은 외면에서 3m의 높이까지 남아있으며, 12~13층을 쌓았는데, 윗쪽에서의 석재의 축조된 모습에서 당초 아래에서 위로 오르면서 안쪽으로 조금씩 들어 쌓아 기울기를 주었음을 알 수 있고[사진 173] 성벽의 외면은 석재를 가공하여 축조하되 안쪽으로는 비교적 다듬지 않은 돌과 부스러기를 채웠다. 이는 문의 側壁에서 성벽을 쌓은 성석 사이에 켜기돌을 많이 사용한 특징이 있는 것과 비교된다.[사진 174] 성벽 윗면에는 성안의 지면과 거의 같은 높이로 평탄하게 돌을 채운 형태에 커다란 돌이 있어서 성문의 문루를 세웠던 礎石으로 여겨진다.

4) 동쪽 성벽

해미산성의 동쪽 성벽은 동암문터에서 북문터에 이르는 구간이다. 이 구간은 중간에 이 산성 전체의 동쪽 가장 높은 봉우리가 있어서, 성벽이 이 봉우리의 정상 외면을 지나면서 밖으로 돌출된 형태를 가진다.

동암문터를 지난 성벽은 크게 內彎하여 평탄부를 지나는데, 이 부분은 능선 줄기의 외측 사면 아래로 성벽이 마련되어 있었으나, 모두 외면이 무너진 상태이다. 다만 內環道가 있다.[사진 133] 이 內彎된 곳을 지나서는 능선의 외연을 따라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계속 올라간다. 이 올라가는 곳에는 군데군데 석축의 외면이 남은 부분이 있으며, 두곳의 外向 回折部와 두곳의 內彎部를 가진다. 성 밖의 경사면은 두 개의 능선이 낮아진 곳에 바위 절벽을 이룬 곳과 능선을 타고 오르는 길이 내려다 보인다.

첫 번째 내만부를 지나 밖으로 내민 곳을 지나 다시 안쪽으로 내민 곳에 성벽이 남은 곳의 단면을 그린 것이 [도면 38 : 단면 #3]이다. 이곳은 성의 아래의 지반에 약 2m의 평탄지가 있고, 성벽은 외면을 9층 2m의 높이가 남아 있다. 성벽은 내부에서 밖으로 밀려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며, 외측 상단에서는 내환도 밖으로 석재가 무너져 내려간 상태이다. 이곳의 성벽은 당초 3m 이상의 높이였다고 여겨지며, 석축은 역시 아래서 위로 오르면서 조금씩 안쪽으로 들어 쌓은 모습이다.[사진 138·139·140]

이곳의 성벽 축조 방법은 커다란 할석을 이용하고, 켜기돌을 사용한 점에서 특징이 있다.

가장 높은 곳에 이르기 전에 암반의 위로 성벽이 지나는 곳에는 석축의 외면이 잘 남은 부분이 있는데, 간헐적으로 4곳이다.[사진 146·147·148·149] 이 정상부 627.5m의 외곽으로 성벽 위에서는 전망이 가장 좋아서 산 아래 동측으로는 영원산성으로 들어가는 계곡과 거기서 원주로 직접 넘어가는 길아치의 동쪽 계곡이 훤히 내려다 보인다. 북측으로는 건너편에 높이 솟은 봉화봉이 건너다 보인다. 이 곳에서는 영원산성이 곧바로 마주보이며, 북쪽의 이 성내 최고 봉에서 남향한 성내의 능선 안쪽을 한눈에 볼 수가 있다.

동쪽 성벽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를 지나는 외곽에 낮게 남은 성벽의 아래 부분이 남아 있다. 봉우리의 정상에서 동쪽으로 단면을 그린 것이 [도면 39 : 단면 #4]이다.

이곳의 산 정상부는 직경 1.5m의 규모로 움푹 파여져 있다. 도굴갱으로 여겨지며, 당초 이 부분은 둥근 무덤의 봉분처럼 되어 있었다고 여겨진다. 이곳에서 약 2m를 내려와 內環道가 너비 2m를 차지하고, 밖으로 경사면을 이룬 아래에 3층의 석축이 남아 있다. 석축은 비교적 큰 할석을 기초로하여 위로 4~5cm를 들어서 윗돌을 축조하고 있다. 위로 무너진 경사면은 약 30도의 경사를 이루었다.

이 봉우리를 지난 성벽은 방향을 동북으로 향하여 가장 높은 봉우리의 북으로 있는 북문을 향한다. 성벽은 중앙의 약간 높아진 곳을 경계로 양편에 鞍部를 지난다. 특히 동쪽의 鞍部를 지

나는 성벽은 외측으로 계단식 단을 이룬 후 계곡으로 급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성벽은 마치 영원산성에서 보듯이 외면에서는 여장까지 쌓아 올리고, 안쪽으로는 여장 처럼 된 성벽의 안쪽으로 단을 이루고 있어서 다른 지역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벽은 잔존 상태가 4곳에서 확인되고 있다.[사진 151]

(3) 성문

1) 北門 [사진 152~157]

해미산성의 북문은 성의 가장 북쪽이며, 가장 높은 봉우리의 북편으로 능선을 따라 내려가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 이 성문을 나서서 능선을 따라 가다가 동쪽으로 내려가면 영원산성으로 통하는 길로 들어서게 된다. 성문은 좌우의 측벽이 교란된 채로 남아 있으며, 외에 가깝게 문짝을 달아 세운 門扉孔이 마련된 礎石이 좌우에 남아 있다. 문의 너비는 240cm이고, 측벽은 동쪽과 서쪽이 밖에서 안으로 약간 경사를 이루고 있으나 비교적 평탄하여 한두개의 계단을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도면 40]은 이 북문터의 평면을 그린 것이다. 開口部の 측벽은 커다란 할석을 사용하였으며, 똑바르게 남아 있지 못하고 門道 쪽으로 밀려나거나 붕괴된 모습을 보이나 대체로 너비가 2.4~2.5m로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동서의 측벽에서 무너져 내린 석재가 문도에 뒹굴려져 있는 상태이다.

동서의 측벽 길이는 대략 5m가 되며, 측벽의 바깥에서 안쪽으로 각각 2m의 거리에 문짝 기둥을 받는 홈이 만들어진 초석이 거의 원위치에 그대로 남아 있다. 開口部の 前面으로는 성벽과 같이 외연을 이룬 계단석이 있었다고 여겨지나, 현재 지표상에는 서측에 하나가 보인다.

開口部の 좌우 성벽은 다른 곳 보다 넓고 높았다고 여겨지나, 개구부를 향하여 무너지고 밖으로도 무너진 상태이다.

문짝 기둥을 받는 초석의 구멍은 직경 8.5~9cm의 깊이가 5.5cm 크기로 원통형으로 되어 있다. [도면 42·43]이 門扉軸受孔의 간격은 2.1~2.2m 사이에 있으므로, 문짝의 크기 가운데 문짝의 너비를 알 수 있다. 즉, 문짝이 좌우 두 개로 되었다면, 문짝의 너비는 이 軸受孔 사이의 간격을 반으로 나눈 수치보다 작아야 한다. 그러므로 문짝이 두 개로 구성되었다면, 하나의 문짝 너비는 110cm 이내가 된다. 문짝을 매다는 기둥의 굵기는 모르나, 이 기둥에서 軸受孔으로 끼워진 부분의 직경이 8cm에 해당된다.

[도면 41 : 단면 #5]는 이 門扉 軸受孔이 있는 부분의 동서 방향 단면을 그린 것이다. 문짝을 단 기둥홈의 좌우는 開口部 石築과의 사이에 약간의 공간이 있다. 이 공간은 開口部の 안쪽에 좌우로 나란하게 기둥을 세우기 위한 간격이거나 기둥과 이어진 문설주(門楔柱)를 세운

공간이다. 이 문설주 위의 門楣는 남아 있지 않다. 開口部의 양쪽에는 기둥을 세울 수 있는 큰 할석이 있으므로 문은 2.4m의 길이에 2.7m의 너비로 1간의 사이에 만들어 졌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의 안쪽으로는 門道가 2.1m로 좁혀져 있었다고 여겨진다.

[도면 41 : 단면 #6]은 문도 중앙 부분의 단면이다. 이로서 보면 문도는 안쪽과 바깥에서 약 1m의 높이차를 보인다. 따라서 2~3개의 계단을 이루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2) 南門 [사진 174~178]

해미산성의 남문은 서남쪽의 雉城에서 동쪽으로 계곡을 이룬 남쪽 성벽에 있다. 치성을 만들어 回曲된 성벽은 이 문을 계곡쪽으로 내어 문의 좌우에서 계곡인 문밖을 控制하게 만들었다.

문은 계곡에 자리하여 동서쪽의 측벽과 서쪽 측벽 위의 주초석으로 생각되는 유구를 남기고 있다. 문터의 밖으로는 많은 석재가 흘러 내렸다. 문의 開口部는 북문과 같이 너비가 2.4m이다. 開口部의 안쪽으로는 서쪽 측벽에서 8m까지 석축되어 있으나, 동쪽에서는 무너져 확인되지 않지만 표면의 모습으로 보아 대략 같은 길이까지 측벽을 축조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개구부의 서측 성벽 위에는 開口部 측벽의 벽상에서 서쪽으로 2m쯤 떨어져서 안팎으로 두 개의 주초석이 남아 있다. 이 덩벙주초는 성벽 선단에서도 2m의 안쪽에 있고, 거기서 북으로 4.8m의 간격을 두고 또 하나가 있다. 이것을 기준하여 추측하면 이곳에는 커다란 문루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문루를 문의 구조와 같이 추측할 때, 7척 간격으로 전면 3간, 측면은 8척 간격으로 2간의 전물이 있었다고 추측이 가능하다.

[도면 45 : 단면 #11]은 이 문터의 開口部 동서 단면을 그린 것이다. 양쪽의 측벽은 5층, 1m 이상 남았으나, 개구부에 낙석이 가득 굴러 있어서 실제 문의 하부구조는 이 속에 묻혀 있다고 여겨진다.

[도면 45 : 단면 #12]는 開口部의 門道부분의 남북 단면을 그린 것이다. 문부분과 그 밖으로의 경사는 북문보다 심하므로 계단식, 혹은 懸門式의 문도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3) 南暗門 [사진 179·180]

해미산성의 남암문은 성 전체의 남쪽에 있다. 남쪽으로 길게 뻗어나온 능선을 回曲하는 성벽은 남쪽에 면한 부분에서 內彎하고 있는 곳이 있으며, 이곳에 문터의 잔해가 남아 있다. 송전선의 철타미 이 문터의 서북쪽과 동남쪽에 있다. 문의 좌우가 밖으로 튀어나간 때문에 문은 안쪽으로 휘어진 성벽의 중앙에 있어서 작은 谷部로 내려가 능선으로 연결되며, 이 길은 남문으로 올라오는 주된 통행로에서는 보이지 않으면서 남문을 공격하는 적을 그 남쪽 능선에서 몰래 나가 협공하거나, 남쪽의 큰 골짜기로 오르는 적을 협공하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 몰래 만

든 작은 暗門이다. 이 암문을 나서서도 일론 마을과 양금대로 내려가는 길과 이어지며, 동시에 성내로 오르는 능선길이기도 하다.

문의 규모는 북문과 남문이 같이 모두 2.4m의 開口部 너비인데 반하여, 이 南暗門과 東暗門은 開口部の 너비가 그 절반에 해당하는 작은 규모이다.

남암문은 현재의 개구부 윗면에서의 너비가 북문과 남문의 절반인 1.2m로 보여지는 좁은 개구부를 가졌기 때문에 일종의 暗門처럼 작은 규모이다. 따라서 앞의 남문을 북문과 남북으로 이어지는 이 산성의 주된 성문이라 하면, 이 문은 東暗門과 함께 南暗門이라 함이 타당할 것이다.

문은 개구부를 형성한 석재가 교란된 채로 남아 있다. 바깥에서 보면 마치 暗渠式의 水口와 같이 좁은 개구부가 있고, 이 開口部 석축 위에 門礎石 혹은 門楣石이라 생각되는 방형의 楔柱 홈을 가진 장대석이 얹혀져 있다.

비교적 커다란 할석을 이용하여 開口部를 축조한 부분은 2~3층의 축조부가 관찰된다. 평면 형태를 그린 [도면 46]에서 보듯이 개구부는 큰 할석을 쌓고 있으나, 위로는 교란되었고, 開口部 내에는 무너진 석재가 채워져 있다.

[도면 47]은 이 문의 밖에서 본 입면도를 그린 것이다. 좌우의 석축은 아래쪽에서 너비가 150cm에 이르나, 위에서는 교란되어 120cm로 남아 있고, 위에 얹혀 있는 門楣石은 당초 문의 좌우 門楔柱 위에 올려놓는 것이 아래로 내려치면서 옆으로 누워진 상태처럼 되었다. 이 門楣石은 길이 2.6m이고 너비 70~80cm에 두께가 50cm의 크기인데 거의 중양을 기준하여 125cm의 간격을 두고 두 개의 方形 홈을 만들고 있다. 이 홈은 크기가 똑같지는 않지만 너비 15cm, 길이 20cm의 규모로 깊이가 5~8cm로 만들어 중심간 간격은 145cm가 된다.

이 門楣石이 만약 門楔柱 위에 있었다면, 문설주의 규모는 15cm×20cm 규모에 가까운 角柱를 사용한 것이 된다. 문의 너비는 120cm의 범위로서 현재 보이는 開口部 아래로 문의 하부구조가 남아 있다고 여겨지며, 이 門楣石은 당초 원상태로 있다가 옆으로 세워 놓은 것으로 여겨진다.

[도면 48 : 단면 #13]은 이 남문의 開口部の 門道の 단면을 그린 것이다. 성 안쪽과 바깥으로의 경사가 급하므로 이 문은 보다 아래로 문의 하부구조가 묻혀버린 것으로 여겨진다.

4) 東暗門 [사진 140·141·142]

해미산성의 동암문은 산성 전체의 동남쪽으로 능선의 선단부를 돌아간 성벽에서 동향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성벽의 바깥으로는 낮아졌다가 솟은 봉우리가 있다.

동암문터는 성내가 능선의 선단으로 좁게 건물지가 있는 계곡과 능선의 사이로, 능선을 살짝 비껴선 위치에 있다. 따라서 남쪽 성벽에서는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있고, 적이 문밖의 鞍部로

접근하였을 때 몰래 나가서 기습을 할 수 있는 위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東門이라기 보다는 東暗門이라 부르는 것이 좋을듯 싶다.

[도면 49]는 동암문의 평면도이다. 문구는 너비 1.4~1.6m의 開口部를 만든 것이며, 이 개구부의 남북 양 측벽은 약 3m의 너비를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성벽이 이 문의 좌우에서 좀더 높고 넓게 축조된 느낌이다. 벽체는 많이 무너진 상태이나, 문을 이룬 개구부는 뚜렷하게 남아 있다. 문구부의 밖으로는 두 개의 큰 할석이 흩어져 있으며, 개구부 측벽의 경우에도 비교적 큰 할석이 사용되었다.

[도면 50 : 단면 #1]은 동암문의 개구부에 대한 남북 방향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門道에는 무너진 할석들을 포함하여 토사가 덮혀 있고, 양쪽 측벽은 약 1m의 높이로 축조되었으나, 양쪽 성벽의 압력으로 교란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면 50 : 단면 #2]는 문도의 성안쪽에서 성밖으로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성안쪽은 능선의 선단부로서 좁은 內環道가 있고, 밖을 향하여 문을 나서서는 2m쯤을 나가 곧바로 급한 경사로 내려가게 된다.

(4) 雉城 [사진 169 · 170 · 171 · 172]

해미산성에는 성벽이 산의 능선과 계곡의 지형을 충실히 쫓아가며 축조되었기 때문에 雉城과 曲城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없었다고 여겨진다. 성벽이 복잡한 지형을 따라 굴곡하므로서 계곡 방향을 좌우에서 협공할 수 있도록 자연적으로 內彎된 성벽이 계속 이어지고, 밖으로 별도로 돌출시킨 성벽이 없이도 지세가 험준하여 死角이 거의 없다.

다만 서쪽 성벽의 남단이자 남쪽 성벽의 서단이 되는 부분에서는 성벽을 回曲하거나 완만히 回折시키지 않고, 길이는 짧으나, 너비가 넓은 雉城의 형식을 취하여 성벽을 길다랗게 밖을 향하여 돌출시키고 있다.

이 부분은 10m의 너비로 약 20m의 부분이 돌출되었으며, 서측의 성벽은 매우 잘 남아 있다. 남측으로의 성벽은 붕괴되었으나, 치성의 前面은 직선으로 성벽을 축조하였다. 치성의 남서 모서리는 현재 성밖의 능선으로 나가는 계단식의 통로가 있는데, 이 부분이 당초 암문 등의 시설이었는지 모르나, 일단 성벽의 일부가 무너진 곳을 이용하여 통행하고 있다.

치성의 前面은 직선을 이룬 성벽으로 8m 이상 된다. 이 부분의 성벽 입면을 그린 것이 [도면 36]이다. 축조된 성벽은 아랫 부분에서는 30~50cm의 비교적 두꺼운 면을 가지고, 위로 오르면서 얇아져 대체로 20cm의 두께를 이루다가 위로 오르면서 20cm이하의 두께를 가진 석재가 많이 사용되었다. 원칙적으로 성벽은 수평을 유지하며 內收하면서 면을 맞추어 켜기를 사용치 않는 방법을 취하고 있고, 아래와 위에 얹힌 석재의 가로선은 1/3물림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서 삼국 시대 高句麗의 축성법을 연상케 한다. 그러나 모서리의 처리에 있어서 의도적인 물려쌓기

에 의한 계단식 굽도리가 형성되지 않고 있어서 삼국 시대의 축성법과 직접 비교되지는 않는다.

이 서남쪽 치성의 보다 안쪽으로는 넓은 건물지가 있다. 이 건물지의 남쪽으로 길다랗게 늘어진 모양을 한 치성은 이 산성의 성벽 축조 방식의 典型을 보여준다고 여겨진다.

치성의 길이 단면을 나타낸 그림이 [도면 35 : 단면 #8]이다. 성안은 평탄하며, 성벽 부분이 성내보다 비스듬히 높아져 높이의 차이가 1.5m가 된다. 석축의 흔적은 성벽 윗면에서 6.5m의 너비이다.

성벽의 외면은 아래에 기단석으로 이용한 자연 암반이 있고, 그위에서 비교적 면을 장방형으로 다듬은 할석을 조금씩 물려가며 축조하였다. 12~15층을 축조한 성벽은 약 70도의 경사를 이루며 2.6m의 높이가 된다. 이 자연 암반이 아닌 곳에서는 할석으로 계속 동일한 방법으로 축조하여 3m 이상의 성벽을 쌓았다.

[도면 35 : 단면 #9]는 이 치성 부분의 너비 단면을 그린 것이다. 성벽은 서쪽에서 18층을 3m의 높이로 축조하였다. 이 부분은 역시 아래에서 위로 축조하면서 돌을 약간씩 물려 쌓아 경사가 70~75도를 보이고 있으며, 윗쪽에는 女牆을 축조하였던 흔적이 90cm의 너비로 기초만 남았다. 성벽은 남측에서는 무너지고 7층 1.3m의 높이만 남았는데, 성벽은 내부의 토압을 이기지 못하고 바깥 쪽으로 내밀고 있다. 이 단면을 보아서는 성벽의 외면은 일정 두께를 석축하고, 내면에는 잡석과 흙을 다진 것으로 여겨진다.

(5) 우물과 水口

해미산성에는 크게는 3개의 계곡이 있고, 그보다 작은 계곡이 두곳이 있으며, 계곡은 아니나 약간의 빗물이 배수되어야 하는 곳도 있다. 3군데의 가장 큰 계곡에는 좁고 깊게 물이 배수되는 곳이 있으며, 이곳에는 수구가 있었다고 여겨지나, 지상에 드러난 유구는 없다.

서쪽 성벽의 북쪽에 있는 골짜기는 현재의 배수로와 그 인근이 무너져 있다. 이곳에는 당초 수구가 있었다고 여겨지나, 지금은 없다. 그리고 이 배수로의 안쪽으로 들어가서 물이 조금씩 나와 흐르는 곳이 있고 여기가 우물터로 생각된다.

서쪽 성벽의 남쪽에 있는 계곡도 마찬가지로 골짜기를 이룬 중앙으로 배수가 되면서 좌우의 성벽은 무너졌다. 이 배수로의 안쪽 가까이에 지금도 물이 조금 고여 있는 우물이 있는데, 직경 1.5m의 크기로 둥글게 석축의 흔적이 남아 있다.

남쪽 성벽의 동쪽으로 가장 큰 계곡에도 물이 내려가는 배수로가 있으며, 역시 좌우의 성벽이 무너지고 중앙에 깊이 파인 배수로가 있다. 이 배수로의 안쪽은 평탄한 곳이며, 더욱 올라가서 지금도 식수로 이용하는 우물터가 있다.

이밖에 남문쪽의 계곡과 동쪽 성벽의 계곡 등이 있으나 이곳에는 수구의 흔적이 지표에 드

러난 흔적이 없다.

배수로가 있는 세곳의 경우는 안쪽으로 평탄지가 있고 갈대가 우거진 곳이어서 연못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남쪽 계곡의 경우는 꽤 넓은 범위가 갈대로 덮혀 있다.

(6) 건물터

해미산성에는 성내의 곳곳에 건물지의 흔적이 있다. 산봉과 능선의 선단부에는 예외 없이 건물지로 보이는 평탄지가 있으며, 문터의 안쪽과 수구의 안쪽 넓은 평탄지들도 건물지로 여겨진다.

가장 큰 건물지는 서쪽 성벽 북쪽의 계곡부 안쪽과 서남쪽 雉城의 안쪽에서 우물터까지의 부분, 그리고 南暗門의 내부에서 길게 뻗은 능선 부분과 남쪽 계곡의 내부 평탄지 등이다. 이들 건물지로 여겨지는 곳 가운데 서남쪽 雉城의 안쪽에는 돌곽이 있기도 하며 주초로 여겨지는 돌과 자연석의 露頭도 있다. 나머지는 숲이 우거지거나 밭으로 경작된 흔적이 있다.

성벽을 따라가며 좁은 공간에 평탄지를 만든 곳도 있다. 북쪽의 가장 높은 곳의 북문에서 안쪽에 민묘가 있는 정상부 대지가 있고, 거기서 서쪽을 향하여 내려가다가 성벽 안쪽에 좁고 길다란 대지가 있다.

북쪽의 정상부에서 동쪽의 정상부로 이어지는 鞍部의 중간에 길이가 60m쯤 되고 너비가 15m의 범위가 평탄한 건물지로 여겨지는 대지이다. 동쪽의 높은 봉우리에서 동문터로 내려오는 곳의 內彎된 부분 안쪽에는 약 30m의 길이에 너비가 15m쯤의 대지가 있고, 여기에는 기와 조각이 흩어지고, 1m×80cm×15cm 크기의 주초석으로 여겨지는 돌이 있다. 여기서 다시 능선 정상이고 동암문터의 안쪽에 15m×8m 규모의 평탄 대지가 있어 望臺 등의 건물이 있었다고 여겨진다.

동암문의 안쪽으로는 성벽을 따라 10m×6m의 규모가 되는 평탄 대지가 두곳이 있다.

성내의 중앙부능선과 사면으로도 건물터를 이루었을 대지가 분포하고 있으나, 수목이 울창하여 자세히 조사하지 못하였다.

4. 해미산성 수습 유물

海美山城에서 수습한 유물들은 토기편 4점과 기와편 18점뿐으로 소량에 불과하다. 주요 유물 수습지역은 城內 남쪽의 각우물터를 중심으로 한지역과 동북벽을 타고 올라가는 平坦垈地, 그리고 북문터이다. 특히 북문터에서 발견된 청해파문 와편은 바로 동북쪽에 위치한 鵠原山城에서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海美山城이 조선 시대에도 일정 시기 동안은 사용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각 유물의 세부 특징은 아래와 같다.

(1) 토기류

수습된 토기편은 모두 4점으로 복원 가능한 구연부편 1점과 동체부편 3점 뿐이다. 단면 삼각형의 돌대나, 안팎면의 타날등을 특징으로 하는 것들로 대체로 고려초기의 것들로 여겨진다.

• [도면 71-①, 사진 181-①]

회청색 경질토기 구연부편으로 태토는 정선되었으며 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전부는 약간의 사면을 이루며, 경부는 짧게 직립하고, 구연을 90도로 평외반 시켜 구연단을 짧고 뭉툭하게 처리하였다. 경부는 2줄의 횡침선이 돌아가고 있으며,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 복원 구경 : 14.0cm

• 남아 있는 높이 : 5.6cm

• [도면 71-②, 사진 181-② · 182-①]

흑색 경질토기편으로 태토는 정선된 니질태토이며, 기심은 짙은 적갈색을 띠고 있다. 표면은 自然釉가 흐르고 있으며 단면 삼각형의 돌대가 횡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면은 집선문이 불규칙적으로 교차하여 타날되었다.

• 크기 : $4.2 \times 5.3 \times 0.6 \sim 0.75$ cm

• [도면 71-③, 사진 181-③ · 182-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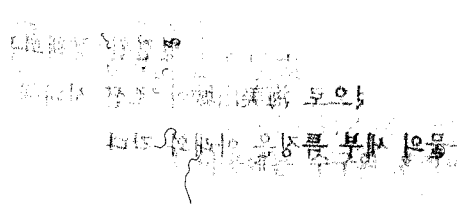
회색의 경질에 가까운 토기편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지 못하다. 태토는 조질이며 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표면은 집선문이 얇게 타날되었으며, 이면은 집선문이 불규칙적으로 교차하며 타날되었다.

• 크기 : $3.3 \times 3.4 \times 0.8$ cm

• [도면 71-④, 사진 181-④ · 182-③]

회갈색의 연질에 가까운 토기편으로 태토는 정선되었으며, 세사립이 소량 혼입되었다. 표면은 무문이며, 빗질흔과 같은 찰과흔이 보이고 있고, 이면은 약간의 상하로 약간의 굴곡을 이루고 있으며,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 크기 : $4.8 \times 5.6 \times 0.7$ cm



(2) 기와편

1) 수키와편

수키와편은 모두 7점으로 대체로 線紋이 주를 이루며, 魚骨紋이 1점이 있다. 모두가 조각이라서 전반적인 양상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몇가지 특징적 속성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裏面은 모두 布目痕이 보이며, 模骨 흔적은 찾아 볼 수 없다.

둘째. 端部는 거의 반듯하게 잘라 처리하였으며, 端部 裏面 調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셋째. 側面 瓦刀痕은 밖에서 안쪽으로 자른 것이 있어 주목할 만하다.

대략적으로 이러한 선문의 와편은 통일신라말기~고려초기의 것들로 여겨진다. 그리고 어골문의 와편은 두께가 얇은 특징을 갖고 있다.

• [도면 72-①, 사진 183-① · 184-①]

회청색 수키와편으로 경질소성품이며, 胎土는 굵은 沙粒이 混入되었다. 표면은 무문이나 선문이 縱방향으로 희미하게 남아 있어 원래는 선문을 縱方向으로 타날했던 것으로 보여지며, 소성시 高溫에 의해 생긴 균열이 군데군데 보이고 있다. 이면은 포목흔과 포목을 연결한 合綴痕이 보이고 있다. 端部面은 반듯하게 잘라 처리되었으며 단부 이면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측면 와도흔은 안에서 밖으로 보이는데 단부쪽은 1/2정도이나 아래로 내려오면서 거의 전면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 크기 : 12.3×10.6×1.6~1.7cm

• [도면 72-②, 사진 183-② · 184-②]

황갈색의 수키와편으로 연질이며, 태토는 굵은 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표면은 태선의 선문이 종으로 타날되었고, 이면은 흑색을 띠고 있으며, 포목흔이 보이고 있다.

• 크기 : 9.0×9.0×1.5~1.6cm

• [도면 72-③, 사진 183-③ · 184-③]

회갈색의 수키와편으로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되었다. 표면은 태선의 선문이 좌하향으로 타날되었으며, 단부에서 너비 2cm 정도는 물손질 정면하였다. 이면은 포목흔이 보이며, 와통에 포목을 묶은 輪綴痕이 보이고 있다. 단부면은 반듯하게 잘리어 처리되었으며 단부 이면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측면 와도흔은 밖에서 안으로 1/2정도 보이고 있다.

• 크기 : 8.8×13.8×1.8~2.0cm

• [도면 73-①, 사진 185-① · 186-①]

회갈색의 수키와편으로 경질이며, 태토는 굵은 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표면은 선문이 종으로 탈날되어 희미하게 남아있으며, 이면은 포목흔과 와통에 포목을 묶은 輪綴痕이 보이고 있다. 단부면은 반듯하게 잘리어 처리되었으며, 단부 이면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측면 와도흔은 안에서 밖으로 2/3정도 보이고 있다.

• 크기 : 11.2×6.8×1.2cm

• [도면 73-②, 사진 185-② · 186-②]

회흑색의 수키와편으로 와질이며, 태토는 사립이 혼입되었다. 표면은 태선의 선문이 종으로 탈날되었으며, 이면은 포목흔이 보이고 있다. 단부는 거의 수직에 가깝게 조잡하게 처리되었으며, 단부 이면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측면 와도흔은 밖에서 안으로 1/3정도 보이고 있다.

• 크기 : 8.6×4.4×1.5cm

• [도면 73-③, 사진 185-③ · 186-③]

회청색의 수키와편으로 경질이며,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표면은 집선문이 우하향으로 탈날되었으며, 이면은 포목흔이 보이고 있다. 표면과 이면은 소성시 高溫에 의해 생긴 균열이 군데군데 보이고 있다. 단부면은 반듯하게 잘리어 처리되었으며, 단부 이면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측면 와도흔은 밖에서 안으로 2/3정도 보이고 있다.

• 크기 : 9.2×7.4×1.5cm

• [도면 73-④, 사진 185-④ · 486-④]

회청색의 수키와편으로 경질이며,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표면은 어골문이 종방향으로 탈날되었으며, 이면은 포목흔과 포목을 연결한 合綴痕이 보이고 있다. 측면 와도흔은 밖에서 안으로 1/3정도 보이고 있다.

• 크기 : 11.8×10.0×1.5~1.7cm

2) 암키와편

암키와편은 모두 11점으로 선문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면은 모두 포목흔이 보이며, 古式수법의 모골흔적은 찾아 볼 수 없다. 단부 표면과 단부면은 대체로 물손질 정면하였으며, 측면 와도흔은 대체로 안에서 밖으로 자른 것이 일반적이거나 2번에 걸쳐 반듯하게 잘라 각을 이루고 있는 것이 2점 있어 주목할 만하다. 시기적으로 살펴보면 삼국시대까지 올라가는 것은 없으며, 통

일 신라기에서 고려 시기의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이다.

• [도면 74-①, 사진 187-① · 188-①]

회청색의 암키와편으로 경질이며, 태토는 정선했으며, 세사립이 소량 혼입되었다. 표면은 태선의 선문을 종방향으로 타날한후 부분적으로 문질러 정면하였으며, 단부에서 너비 1.5cm 정도는 약간 하향으로 매끈히 문질러 정면하였다. 이면은 포목흔이 보이고 있다. 단부면은 매끈히 물손질 처리되었으며, 단부 이면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측면 와도흔은 안에서 밖으로 1/5 정도 보이고 있다.

• 크기 : 11.0×9.2×1.4~1.8cm

• [도면 74-②, 사진 187-② · 188-②]

회백색의 암키와편으로 경질이며,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표면은 태선의 중선문과 ‘x’字 文樣이 복합된 복합문이 타날되었으며, 단부에서 너비 2cm 정도는 약간 하향으로 부드럽게 곡선을 이루듯이 물손질 정면되었다. 이면은 포목흔이 보이고 있다. 단부면은 물손질 처리되었으며, 단부 이면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측면 와도흔은 안에서 밖으로 1/3정도 보이고 있다.

• 크기 : 14.4×12.4×1.2~1.6cm

• [도면 74-③, 사진 187-③ · 188-③]

회백색의 암키와편으로 경질소성에 가까우며,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표면은 태선의 선문이 종방향으로 타날되었으며, 단부에서 너비 1.5cm 정도는 약간 하향으로 매끈하게 물손질 정면 되었다. 이면은 포목흔이 보이고 있다. 단부면은 약간 오목하게 물손질 정면되었으며, 단부 이면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측면 와도흔은 안에서 밖으로 미세하게 보이고 있다.

• 크기 : 11.0×9.9×1.5~1.7cm

• [도면 75-①, 사진 189-① · 190-①]

회백색의 암키와편으로 경질소성에 가까우며,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표면은 태선의 선문이 종방향으로 타날되었으며, 단부에서 1cm 정도의 너비는 매끈하게 물손질 정면되었다. 이면은 포목흔이 보인다. 단부는 매끈하게 물손질 정면되었으며, 단부 이면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측면 와도흔은 안에서 밖으로 미세하게 보인다.

• 크기 : 16.0×8.4×1.5~1.6cm

• [도면 75-②, 사진 189-② · 190-②]

회백색의 암키와편으로 경질소성이며,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표면은 태선의 선문이 종방향으로 뚜렷하게 타날되었으며, 단부에서 너비 3cm 정도는 매끈하게 물손질 정면됨과 동시에 너비 1.5cm 정도는 약간 위로 도톰하게 처리되었다. 이면은 포목흔이 보이며, 단부에 이르면서 약간 들린 형태로 너비 2cm 정도는 매끈하게 물손질 되어 단부 이면 조정이 이루어졌다. 측면 와도흔은 안에서 밖으로 단부쪽에서는 미세하게 보이며, 아래로 내려오면서 1/2정도 보이고 있다.

• 크기 : $12.6 \times 15.4 \times 1.4 \sim 1.6\text{cm}$

• [도면 76-①, 사진 191-① · 192-①]

회백색의 암키와편으로 경질소성에 가까우며, 태토는 굵은 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표면은 태선의 선문이 종방향으로 타날되었으며, 일부 문양을 문질러 정면한 흔적이 보이고 있다. 이면은 포목흔이 보인다.

• 크기 : $12.0 \times 12.2 \times 1.7\text{cm}$

• [도면 76-②, 사진 191-② · 192-②]

적갈색의 암키와편으로 연질이며,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표면은 태선의 선문이 종방향으로 타날되었으며, 이면은 포목흔이 보인다. 측면 와도흔은 안에서 밖으로 1/3정도 보인다.

• 크기 : $9.8 \times 9.2 \times 1.5\text{cm}$

• [도면 76-③, 사진 191-③ · 192-③]

적갈색의 암키와편으로 연질이며,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표면은 태선의 선문이 종방향으로 타날되었으며, 이면은 포목흔이 보인다.

• 크기 : $9.7 \times 4.5 \times 1.6 \sim 1.7\text{cm}$

• [도면 77-①, 사진 193-① · 194-①]

회백색의 암키와편으로 연질소성품이다. 태토는 아주 정선되었으며, 사립이 소량 혼입되었다. 표면은 집선문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타날하여 마치 격자문을 타날한 것처럼 보이게 타날하였으며, 이면은 포목흔이 뚜렷이 보이고 있다. 측면 와도흔은 2번에 걸쳐 반듯하게 잘라 처리되어 각을 이루고 있다.

· 크기 : 10.4×9.8×1.8~2.1cm

· [도면 77-②, 사진 193-② · 194-②]

회백색의 암키와편으로 연질소성품이다. 태토는 아주 정선되었으며, 사립이 소량 혼입되었다. 표면은 집선문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타날하여 마치 격자문을 타날한 것처럼 보이도록 타날한 후 면을 와도로 문질러거나 깎아내어 문양을 지웠으며, 이면은 細布目痕이 보이고 있다. 단부는 수직으로 깎아 처리되었는데 면이 고르지 못하며, 단부 이면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측면 와도흔은 2번에 걸쳐 반듯하게 잘라 처리되어 각을 이루고 있다.

· 크기 : 9.8×5.8×2.0~2.5cm

· [도면 77-③, 사진 193-③ · 194-③]

황갈색의 암키와편으로 경질소성에 가까우며,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표면은 선문을 타날한 후 일부 문질러 정면하여 문양이 희미하게 남아있으며, 이면은 포목흔이 보이고 있다.

· 크기 : 12.5×11.8×1.8~2.1cm

5. 해미산성의 성격과 특징

海美山城은 전체의 평면이 매우 불규칙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 테피식 산성이나, 이런 유형의 산성으로서는 규모가 큰 편에 속한다.

이 산성의 성벽은 문터의 좌우 일부를 제외하고는 外面을 석축하고, 안쪽으로는 잡석과 흙을 다져 넣은 이른바 內托된 성벽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성벽의 외면은 비교적 큰 할석으로 면을 고르게 조정하고 아래에서 위로 오르면서 수평을 맞추어 차츰 들어 쌓기를 하여 정연한 벽면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수법은 이 산에서 면을 정면하기에 좋은 화강암 계통의 석재가 많은 것과 관련된다고 여겨진다. 성벽은 높이가 높지 않은 편이며, 축조 방법에 있어서도 아래에서 위로 오르면서 차츰 석재의 규모가 작아지고 있는 점 등에서 古式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이 산성이 鵠原山城보다 古式에 해당되고, 서로 형식이 다르다. 이러한 축조 방법은 高句麗와 같은 北方으로부터의 영향을 짙게 받은 遺風이 이 지역에 傳存되어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海美山城에서 볼 수 있는 또하나의 축조 방법은 커다란 할석으로 쌓으면서 석재 사이의 틈에 쇠기돌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다. 이러한 축조 방법은 앞의 古式과는 다른 방법이며, 훨씬 연대가 떨어지는 高麗 後期에서 朝鮮 時代에 유행한 방법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방법은 흔히 조선 초기에 축조된 邑城들에서 유행한 수법과 전주어진다. 堅固性 보다는 쌓기에 工力을 줄이고, 석재를 다듬는 어려움을 더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 산성은 古式의 축성 방법과 그보다 시기가 떨어지는 방법이 존재함으로 보아 여러차례의 수축과 보수가 있었던 성으로 여겨진다.

海美山城의 성벽은 무너진 정도가 극심하여 전체에 대해 새롭게 복원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붕괴가 심한 것은 무엇보다도 축조의 방법이 內托된 것과 관련된다고 여겨진다. 즉 내탁의 경우에는 성벽 속의 흙 때문에 나무 뿌리가 내리기 쉬워 나무가 성벽에 자라게 되며, 排水와 관련하여 한꺼번에 성벽이 유실될 확률이 크다.

그러나 성벽이 잘 남아 있는 북쪽 성벽의 西端과 서쪽 성벽의 南端 등에 대하여는 더 이상 붕괴되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히 海美山城의 경우는 두 개의 城門과 두 개의 暗門이 있다. 이들 성문과 암문은 아주 기능하기에 좋게 배치되어 있으며, 유구도 비교적 잘 온전된 상태이다.

城門은 능선상에 설치한 北門과 계곡에 위치한 南門으로 되어 있고, 暗門도 능선상에 위치한 東暗門과 계곡에 있는 南暗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문의 구조는 新羅 末期에서 高麗 時代에 걸친 山城의 城門으로서는 가장 좋은 예가 된다.

성내의 우물과 많은 건물터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보존과 정비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 여겨진다.

6. 해미산성의 정비와 보존 방안에 대한 견해

海美山城은 앞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古式 축조법과 新式 축조법이 구간에 따라 적용된 매우 귀중한 山城 遺蹟이다. 따라서 이 산성은 최소한 지방 기념물로 지정 보호하여야 한다고 여겨진다.

한편 이 산성은 원주 시가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산성의 정상에 오르면 원주 시가지와 치악산의 남쪽 전체를 바라볼 수 있어서 경치가 매우 아름답다. 결국 이 산성에 대한 정비와 보존을 위하여는 文化財의 指定과 그에 따르는 적극적인 觀光 資源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하여는 이 山城으로 오르는 登山路를 정비하는 일이 시급하다.

다음으로는 城門과 暗門을 발굴조사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구를 복원하고 주변을 정비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우물도 발굴하고 정비하여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식수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성벽의 경우에는 현재 성벽이 잘 남아 있는 곳을 중심으로 성벽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한 조사에 의하여 구조를 파악한 것을 기초로하여 현존하는 성벽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보조적인 복원이 필요하다. 특히 계곡부로서 성내의 물이 배수되

는 지점들은 내부의 평탄지까지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성내에 집중 호우가 있더라도 성벽의 잔해가 더 이상 유실되지 않도록 水路와 배수를 위한 水口를 시급히 복원하여야 한다고 여겨진다.

Ⅳ. 哈丹賊의 侵入과 元沖甲의 鵠原城(雉岳城) 勝捷

신 호 철(충북대학교 역사교육과)

1. 哈丹賊의 침입과 고려 정치상황

高麗 忠烈王 16年(1290) 正月에 元나라의 叛賊인 哈丹의 군대 수만명이 高麗를 침입하였다. 고려는 부녀자와 노약자를 비롯하여 太祖像 및 國史·寶文閣·秘書寺의 文籍을 강화로 옮기고, 마침내는 王都를 江華로 移都하는 등 크게 곤란을 겪었다. 합단의 군대를 상대로 하여 이를 크게 무찌른 이가 바로 原州의 元沖甲이었다. 원충갑은 치악산의 영원성을 근거로 하여 이들 합단의 군대를 패퇴시켰으며, 이 전투를 계기로 하여 적군은 크게 쇠퇴하였고 고려는 더 이상의 피해를 받지 않고 합단적이 침입한지 1년 반만에 개경으로 환도할 수가 있었다. 이제 합단의 무리가 고려를 침범하게 된 과정과 당시 고려 조정의 정치 상황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¹⁾

이 당시 元나라에서는 元 世祖 24년(고려 충렬왕 13년:1287) 4월에 乃顔의 반란이 일어났다. 내안은 元의 太祖인 成吉思汗의 아우(季第) 鐵木哥斡赤斤의 玄孫으로 그의 본거지는 洮兒河의 하류지역이었는데 이때에 興安嶺 동쪽의 지역을 영유하고 있었다. 그는 동방의 여러 부족들을 끌어모아 반란을 일으켰다. 이에 원의 세조는 친히 이들의 정벌에 나서 그해 7월에 마침내 내안을 사로 잡고 그 반란군을 토벌하였다.²⁾

그 다음 해인 元 世祖 25年(1288) 초에 내안의 餘黨인 哈丹이 元 太宗의 孫인 海都和 호응하여 다시 반란을 일으켰다. 합단은 원 태조의 동생인 合赤溫의 5세손으로, 合赤溫이 東蒙古에 封해진 이후에 대대로 그 지방에 세력을 펼치고 있었다. 합단은 내안의 반란 이후 그의 유혹에 빠져 서방의 海都和 함께 원에 반란을 일으켰으나, 내안이 敗死하자 玉昔鐵木兒가 이끈 원군에게 원 세조 25년(1288)에 패하였다. 즉 원 세조는 그의 孫인 鐵木兒(후일 成宗이 됨)에게 명하여 이들 반란군을 평정케 하였다. 철목아는 동으로 공격하여 각지를 평정하고 그 이듬 해인 세조 26년(충렬왕 15 ; 1289) 정월에 돌아갔다. 원의 철목아가 이끈 관군이 돌아가자 합단은 또 다시 반란을 일으켰다. 그리하여 합단은 季庭이 이끄는 원군을 격파하고 항전을 계속하였다. 그

1) 哈丹賊의 침입은 高麗의 王都를 江華로 옮기게 하는 등, 1년반 동안 고려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커다란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에 대한 독립된 논고가 없다. 본 소론에서는 우선 합단적의 침입과 격퇴 과정 및 고려 사회에 미친 영향, 특히 原州에서의 元沖甲의 勝戰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약술하는 것으로 그치고, 보다 본격적인 고찰은 좀더 시간을 두고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 乃顔에 대해서는 『新元史』 105, 列傳 2, 烈祖諸子 帖木哥斡赤斤傳 附 乃顔傳을 참조.

러나 곧 원의 土土合이 이끈 군대에 대패하여 北方으로 쫓겨갔다. 원은 다시 乃蠻帶로 하여금 반란군을 토벌케 하여 그해 6월에 洮兒河 유역에서 이들을 격파하였다. 이후에는 합단의 세력이 더이상 만주일대에서 활동하기 어렵게 되자, 그 다음 해인 충렬왕 16년(1290) 초에 점차로 두만강을 건너 고려의 동북변으로 침입하게 되었던 것이다.³⁾

합단이 고려를 침입하던 충렬왕 16년(1290) 초에는 마침 왕이 원의 북경에 머물고 있던 시기였다. 즉 충렬왕은 합단이 고려에 침입하기 전 해인 동왕 15년(1289) 11월에 王后 및 世子와 함께 원에 가 머물다가 이듬해 3월에 귀국하였다.⁴⁾

여기에서 합단의 침입 과정에 대해 고찰하기에 앞서, 당시의 고려 조정의 정치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 때는 100년간 지속되었던 무인정권이 붕괴되고 왕정복고가 이루어져 왕권은 어느정도 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오랫동안 몽고와의 전쟁을 끝내고 개경으로 환도한 후, 비록 왕정복고가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몽고의 간섭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특히 충렬왕이 元 世祖의 딸인 齊國大長公主와 혼인하여 이른바 원의 駙馬國이 된 이후, 역대 왕들이 원 공주를 왕비로 맞이함에 따라 양국의 왕실은 一家가 되었다. 또한 이후의 왕들은 세자로 있을 때 禿魯花(質子)로써 원의 北京에 머물다 즉위하는 것이 하나의 통례가 되었고, 국왕으로 즉위한 후에도 자주 북경에 머물러 있어 개경을 비우는 일이 많았다. 합단적이 침입할 때 충렬왕이 북경에 머물러 있던 것도 바로 이러한 당시의 상황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처럼 충렬왕의 즉위는 고려사에 있어 중요한 전환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충렬왕은 즉위 직후 우선 원의 요구에 따라 일본원정에 따른 막대한 군량과 함선 및 군사를 동원해야 했다. 그러나 일본원정에 나선 麗蒙聯合軍은 때마침 태풍으로 인하여 패퇴하고 말았다. 이때의 원정으로 돌아오지 못한 인원만 13,500명이나 되는 등 커다란 物的 人的인 희생을 치루었다. 1차 원정에 실패한 원은 고려에 征東行省을 설치하고, 2차 원정을 준비하였다. 다시한번 고려는 병선 900척, 梢工·水手 15,000명, 正軍 10,000명, 軍糧 11만석 기타 많은 병기를 동원해야 했다. 이때의 공격에도 태풍을 만나 실패로 돌아갔으며, 원정군은 10만의 인원을 잃는 등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한편 개경에 설치한 정동행성으로 인하여 고려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정동행성은 본래 일본원정을 위해 설치한 것이지만, 원정이 실패한 이후에도 계속 남아 고려 말까지 존속하였다. 정동행성의 성격에 대해서는 두가지 상반된 견해가 있는 바, 그 하나는 정동행성이 고려의 내정에 대한 감독기관 내지 통제기관의 기능을 하였다는 설과, 다른 하나는 名義上·形式上的의 기구에 불과했다는 설이 그것이다.⁵⁾ 정동행성이 비록 일시적으로는 고려의 내정을 감독·

3) 哈丹에 대해서는 『新元史』 105, 列傳 2, 烈祖諸子 哈準傳 附 哈丹傳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4) 『高麗史』 世家 30, 충렬왕 15년 11월 및 동왕 16년 3월조.

5) 北村秀人, 高麗에 있어서의 征東行省에 대해서 『朝鮮學報』 32, 1964.

통제하는 기능을 했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후자의 성격이 더욱 강했다고 하겠다. 따라서 원은 일시적이거나 정동행성을 통해 실질적으로 고려에 대한 내정간섭을 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고려의 정치제도는 원의 제도를 모방하여 3省이 통합되어 僉議府가 되고 중추원은 밀직사가 되었다. 6部도 그 명칭이 변경되거나 통합되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정동행성에 파견된 원의 고위 관원은 고려의 刑政과 官制 등을 간섭하였다. 고려의 노비제도를 부모 중 어느 한쪽이 良人이면 그 소생을 양인으로 한다는 몽고식 법제로 고치려다가 큰 물의를 일으킨 것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한편 고려의 국호를 폐하고 원의 省을 두어 그 직속령으로 만들려는 附元輩들의 立省策動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하겠다.

고려의 영토 일부를 원의 직속령으로 빼앗긴 적도 있었다. 이중 雙城總管府는 和州(永興)에 설치된 것으로 鐵嶺 이북의 땅을 관할 하였고, 東寧府는 西京(平壤)에 설치된 것으로 慈悲嶺 이북을 관할하였으며, 耽羅總管府는 제주도에 설치한 것이다. 이중 쌍성총관부와 동녕부의 반환을 둘러싼 문제는 바로 합단의 침입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합단 침입이 고려에 미친 영향>에서 상론할 예정이다.

충렬왕 이후 원과의 관계에서 또하나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瀋王의 문제이다. 원에서는 만주 일대에 거주하던 고려민을 관할하기 위하여 고려 왕족 중에서 심왕을 봉하였는데, 충렬왕이 세자로 복경에 있을 때에 원은 그를 처음으로 심왕에 봉했던 것이다. 또 충렬왕의 아들 충선왕이 왕위에서 물러나 복경에 머물러 있을 때도 역시 그에게 심왕에 봉해졌다. 고려 왕족의 심왕 임명은 고려를 전제하기 위한 원의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고려왕과 심왕간에 심한 정치적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도 다음에 다시 언급하기로 하겠다.

충렬왕 16년 정월에 將軍 吳仁永이 원나라에서 돌아오자 “乃顔의 잔당인 합단적이 장차 우리 동부 변방에 침범하려 한다”고 하여, 이미 고려 조정에서는 합단적 침입의 정보를 알게 되었다. 이에 참의찬성사 洪子藩과 判密直事 鄭可臣 등은 병부로 하여금 군사를 훈련케 하고, 安戩을 경상도 도지휘사에, 金之淑을 전라도 도지휘사에, 宋玠을 충청도 도지휘사에 각각 임명하여 장차 적군의 침입에 대비케 하였다.⁶⁾

이어 2월에는 中軍萬戶 鄭守琪를 보내어 禁忌山 골짜기에 주둔케 하고, 左軍萬戶 朴之亮을 伊川縣 界에 주둔케하고, 韓希愈는 雙城(永興)에, 右軍萬戶 金忻은 蒙貊縣(高城)에, 羅裕는 通川에 각각 주둔케 하여 적군의 침입에 대비케 하였다. 그러나 이때 합단의 무리가 이미 국경을 넘었다는 헛소문이 퍼지자 중외의 인심이 흉흉하여 江華에 移都하자는 논의까지 일어났다. 이때 강화천도를 주장한 이는 참의찬성사 홍자번이었으나, 許拱과 崔有滄 등은 “지금 왕이 元京

高柄翊, 麗代 征東行省의 研究 (上) (下), 『歷史學報』 14・19, 1961・1962 : 『東亞交渉史의 研究』, 1970 再錄.

6) 『高麗史節要』 21, 충렬왕 16년 정월

에 계시는데 어찌 뜬소문만 듣고 우리 마음대로 國都를 옮길수 있는가”라고 적극 반대하자 조정의 의견이 분분하였다 한다.⁷⁾ 한편 원에서도 閼梨帖木兒가 사람을 보내 원의 군대를 쌍성에 주둔케 하였다.

그해 3월 김흔과 정기수 등으로부터 “합단의 군대가 海陽(吉州)界에 쳐들어 왔다”는 보고를 받자 고려에서는 將軍 金延壽를 원에 보내어 이 사실을 알리고,⁸⁾ 8월에는 大將軍 柳庇를 원에 보내어 원군을 청하였다.⁹⁾ 아울러 그해 10월에는 婦人·老弱者를 강화로 옮기어 대피시키고 주현에 명하여 山城과 海島에 入保케 하고, 이어 11월에는 太祖像·國史 및 寶文閣과 秘書寺의 文籍을 강화도로 옮기고 宮人들도 대피케 하였다.¹⁰⁾ 12월 합단의 군사 수만명이 和州와 登州를 함락시키고 사람을 죽이고 양식을 도적질하자 萬戶 印侯를 보내어 이를 방어케 하는 한편, 원에서는 정동행성평장사 薛闇干과 閼梨帖木兒·右丞 塔出 등으로 하여금 步騎 1만 3천명을 이끌고 원병을 보내왔다.

한편 합단군이 쌍성을 거쳐 登州(안변)을 함락하자 12월 18일 왕은 마침내 강화도로 피난하였고 西京留守 鄭仁卿도 서정을 버리고 강화로 도망해오고 말았다.¹¹⁾ 왕을 비롯한 고려 조정이 수도를 버리고 강화도로 피난하자 변경을 방어하던 고려군은 사기를 잃고 패주하기에 급급하였다. 다음 해인 충렬왕 17년(1291) 정월에 합단군이 鐵嶺으로 내려오자 이 소문을 들은 防守萬戶 정수기는 물자와 양곡을 버리고 달아났고, 이어 적군이 交州道로 남하하자 이곳을 지키던 右軍萬戶 金忻 역시 달아나 버렸다. 이에 합단군 철령과 교주도를 넘어 楊根城을 공격하여 쉽게 함락시키고 말았다.

2. 原州에서의 元沖甲의 抗戰 — 鵠原城(雉岳城) 勝捷 —

충렬왕 17년 정월 15일에는 합단적이 원주에 쳐들어와 주둔하였다. 원주에 쳐들어온 합단은 50명의 騎兵을 이끌고 ‘雉岳城’ 아래에 이르러 牛馬를 약탈하여 갔다고 한다.¹²⁾ 그런데 치악성이 어느 성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현재 치악산에서 원주를 향하는 남쪽 산등성이인 原州郡 판부면 금대리 산 2번지에는 서로 바라다 보이는 3개의 산성이 있다. 鵠原山城과, 海美山城(혹은 하미산성, 금산성, 금후산성이라고도 함), 金臺山城이 그것이다.¹³⁾

이들 성의 역사지리적인 배경이라든가, 그 규모나 구조·축조방식·출토유물 등과 같은 고

7) 『高麗史節要』 21, 忠烈王 16年 2月

8) 『高麗史』 31, 世家 30, 忠烈王 16年 5月 戊申 및 乙卯條

9) 實錄, 忠烈王 16年 8月 庚寅

10) 實錄, 忠烈王 16年, 10月 戊戌 및 同 11月 甲辰

11) 實錄, 同 12月 丁亥

12) 實錄, 同 17年 正月 甲寅

13) 『原州郡의 歷史와 文化遺蹟』 江原道·原州郡·江原郷土史研究會, 1994. 271~274쪽

고학적인 고찰에 대해서는 이 보고서의 다른 곳에서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것이므로 여기서는 약하기로 한다.

그런데 합단군이 공격한 치악성에 대해서 조선 전기의 사료인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영원성: 치악산 남쪽 등성마루에 있으며, 돌로 쌓았는데 둘레가 3천 7백 49척이다. (중략) 세상에 이르기를 이 성은 梁吉이 웅거하던 곳으로서, 뒤에 元冲甲이 여기에 웅거하여 글안의 군사를 깨뜨렸다고 전한다.〈新增東國輿地勝覽〉 46, 原州牧 古跡, 鵠原城條)

위의 사료에 의하면, 비록 세간에 전해진 것이긴 하지만, 치악산의 영원성은 바로 후삼국시대의 北原賊 양길이가 웅거했던 곳이고, 또 원충갑이 합단군을 상대로 하여 싸운 성 역시 영원산성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치악성은 곧 영원산성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원충갑이 싸웠다고 한 치악성을 꼭 영원산성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치악산에 있는 성' 즉 위의 3개의 성을 모두 일컫는 일반 명사로 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후술할 바와 같이, 당시 원주 치악산 일대에서 벌어진 합단적과의 전투는 여러 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바라 보이는 위치에 있는 세개의 성 모두가 이 전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제 원주 치악산에서 있었던 합단적과의 전투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고려사』에 의하면 충렬왕 17년 정월에 있었던 치악성의 전투는 여러차례 매우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고 그 과정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처음 정월 甲寅일(15일)에 합단적이 치악성을 공격하자 原州別抄인 원충갑이 보병 6인을 이끌고 이들을 추격하여 적의 말 8필을 빼앗아 돌아왔다고 한다.

이어 4일 후인 戊午日에는 적장인 都刺閭·禿於乃·孛蘭 등은 군사 4백명을 거느리고 치악성 아래에 이르러 운송중이던 원주의 祿俸米를 빼앗아 가자, 다시 원충갑이 결사대 仲山 등 7명을 이끌고 몰래 매복하여 이들을 엿보고 있다가 기습하여 중산이 먼저 적진 속에 뛰어들어 그 중 한사람을 목베고 이어 荊門 밖까지 추격하니 적군은 놀라 안장과 말을 버리고 달아났다고 한다. 이날 전투에는 말 25필을 노획하는 개가를 올렸다. 이에 防護別監 福奎가 크게 기뻐하여 빼앗은 말 25필과 안장을 모두 원충갑을 비롯한 결사대에게 주었다.

다음 날인 己未일에는 적군이 다시 와서 성을 여러겹 포위하고는 사람을 시켜 편지를 보내 회유하고자 하자, 원충갑이 나아가 편지를 가지고 온 자를 목베고 그 글을 머리에 매어 던지니 적군이 물러가서 성을 공격할 무기를 수리하므로 城中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 하였다고 한다.

또 庚申일에는 적군이 앞서 楊根城에서 포로가 되었던 두명의 여자를 보내 성 아래로 유인하려 하자, 원충갑이 또 이들을 베니 적군이 복을 치고 함성을 지르며 성으로 전진하며 온갖

계락을 동원하여 공격하니 화살이 빗발치듯하여 성이 거의 함락 직전에 놓이게 되고 말았다.

이때 興元倉判官인 曹愼이 성 밖으로 나와 공격하고, 원충갑은 東쪽 봉우리로 기습하여 적 한명을 죽이자 적군은 놀라 혼란을 일으켰다. 別將 康伯松이 奴·道尼 등 30여명과 함께 원충갑을 도왔고, 한편으로는 州吏 元玄·傳行蘭·元鍾秀가 國學養正齋의 儒生인 安守貞 등 100여명을 이끌고 西쪽 峯으로부터 내려와 협공하였다. 마침 흥원창 판관 조신이 북을 치다가 화살이 오른 팔을 관통하였으나 북소리는 여전하였다. 이에 적군이 놀라 앞 대열이 후퇴하자 뒤에 있는 자들이 함께 놀라 도망하니 저희들끼리 서로 짓밟히며 수레바퀴에 치이는 등 혼란이 가중되었다. 이에 州兵이 협력하여 총공격을 감행하였다.

치악산 전투 중에서도 특히 庚申일에 있었던 전투상황을 보면 원주의 고려군은 여러 부대로 나뉘어 싸우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즉 흥원창판관 조신이 이끈 부대는 치악성 본성(즉 영원성?)에서, 원충갑이 이끈 부대와 別將 강공백이 이끈 부대는 치악산의 東峰에서, 州吏 元玄 등이 이끈 부대는 치악산의 西峰에서, 서로 연합하여 동시에 합단군을 공격하고 있었음을 볼때, 앞에서 말한 치악성이란 바로 영원산성을 비롯한 세개의 성을 모두 전투의 근거지로 삼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후 합단적은 크게 패하여 적장 도라도 등 68인이 참수되었고, 그밖에 전투 중 사살자도 거의 반이나 되었다고 한다. 이로부터 적의 예기가 좌절되어 감히 공격해 오지 못하였고, 여러 성이 모두 견고하게 수비되니 비로서 적을 경시하는 마음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두 원충갑의 힘이었다고 正史에 전하고 있다.¹⁴⁾

그러면 원충갑은 어떤 인물일까. 그의 열전에 의하면, 원충갑은 본래 원주인으로 비록 신체는 短小하였으나 용감하고 눈에는 電光이 비쳤으며 어려움을 당해서는 몸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그의 出身이나 先代에 대해서는 『高麗史』 등 正史에는 보이지 않으나, 『原州元氏族譜』를 통해 살펴볼 수가 있다. 우선 그의 始祖는 原城伯 元克猷로 족보에 의하면, 그는 北原人으로 918년 태조를 도와 후삼국을 통합하는데 공을 세워 壁上開國翊贊一等功臣의 호를 받았고 관직은 正議大夫兵部令에 올랐다고 한다. 또 원충갑의 父는 元敏成으로 左僕射上護軍門下侍郎에 贈職된 것으로 되어 있다.¹⁵⁾

한편 충렬왕대의 원주 원씨는 3명의 재상을 배출한 유명한 가문이다. 즉 元傳가 중찬을, 그의 아들 璫과 卿이 각각 지밀직사사와 동밀직사사를 역임한 인물로 원부와 원경은 각각 『高麗史』에 독립된 傳을 갖고 있다.¹⁶⁾ 그런데 위의 족보를 살펴보면, 원충갑의 父인 원민성은 바로 원부와 함께 시조인 원극유의 10세손으로 아주 가까운 친척이다. 즉 원성민과 원부의 高祖는

14) 『高麗史節要』 21, 忠烈王 17年 正月

15) 『原州元氏族譜』 제2편 世表, 源譜世紀, 1989

16) 『高麗史』 107, 元傳傳 및 同 124, 元卿傳

같은 사람인 元深夫로 이들은 8촌간이 되는 셈이다.¹⁷⁾ 그러나 당시 이들 두집안은 서로 다른 정치·사회적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후술할 바와 같이 충렬왕대 원충감과 원경은 서로 정치적 이해관계를 달리하여 서로 대립된 관계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본래 원주 원씨는 신라말 고려초기 원주의 강력한 호족가문으로서, 이후 일부는 중앙으로 진출하여 문벌귀족이 되었고, 일부는 원주의 토착세력으로 남아 향리가문으로 이어져 왔을 것으로 추측된다. 아마도 원부 집안은 전자에 해당되고 원충감의 집안은 후자, 즉 원주의 재지 토착세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충감의 출신을 재지 토착세력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 우선 그의 부 민성이 별다른 實職을 갖고 있지 못했을 뿐 아니라, 원충감 자신이 鄉貢進士로 原州別抄에 속해 있었다고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향공진사란 과거의 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준 칭호로서 本科舉에 나갈 수 있는 자격과 함께 士로써의 대우를 받았다. 즉 과거시험은 본래 중앙관리의 자제인 國學生과 지방출신의 鄉貢을 막론하고 예비시험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본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 점차 국가기반이 확립되고 관료체제가 정비되어 감에 따라 과거제도 역시 복잡한 규정이 생겨나게 되었다. 현종 15년(1024) 12월에는 鄉貢의 숫자를 주현의 크기에 따라 최고 3인에서 최하 1인으로 제한하는 한편, 이들은 반드시 界首官이 주관하는 界首官試를 거치도록 한 후, 다시 서울의 국자감에서 재시험에 합격한 다음에야 본시험인 禮部試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중앙의 일반 국학생과 12徒生 가운데 선발된 貢士 및 계수관시를 거친 鄉貢 등이 예비시험인 국자감시에 합격하면, 國子進士·太學進士·明經進士·鄉貢進士 등의 進士 칭호를 받았던 것이다.¹⁸⁾

한편 別抄는 무인정권기의 최우에 의해 설치된 馬別抄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별초라는 군인들이 있었으며, 이것은 특별히 가려 뽑은 군대라는 뜻으로 전투에서 흔히 선봉에서는 용감한 군인들을 지칭하는 말로서, 지방의 별초에 대해서는 이미 神宗 5년 慶州別抄의 예가 보인다. 이처럼 별초란 본래 결사대 혹은 선봉대, 별동대와 같은 군대로서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선발하여 조직되는 임시적인 성격의 부대였다고 할 수 있다.¹⁹⁾

흔히 고려 후기에는 지방군현의 土姓吏族의 경우 州縣軍의 장교로 차임하기도 하고 나아가 選軍이 되어 중앙군(京軍)의 장교에 임용되는 일이 일반적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원충감이 향공진사로서 원주별초에 속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아주 흔한 일이라고 하겠다. 그는 원주에서 합단적을 격퇴한 공로로 중앙군의 장교로 승진을 거듭하여 웅양군의 상호군이 되었다.²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원충감의 중앙진출과 정치활동〉에서 다시 고찰하기로 하

17) 『原州元氏族譜』 제 2편 世表, 源譜世紀, 2~3쪽

18) 고려의 과거제도에 대해서는 許興植, 『高麗科擧制度史研究』(一潮閣, 1981)를 참조하라.

19) 金庠基, 三別抄와 그 亂에 對하여, (『震檀學報』 9, 1938 : 『東方文化交流史論攷』 乙酉文化社, 1948)

20) 원충감이 영원성에서 합단적을 물리친 공으로 중앙에 진출하게 된 경위는, 무인정권 마지막 집권자가 된 林衍의 경우와 매우 흡사하다. 임연 역시 그의 선대는 고려 태조를 도와 개국공신이 된 신라

졌다.

3. 原州 勝捷 이후 哈丹賊의 敗走

처음 합단적이 침입하자 고려 조정에서는 將軍 吳仁永으로 하여금 원 세조에게 원군을 청하자 원 세조는 “너희 나라는 당태종이 친히 정벌하였어도 오히려 이기지 못하였고, 초기에는 우리에게 복종하지 않아 여러번 정벌하였어도 또한 쉽사리 이기지 못하였는데 이번의 이 줌도 독에 대하여 어찌 그리 두려워 하는가” 라고 하며 夜戰을 감행할 것을 권하였고,²¹⁾ 이어 원군을 보내왔다. 元軍의 장수 설도간·도리첩목아·평장사 탑출·우승 백첩목아 등이 원군을 이끌고 고려에 이르자 왕은 藍島에 나가 이들을 영접하고 잔치를 베풀었다.²²⁾

한편 원주에서 원충감에게 패한 합단군은 그 주력부대는 남하하여 忠州를 거쳐 燕岐지방으로 내려갔고, 나머지 무리는 개경으로까지 침입하기에 이르렀다. 합단적의 일부가 개경을 향해 쳐들어 오자 大將軍 宋華를 시켜 개경의 궁성을 지키게 하였다. 이때 송화가 이끈 고려군은 합단적 10여 騎를 만나 이중 3명을 죽이고 1명을 생포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적군에 투항하는 자들도 있었다. 龍岡人 金哲은 적군에 투항해서 그 嚮導가 되어 서울로 인도해 들어왔기 때문에 이를 잡아 거리에 내다 목베어 죽였다고 한다. 이때 원주산성의 방호별감 복규는 포로 53명을 바쳤다.²³⁾

합단적의 주력은 그해 4월 충주로 내려와 충주산성을 공격하였으나 여기에서도 크게 패배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忠州山城別監이 사람을 보내 승전을 알리고 아울러 적군의 귀를 벤 것 40級을 바친 것으로 확인된다.²⁴⁾

충주에서도 패한 합단적은 다시 남으로 내려와 5월 1일에는 燕岐縣에 주둔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元의 장수 설도간은 대군을 이끌고, 고려의 三軍과 연합하여 밤중에 木州(목천)를 출발하여 날이 밝을 무렵에 연기현 正左山 아래에 이르러 진을 쳤다. 이때 고려의 장수 金忻은 “감히 물러서는 자는 베겠다”고 공격을 독려하자, 병졸 李碩과 田得賢 등이 돌격하여 적군의 선봉장 두명을 베자 용기를 얻은 步卒 500명이 한꺼번에 공격하였다. 불의의 습격을 받은 적군은 모두 말을 버리고 도망하였다. 麗蒙 연합군은 이들을 추격하여 公州江에 이르렀는데, 죽어 넘어진 적의 시체는 30여리에 뻗었으며, 익사자도 매우 많았다고 한다.

말의 호족으로, 고려 후기에는 재지의 土着吏族으로 변하였다. 그는 향리출신으로 고향에서 몽고군을 격퇴한 공로로 중앙의 하급장교인 隊正에 임명된 후, 계속 승진하여 別將, 郎將, 上將軍에 오르게 되었다.(林衍에 대해서는, 申虎澈 編, 『林衍·林衍政權研究』 忠北大 出版部, 1987 참조)

21) 『高麗史節要』 충렬왕 17년 2월

22) 위책 同 4月

23) 위책 同 3月

24) 위책, 同 4月

이제 사기가 격인 적군은 더이상 남하하지 못하고 겨우 정예 기병 1천을 수습하여 물을 건너 달아났고, 연이어 추격한 연합군은 이들을 공격하여 크게 패퇴시키니 부녀자·의복·鞍馬·寶器 등 노획한 것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고 한다. 이어 5월 8일 합단군은 精騎를 다시 정비하고 연기 북쪽에서 대진하였으나 고려 장수 韓希愈의 분투에 예기가 격였으며 드디어 回軍하여 石坡驛으로 달아났다.²⁵⁾

6월 1일 고려에서는 김흔을 竹田으로, 한희유를 충청도로, 나유를 교주도로 보내어 합단의 잔당을 추격케하였다. 이에 적군 580명이 한희유에게 투항하였고, 합단의 아들 老的은 2천여기를 이끌고 죽전을 넘어 평양으로 달아났다. 한편 합단의 후속부대 3천여 騎가 철령을 넘어 교주(회양)까지 쳐들어 왔다가 합단의 패전 소식을 듣고 철령을 넘어 달아났다.²⁶⁾

이리하여 합단군을 치기 위해 원에서 파견된 원군도 그해 5월 돌아가고, 6월 1일 丁卯에 왕과 공주 및 조정 대신들이 강화에서 개경으로 환도함으로써 합단의 침략은 1년 반만에 끝이 났다.

4. 哈丹賊 침입이 고려에 미친 영향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이 우리 영토의 일부를 강점하고 그곳에 쌍성총관부와 동녕부, 탐라총관부 등을 설치하여, 고려에서는 한동안 이곳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한 적이 있었다.

그중 동녕부는 원종 11년(1270) 2월에 서경(평양)에 설치한 것으로, 이는 그 전해인 원종 10년에 당시의 권신인 임연이 왕을 폐하고 왕제 안경공 창을 세우는 사건이 발생하자 서북면병마사영 기관이던 최탄, 한신 등이 임연을 벤다는 명분을 세우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원종이 복위됨에 미쳐 몽고에 하부함으로 설치된 것이었다. 고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자비령을 경계로 삼아 그 이북의 이른바 60城—서해도 6성과 북계 54성—을 원의 영토로 편입시킨 것이다. 원에서는 최탄을 그 총관에 임명하고 元人을 달로화적으로 파견하여 직접 지배하였다. 이후 충렬왕 원년에는 동령로총관부로 승격시켰다.

그런데 충렬왕 16년 정월에 합단적이 침입한지 2개월 후인, 그해 3월 동령부를 파하고 서북의 여러 성을 고려에 돌려주었다.²⁷⁾ 동령부를 돌려준 것은 바로 합단적의 침략이 그 중요한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즉 합단적의 침입으로 북방지역에 대한 방비의 중요성이 인식되었고, 또 이들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실제 이 지역에 고려군이 직접 주둔하였기 때문에 점차 원의 직접적인 통제에서 사실상 벗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동령부를 파하기 1개월 전인 충렬왕 16년 2월에 합단적을 방어하기 위하여 변경지방에 고려

25) 實錄, 同 5月

26) 實錄, 同 6月

27) 實錄, 忠烈王 16年 3月

군을 주둔케 하였던 바, 中軍萬戶 鄭守琪를 보내어 禁忌山 골짜기에 주둔케 하고, 左軍萬戶 朴之亮을 伊川縣 界에 주둔케하고, 韓希愈는 雙城(永興)에 주둔케 하고, 右軍萬戶 金忻은 豢豸縣(高城)에, 羅裕는 通川에 각각 주둔케 하였음은 이미 지적인 바와 같다. 결국 동령부를 설치한 지 20년만에 이를 고려에 반환한 것은 바로 합단적의 침입이 그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쌍성총관부 관할의 일부 지역도 이때 고려에 반환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원래 쌍성총관부는 고종 45년(1258)에 동북면의 주민 조휘와 탁청 등이 병마사 신집평을 살해하고 원에 반부하자 이를 계기로 和州(영흥)에 설치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원은 일방적으로 등주 이북, 정주 이남지역을 그 관할하에 예속시켰다. 그리고 조휘를 총관에 탁청을 천호에 임명하는 한편 달로화적을 파견하여 직접 지배하였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원의 압력과 분할 통치정책은 고려를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일대의 지배권은 실질적으로 총관의 영향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고려분자들이 화주에 도주하였을 경우, 고려왕은 달로화적에게 이들의 반환을 요청하였지만 총관의 거부로 성사되지 않고 있던 예를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이다.²⁸⁾

그러나 합단적의 침입으로 쌍성 일대에 고려군이 주둔함에 따라, 이곳에 대한 고려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었다. 또 충렬왕 16년 3월 동령부와 함께 서북의 여러 성을 고려에 돌려주었다고 한 것을 보면, 이때 쌍성총관부 관할의 몇몇 성들 역시 이미 고려의 실질적인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다. 실제로 『高麗史』 地理地의 和州 및 登州조를 보면, 충렬왕대에 이미 고려에 돌려주었음을 알 수 있겠다. 즉 和州는 ‘忠烈王時 復舊’되었다고 하였고, 登州는 충렬왕 24년에 ‘各還本城’되었다는 기록이 보인다.²⁹⁾

이것은 쌍성총관부의 관할에 대한 매우 중요한 기사라고 할 수 있겠다. 흔히 쌍성총관부는 공민왕이 즉위한 후 그의 반원정책에 따라, 동왕 5년(1356) 7월에 비로서 군대를 파견하여 이를 수복하였다고 알려져 왔다. 그러나 합단적이 침입한 충렬왕 16년 초에 이미 쌍성총관부의 관할에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음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물론 이때에 쌍성총관부 관할의 모든 성이 다 고려에 반환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 通州에 병합되었던 몇개의 州, 즉 등주와 화주 등은 이때 이미 분리되었고, 적어도 이곳에 대한 원의 지배력은 축소된 반면 고려의 영향력이 크게 증대되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면 충렬왕 16년 이후 ‘各還本城’ 즉 화주와 등주 일대를 고려에 돌려주게 된 배경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元나라에서는 元世祖 24년(고려 충렬왕 13년 : 1287) 4월에 乃顔의 반란이 일어났음은 이미 언급한 바와거니와, 이때 고려에서는 충렬왕 13년 5월 이 소식을 처음 듣고 장군 유비를 원에 보내 내안정벌을 위한 원조군을 파견하였었다.³⁰⁾ 내안 정벌은 같은 해 8월에

28) 雙城總管府에 대해서는, 方東仁, 雙城總管府考(上), 『關東史學』 1, 1982을 참조하라.

29) 『高麗史』 地理志 東界 和州 및, 同, 登州

30) 『高麗史』 世家 30, 忠烈王 13年 5月

일단락 되었으나, 내안의 잔당인 합단이 고려에 쳐들어 오자 충렬왕 16년 2월 한희유를 쌍성에 주둔하게 하였다. 그러나 합단적은 해양(길주)을 거쳐 11월에는 쌍성을 통과하게 되었고 12월에는 화주·등주를 통과함으로써 고려는 마침내 강화도로 천도하였었다. 이처럼 충렬왕대에 내안 및 합단적을 토벌하기 위해, 고려와 원은 상호 援軍을 파견하였고 이로 인해 원과 고려와의 관계는 종속관계라기 보다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변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동령부와 쌍성총관부에 대한 원의 영향력은 합단적의 침입으로 인하여 크게 약화되었고 반면 고려의 영향력이 그만큼 증대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고려는 東西界에 대한 民戶 및 土地에 대한 파악을 통해 행정적인 통제를 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 합단의 침입을 계기로 쌍성일대에 고려군이 진출하여 이들을 격퇴함으로써 이곳이 고려의 실질적인 동북변경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이후 고려가 실제 쌍성 일대의 饑民을 구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원의 쌍성총관부에 대한 지배가 정지상태에 있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5. 元沖甲의 中央進出과 政治活動

원충갑은 원주 영원산성에서 합단군을 물리친 공으로 원주 別抄에서 중앙군의 장교로 승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8년 후인 충렬왕 25년에 원충갑이 將軍의 직을 가지고 개경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통하여 확인된다.³¹⁾ 그후 三司右尹을 거쳐³²⁾ 鷹揚軍의 上護軍으로 승진하였다. 응양군의 상호군은 때로 班主라 불리며 무반 중에서도 가장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³³⁾ 원충갑은 이제 중앙군의 최고 사령관이 되어 일약 개경의 정치무대에서 활약하게 되었다. 原州 勝捷 이후의 원충갑이 활동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주지하다시피 충렬왕은 두번이나 왕위에 올랐던 인물이다. 그는 즉위 24년(1298) 정월에 세자인 충선왕에게 양위한 이후 약 7개월 뒤에 다시 왕위에 올랐다. 이는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었다. 충렬왕의 양위나 복위는 기본적으로 원의 정치적 간섭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고려 조정내 정치세력간의 갈등이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충렬왕의 양위 기간은 비록 7개월에 불과하지만, 이 기간 동안 복잡한 정치세력간의 싸움이 있었다.³⁴⁾ 바로 이러한 시기에 원충갑은 중앙군의 최고 사령관으로 활동한 것이다.

충선왕은 그의 부왕인 충렬왕과 극심한 정치적 갈등을 빚었다. 충렬왕 24년 그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충선왕이 즉위한데서 비롯된 그들의 갈등은 양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거의

31) 『高麗史節要』 忠烈王 25年 正月・2月

32) 언제 三司右尹의 관직을 받았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의 列傳에 의하면, 哈丹軍을 물리친 공으로 三司右尹에 오르게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忠烈王 17年 이후임에는 틀림이 없다.

33) 李基白, 高麗京軍考 『高麗兵制史研究』 一潮閣, 1968, 71쪽

34) 이에 대해서는, 金塘澤, 『元干涉下の 高麗政治史研究』 一潮閣, 1998을 참조하라.

모든 관료들이 충렬왕파와 충선왕파로 갈리어 대립하는 상황으로 발전하였다. 충렬왕파의 인물들은 충선왕과 계국대장공주와 불화를 빚자 공주를 부추기어 이를 확대하여 원에 보고하게 하는 등 충선왕의 퇴위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³⁵⁾ 한편 충선왕파는 충렬왕의 측근세력을 체포하기 위하여 왕궁을 포위하기도 하였다. 다음 사료를 보자.

1) 萬戶 印侯, 金忻과 密直 元卿 등이 군사를 동원하여 萬戶 韓希愈를 체포하였다. (중략) 이후 등이 등이 군사를 동원하여, (한)회유와 上將軍 李英柱, 千戶 石天補 및 그의 아우 天卿, 將軍 李茂, 朴松堅, 元冲甲, 韓大莊, 俞守大, 前中郎將 白瑞卿, 別將 襄仁儉 등 10여인을 체포하였다. (『高麗史節要』, 충렬왕 25년 정월)

2) 한회유와 이영주는 섬으로 귀양보내고, 나머지는 모두 杖刑을 실시하였다. (『高麗史節要』, 충렬왕 25년 2월)

위의 사료는 바로 충렬왕이 복위한지 몇달 후에 일어난 충렬왕파와 충선왕파간의 갈등을 나타내주는 사건이다. 즉 충선왕파인 인후·김혼 그리고 밀직사 원경 등이 충렬왕파인 만호 밀직첨의사인 한회유와 상장군 이영주 등을 체포하여 행성의 좌승인 하산에게 무고한 것이다.

이때 모반을 주도했다고 지목되어 체포된 인물이 모두 10명으로, 여기에 원총감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의 관직이 將軍이었음도 함께 알 수 있다. 원총감이 한회유 등과 함께 충렬왕의 측근 세력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관료들간의 정치적 갈등은 결국 국왕의 권위를 실추시키게 되었다. 충렬왕 초기 왕권은 어느정도 회복되었지만 아들 충선왕에게 양위하고 이어 7개월만에 복위하는 과정에서 국왕의 권위는 이미 크게 실추되었다. 충렬왕의 복위 자체가 원에 의해 이루어졌을 뿐아니라 이후 정치세력간의 갈등은 모두 원의 간섭과 압력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위의 사건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다. 충렬왕이 복위하여 현재 왕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선왕파인 인후 등이 군대를 동원하여 궁성을 포위하고 충렬왕의 측근 세력을 체포한 사실을 통해 당시의 국왕의 권위가 어떠했는지 쉽게 짐작할 수가 있다.

이 일이 있은 4년 이후에는 원총감이 다시 정치적으로 득세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것이 바로 충렬왕 29년 7월에 당시 재상이자 강력한 세력기반을 갖고 있던 吳潛을 체포한 사건이다. 다음의 사료를 보자.

1) 吳潛은 讒佞으로 寵幸을 얻어 왕의 부자간에 틈을 벌어지게 하였으며 충성있고 선량한 자를 포함하여 사람들이 모두 이를 갈았으나 화가 두려워 감히 말하는 자가 없었다. 前護軍 원총감 등 50명이 (원의) 사신에게 고발하려고 먼저 왕에게 고하였다. 왕은 이를 말리고 護軍 曹頤를 시켜 타

35) 金成俊, 高麗後期 元公主 출신 王妃의 정치적 위치, 『韓國中世政治法制史研究』 一潮閣, 1985

일렀으나 원충감은 듣지 않고 드디어 첩목아불화에게 고하기를 “(前略)이제 신하에 吳祈란 자가 있어 실로 원악이 되어 재능도 없고 공적도 없으면서 한갓 간사하고 아첨함으로써 승진되었는데 왕의 부자를 이간하고 스스로 대공을 세웠다 하여 위복을 도적해서 회통하고 昆季를 끌어서는 아울러 機密한 자리에 참여하여 수년동안 다 將相에까지 이르렀으며 무릇 본국의 신료로서 준비를 물론하고 조금만 자기와 협의가 있으면 문득 죄로써 모함함으로 죄가 없이 파직되고 귀양간 자가 일국에 가득찼고 각도의 안렴과 수령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애증으로 진퇴하고 여탈하여 성훈을 저버리니 죄가 죽음을 용서할 수 없거늘 이제 성지가 있는데도 또한 두려워하지 않고 저지하기를 피하니 天使께서 나라에 돌아간 뒤에는 반드시 다른 도모가 있을 것이니 엿드려 바라전데 국민에게 널리 물어서 요란하기 전에 제어하면 동국의 백성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과 같겠습니까.”라고 하였다.(『高麗史節要』 충렬왕 29년 7월 1일)

2) 홍자번이 宰臣과 樞臣 및 萬戶 金深과 함께 3軍의 장사와 원충감 등을 거느리고 왕궁을 포위하여 吳祈를 내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왕이 허락하지 않더니, (중략) 護軍 吳賢良이 바로 왕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 오기를 잡아가지고 나왔다.(『高麗史節要』 충렬왕 28년 8월)

위의 사료에서 吳祈는 바로 오잠의 初名으로, 그는 同福縣 출신이고 그의 父는 贊成事를 지낸 吳璿으로, 충렬왕대에 과거에 합격하여 관직이 承旨·知密直司事·監察大夫·知都僉議司事에 이르렀다.³⁶⁾ 그러나 그는 충렬왕 29년 한때 홍자번 등의 반대파에 의해 정치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충선왕의 복위 이후 계속 고위 관직에 올라, 충선왕 5년에는 밀직사가 되었으며³⁷⁾ 이어 충숙왕 원년에는 三司事에 올랐다.³⁸⁾

그는 충숙왕대에 유청신 등과 함께 藩王인 朮를 고려왕에 옹립하려다 실패하였고 나아가 고려에 원의 행성을 설치할 것을 주장하는 소위 ‘立省 策動’을 주도하는 등 반고려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이처럼 오잠은 충렬왕대부터 충숙왕대에 이르기까지 재상으로 활동하면서 원과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인물이었다.

그런데 위의 사료에서 오잠이 “왕의 부자를 이간하고 忠良을 모함하고 살해하니 모두 이를 갈았다”고 한 것으로 보아 그가 충렬왕을 양위시키고 충선왕을 옹립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충선왕파가 분명하다. 따라서 오잠을 체포한 것은 충렬왕파에 의한 충선왕파에 대한 역공인 셈이다. 물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오잠은 막강한 정치적 비중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다. 그것은 이 사건이 있기 바로 한해 전인 충렬왕 28년 4월에 오잠은 지밀직사사로서 지공거를 역임하기도 했음을 확인할 수 있고,³⁹⁾ 또 그를 미워하는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화를 당할까 두

36) 『高麗史』 125, 列傳 38, 吳潛傳

37) 『高麗史』 34, 忠宣王 5年 3月 丁酉

38) 續編, 忠肅王 元年 正月

39) 『高麗史』 73, 選舉志 1, 科目 1, 選場 忠烈王 28年 4月

러워 감히 말을 못하였다”고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에 정면으로 맞선 이가 바로 원충갑이었다. 그런데 원충갑은 4년 전 한희유 등과 함께 체포되어 관직을 박탈 당한 후 아직 복권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 때의 원충갑의 관직이 前護軍(護軍은 將軍의 별칭이다)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원충갑을 비롯한 홍자번 등은 마침 원으로부터 帖木兒不花가 고려의 사신으로 오자, 이를 계기로 오잠을 제거하기로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원충갑은 자신의 측근 인물 50인과 함께 오잠의 비행을 고발하였고, 이에 왕은 護軍인 曹頤에게 명하여 원충갑의 행동을 설유케 하였으나 원충갑은 이를 듣지 않았던 것이다. 이처럼 원충갑 등이 오잠의 제거에 앞장서자 그후에야 비로서 그동안 주저하던 인물들이 모두 동조하였다. 즉 원충갑이 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오잠을 고발하자, 유만비·정희·김희·윤해·오영구·이주·이설·선종계·고정·홍승서 등도 원의 사신에게 오잠의 잘못을 고하였고, 이어 홍자번·김희·민원·민지·정개·권영·김태현·고세·김문형·이곤·원진·허평·신연·김정수·조문간·김원상·박광정·윤길손·오현량·김유지 등도 원 사신에게 비슷한 내용을 고하였으며, 또 宰相 채인규 등 28인과, 萬戶 김심 등의 軍官 150인이 元使에게 고소하였고 한다.⁴⁰⁾

이에 왕은 判圖判書 최양을 불러 말하기를 “듣건대 오잠을 원의 사신에게 고소한다고 하는데 아직 천천히 하라”고 하였으나, 최양이 이를 듣지 않고 박전지 등 70여인과 더불어 오잠을 죄줄 것을 청하였다. 이처럼 조정의 관료들이 한꺼번에 오잠을 탄핵하려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충렬왕이 왜 그토록 오잠을 끝까지 비호하려 했는지 갑자기 이해하기 어려우나, 아마도 복잡한 원과의 관계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찰이 필요하다.

그러나 왕의 적극적인 만류에도 불구하고 오잠은 결국 충렬왕 29년 7월 원충갑 등에 의해 체포되어 원에 압송되었다. 이 사건 이후 원충갑의 정치적 지위는 크게 향상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관직도 올라 웅양군의 상호군으로 승진하게 되었다. 원충갑이 정확하게 언제 무관직의 최고위직인 웅양군의 상호군에 임명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오잠의 체포사건 이후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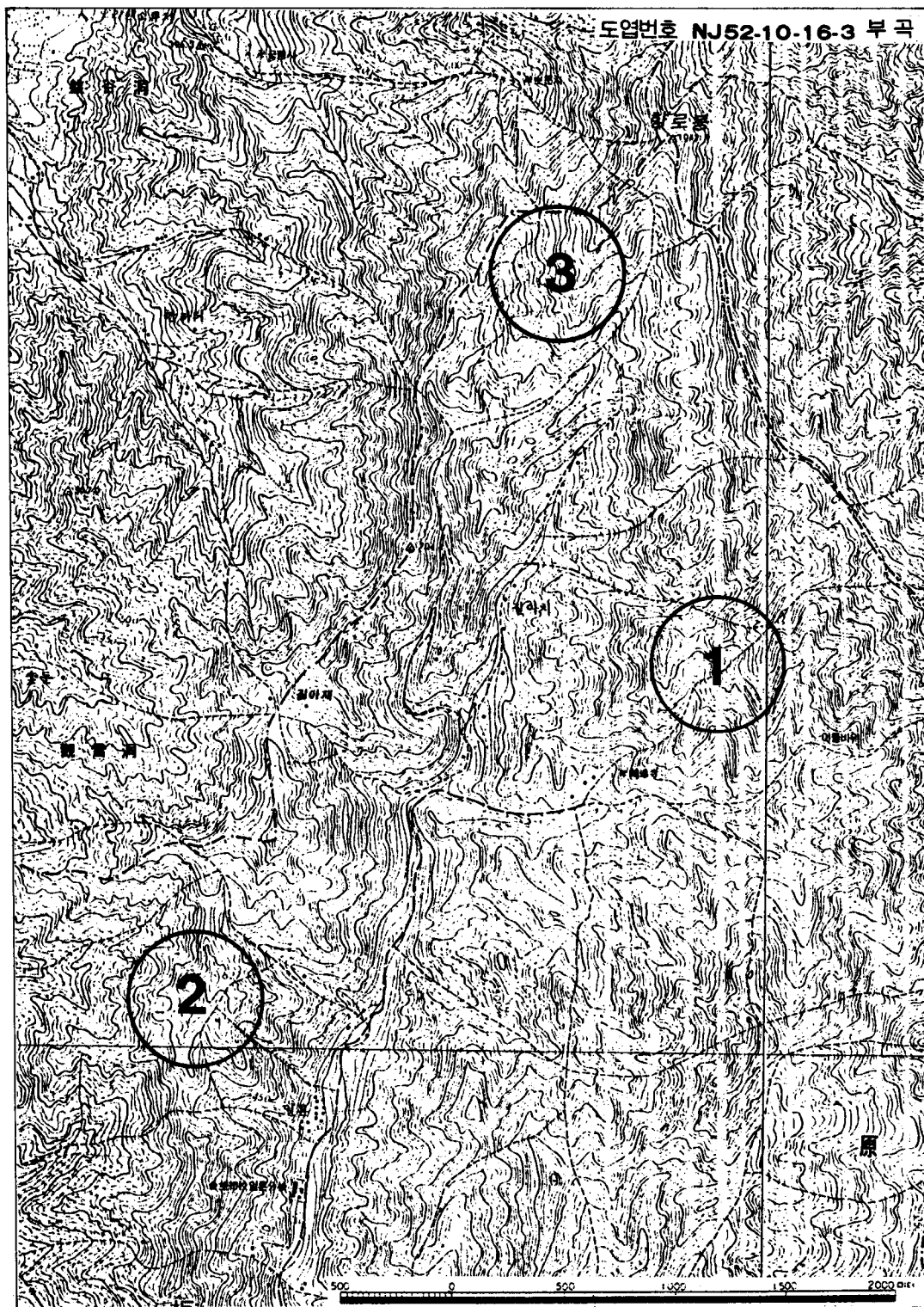
그후 원충갑은 충숙왕 8년 6월 72세의 나이로 졸하였고, 합단적을 격퇴시킨 그의 공으로 인해 조정으로 부터 推誠奮勇定亂匡國功臣號를 하사받았다.⁴¹⁾

40) 그 구체적인 과정과 고소 내용에 대해서는 註 36)의 오잠전을 참고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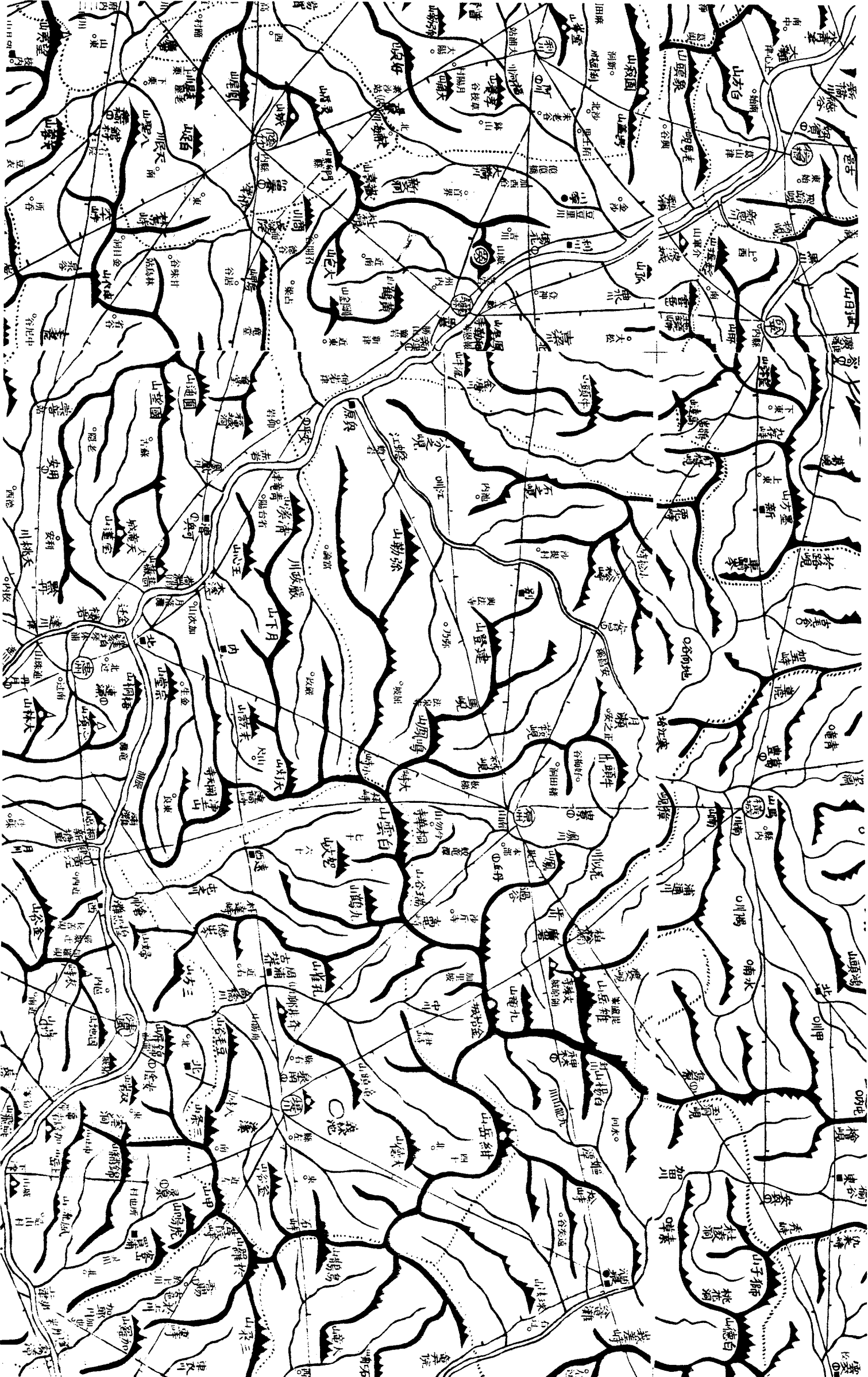
41) 元冲甲에게 功臣號를 下賜한 時期에 대해서는 史料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高麗史節要』에는, 元冲甲이 卒한 忠肅王 8年 6월에 推誠奮勇定亂匡國功臣號를 하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卷 24, 忠肅王 8年 6月條), 반면 『高麗史』에는 忠肅王 6년에 式目都監이 청해 推誠奮勇定亂匡國功臣號를 下賜하고, 그 2년 후에 卒한 것으로 되어 있다(卷 104, 列傳 17, 元冲甲).

필자는 『高麗史節要』의 기록을 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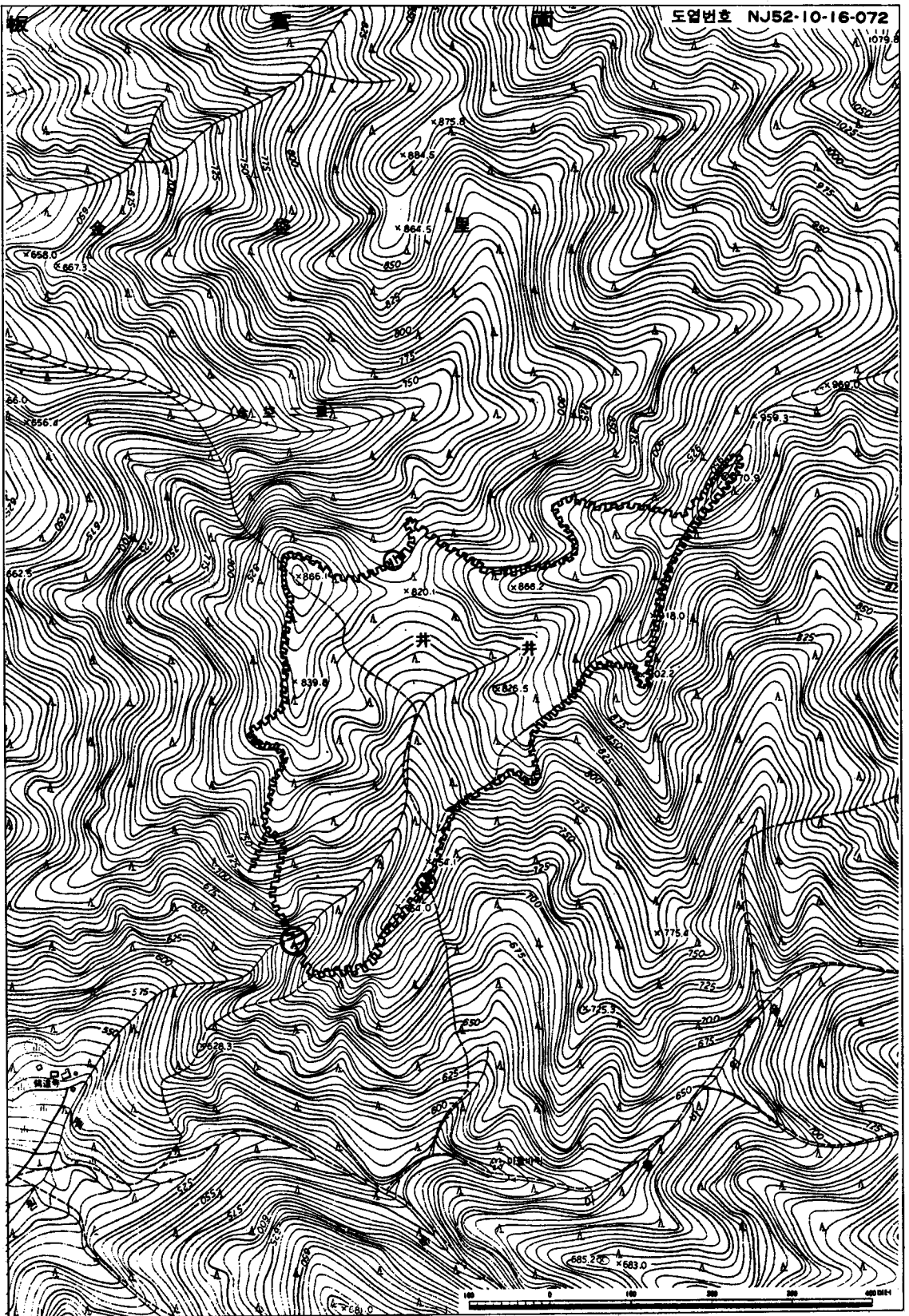
도면 ·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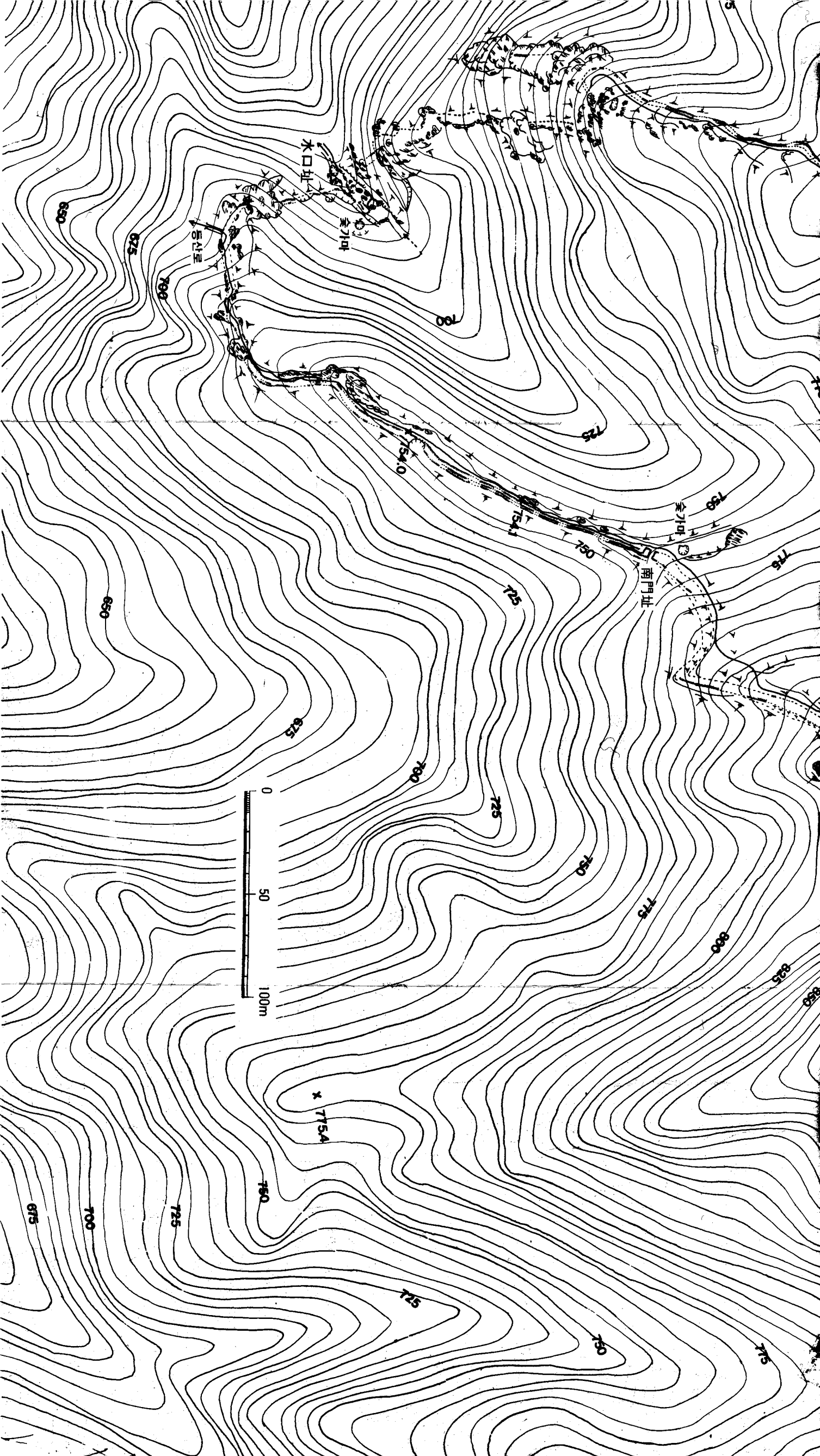
(도면 1) 영원산성·해미산성 위치도(1/2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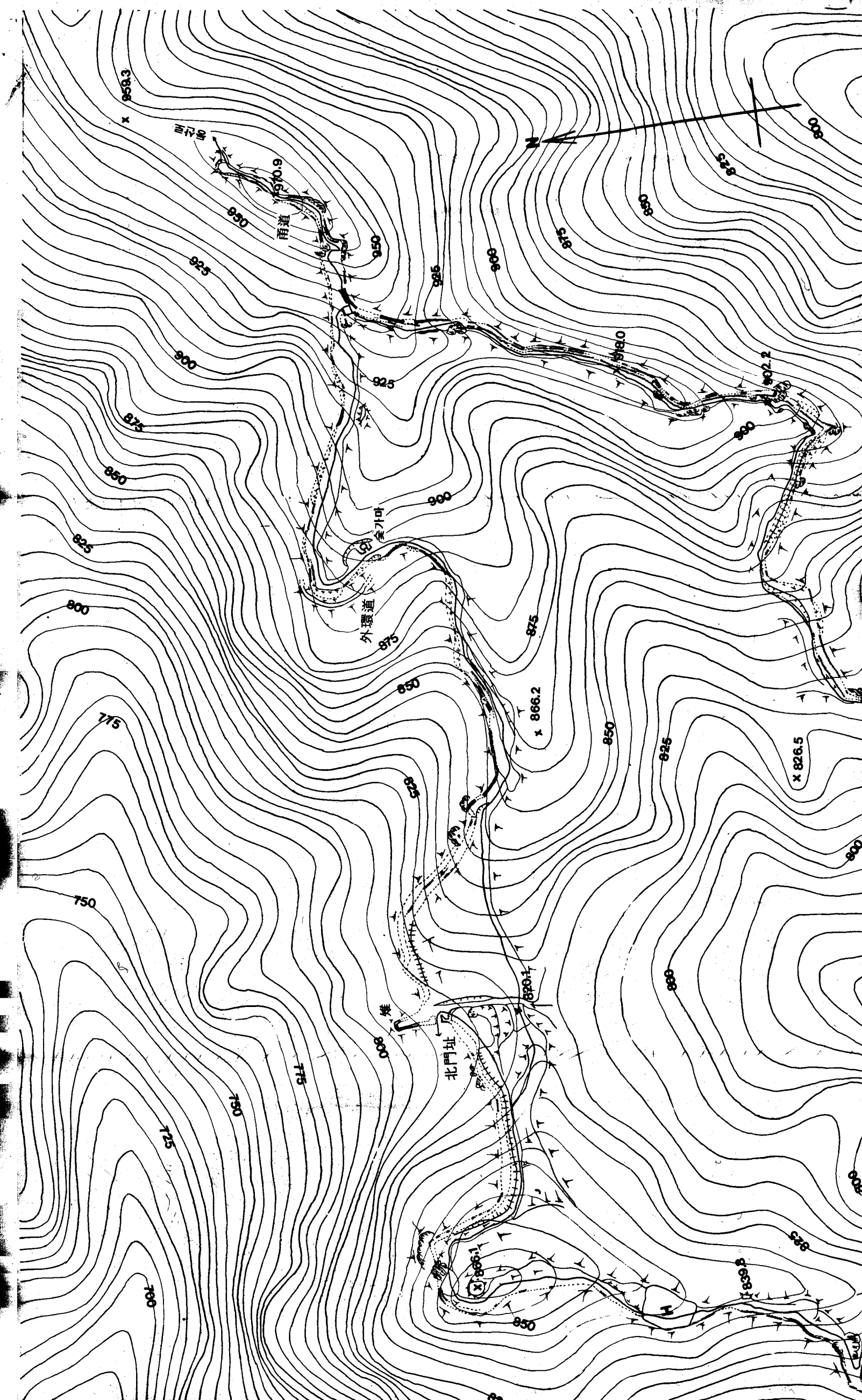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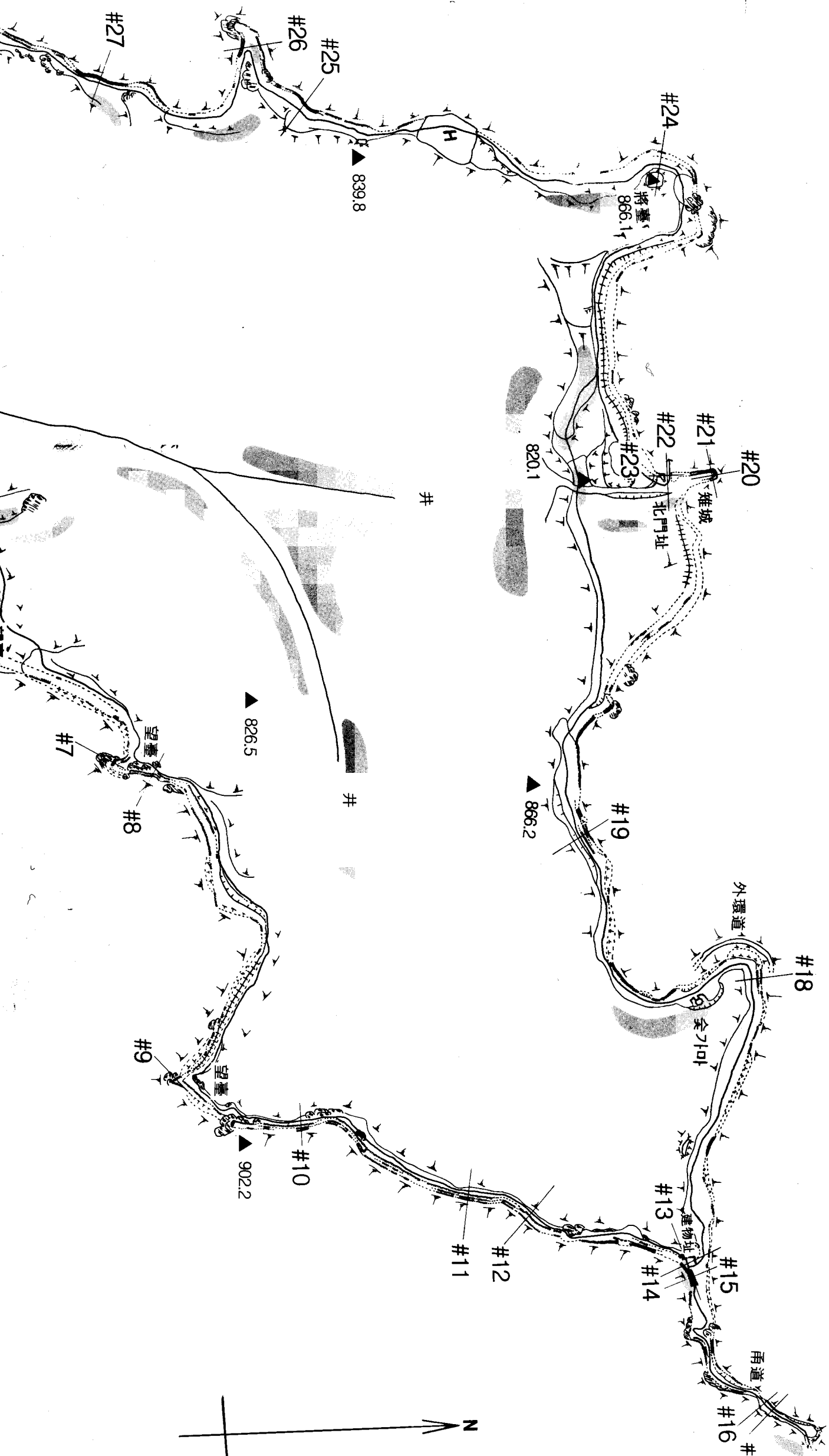
[도면 2] 영원산성 주변 지형도(대동여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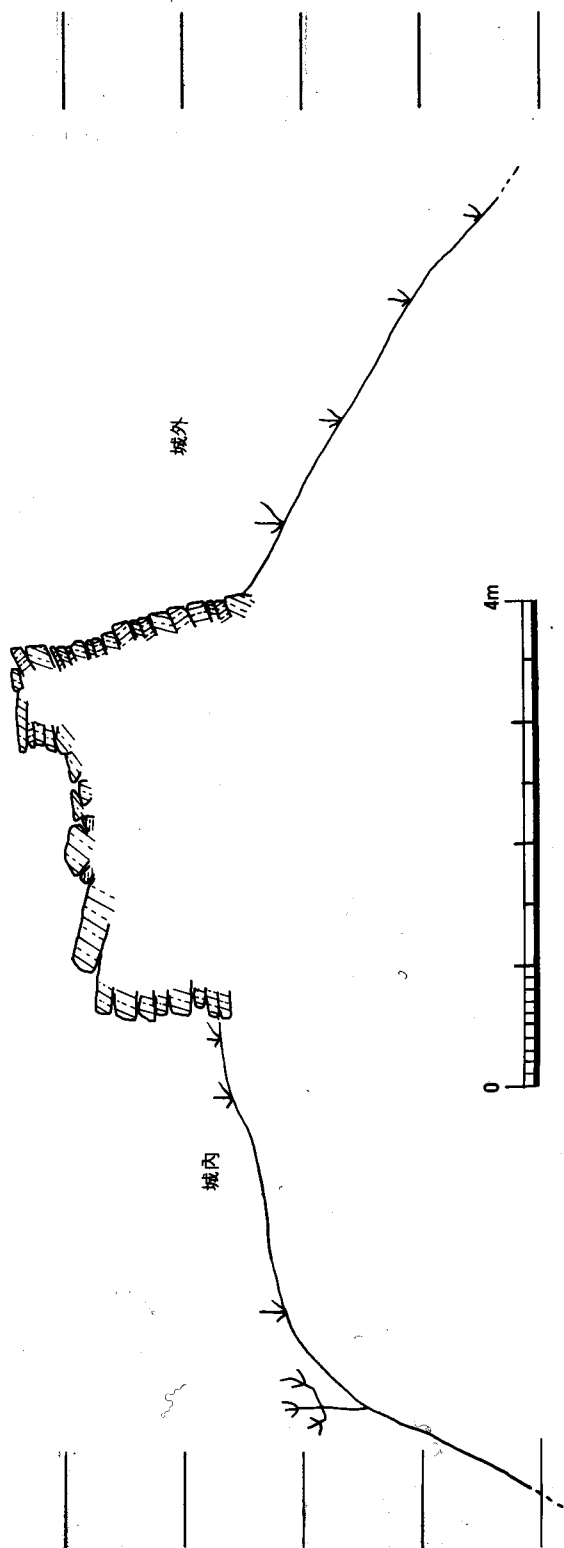
(도면 3) 영원산성 주변 지형도(1/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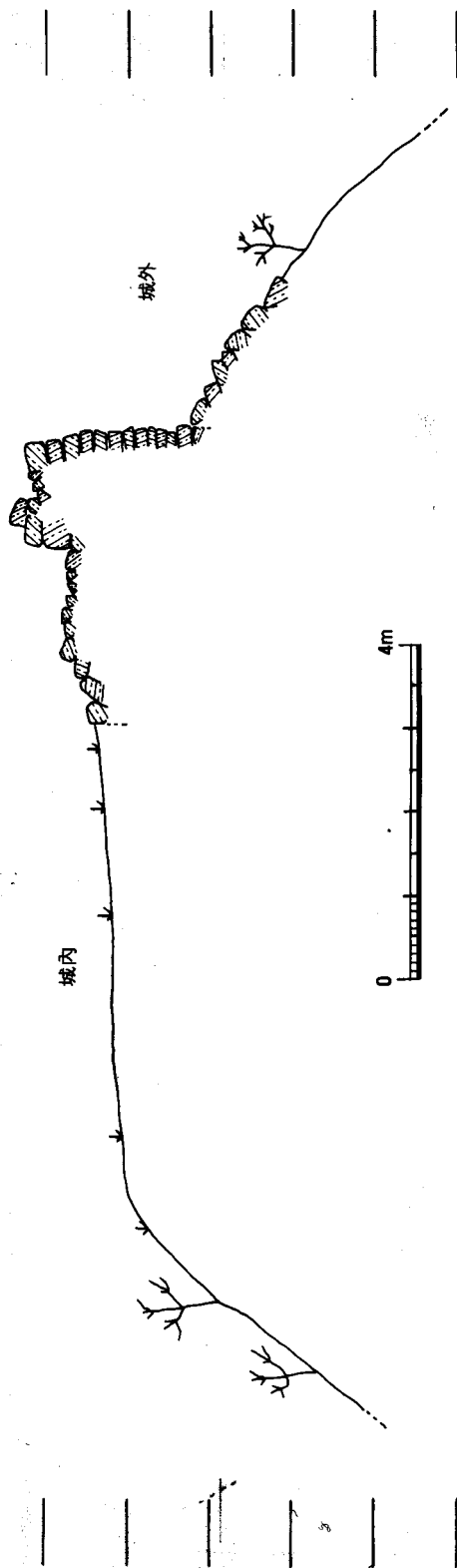
(단면 #1)



(도면 6) 영월산성 단면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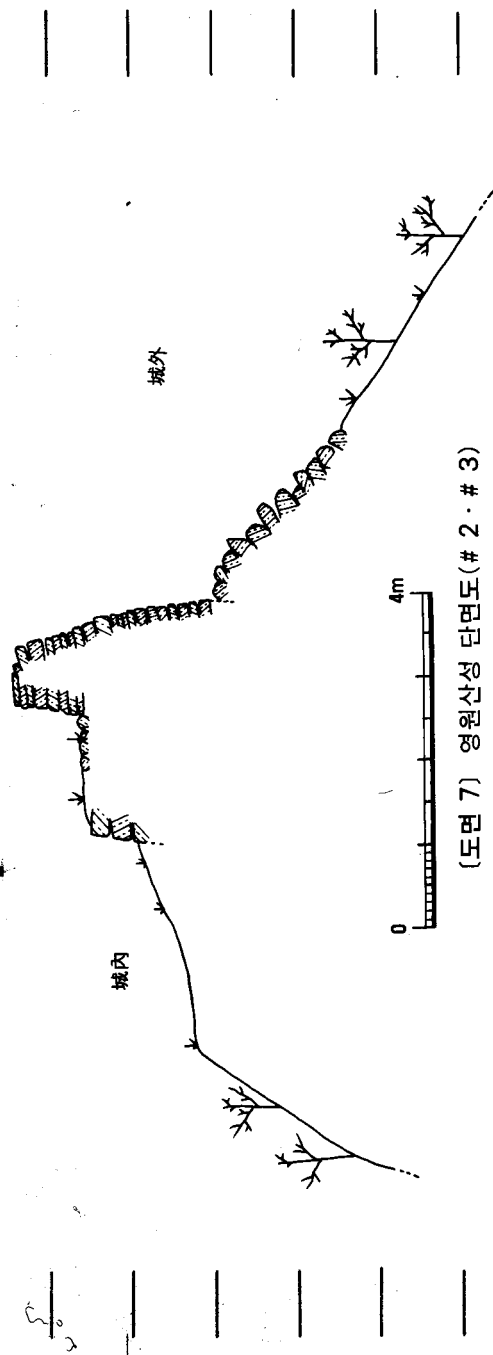
(단면 #2)

(단면 #2) 영원산성 단면도 (# 2)



(단면 #3)

(단면 #3) 영원산성 단면도 (# 2 · # 3)



(단면 #7)

城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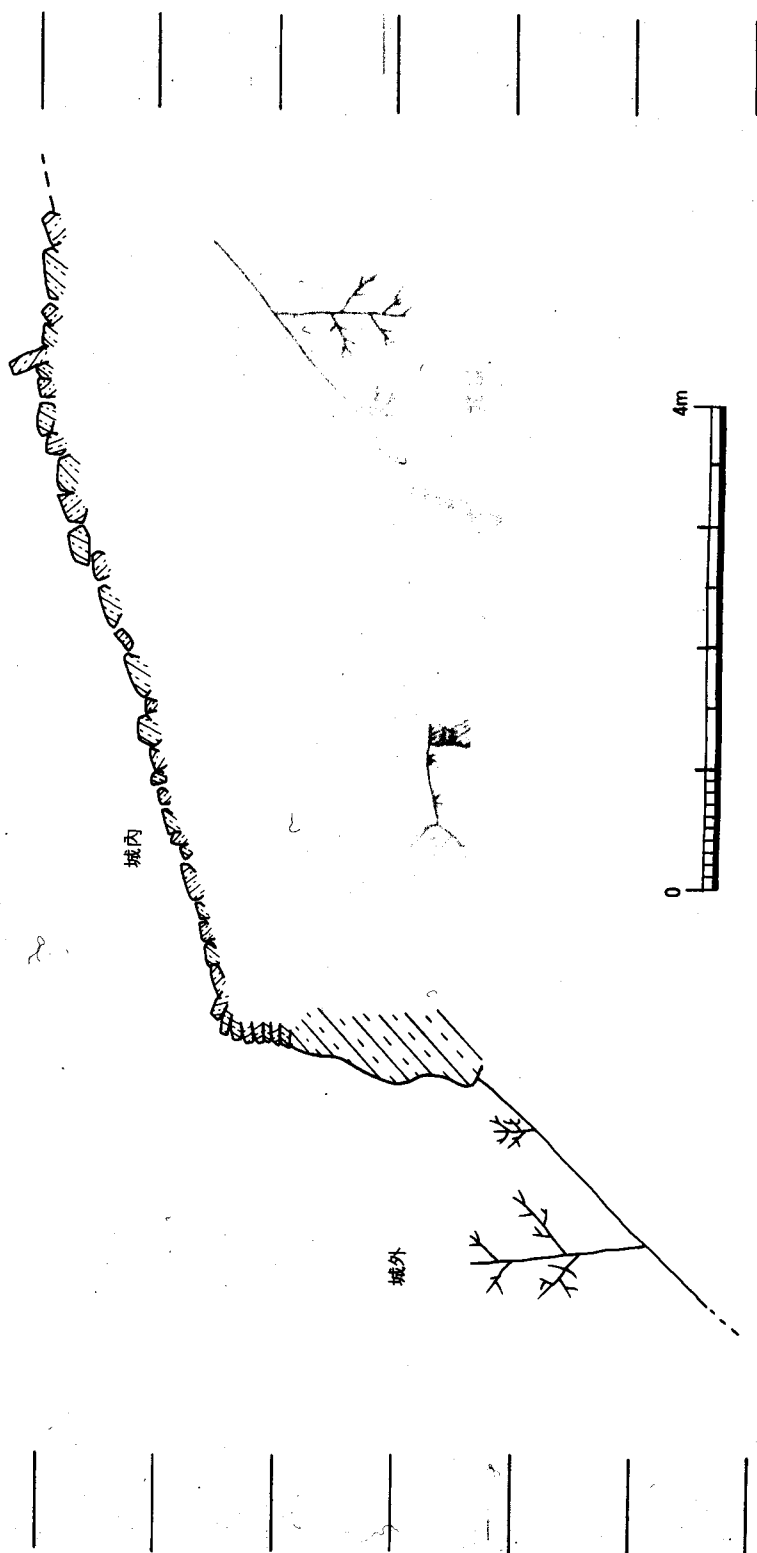
城外



(도면 8) 영원산성 단면도(#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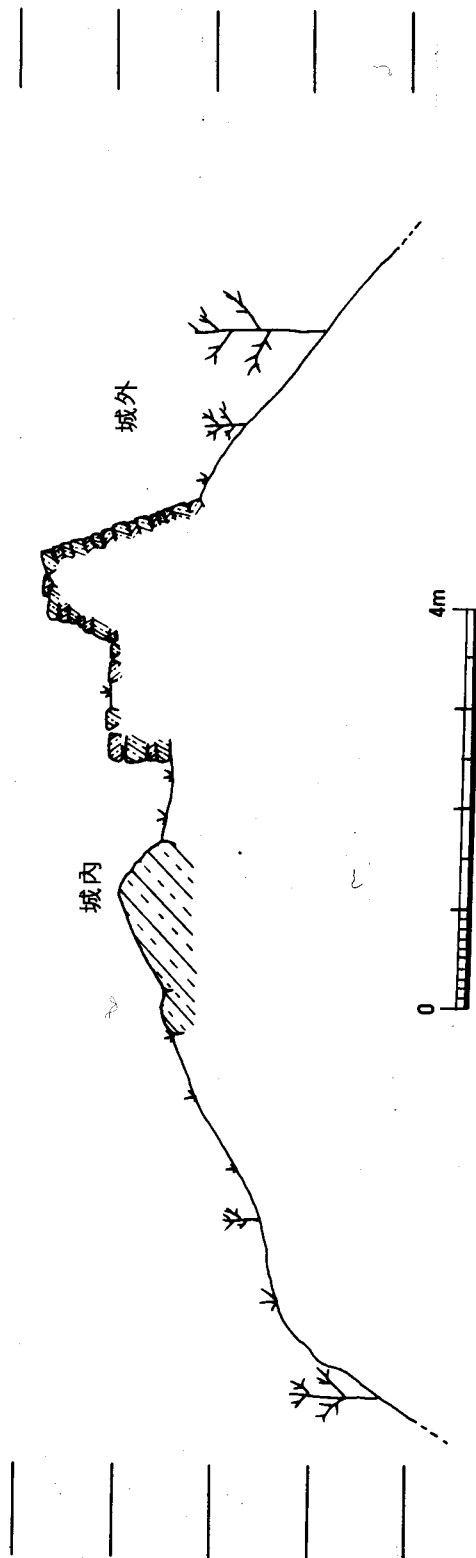


(8) 노면감상영양 (6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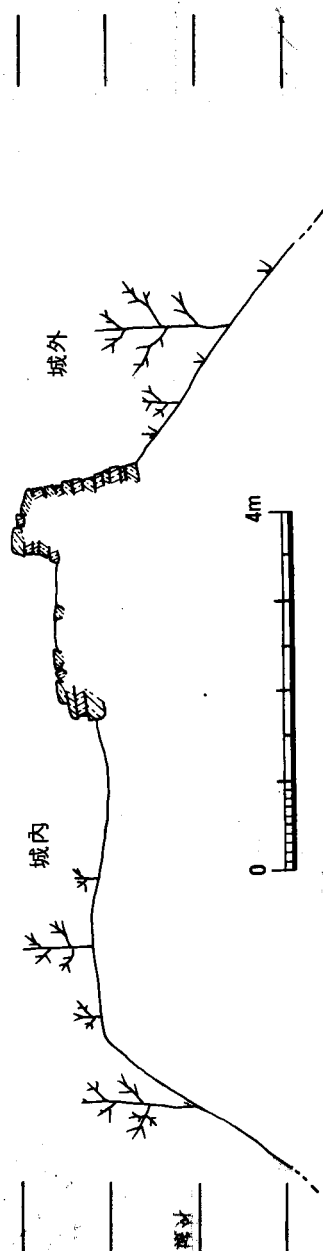
(도면 10) 영월산성 단면도(# 9)

(단면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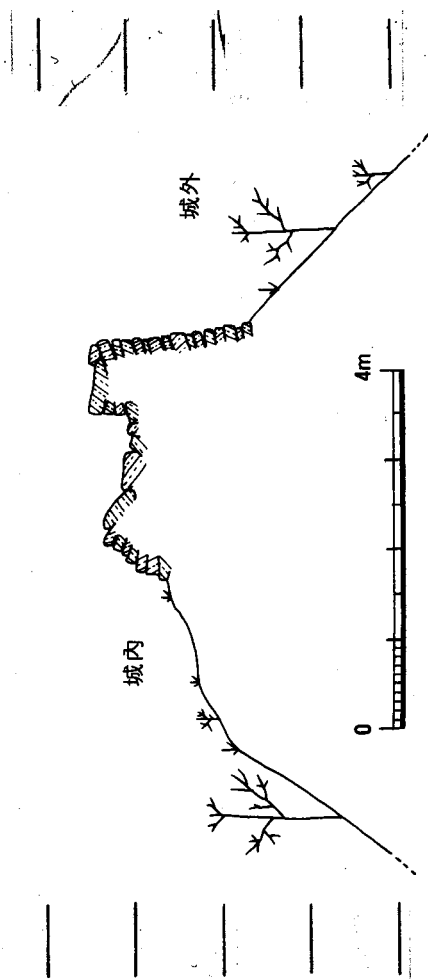


(도면 11) 영원산성 단면도(# 10)

(단면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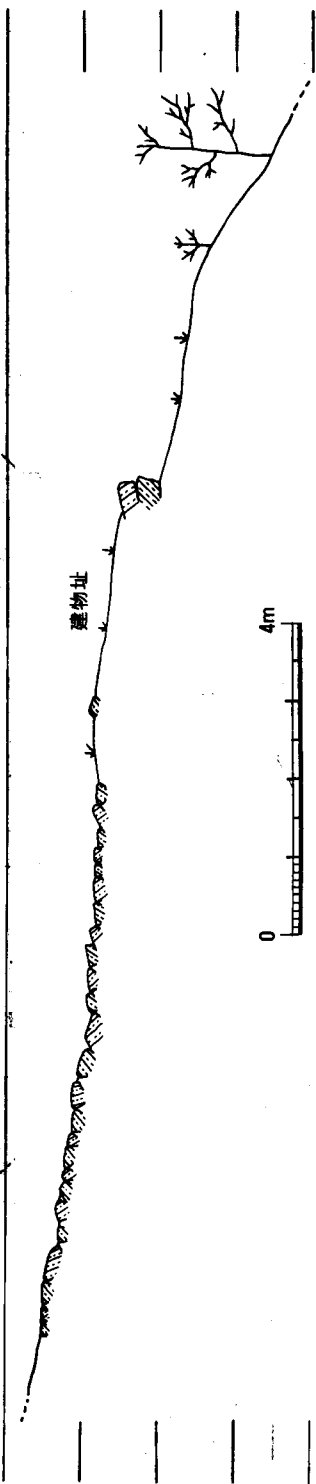


(단면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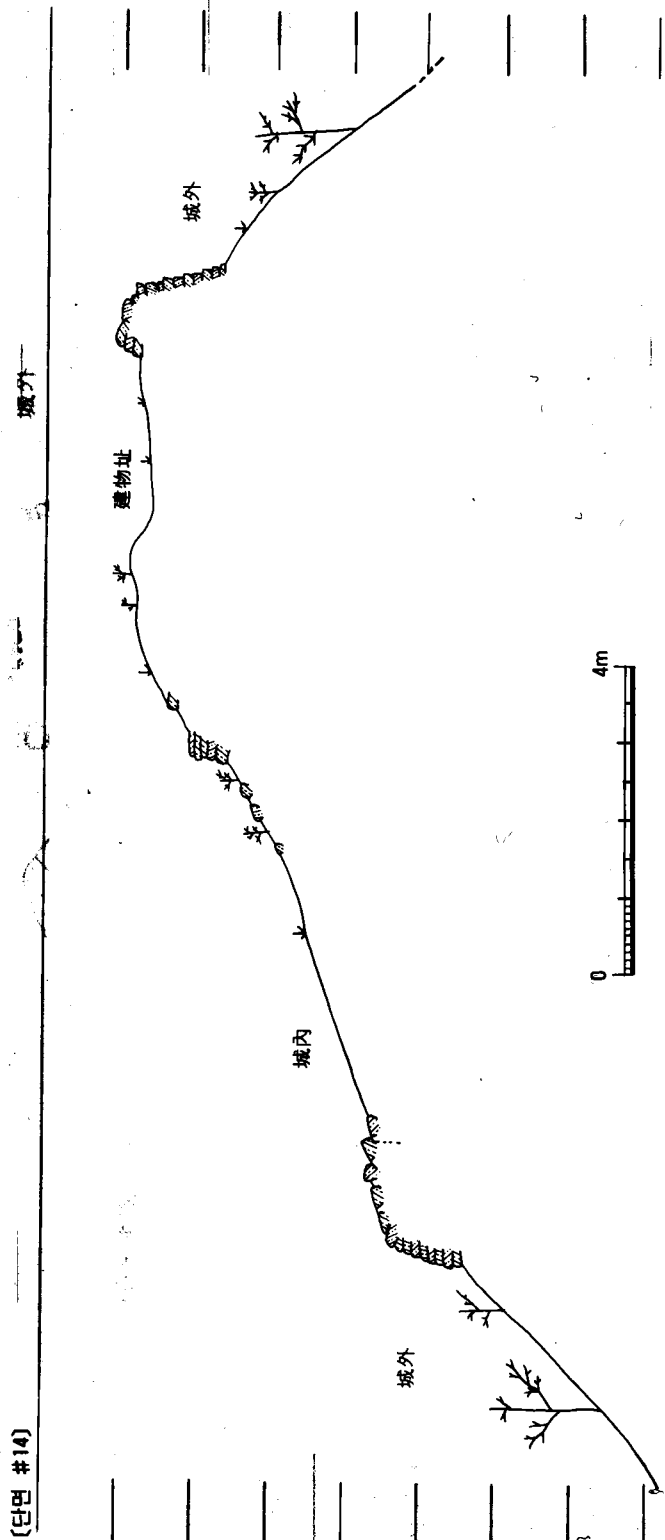


(도면 12) 영원산성 단면도(# 11·# 12)

(단면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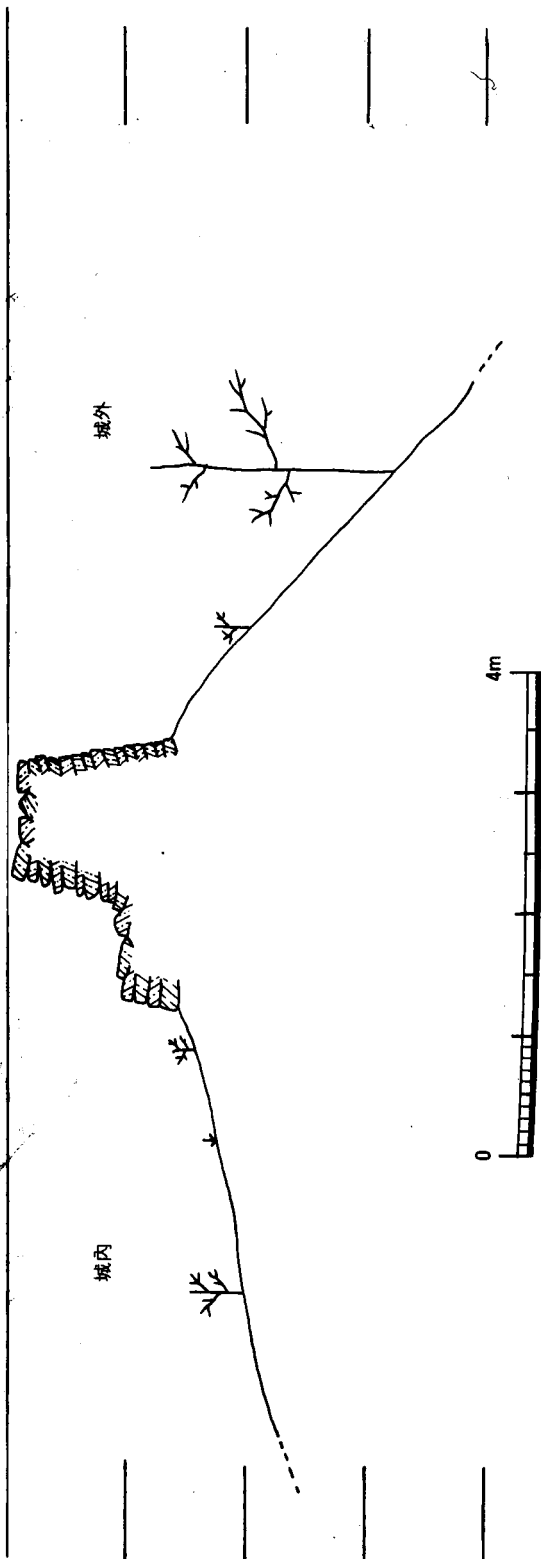


(단면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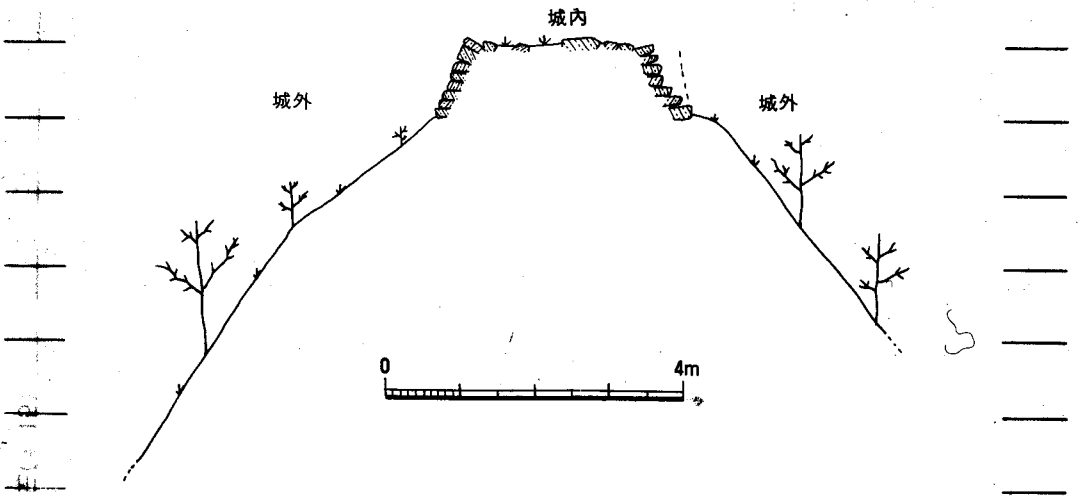
(도면 13) 영원산성 단면도(# 13 · # 14)

(단면 #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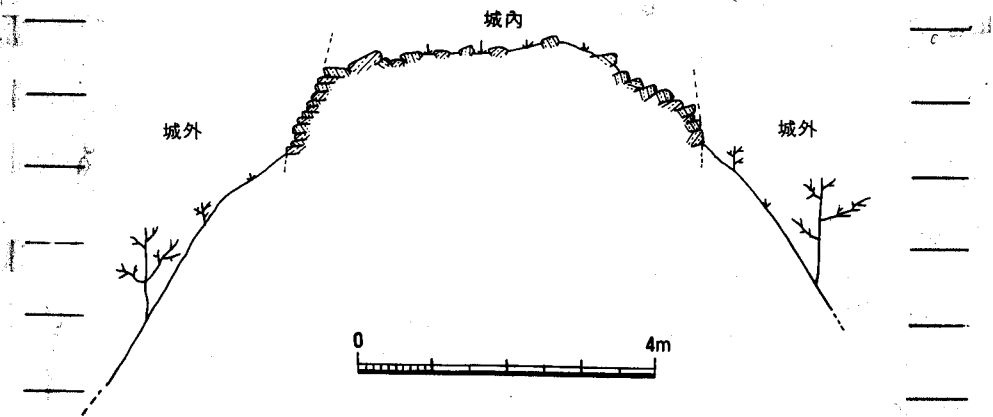


(도면 14) 영월산성 단면도 (# 15)

(단면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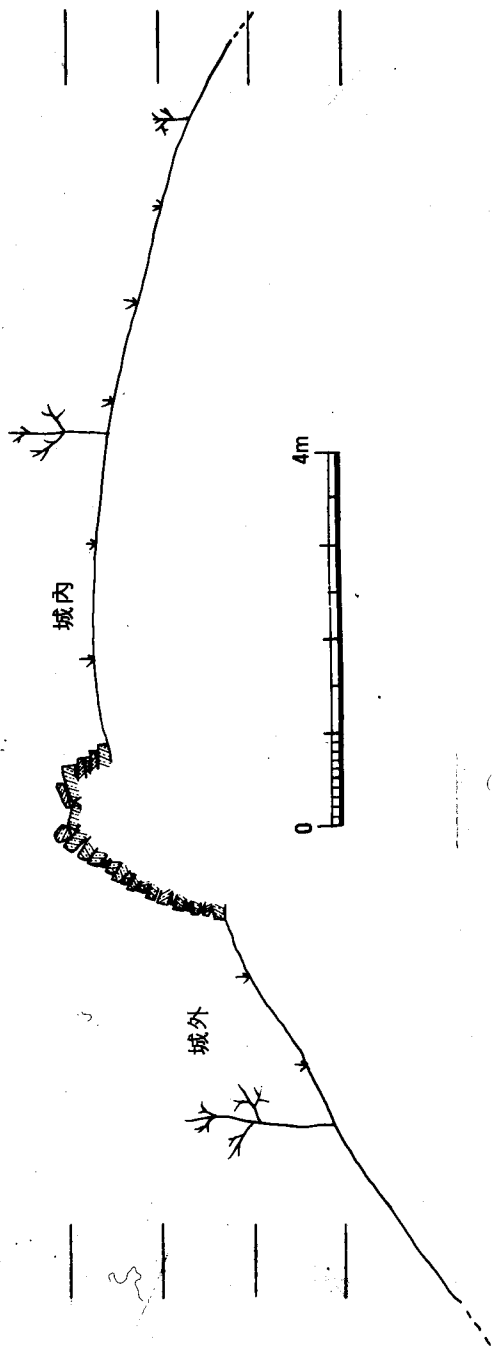
(단면 #17)



[도면 15] 영월산성 단면도(# 16 · #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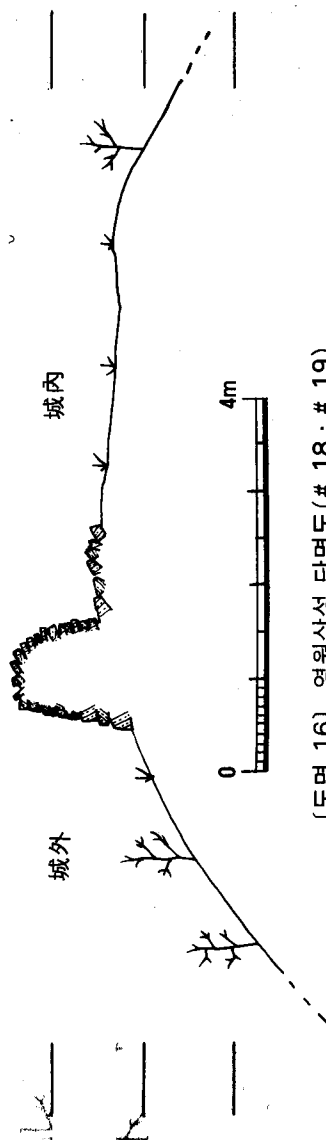
[단면 #18]

[조면 13] 영원산성 단면도 (# 34 ~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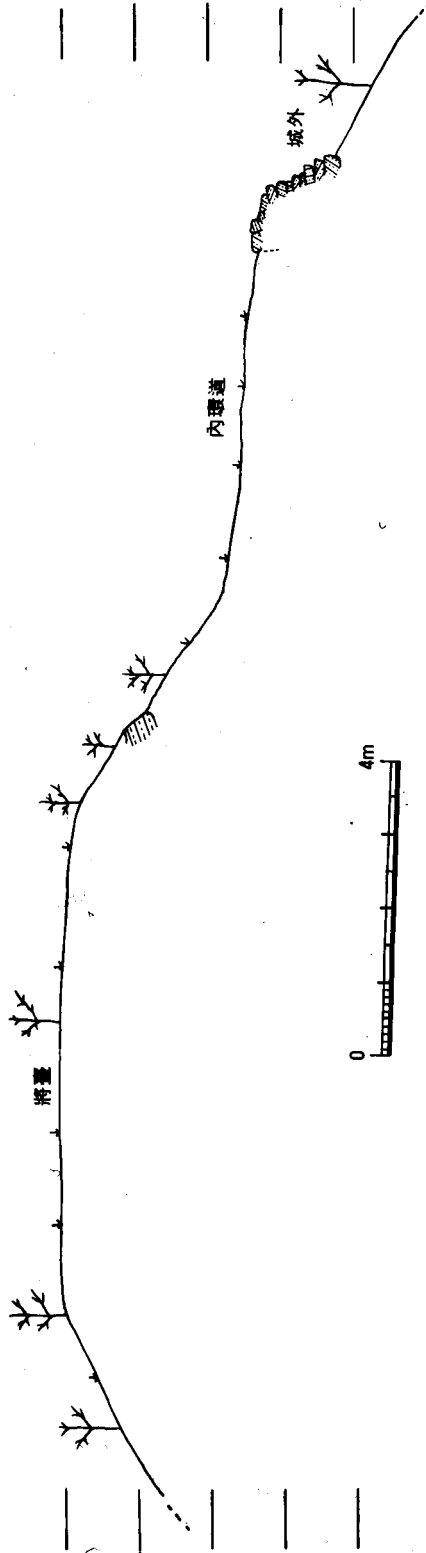
[단면 #19]

必通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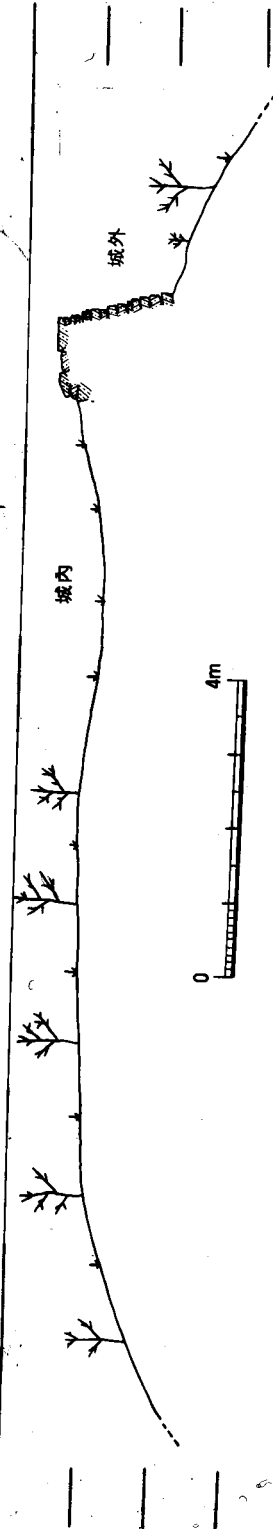


[도면 16] 영원산성 단면도 (# 18 · # 19)

(단면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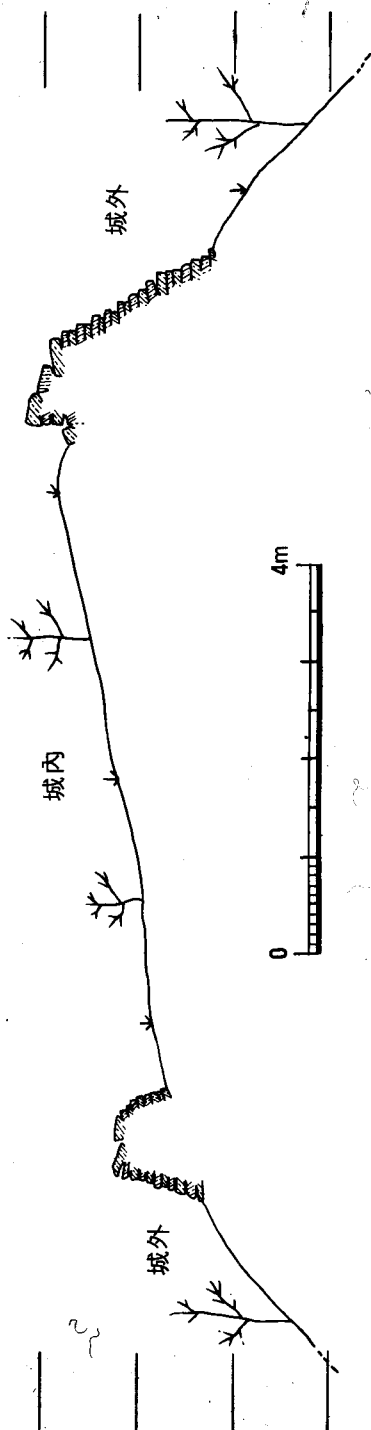
(단면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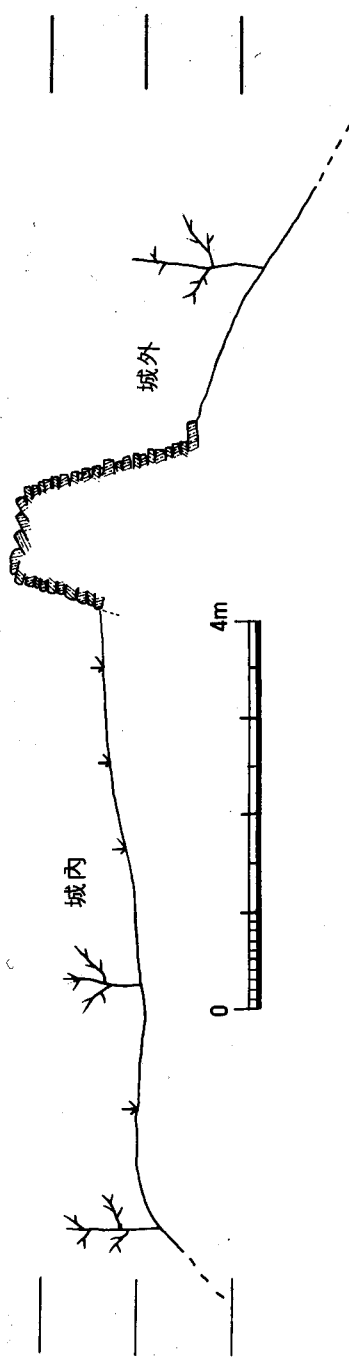
(단면 #18)

(도면 17) 영월산성 단면도 (# 24 · #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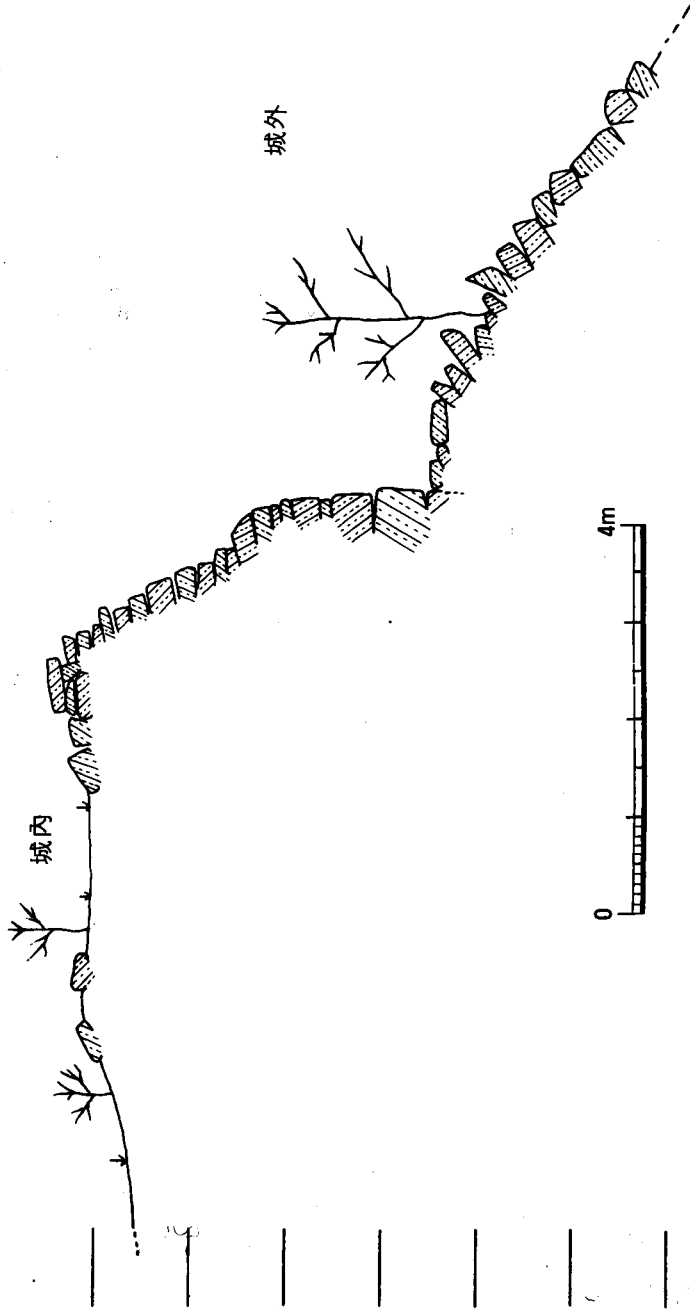
[단면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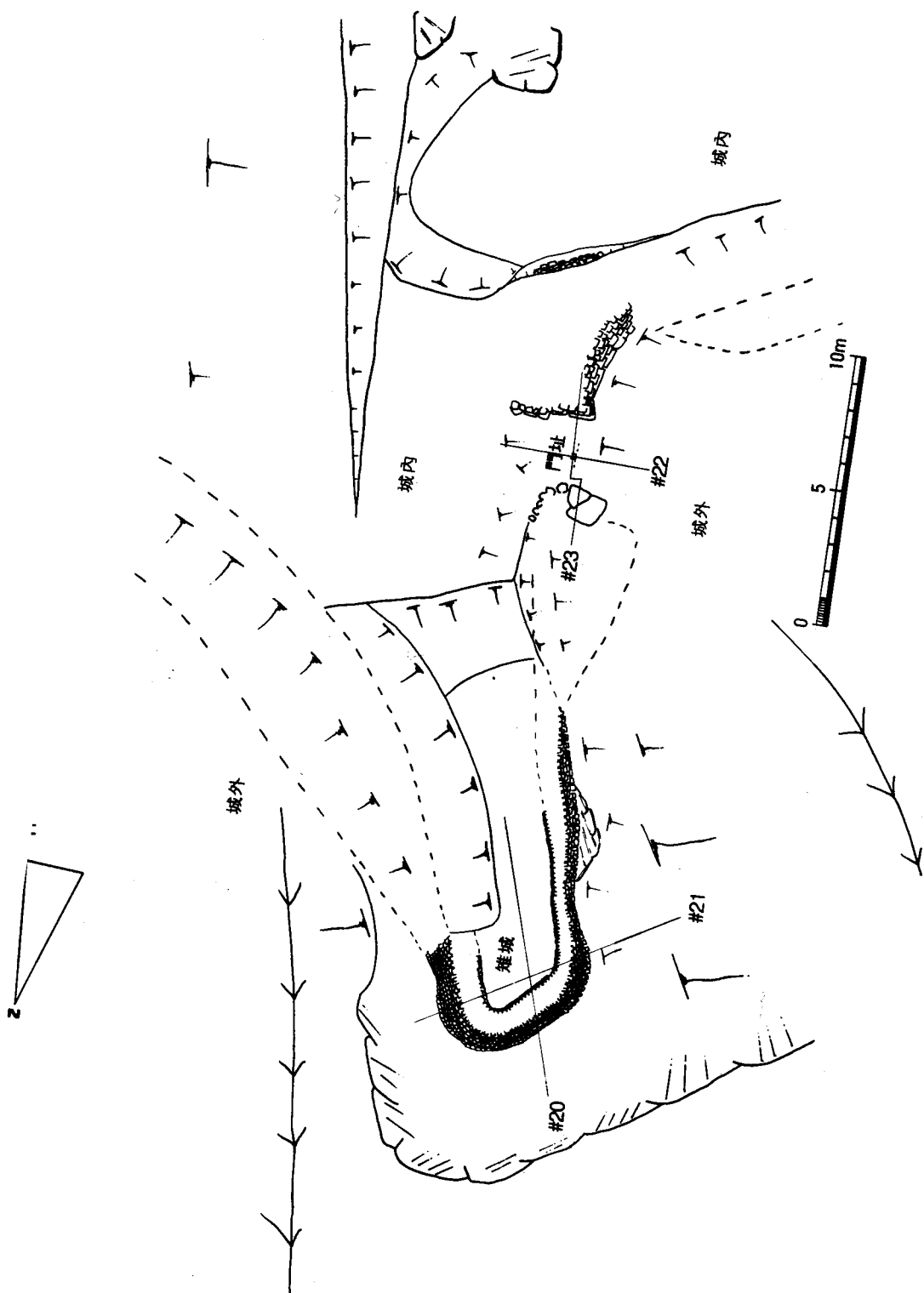
[단면 #27]



(도면 18) 영월산성 단면도 (# 26 · #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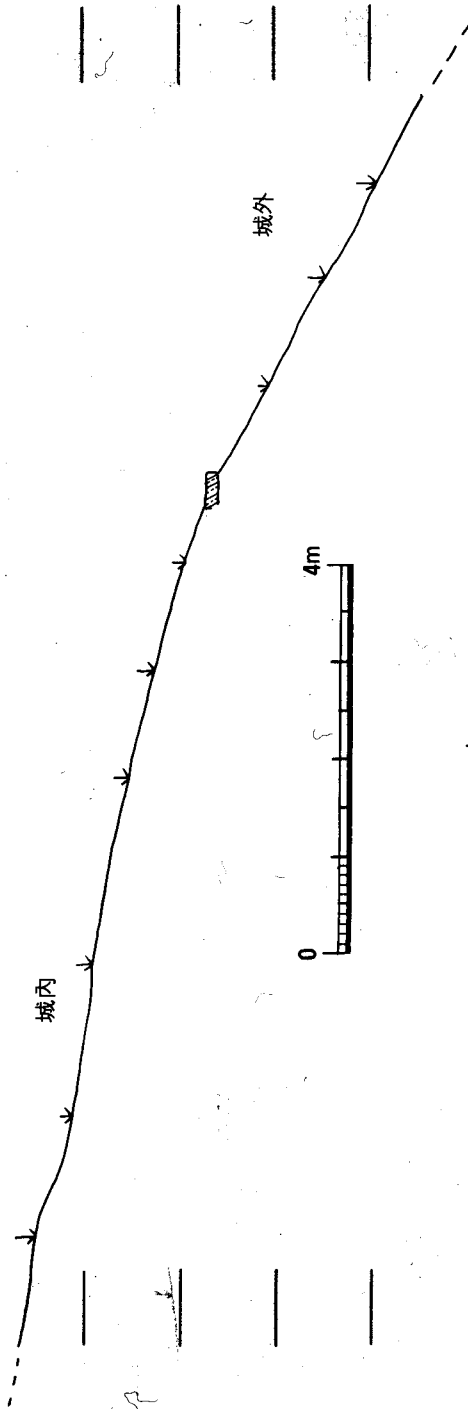
(도면 19) 영원산성 단면도 (#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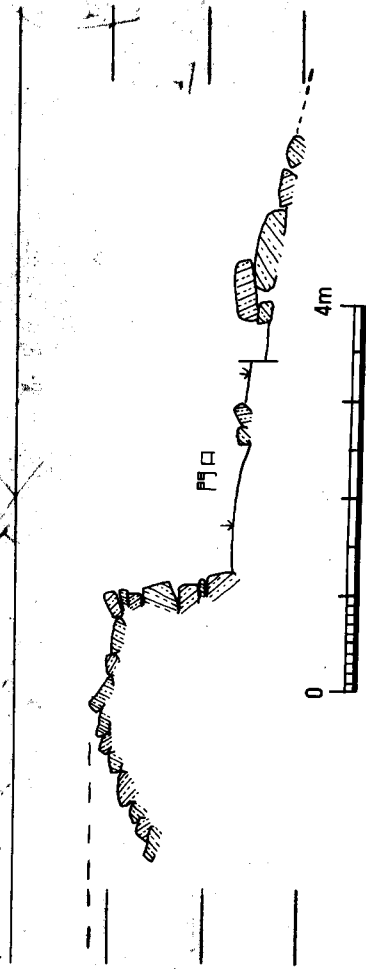
(도면 20) 영원산성 북벽 雉城 및 北門址 평면도

(단면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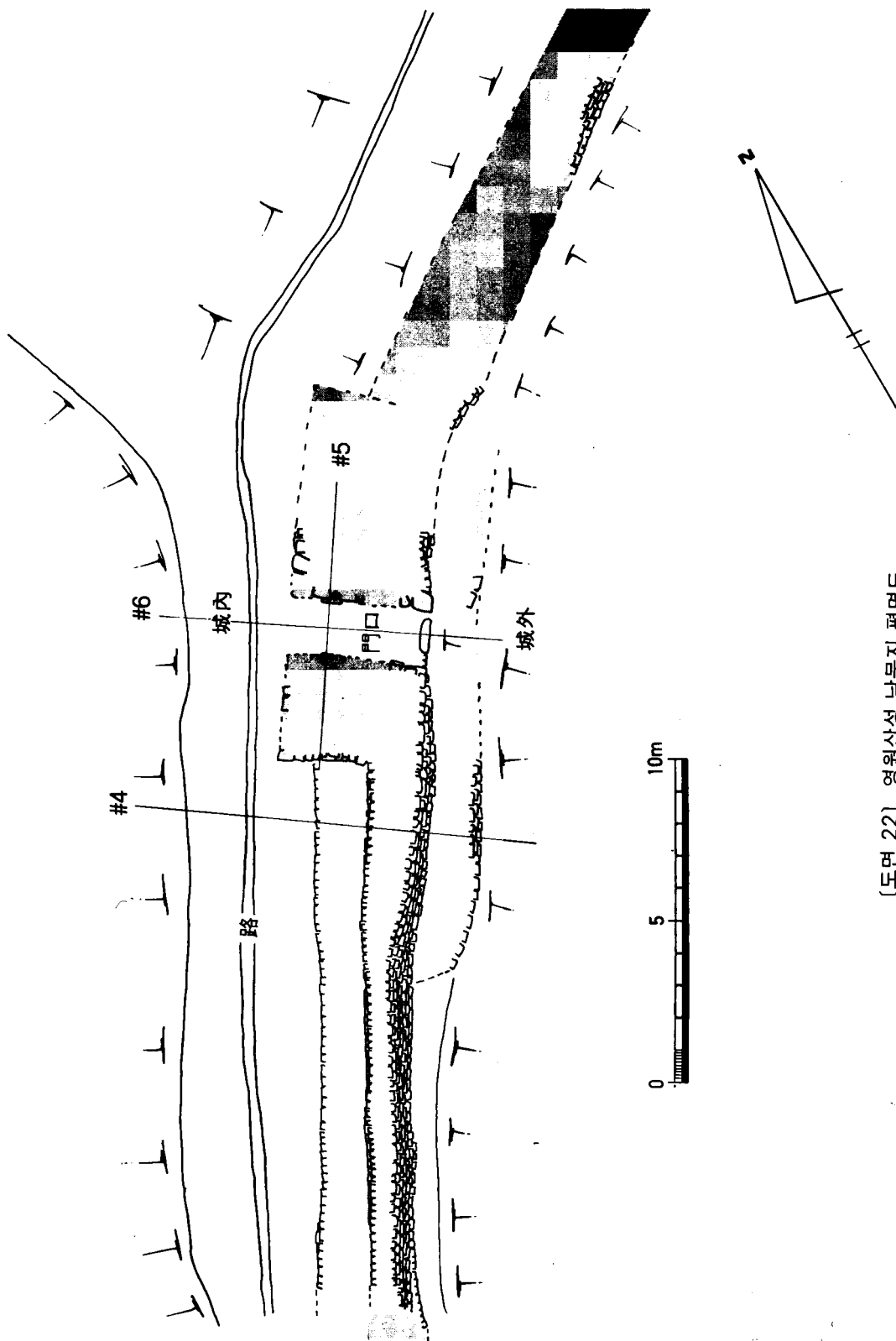
(조면 S0) 영원산성 복원 계획도



(단면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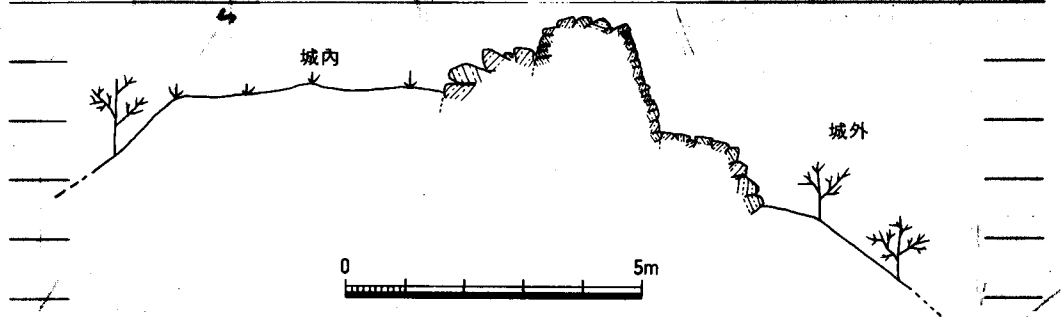


(도면 21) 영원산성 복원지 단면도 (# 22 ·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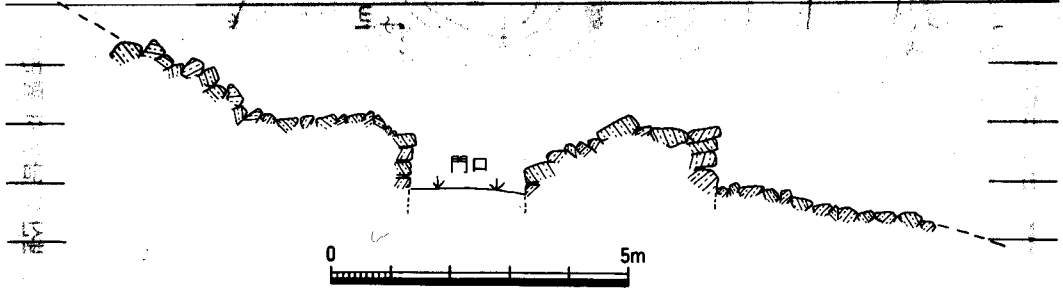


[도면 22] 영원산성 남문지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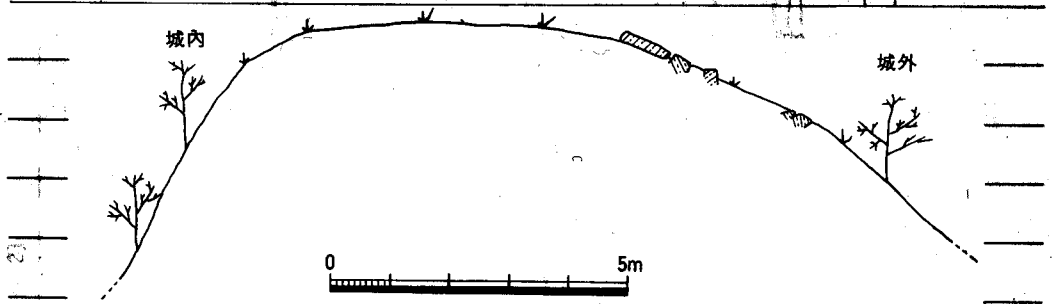
(단면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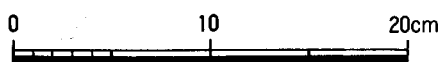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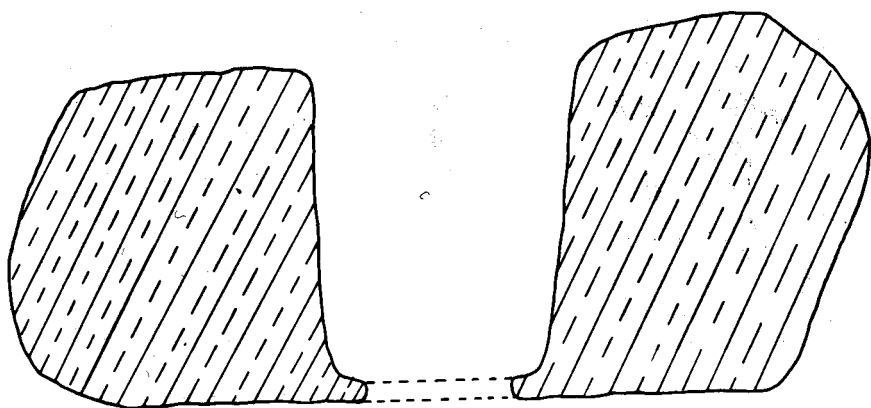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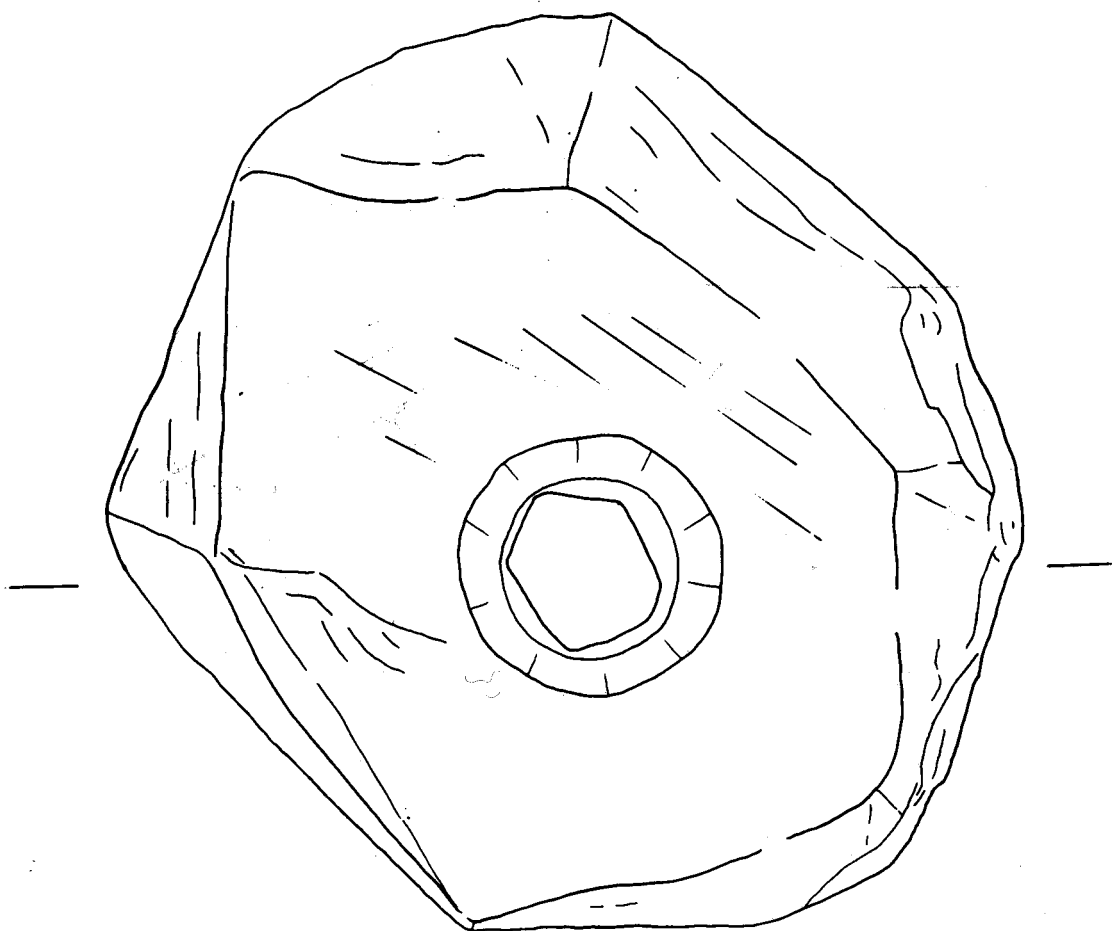
(단면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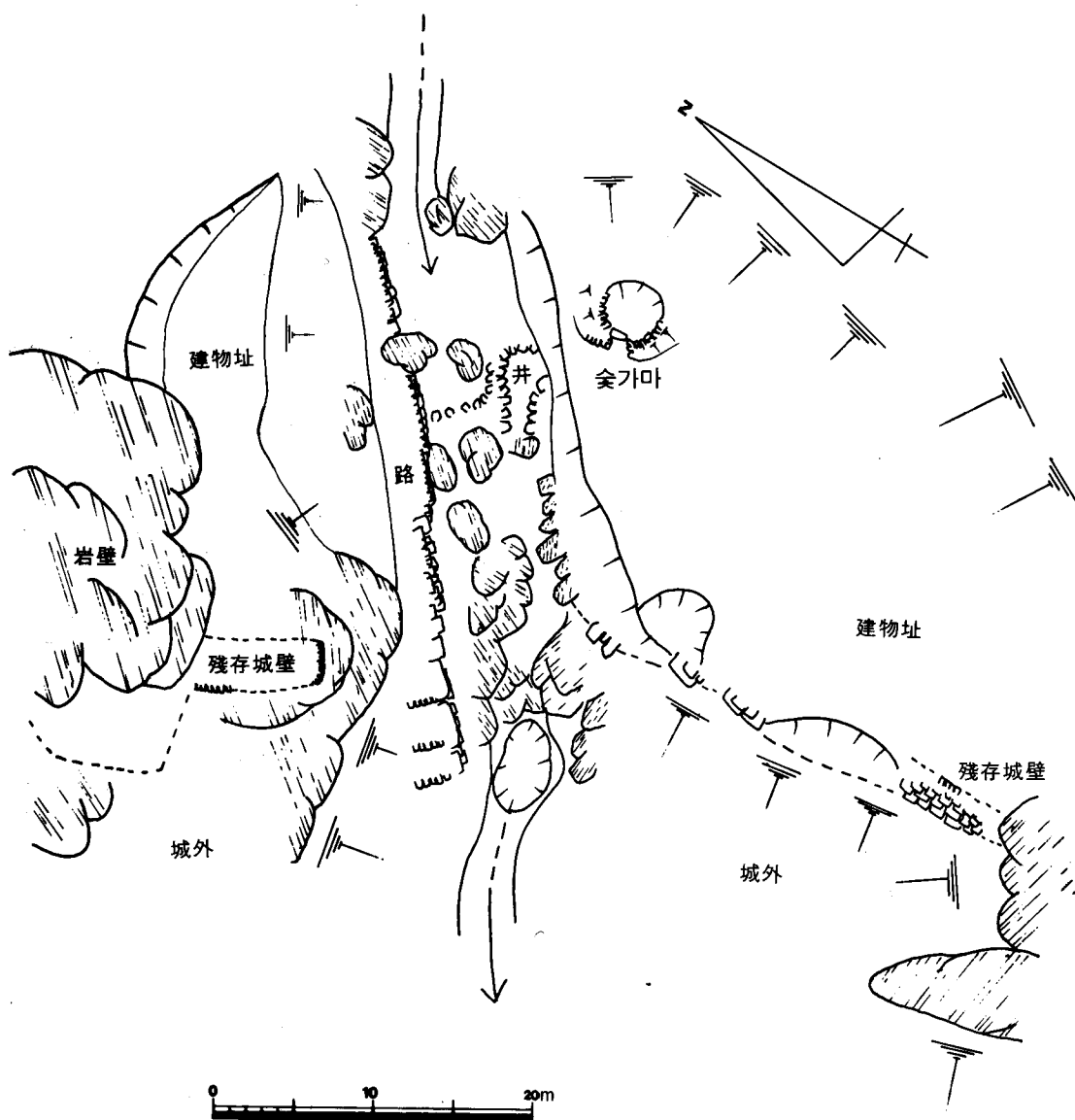
(단면 #6)



[도면 23] 영원산성 남문지 단면도(# 4 · # 5 · #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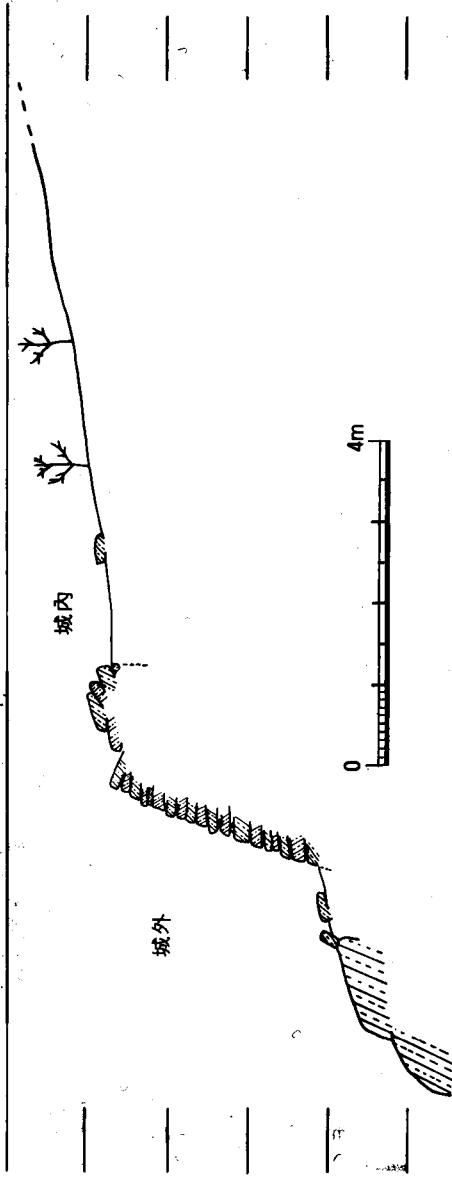


[도면 24] 영원산성 남문지 돌쩌귀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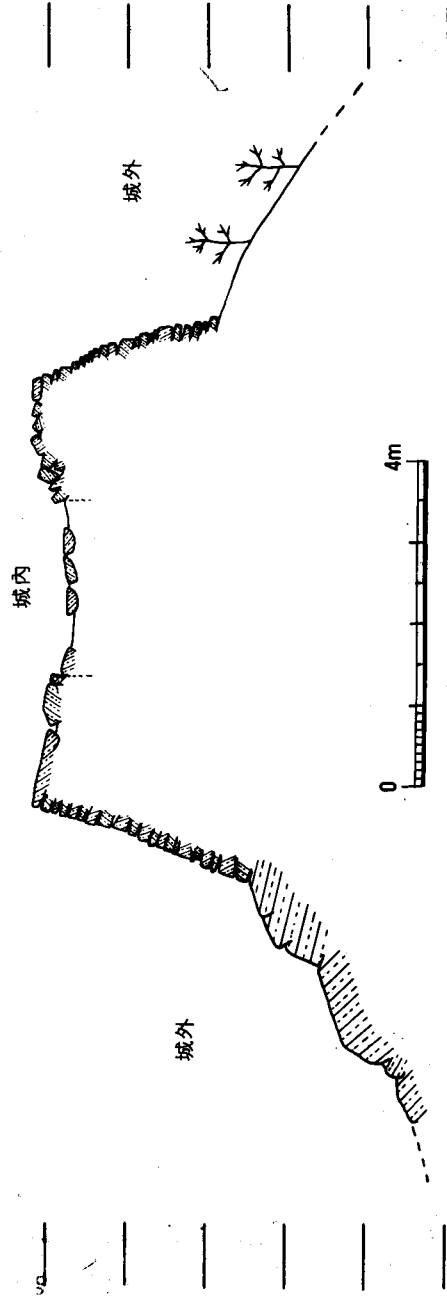


(도면 25) 영원산성 남벽 水口址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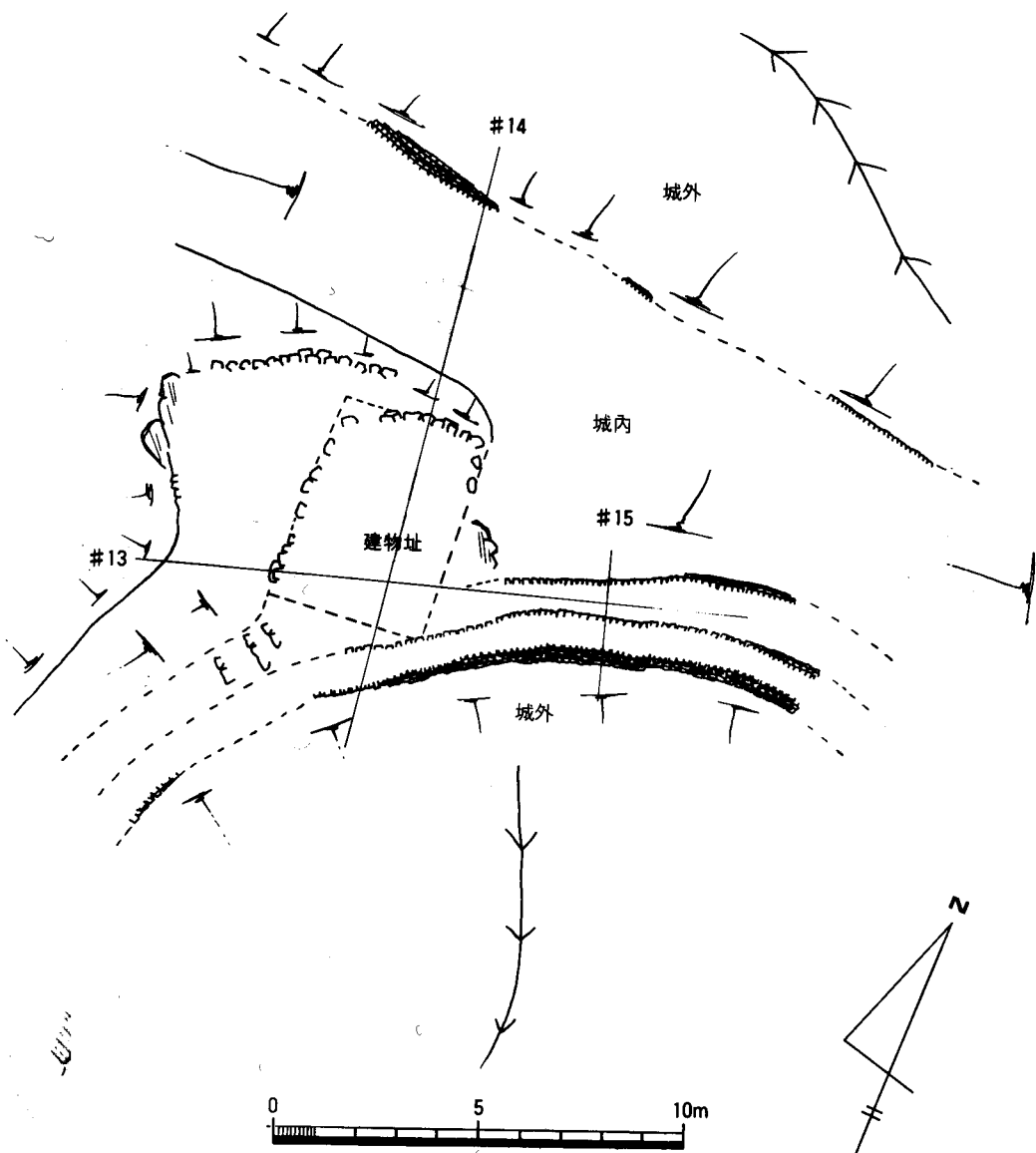
[단면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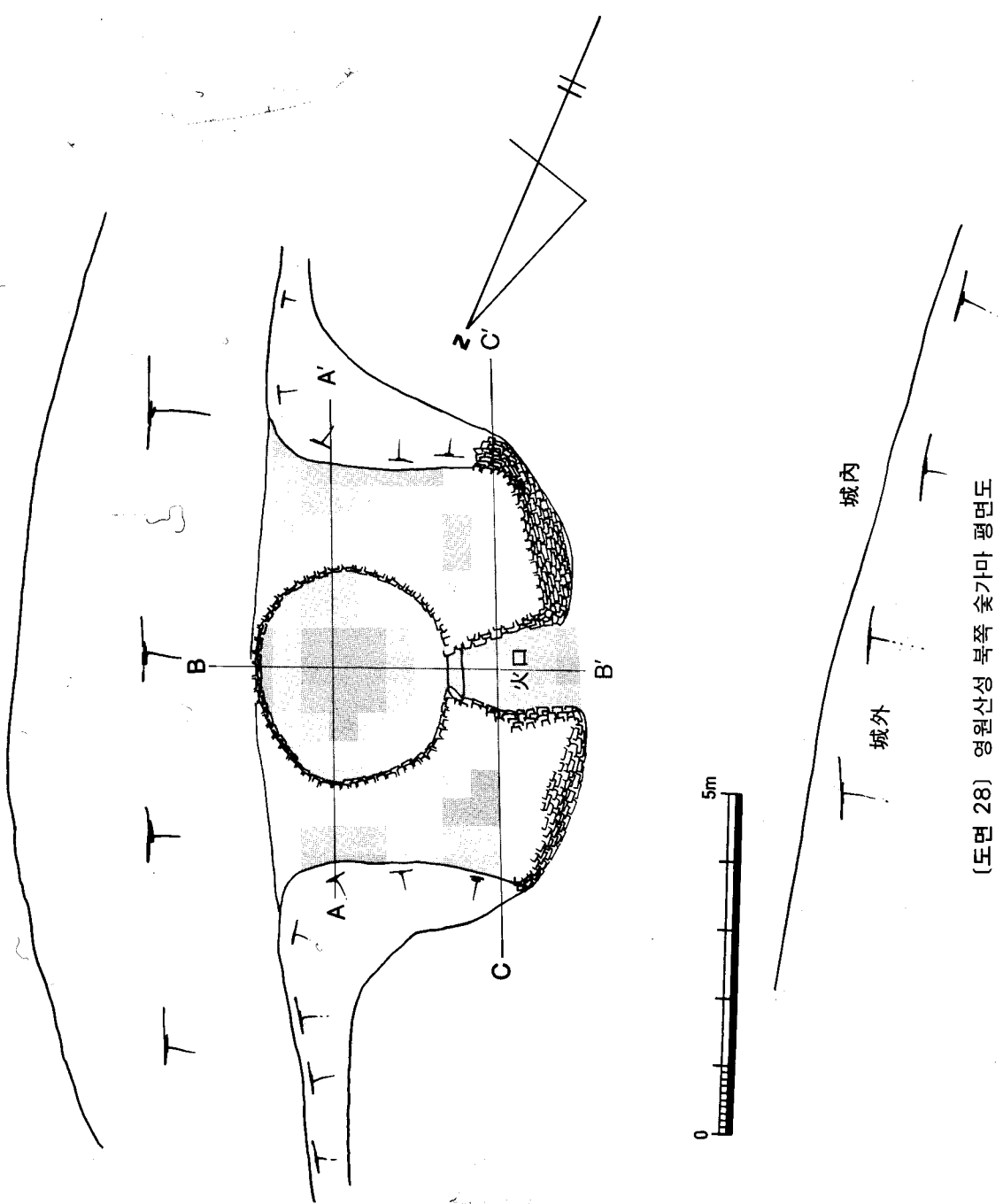
[단면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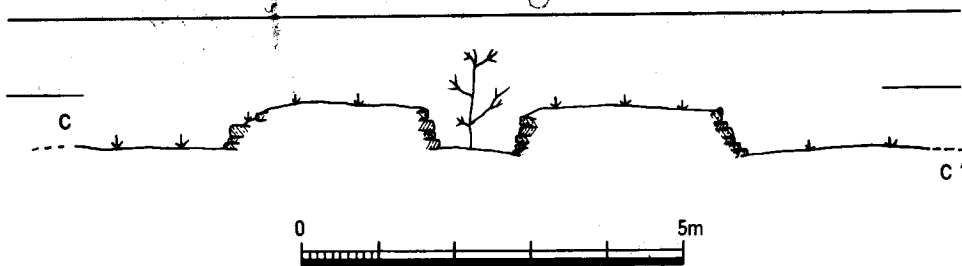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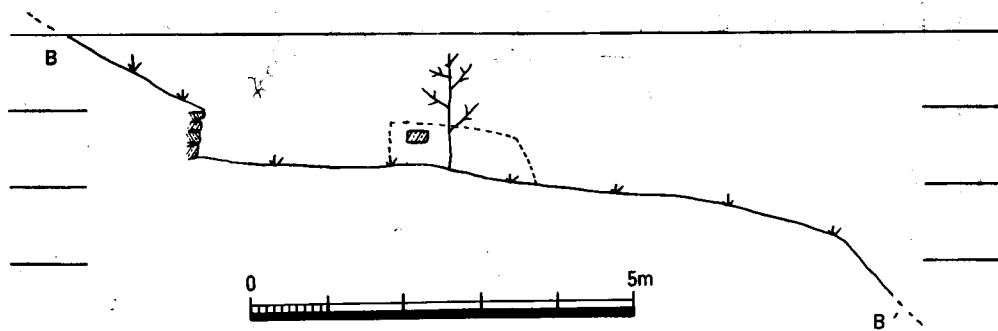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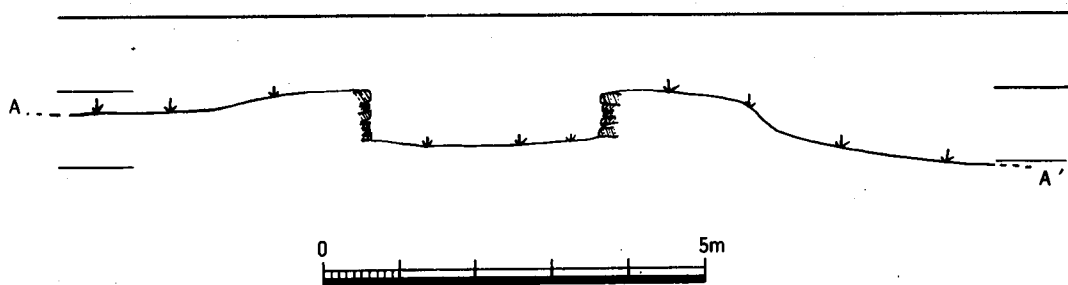
[도면 26] 영원산성 북벽 雉城 부분 단면도 (# 20 · #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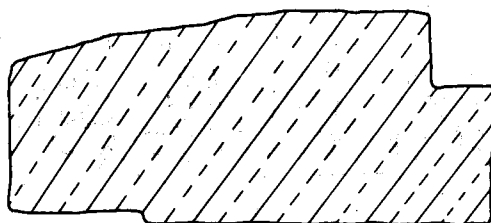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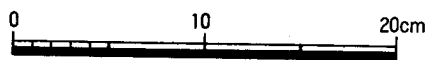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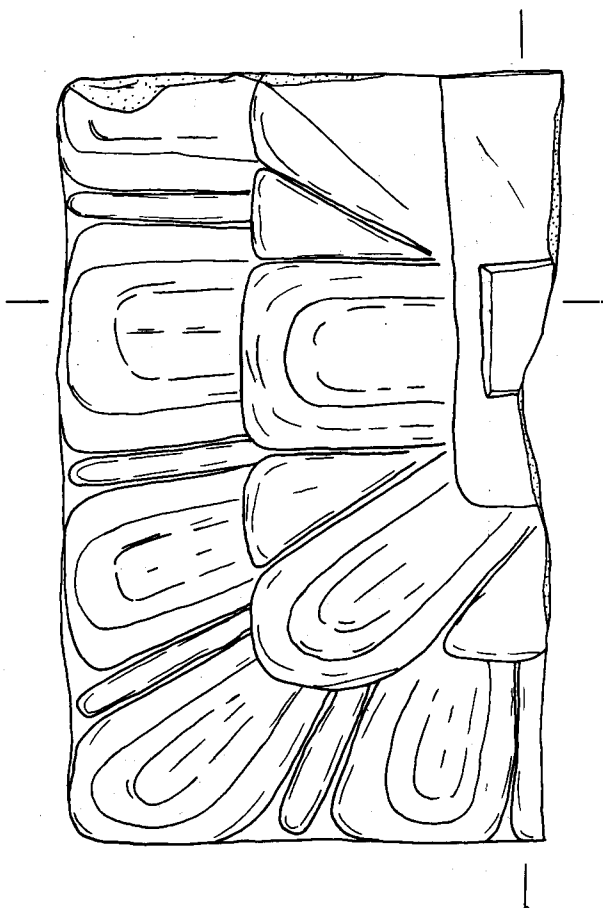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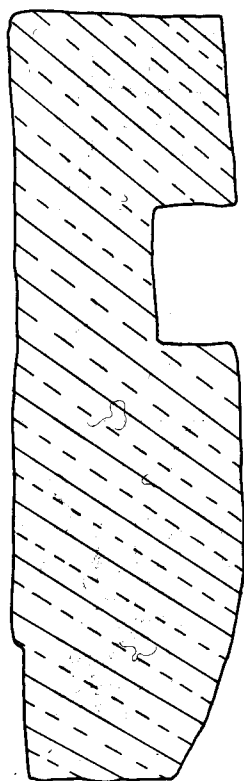
[도면 27] 영원산성 북벽 건물지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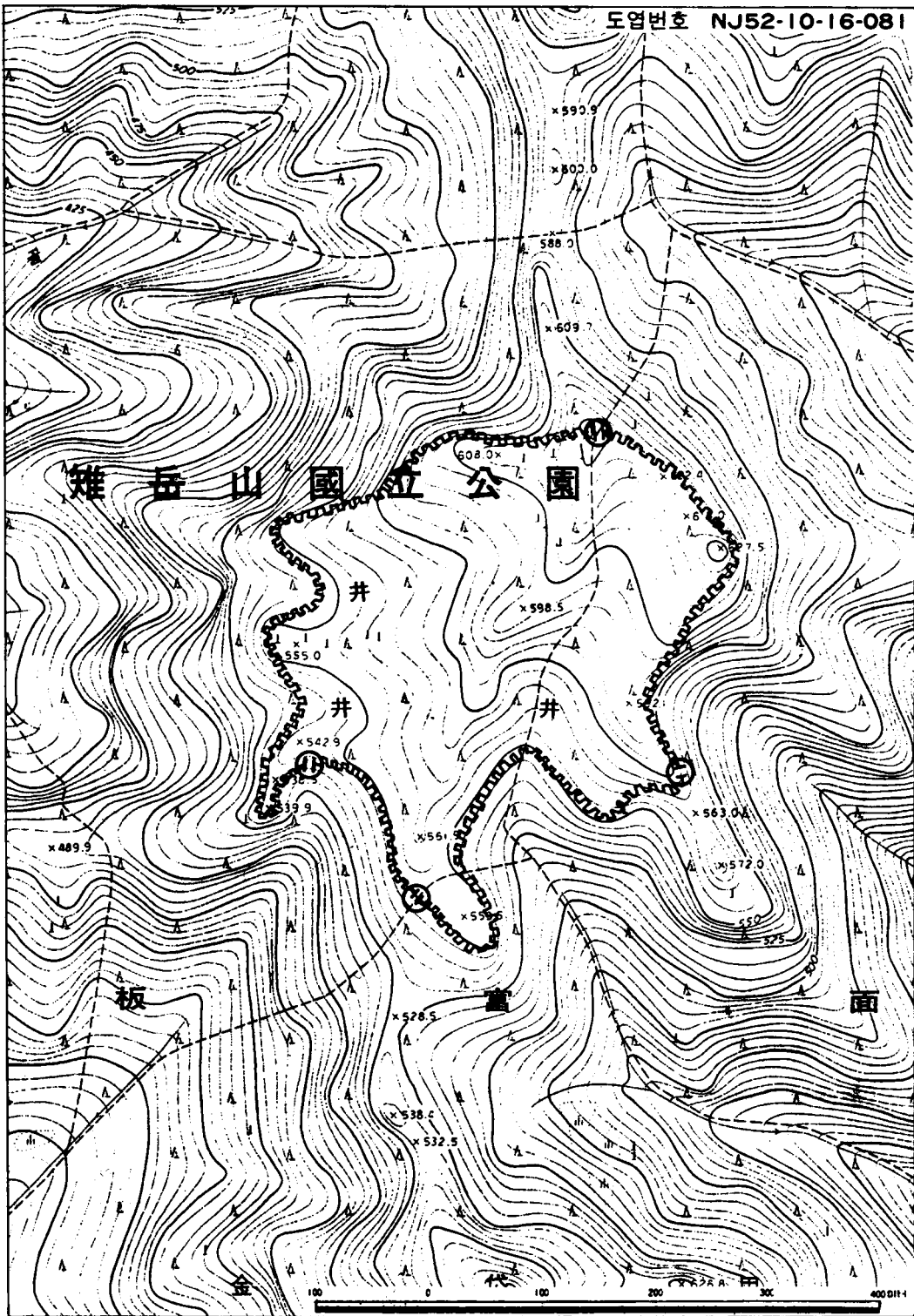
(도면 28) 영원산성 북쪽 숯가마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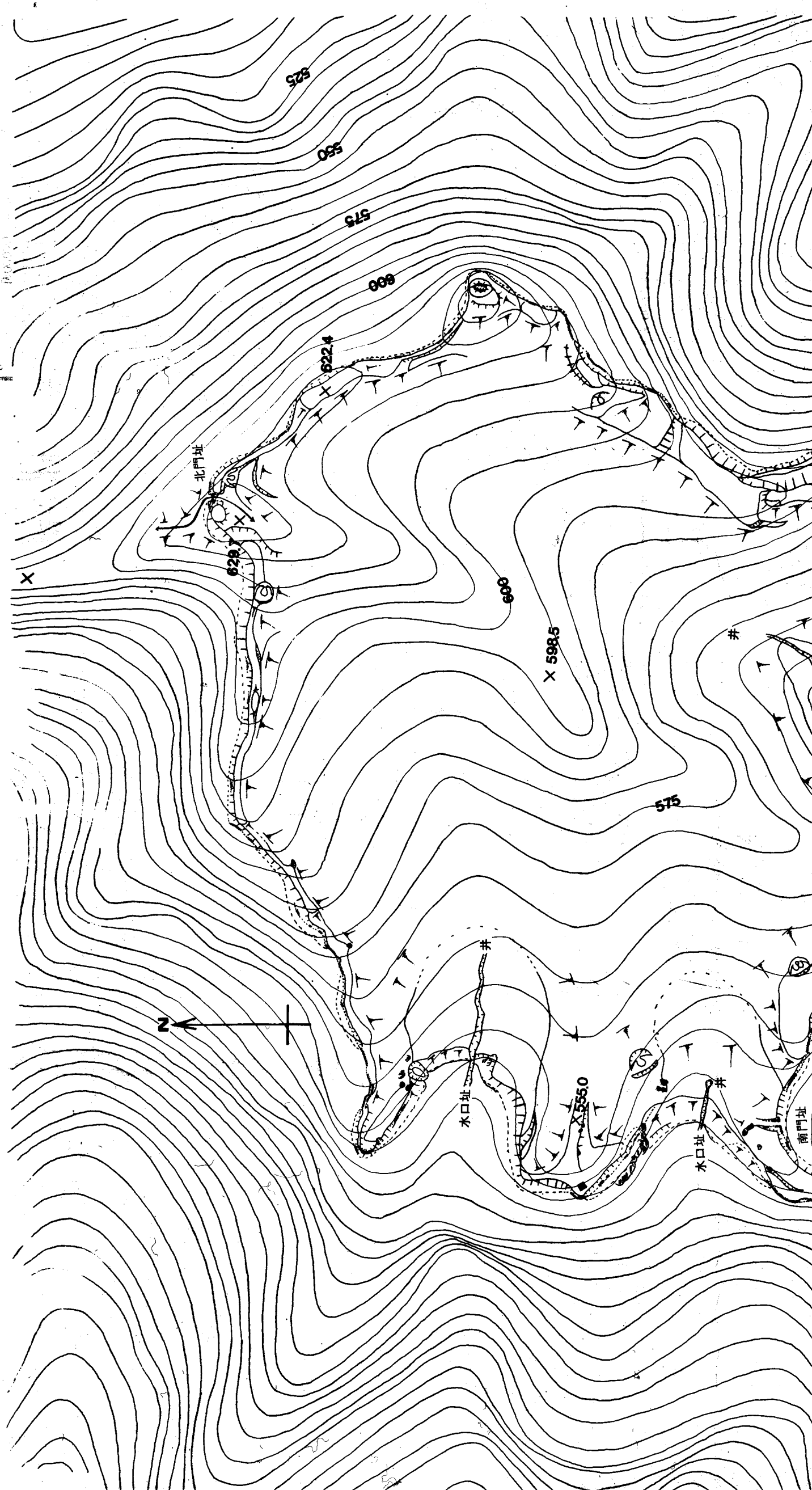
[도면 29] 영원산성 북쪽 숲가마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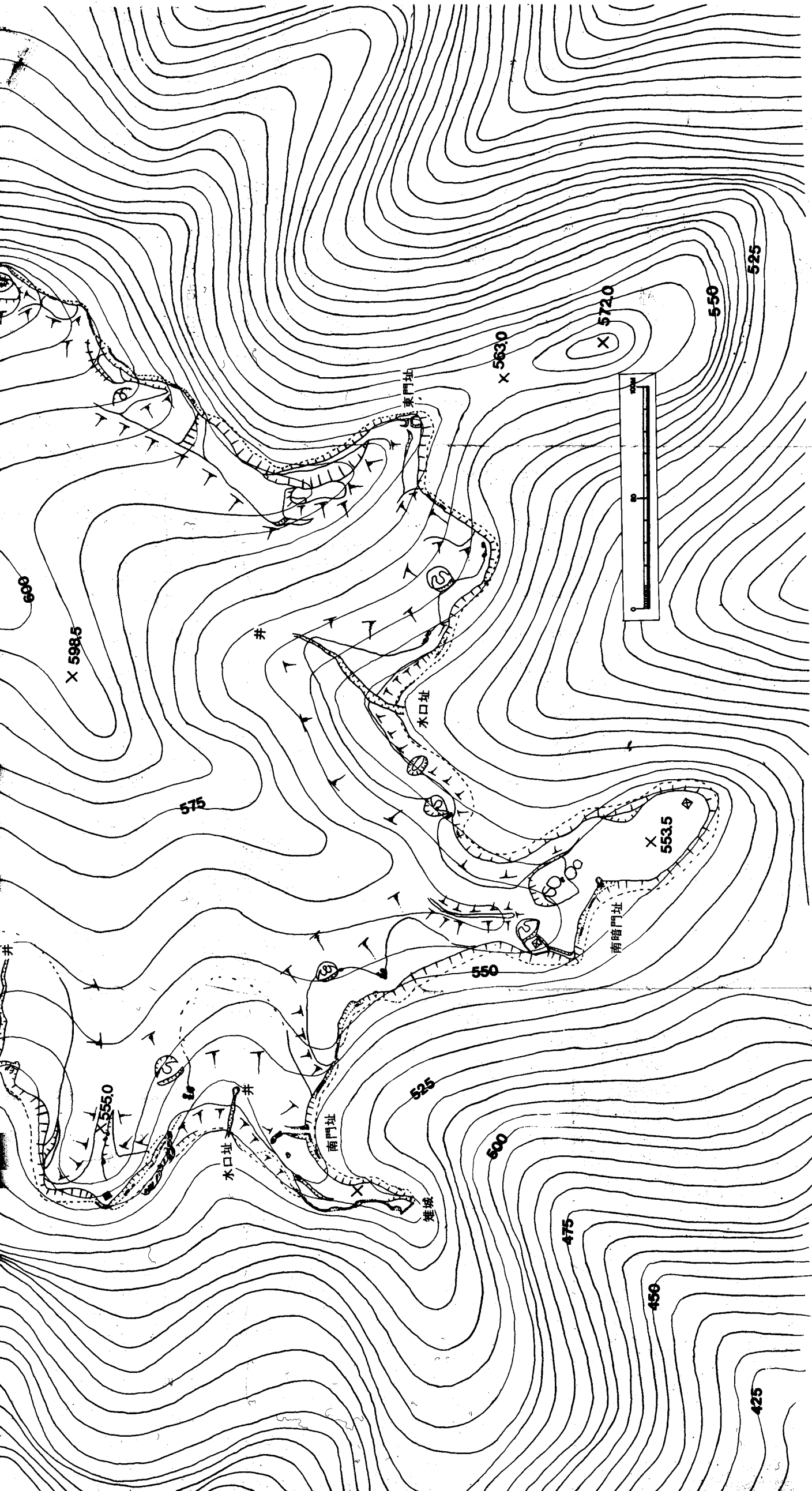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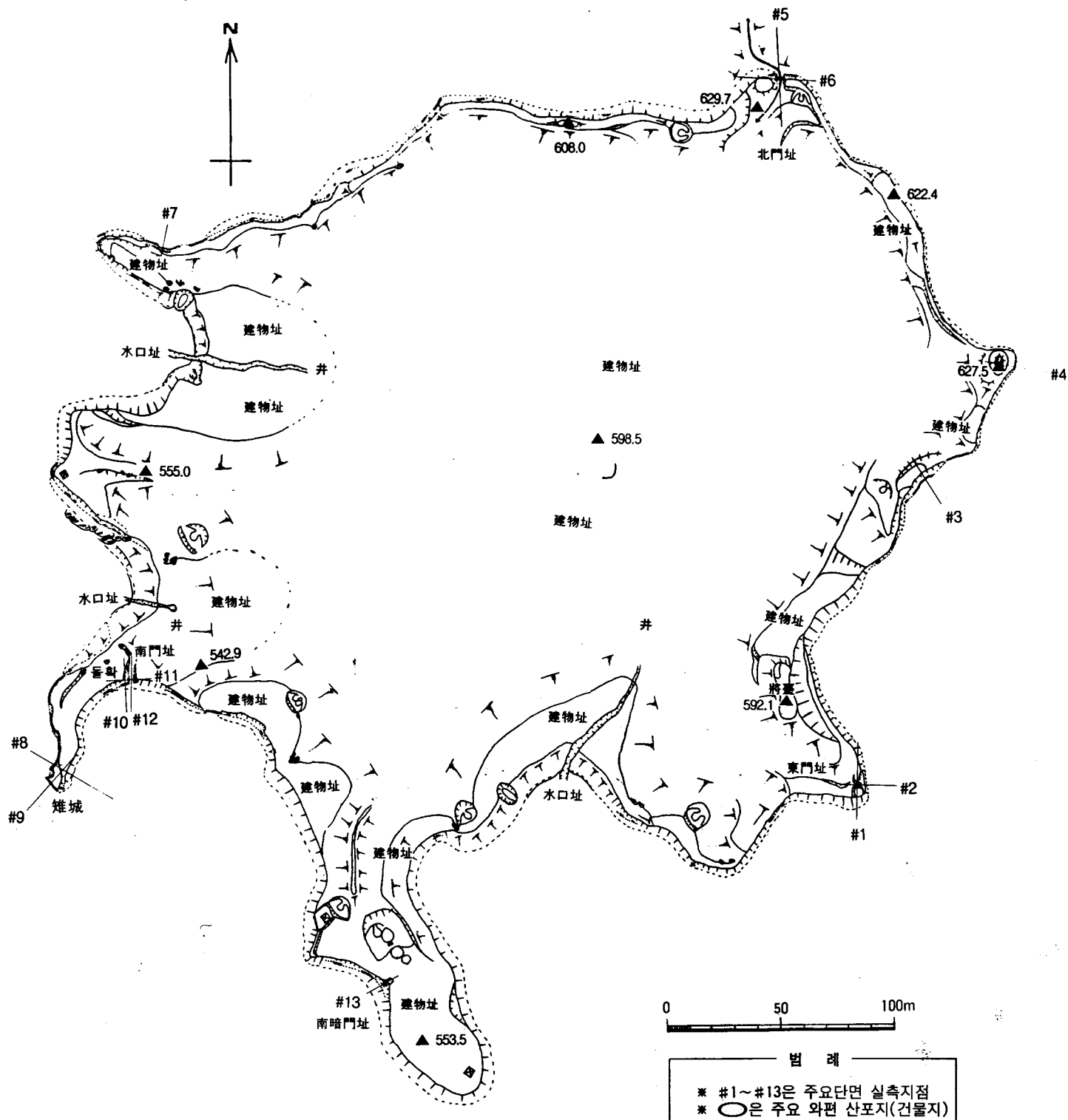
(도면 30) 영원사 내 연화문대좌편 실측도



(도면 31) 해미산성 주변 지형도(1/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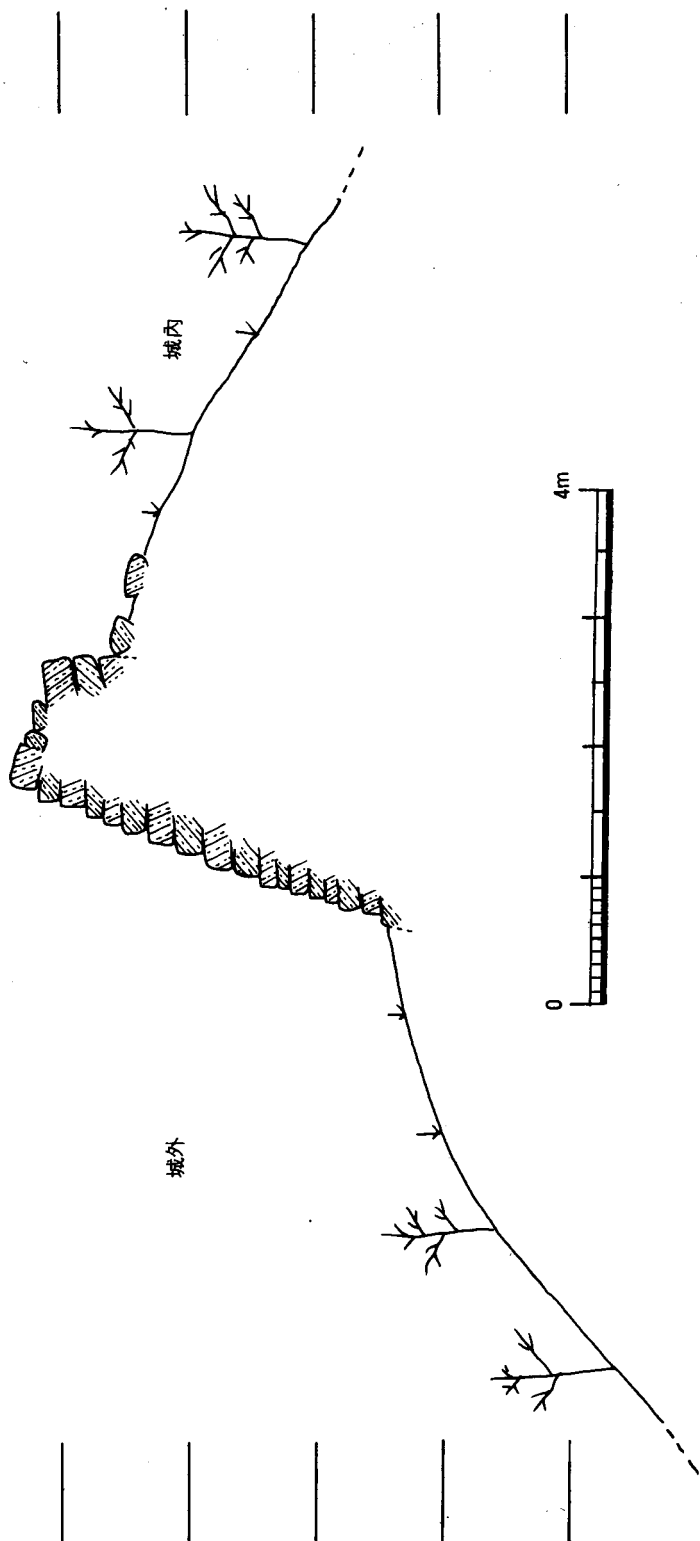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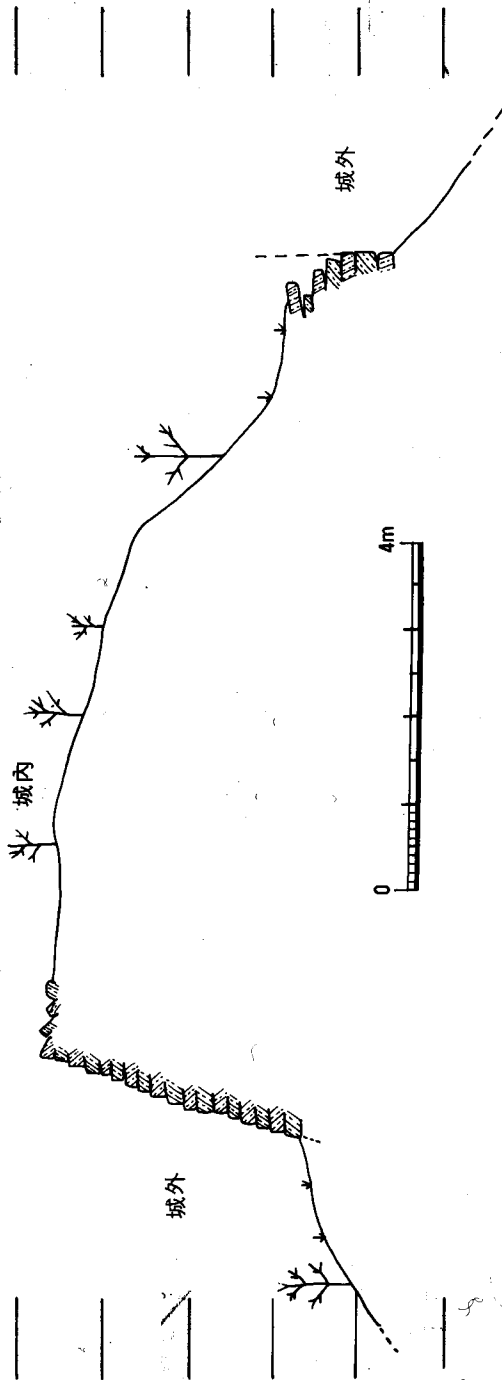
(도면 33) 해미산성 현황 및 단면 실측지점 표시도

(단면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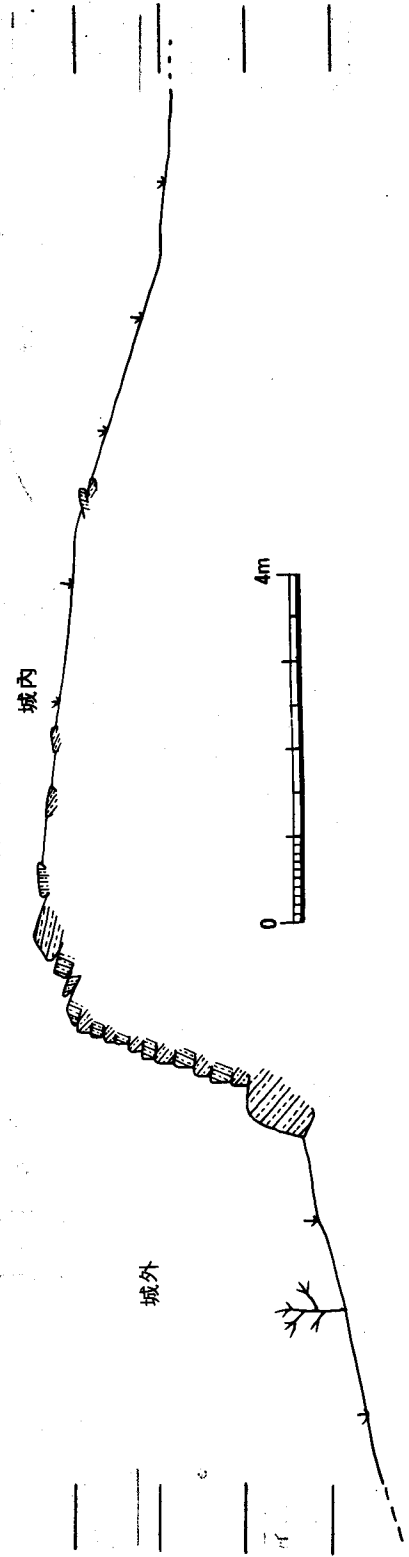


[도면 34] 해미산성 북벽 단면도(#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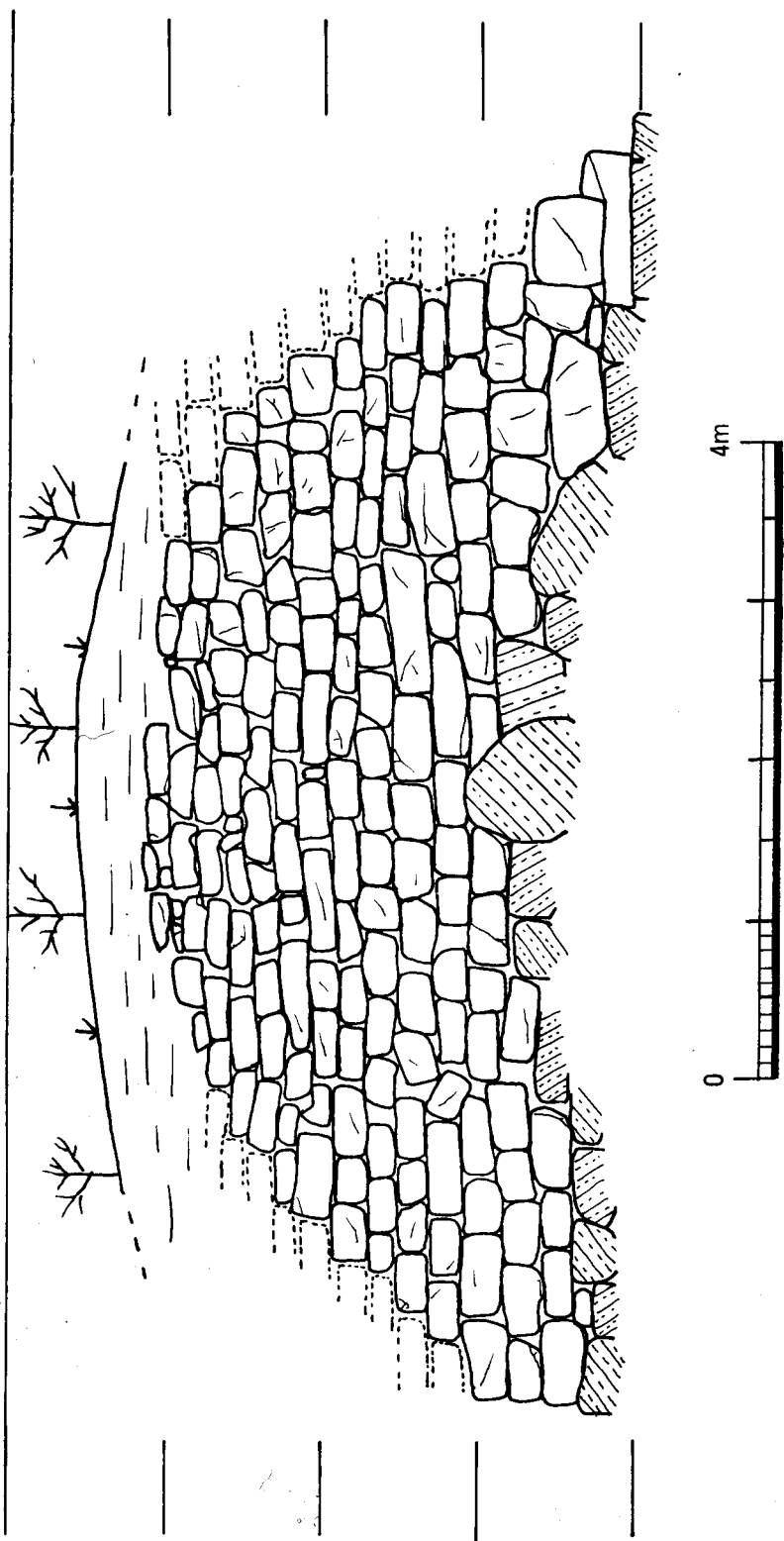
(단면 #8)



(단면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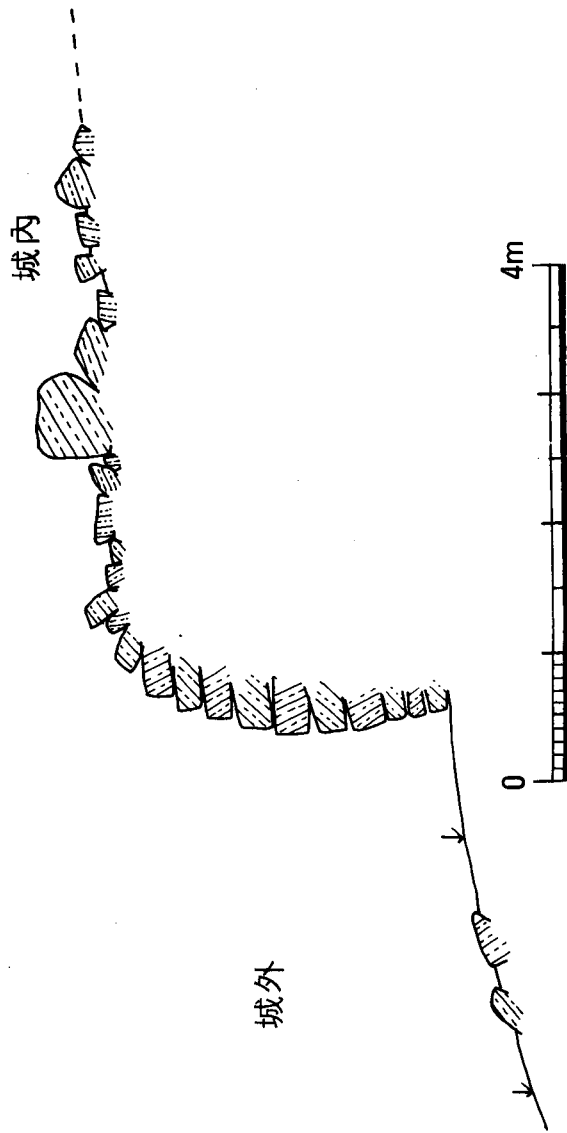


(도면 35) 해미산성 남북 雉城 부분 단면도 (# 8, #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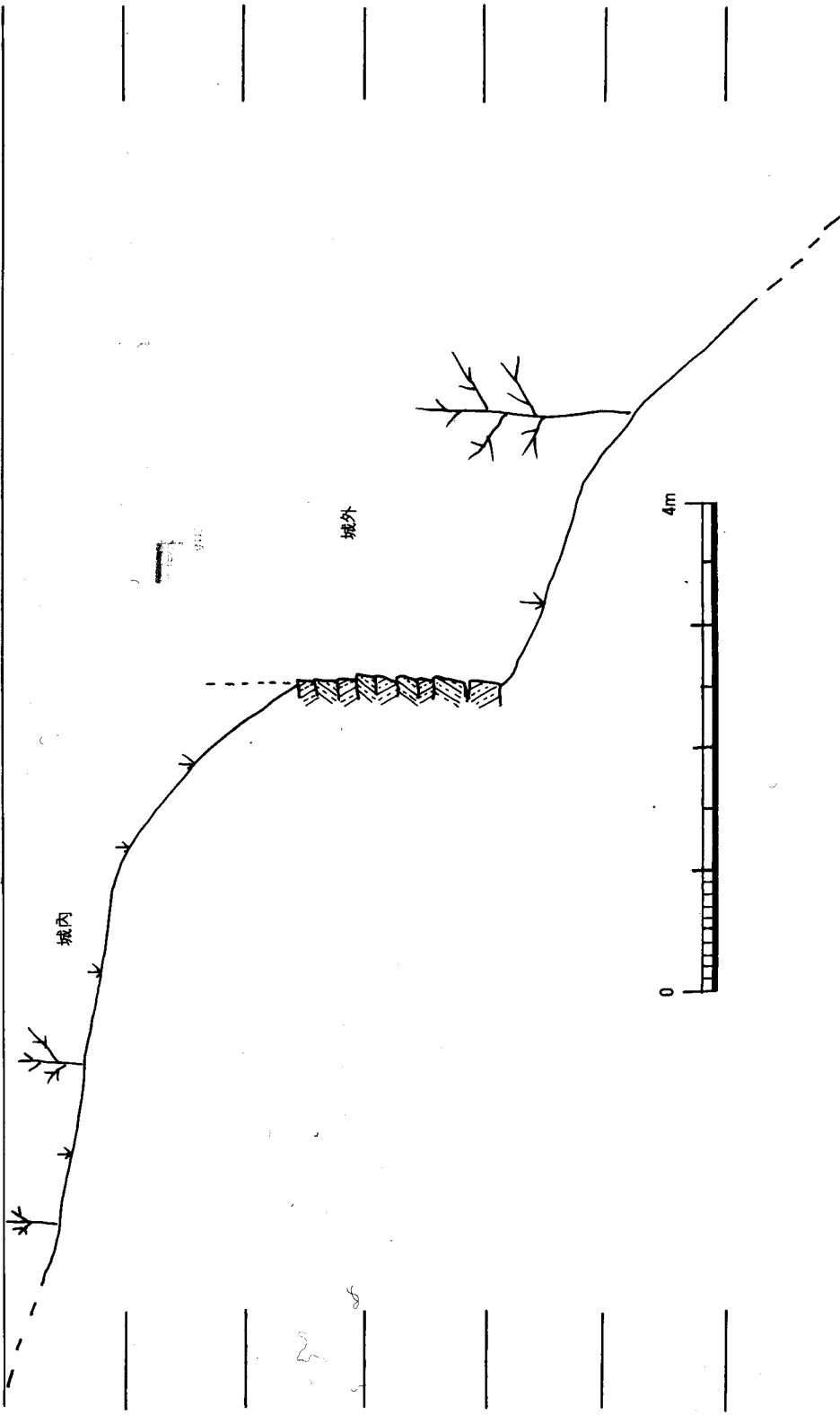
(도면 36) 헤미산성 남평 雄城 古 邑 圖

(단면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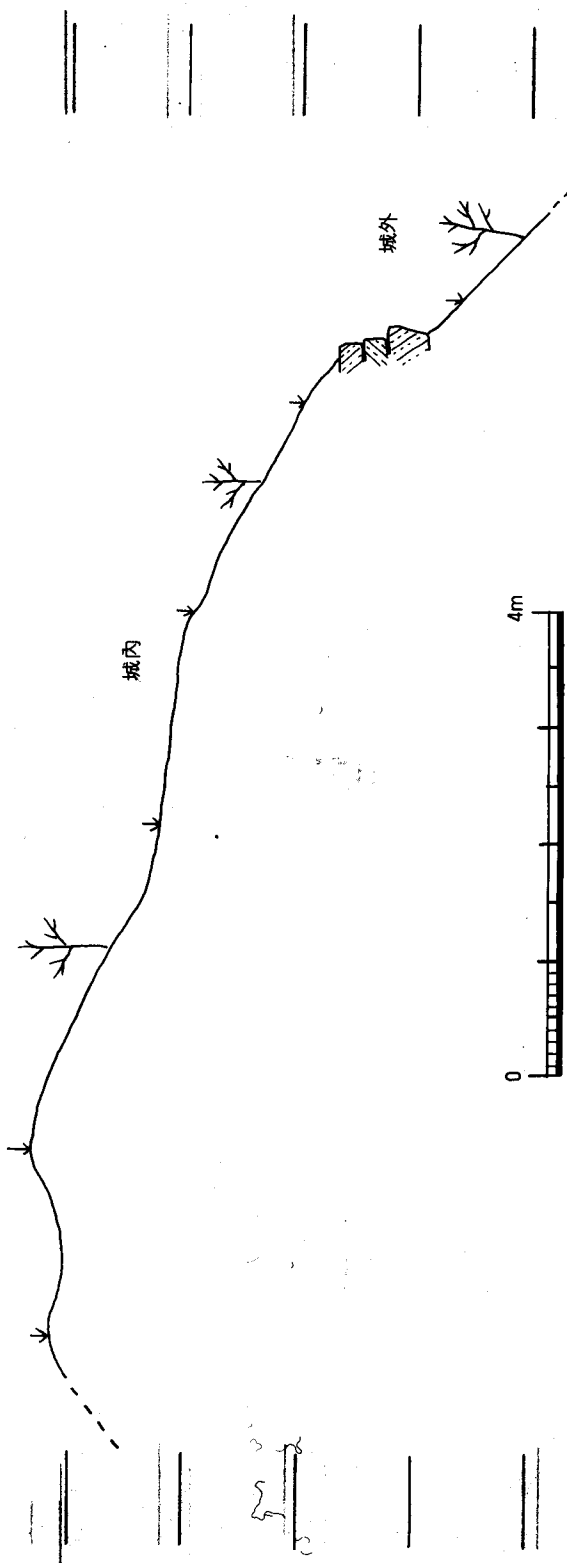
(도면 37) 해미산성 남벽 南門址 옆 단면도(# 10)

(단면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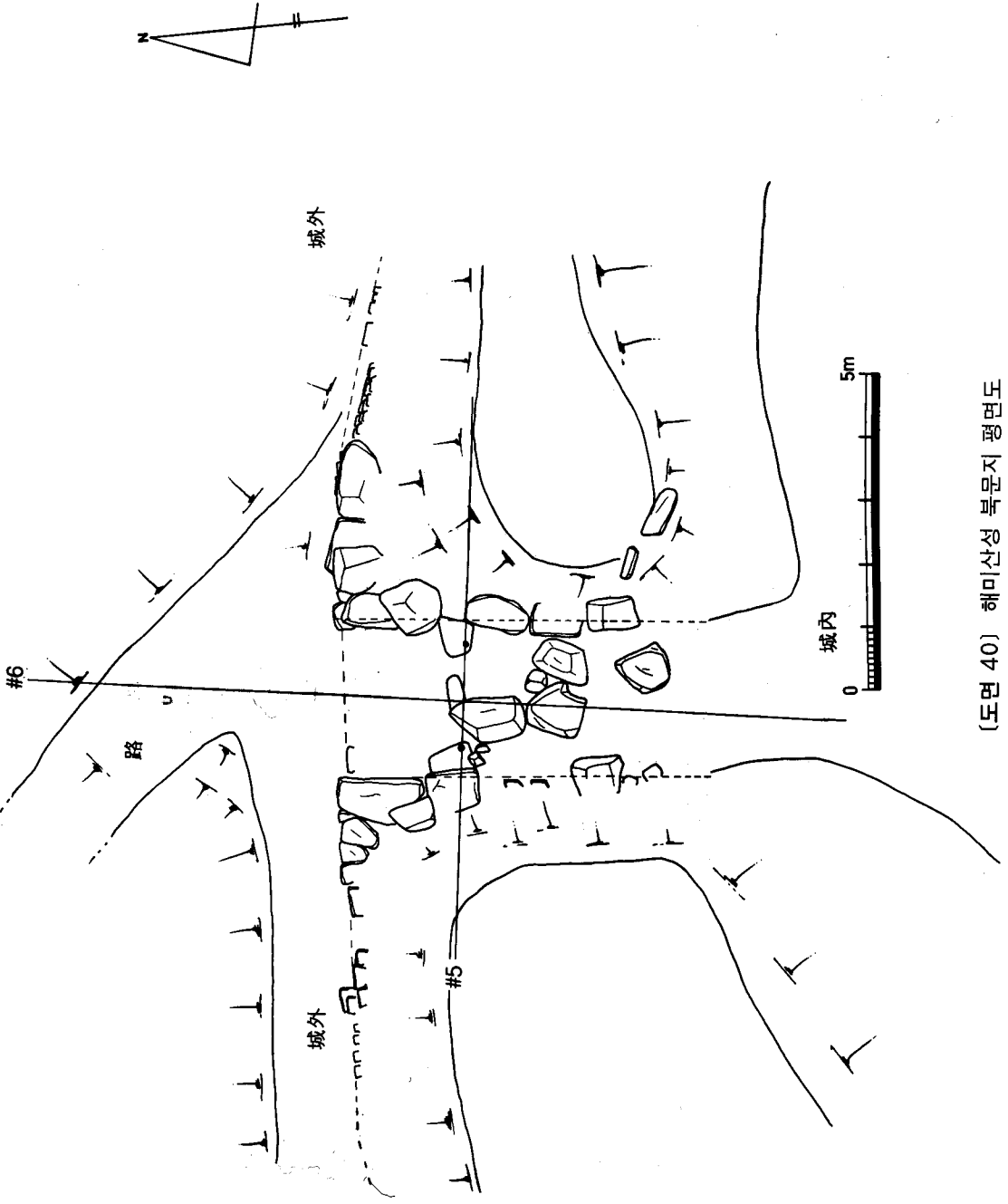


[도면 38] 해미산성 동벽 단면도 (#3)

[단면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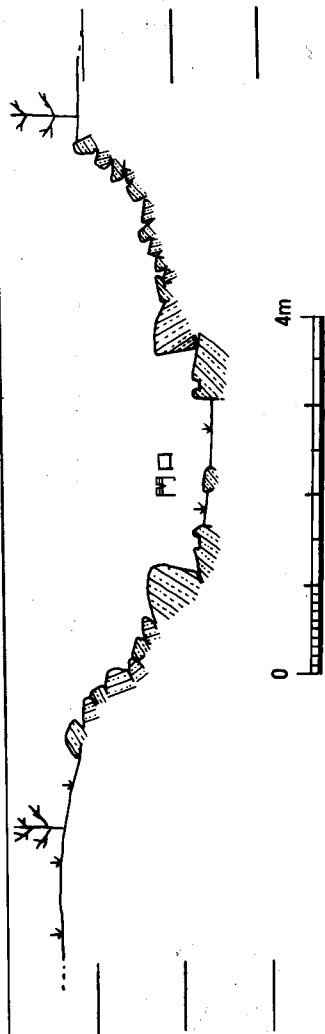


[도면 39] 해미산성 동벽 단면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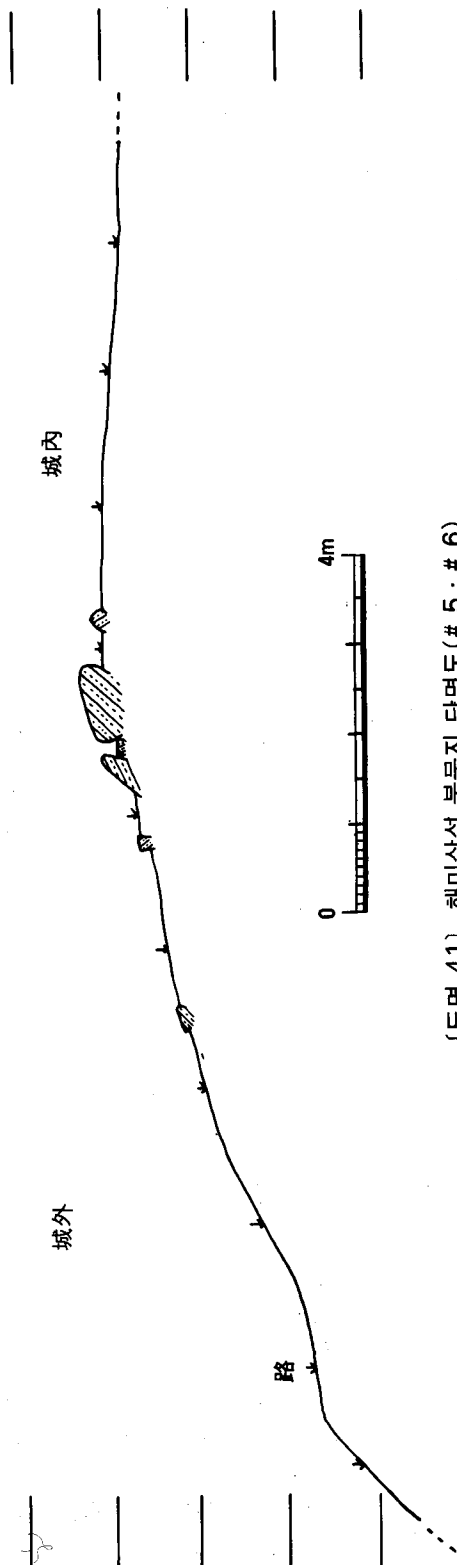


(도면 40) 해미산성 복문지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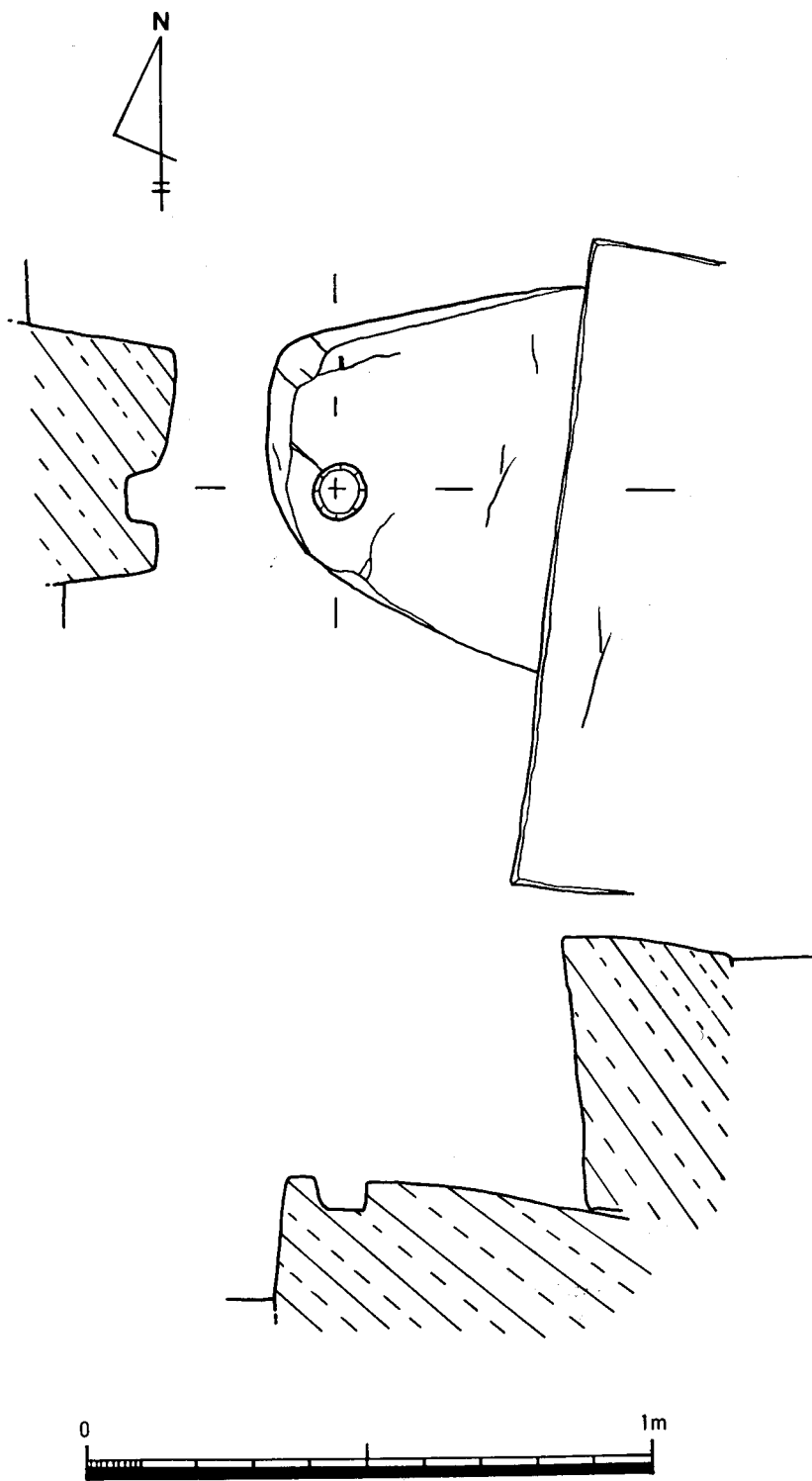
(단면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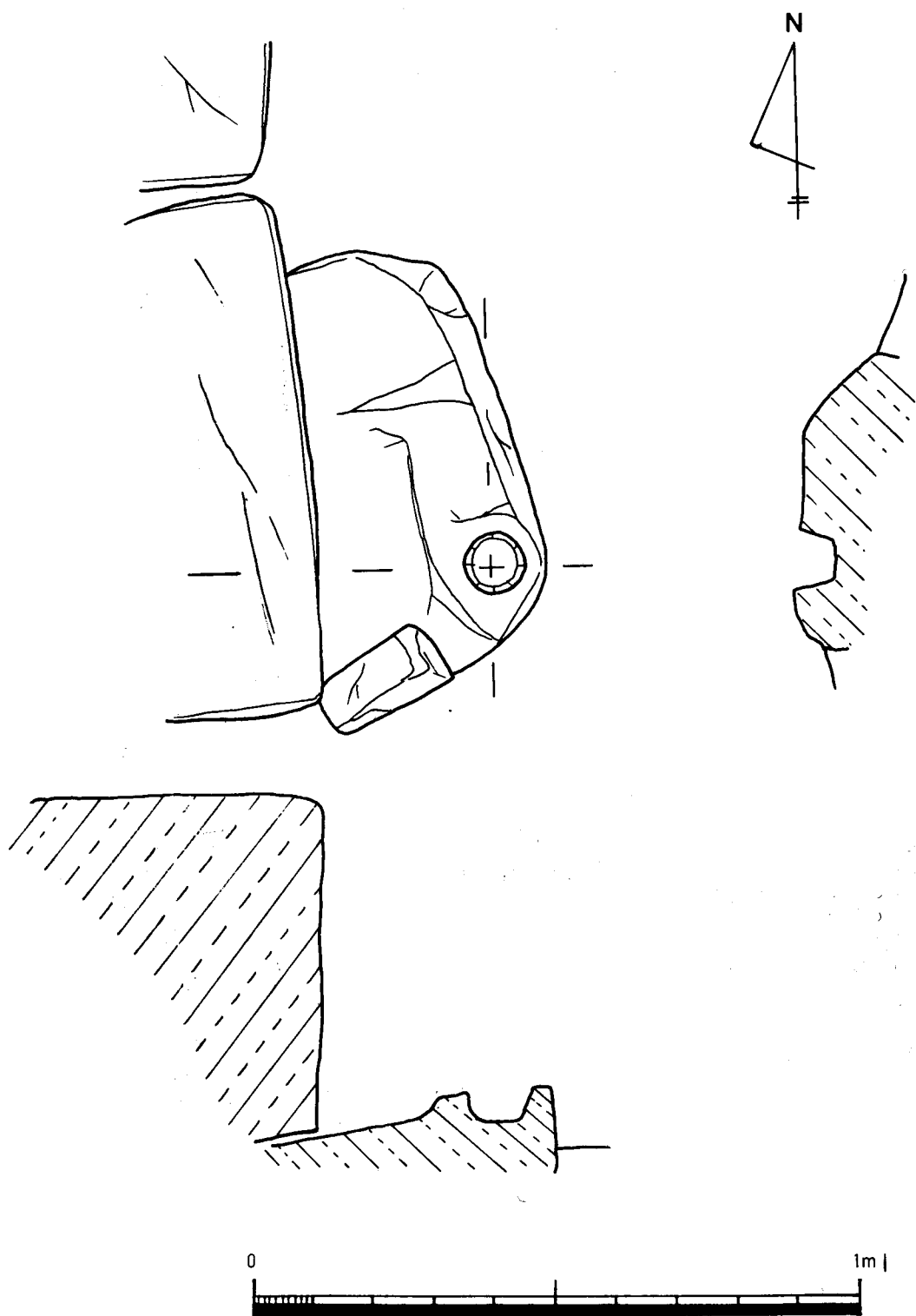
(단면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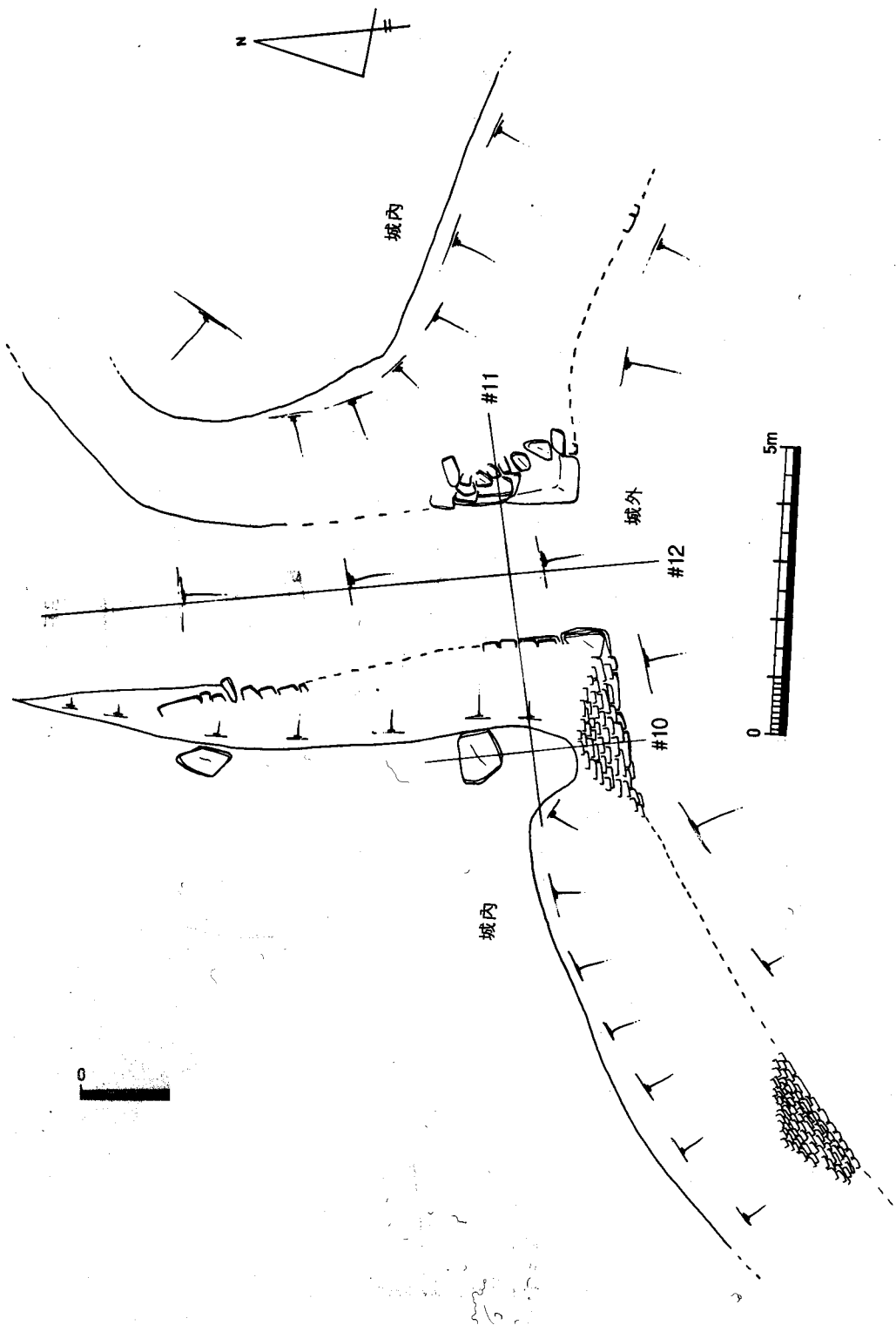
(도면 41) 해미산성 복원지 단면도(# 5 · # 6)



[도면 42] 해미산성 북문지 동쪽 돌쩌귀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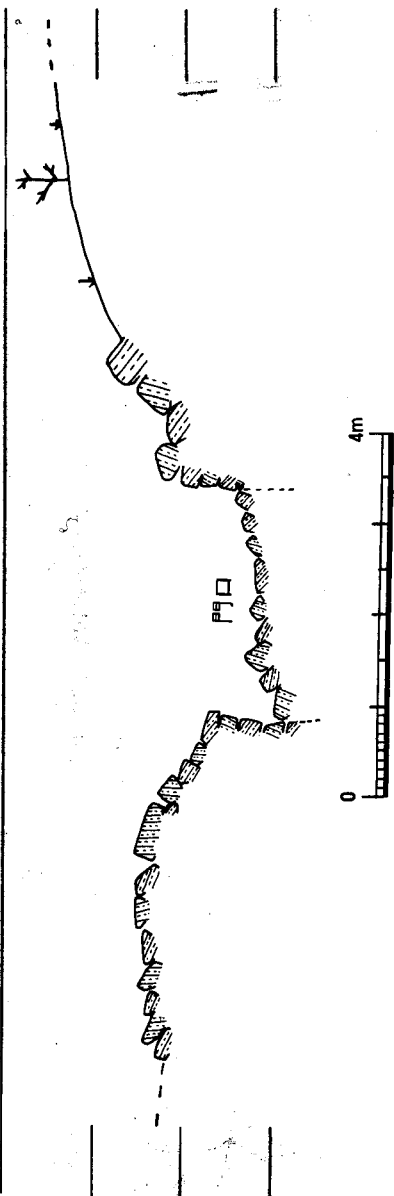


(도면 43) 해미산성 북문지 서쪽 돌쩌귀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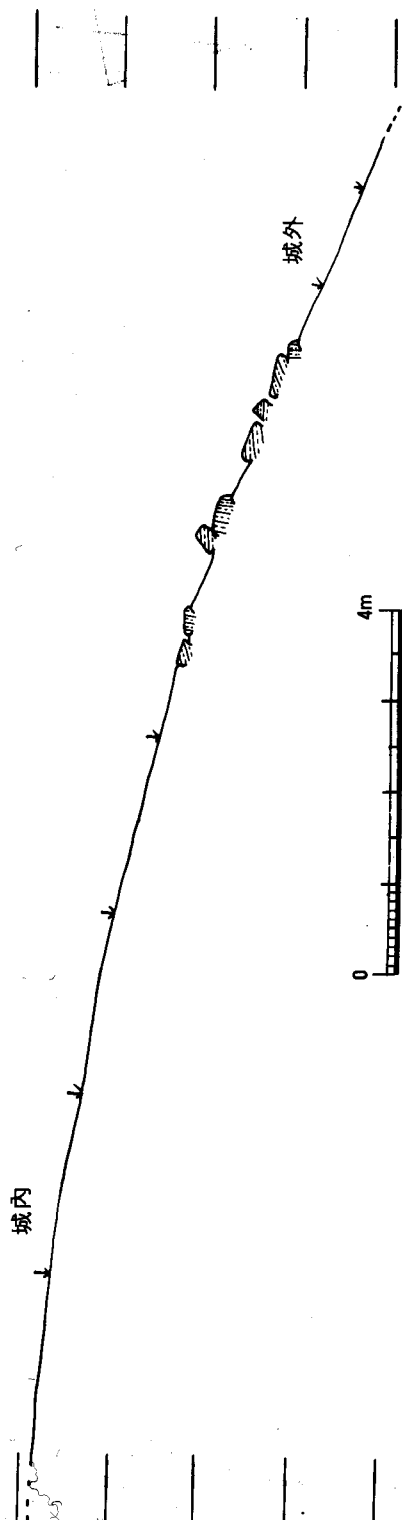


(도면 44) 해미산성 남문지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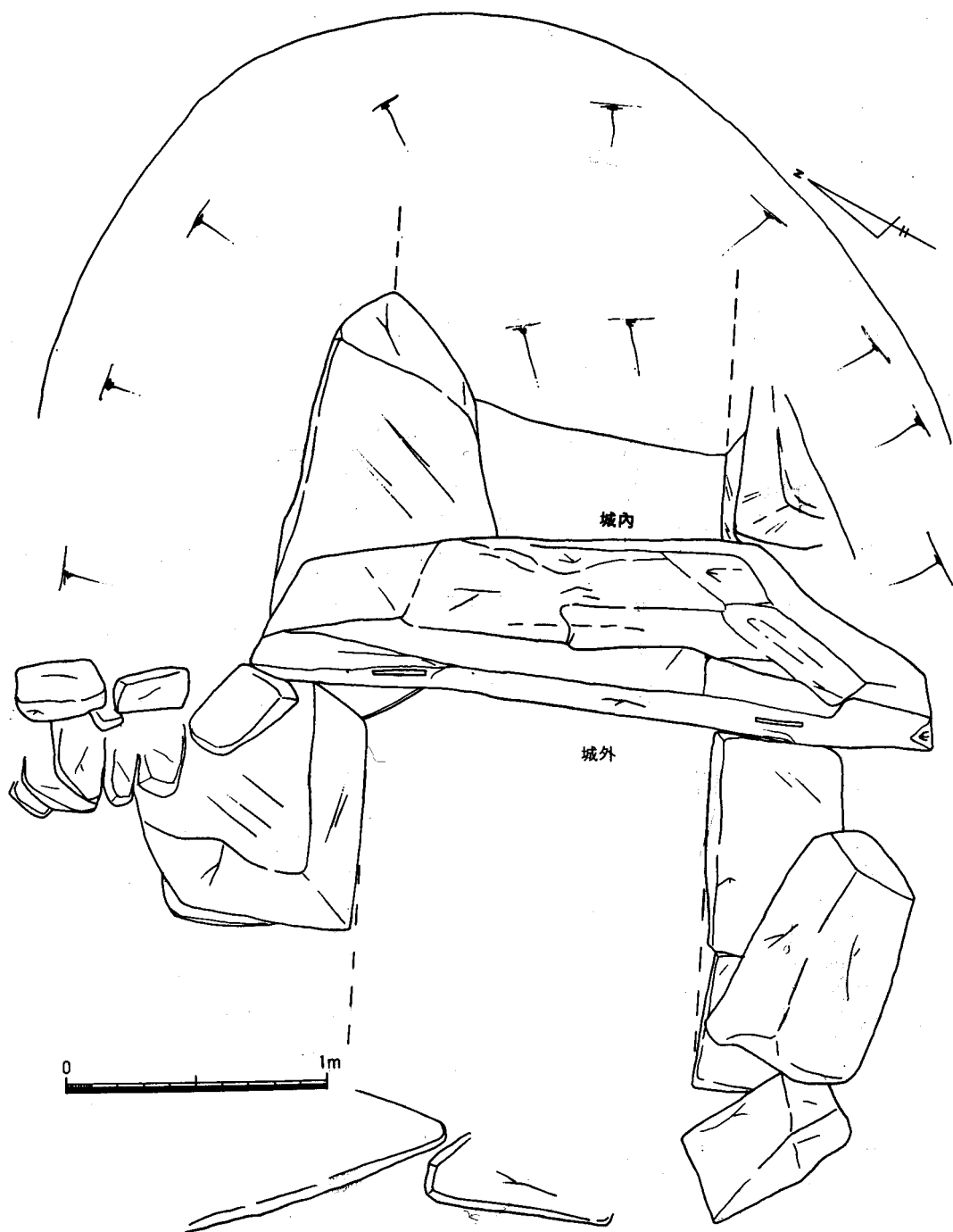
(단면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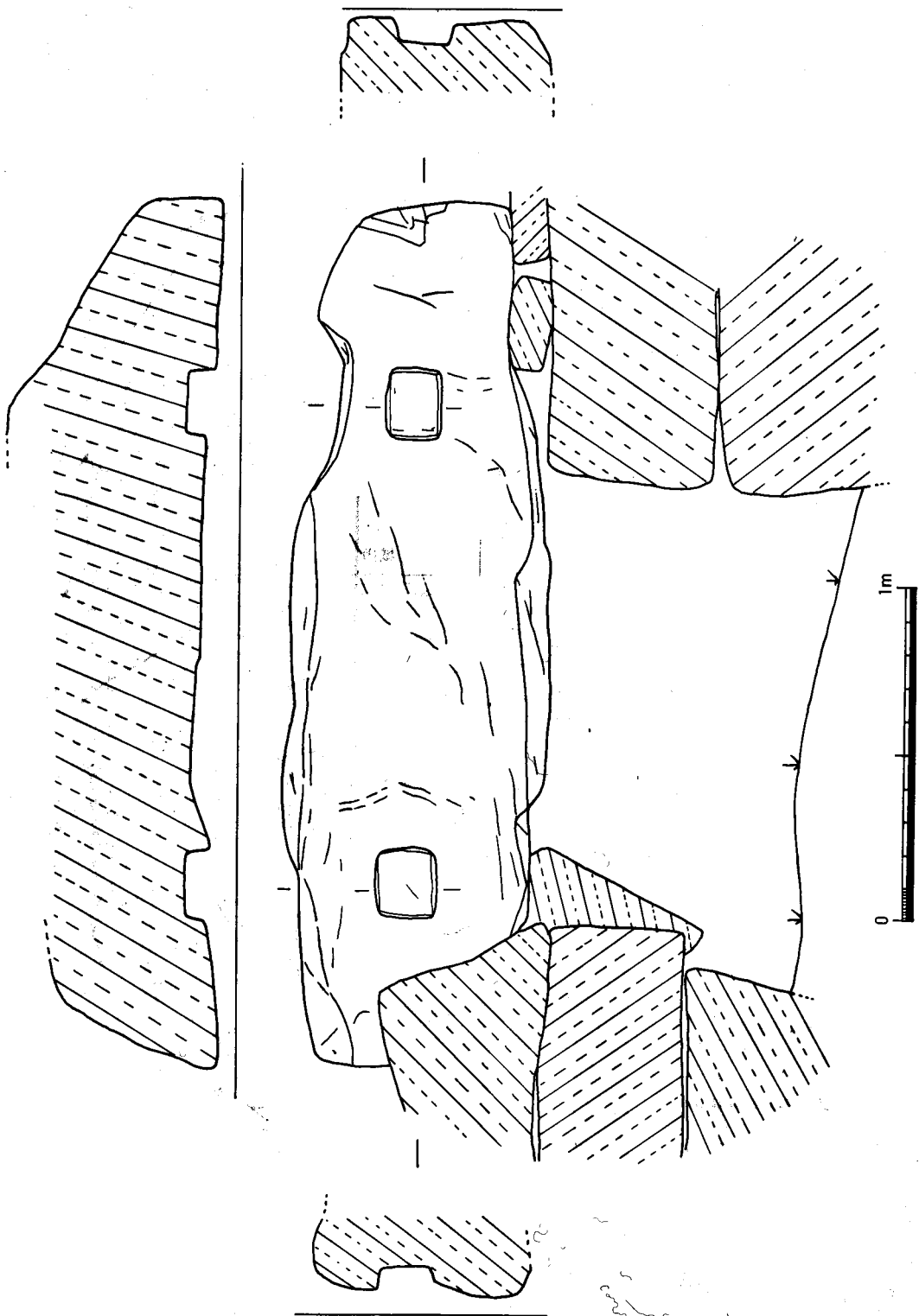
(단면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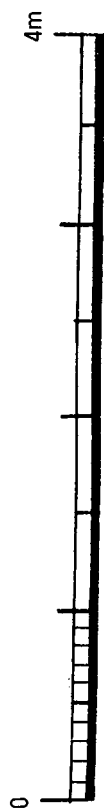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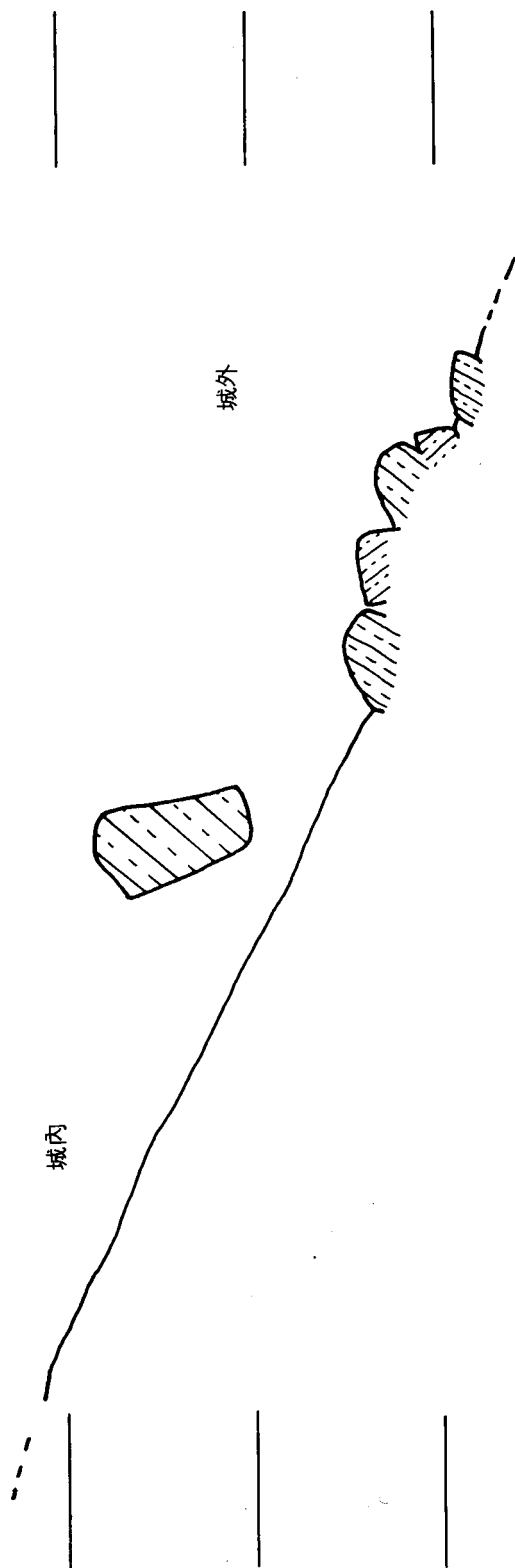
(도면 45) 해미산성 발굴지 단면도(# 11 · #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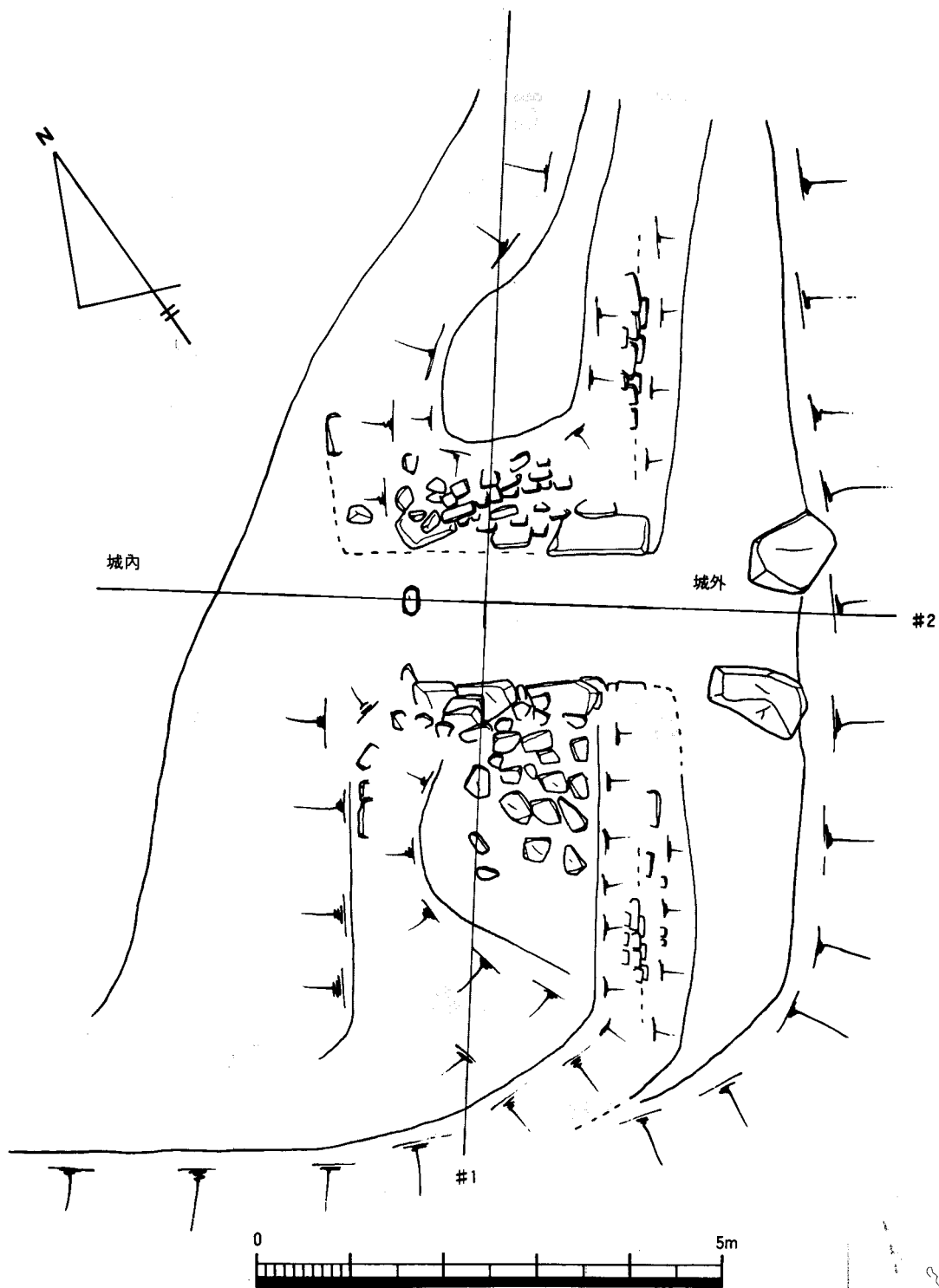
[도면 46] 해미산성 남암문지 평면도



(도면 47) 해미산성 남암문지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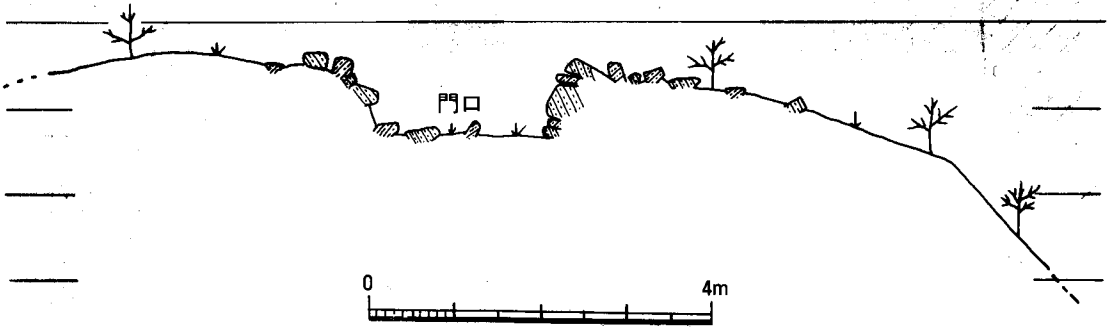


(도면 48) 해미산성 남암문지 단면도(#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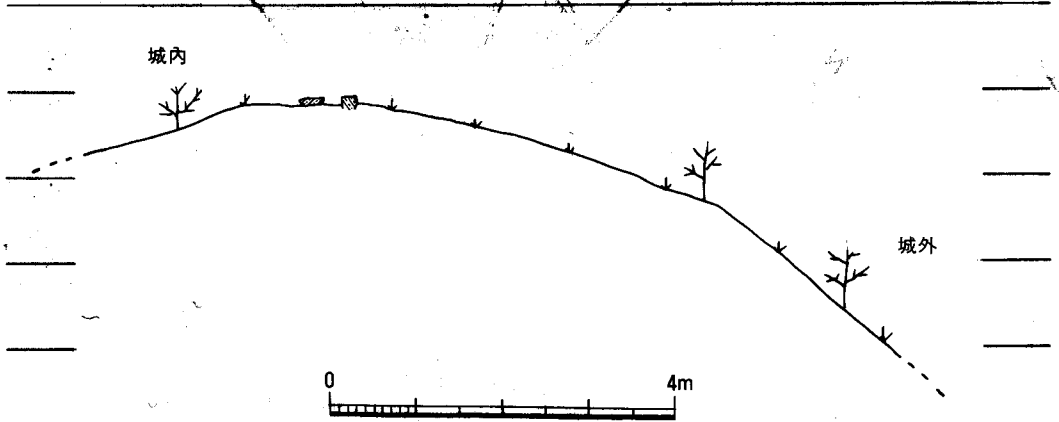


[도면 49] 해미산성 동암문지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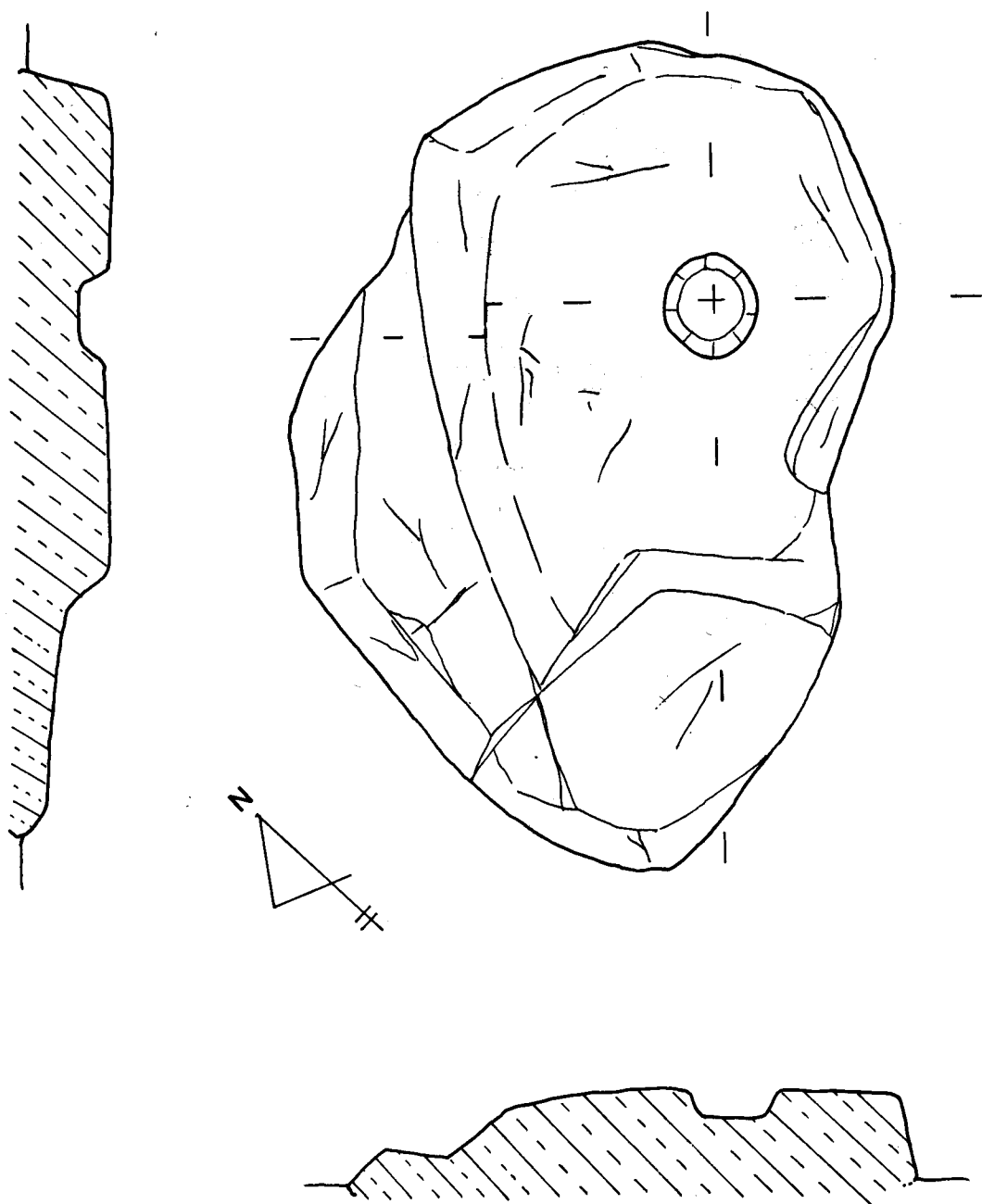
[단면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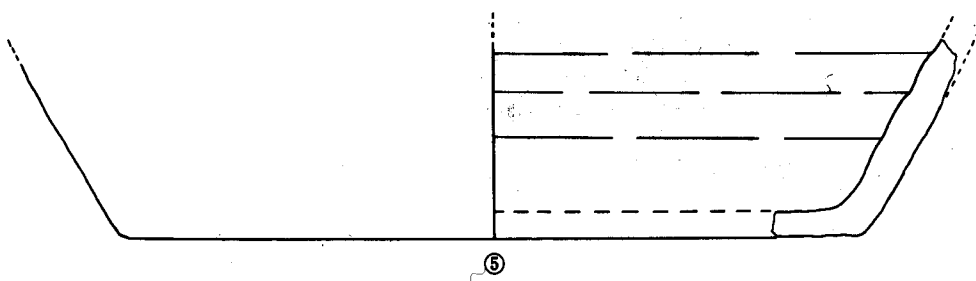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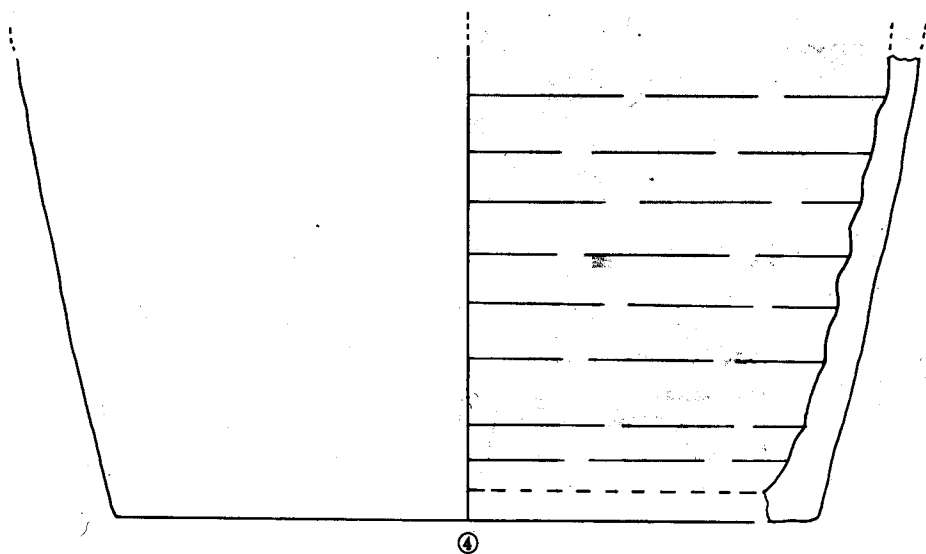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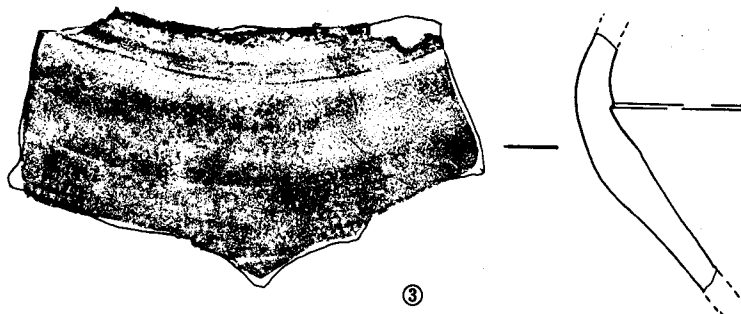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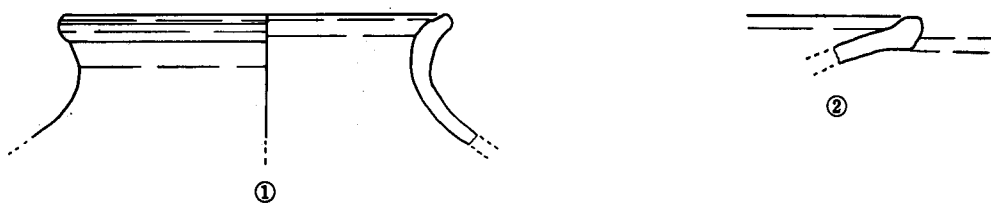
[단면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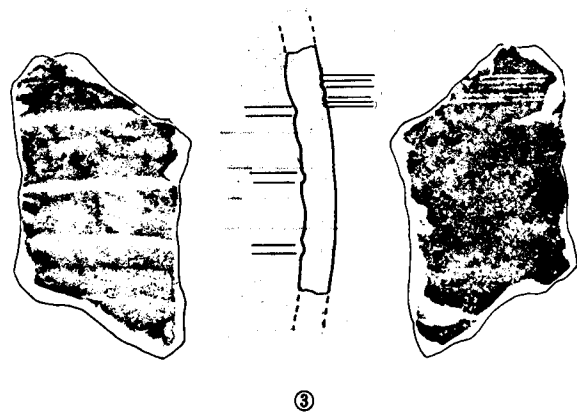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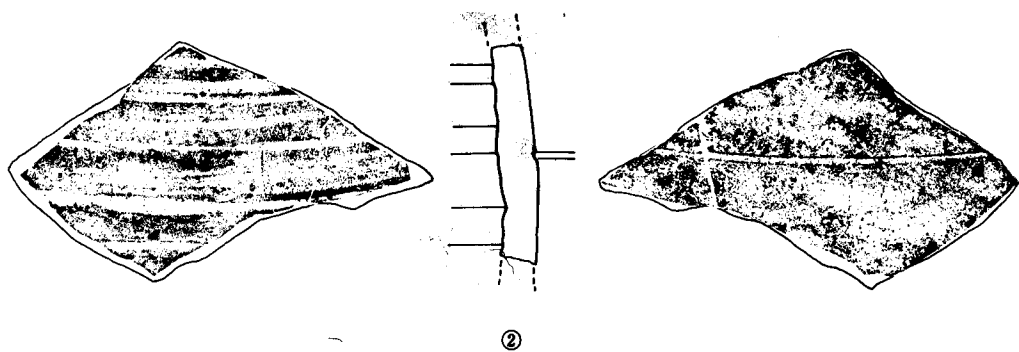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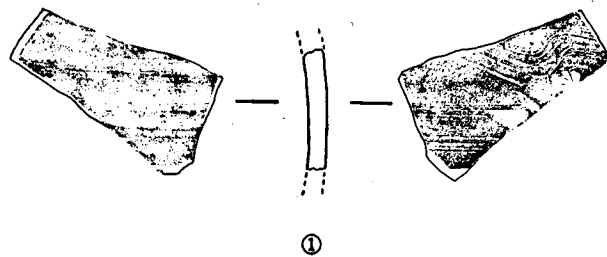
[도면 50] 해미산성 동암문지 단면도(# 1 ·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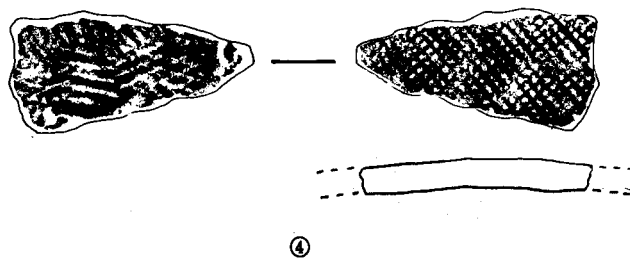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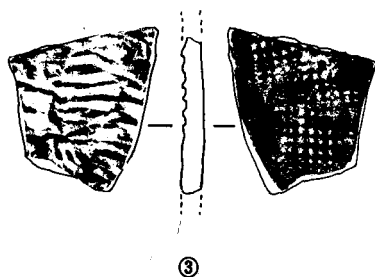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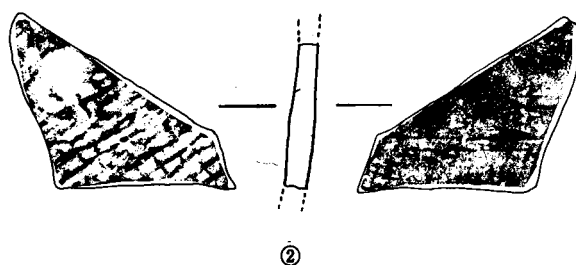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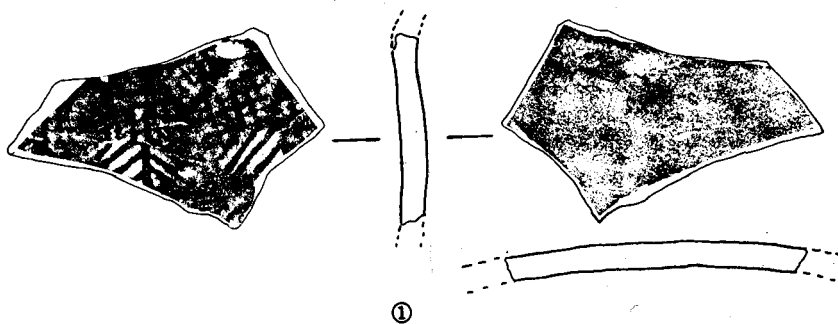
(도면 51) 해미산성 남쪽 건물지 돌확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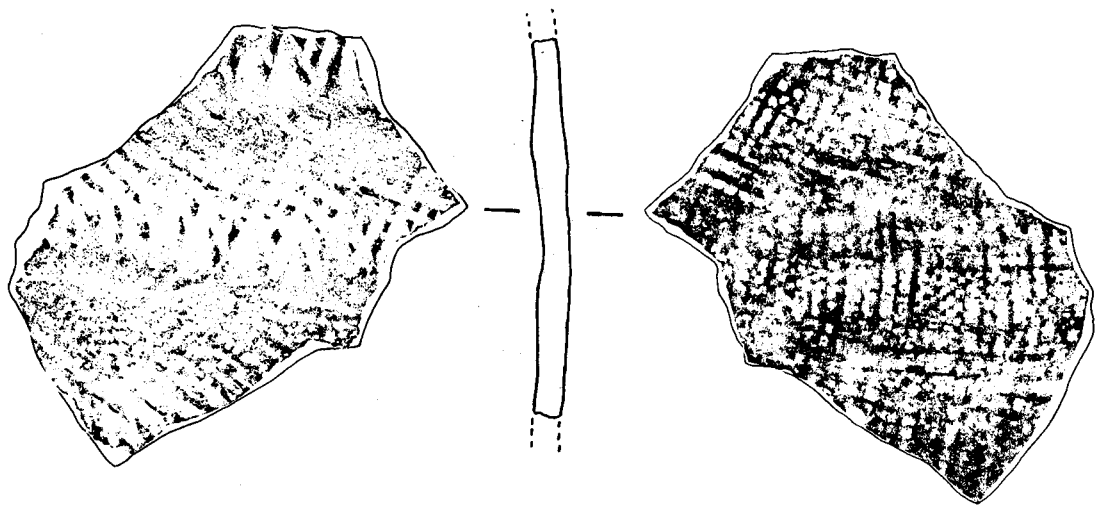
[도면 52] 영원산성 수습 토기구연부편 · 어깨부편 · 저부편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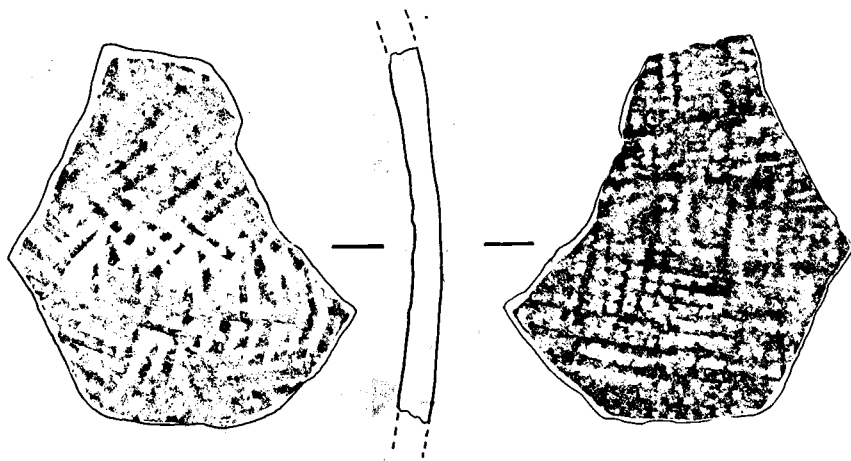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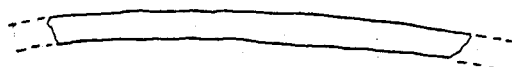
(도면 53) 영원산성 수습 경질토기 동체부편 실측도



[도면 54] 영원산성 수습 경질토기 동체부편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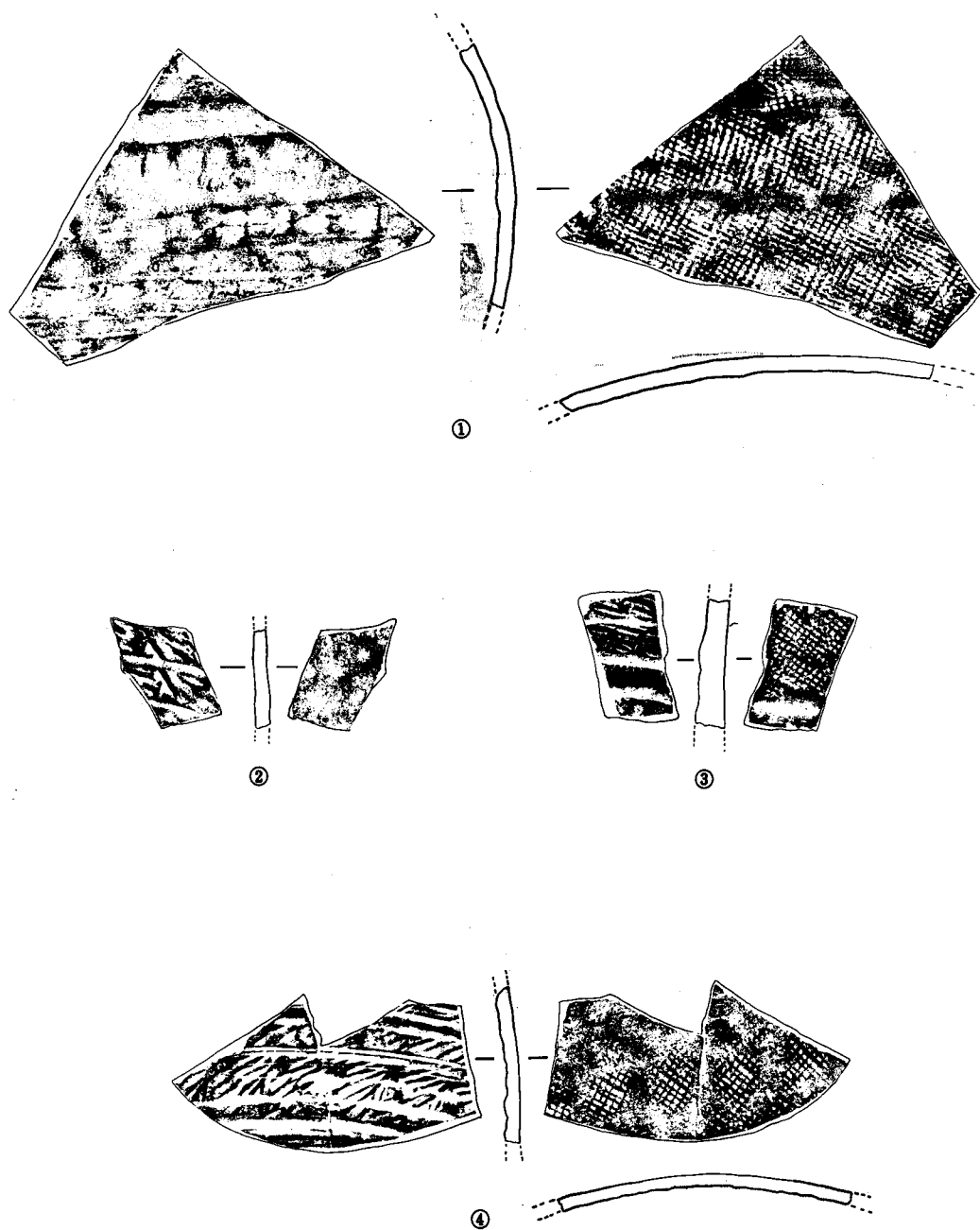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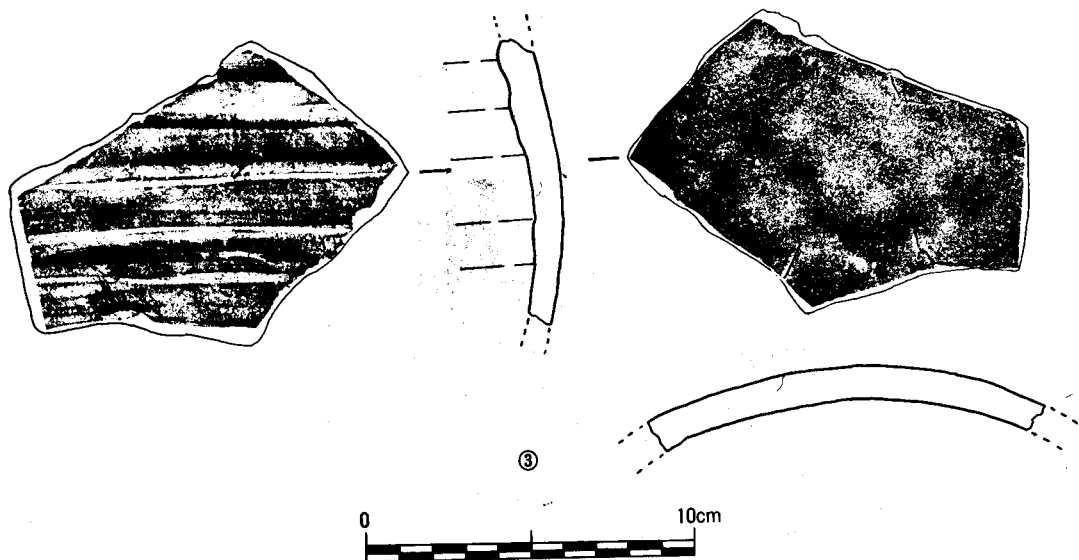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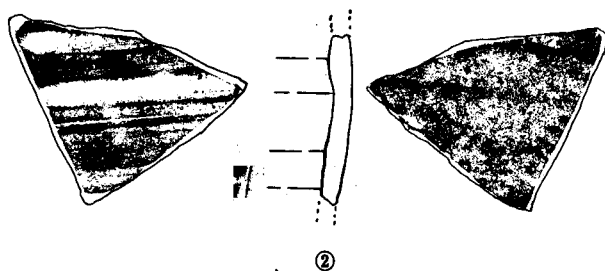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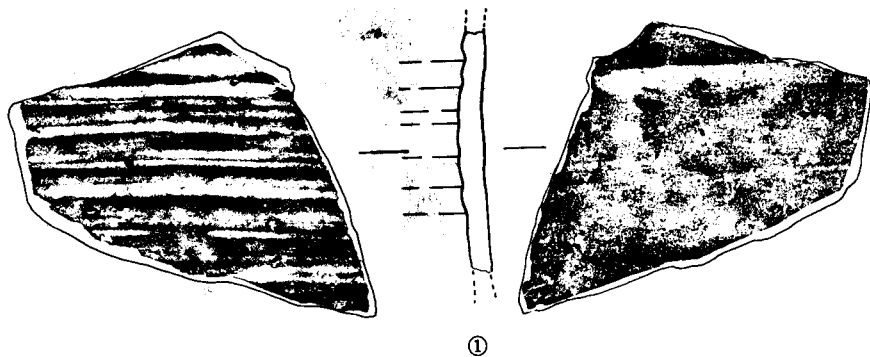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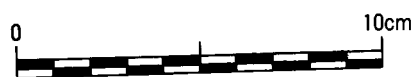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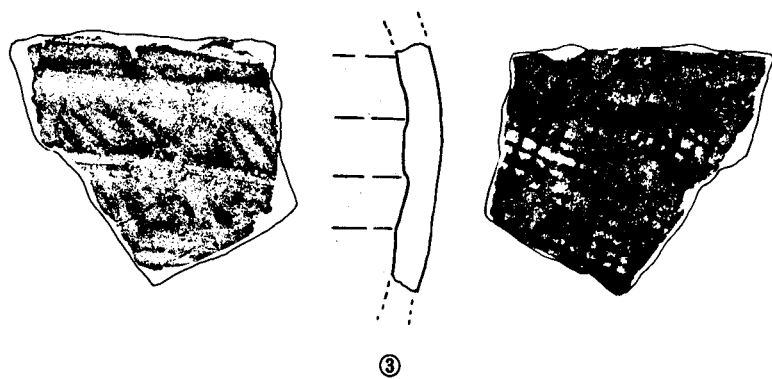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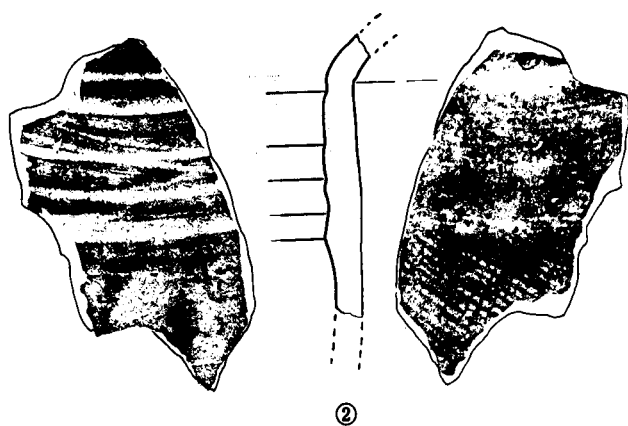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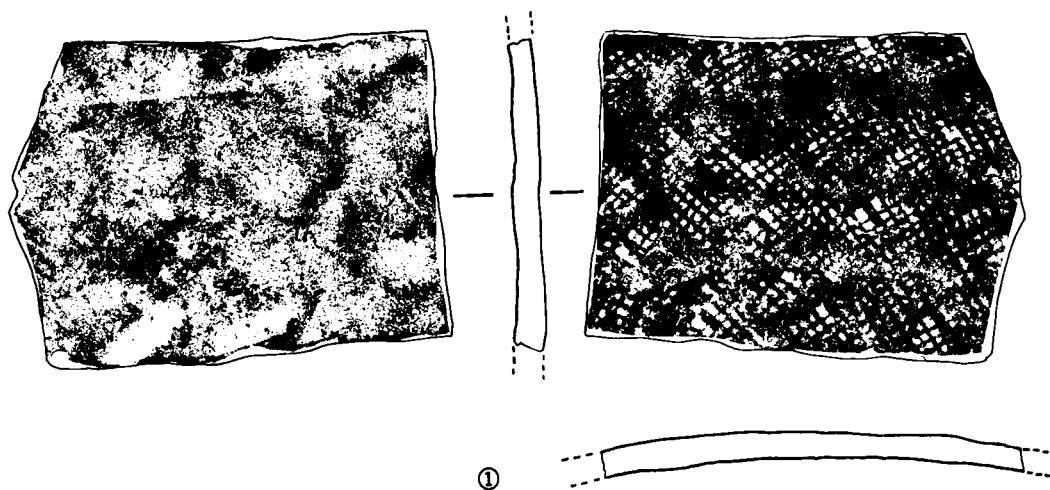
[도면 55] 영원산성 수습 경질토기 동체부편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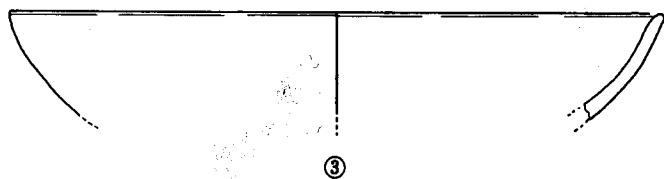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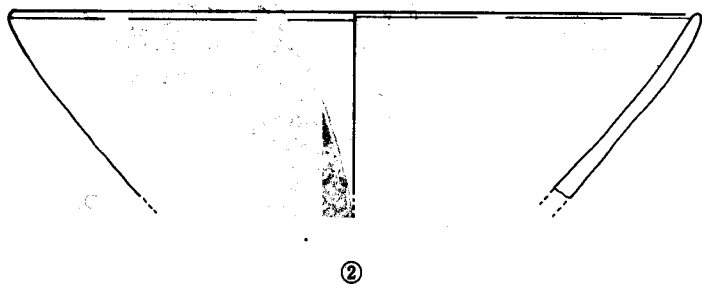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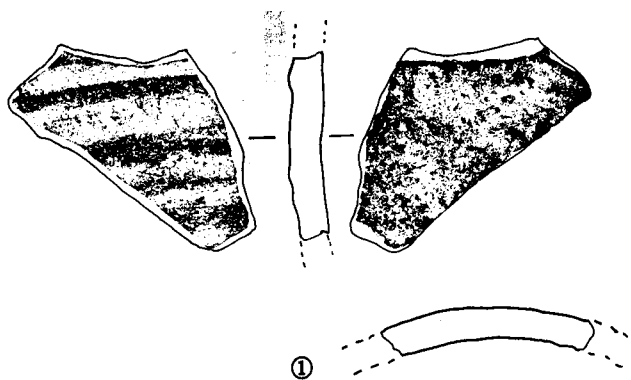
[도면 56] 영원산성 수습 경질토기 동체부편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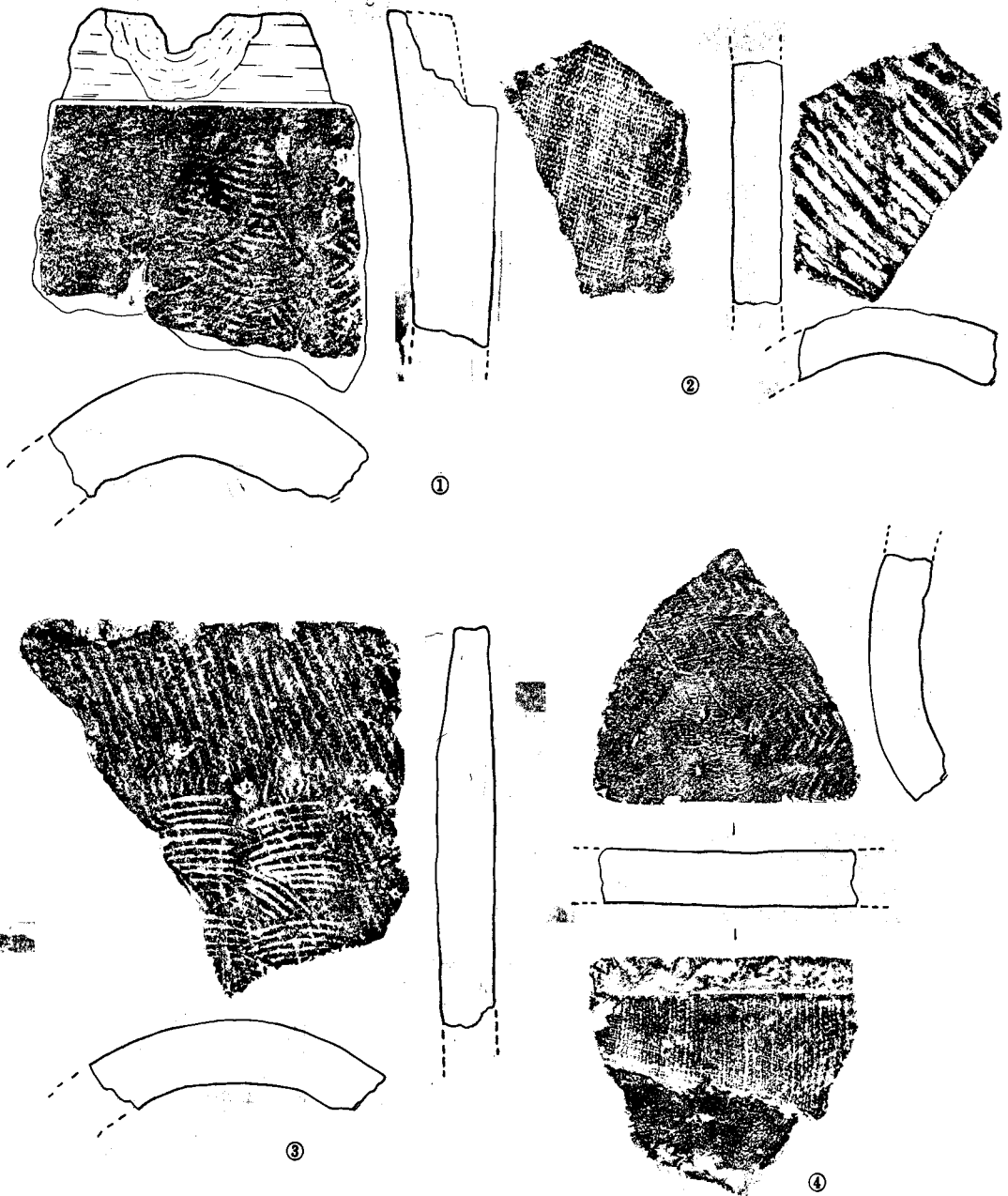
[도면 57] 영원산성 수습 경질토기 동체부편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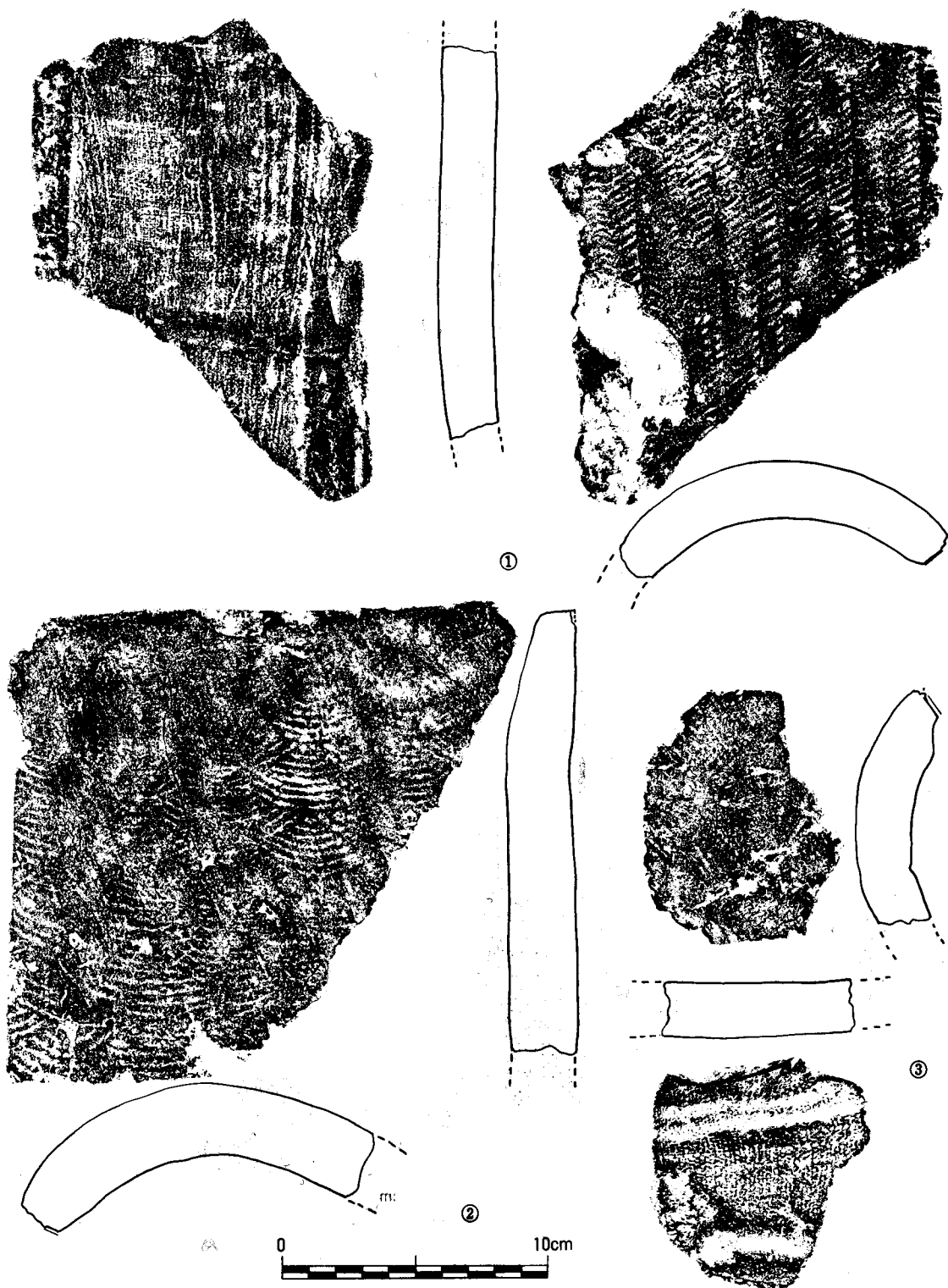
[도면 58] 영원산성 수습 경질토기 동체부편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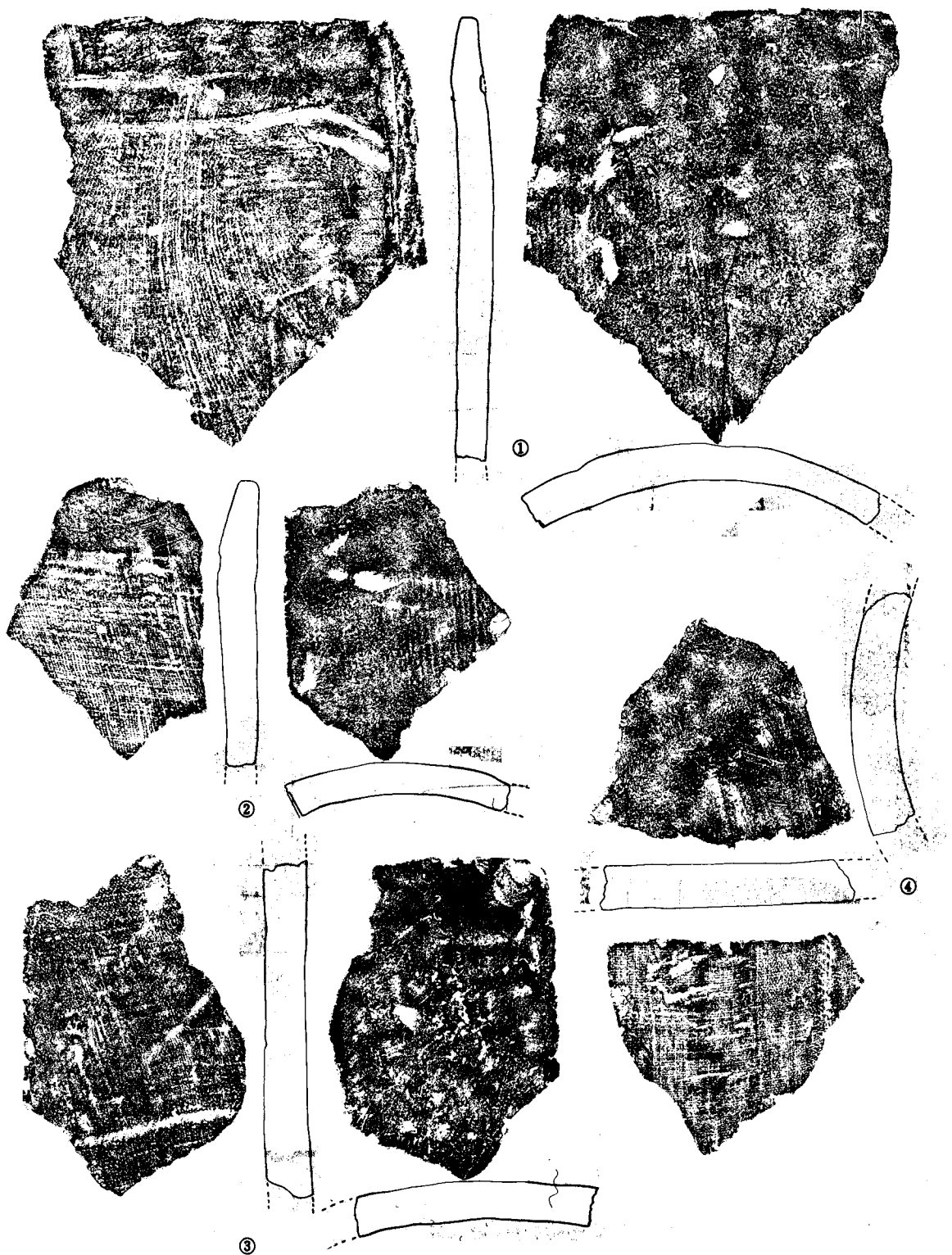
[도면 59] 영원산성 수습 경질토기 동체부편 · 백자 구연부편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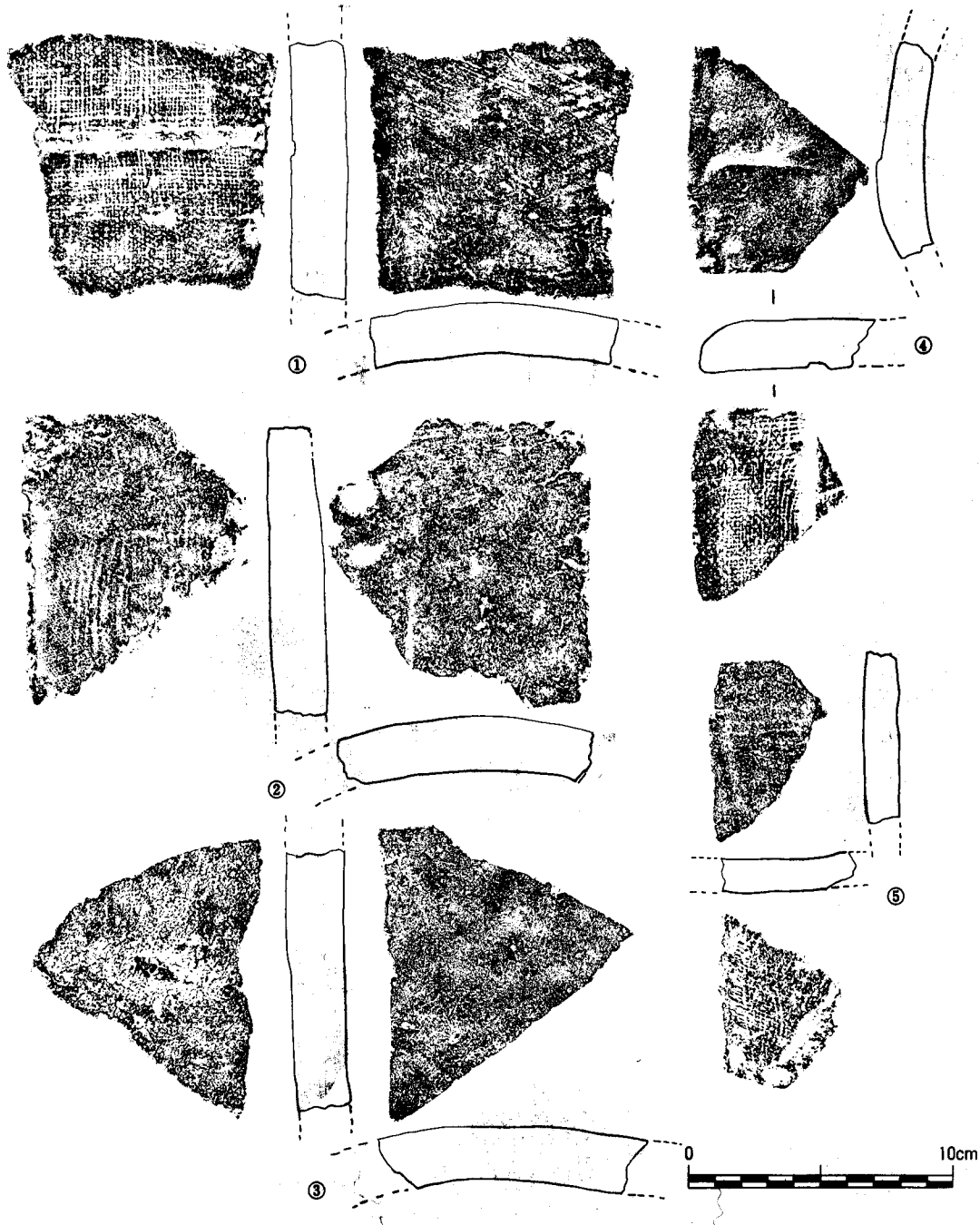
[도면 60] 영원산성 수습 청해파문·선조문 숫기와편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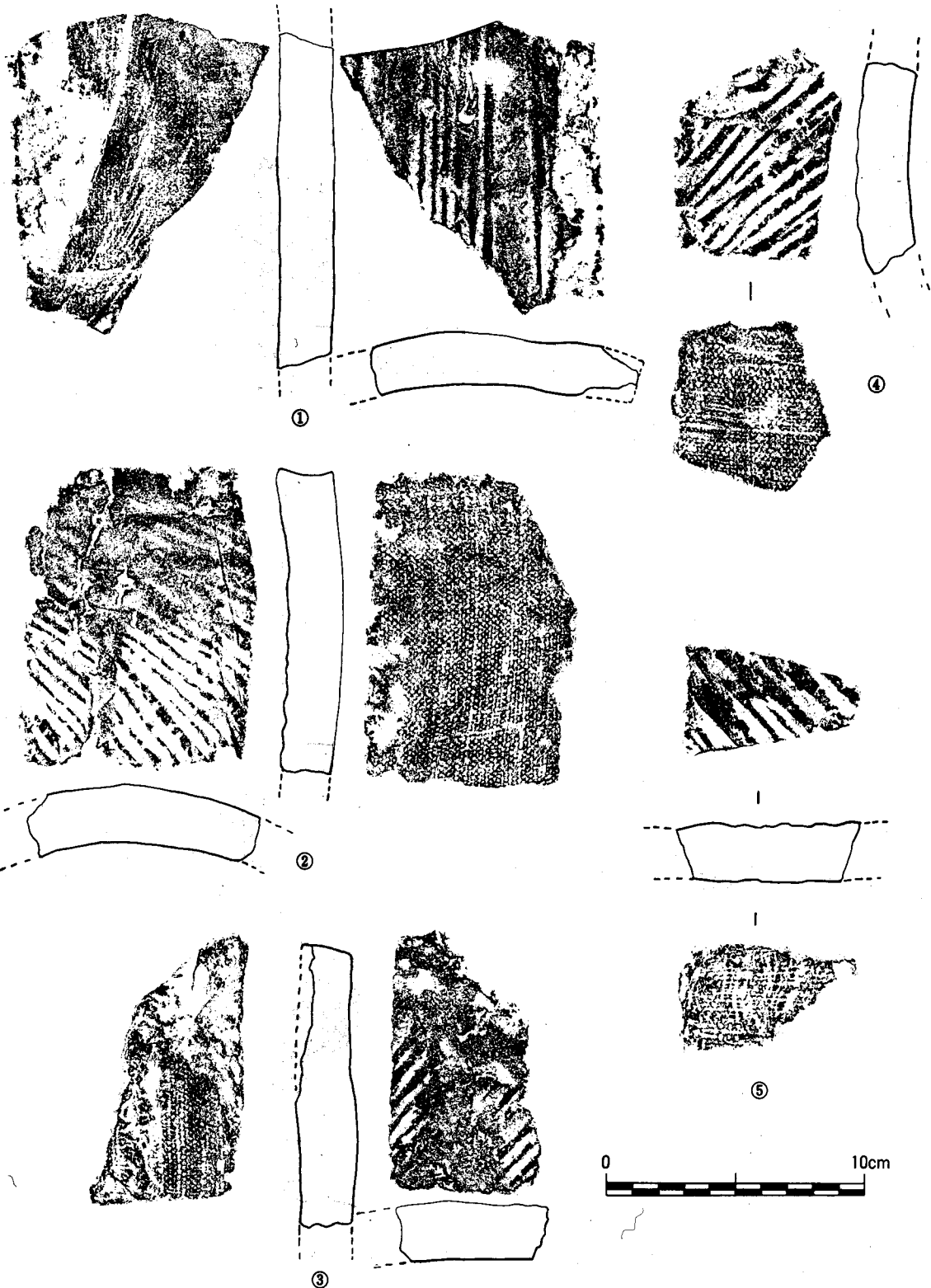
[도면 61] 영원산성 수습 청해파문·선조문 숫기와편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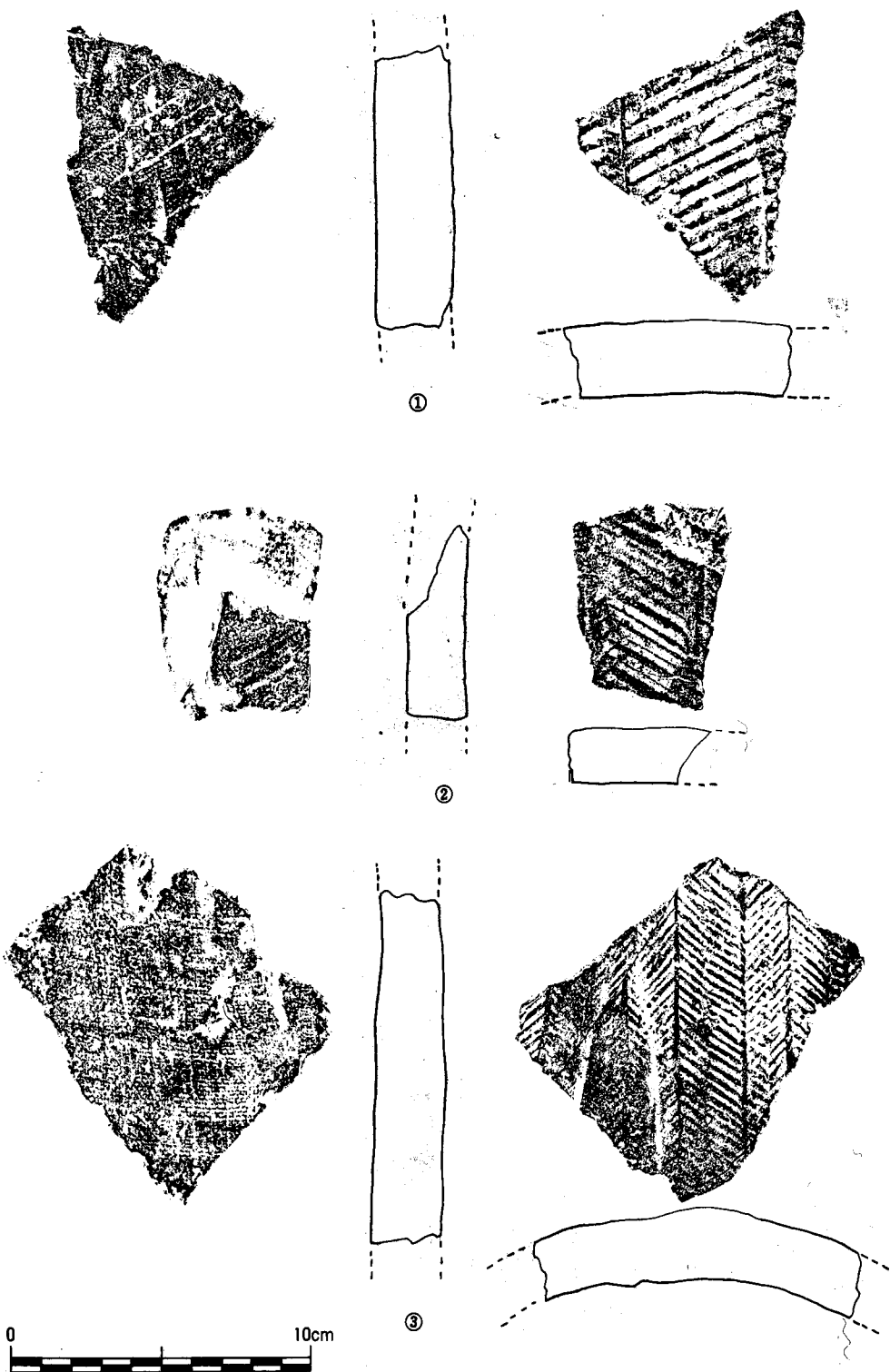
[도면 62] 영원산성 수습 무문 암기와편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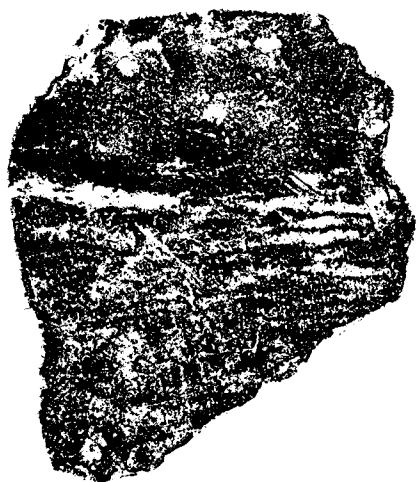
[도면 63] 영원산성 수습 무문 암기와편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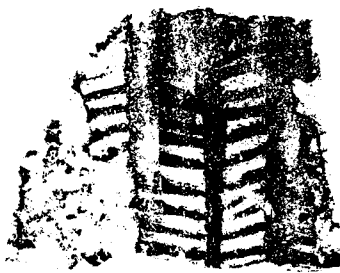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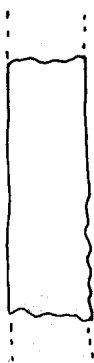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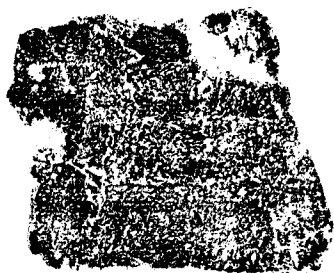
[도면 64] 영월산성 수습 선조문 암기와편 실측도



[도면 65] 영원산성 수습 사선문 · 어골문 압기와편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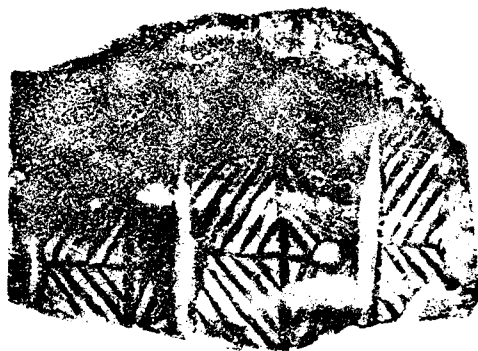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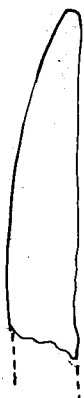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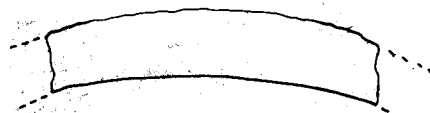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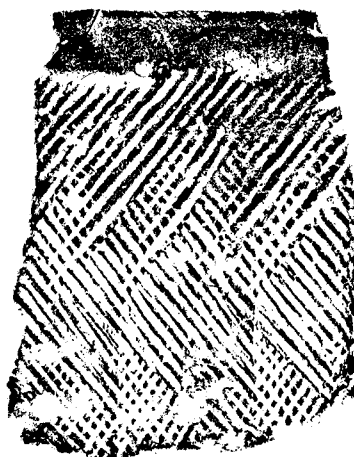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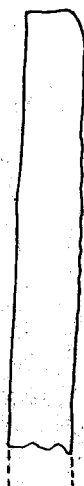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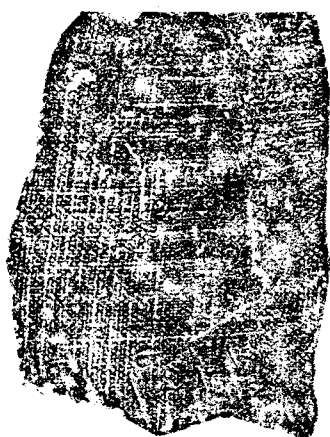
②



[도면 66] 영원산성 수습 태선 어골문 암기와편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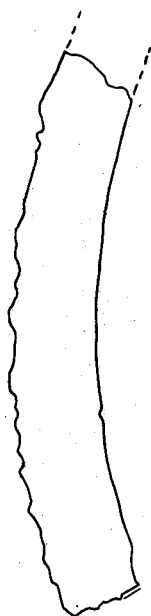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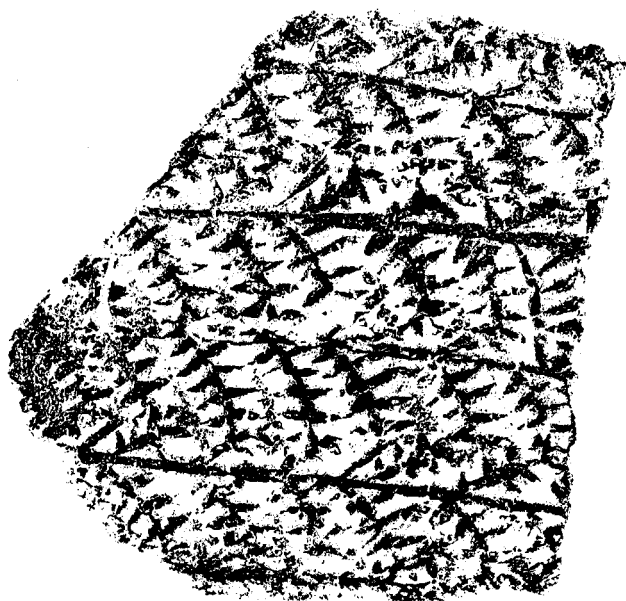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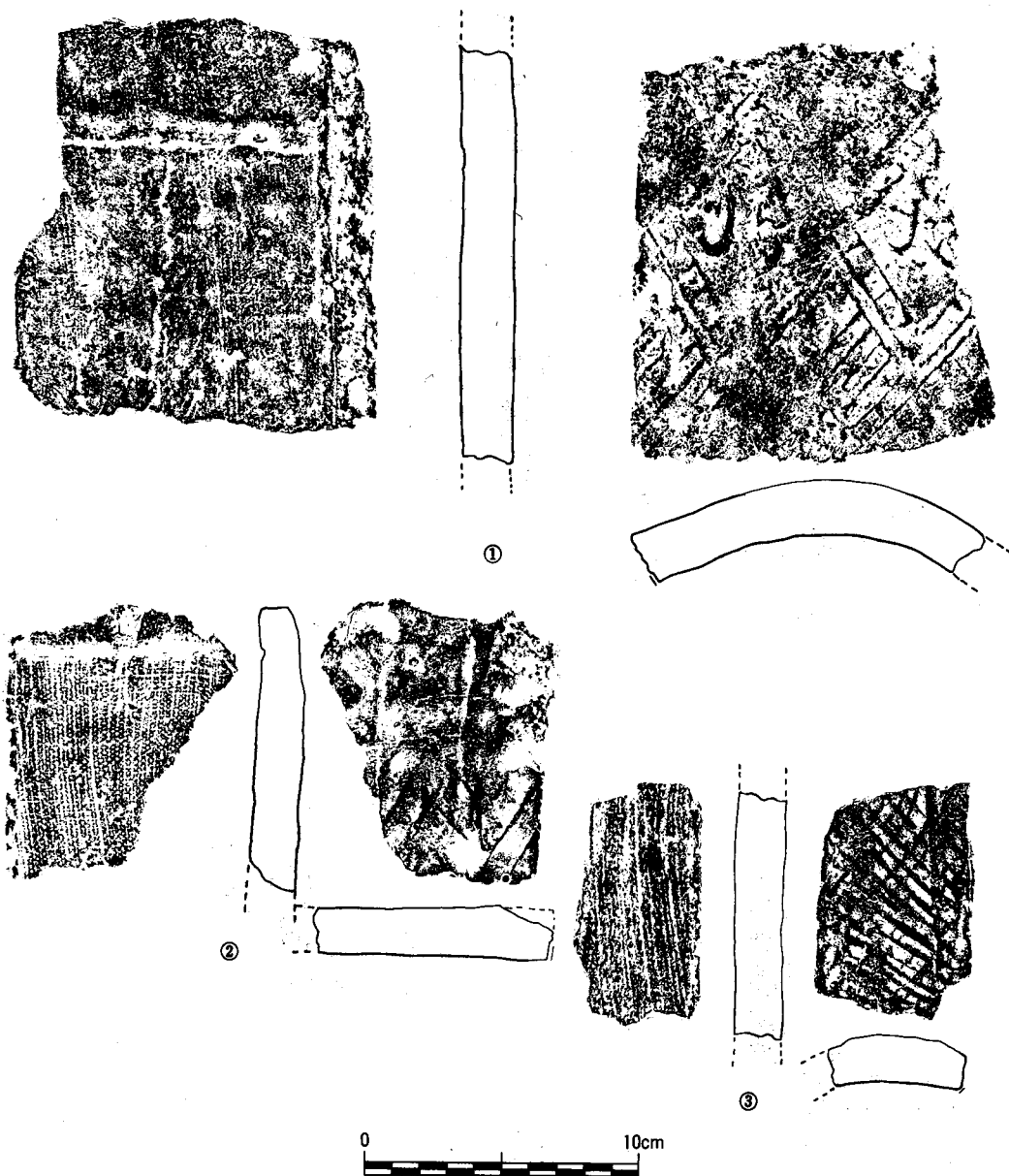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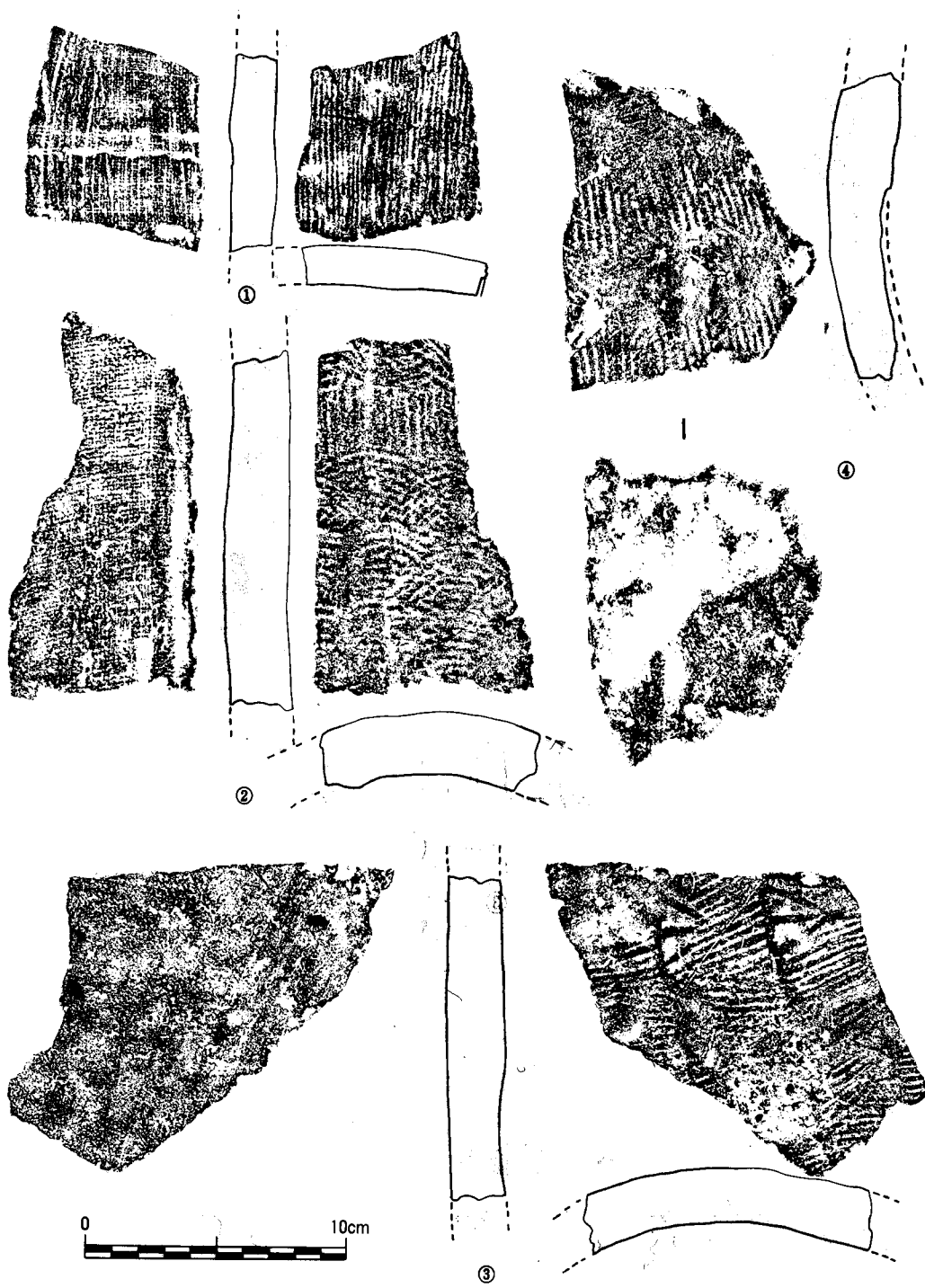
[도면 67] 영원산성 수습 집선문 암기와편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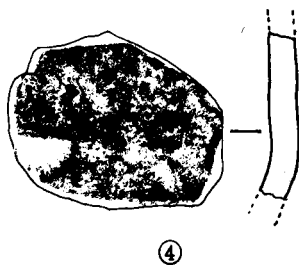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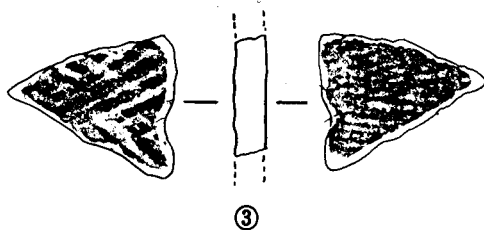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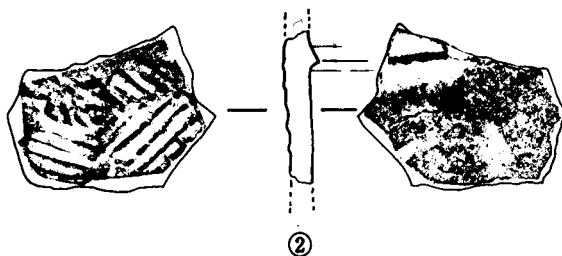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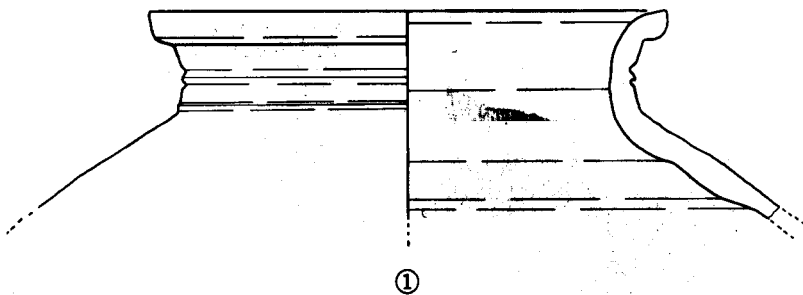
(도면 68) 영원산성 수습 草文 압기와편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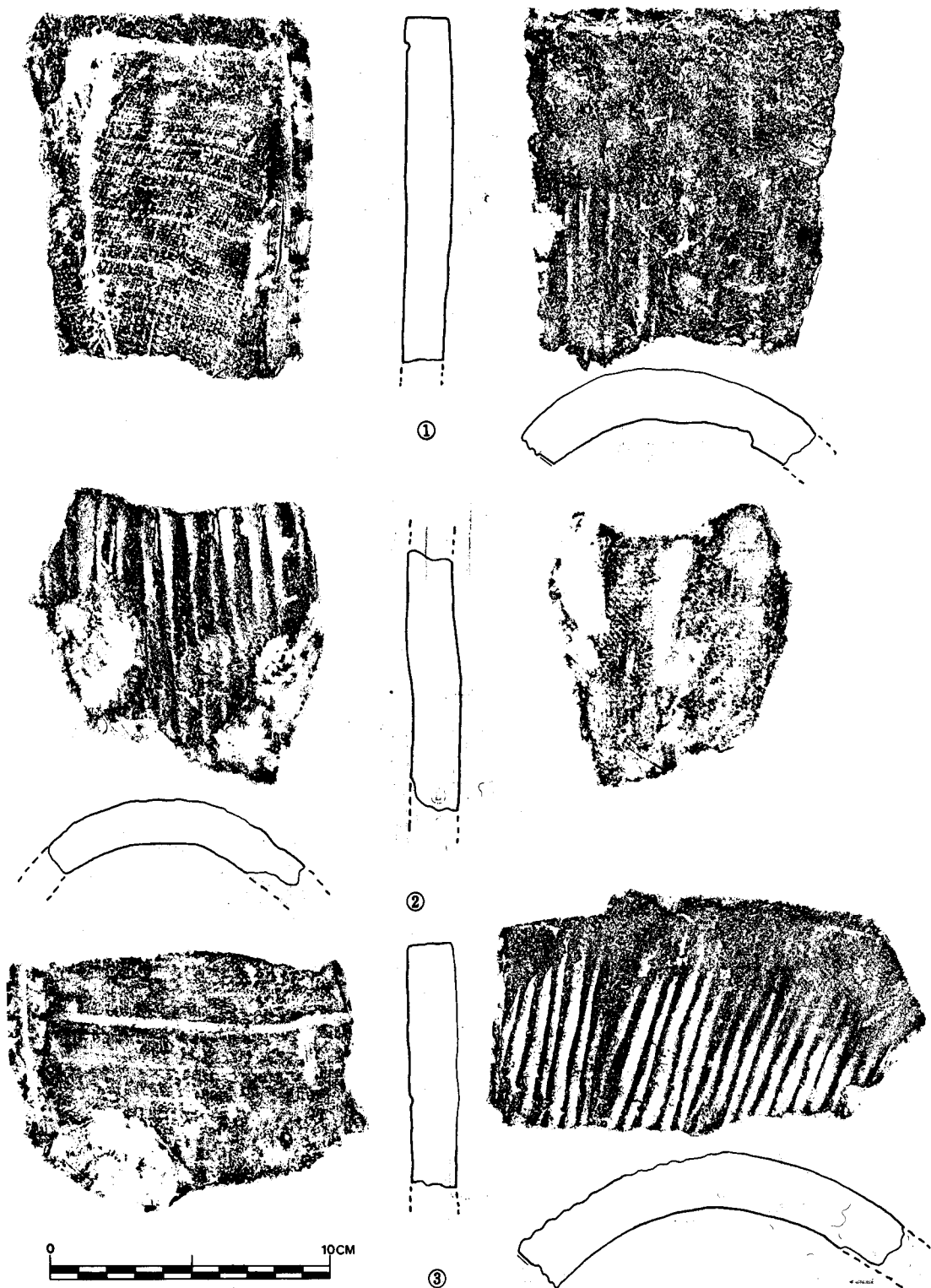
(도면 69) 영원산성 수습 복합문 · 격자문 암기와편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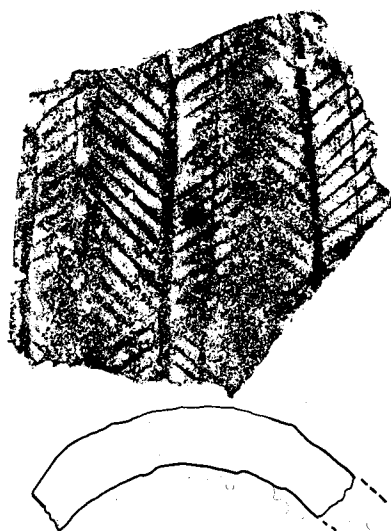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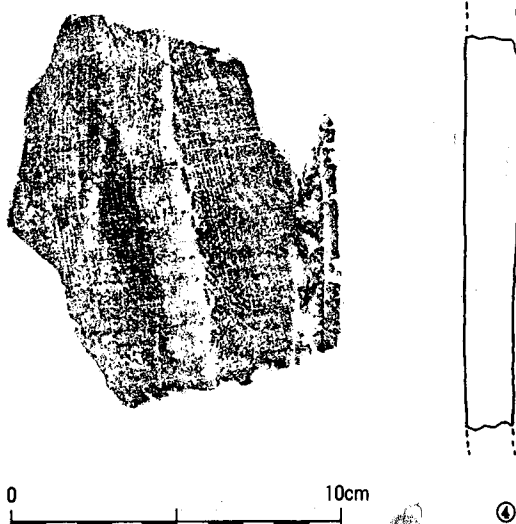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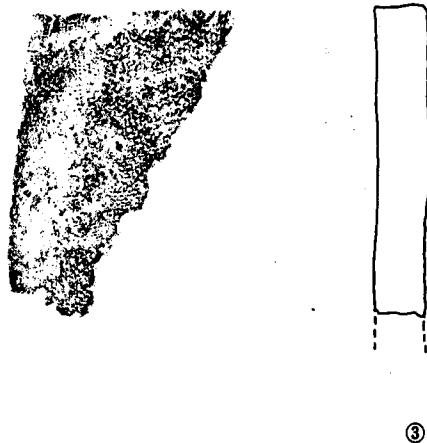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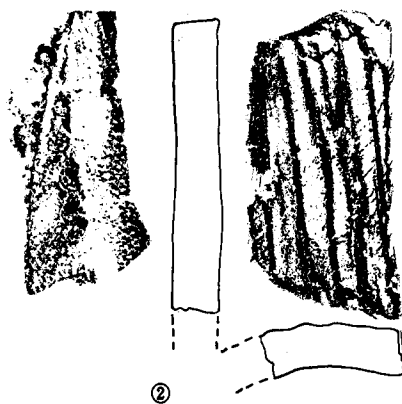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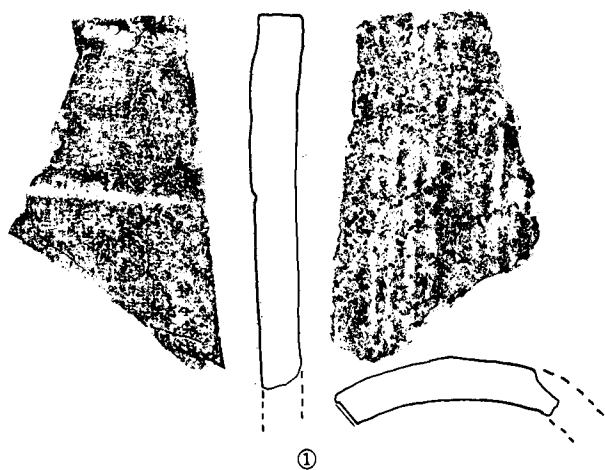
[도면 70] 영원산성 수습 집선문·청해파문 암기와편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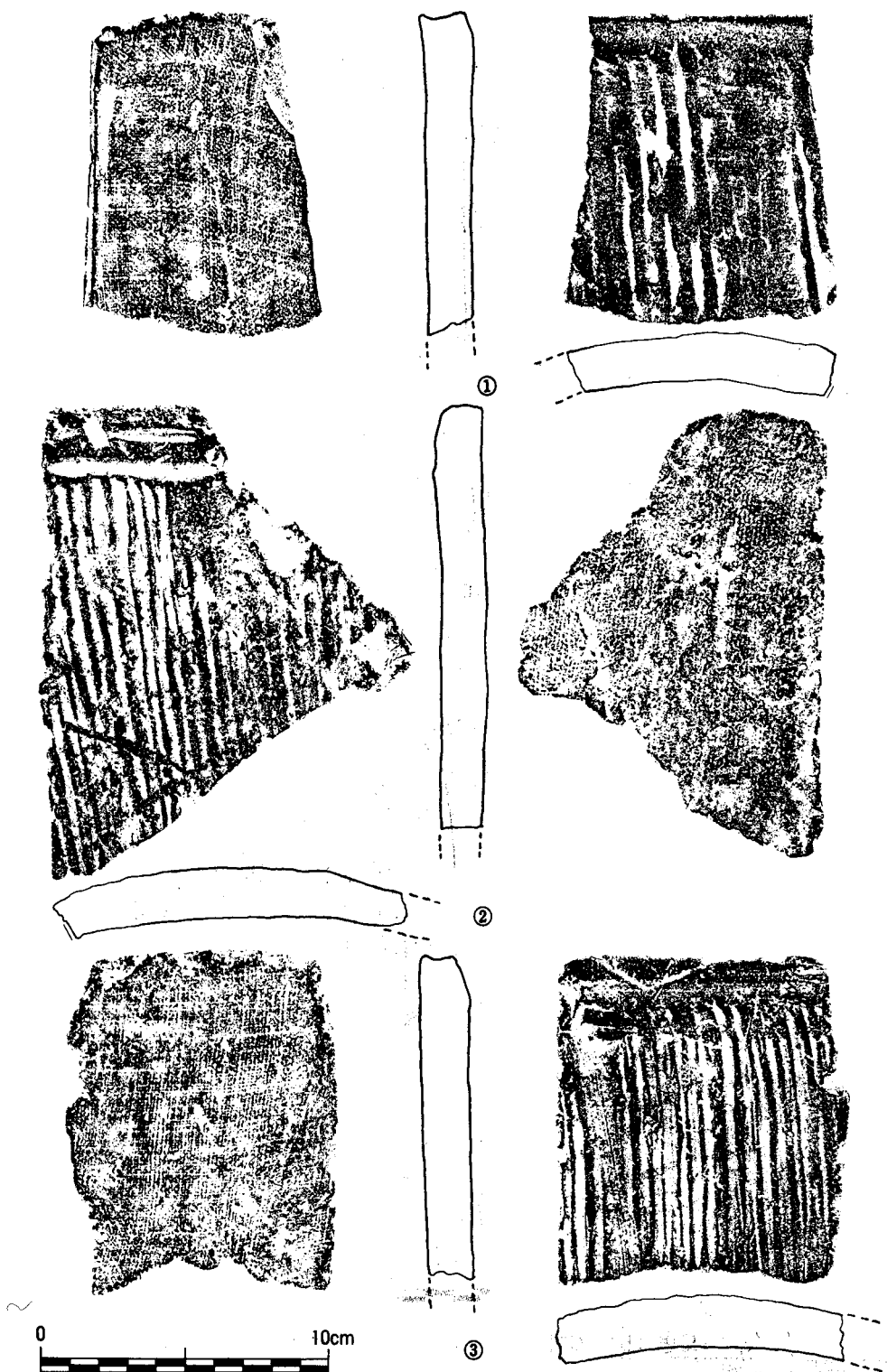
(도면 71) 해미산성 수습 토기편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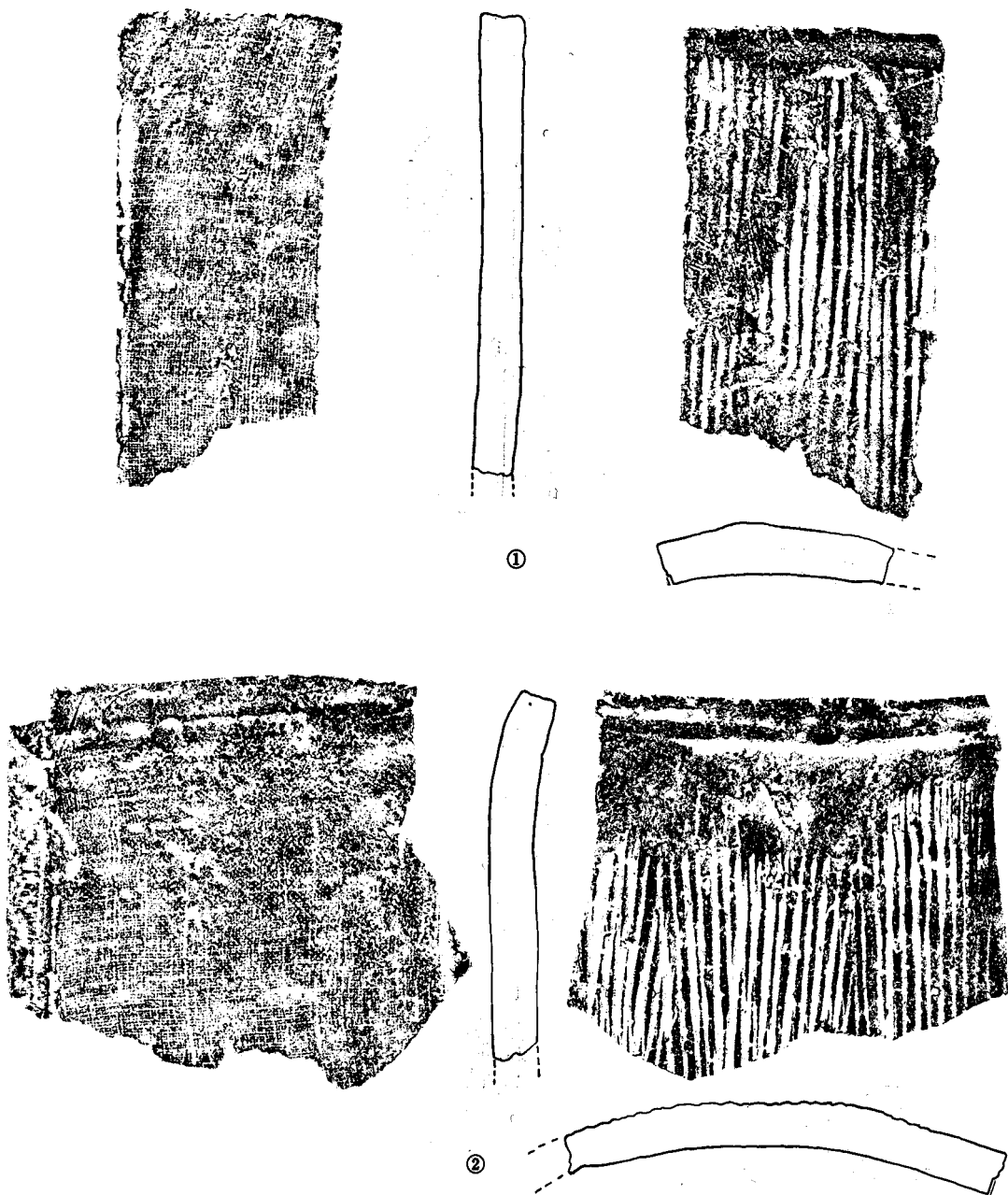
[도면 72] 해미산성 수습 선조문 숫기와편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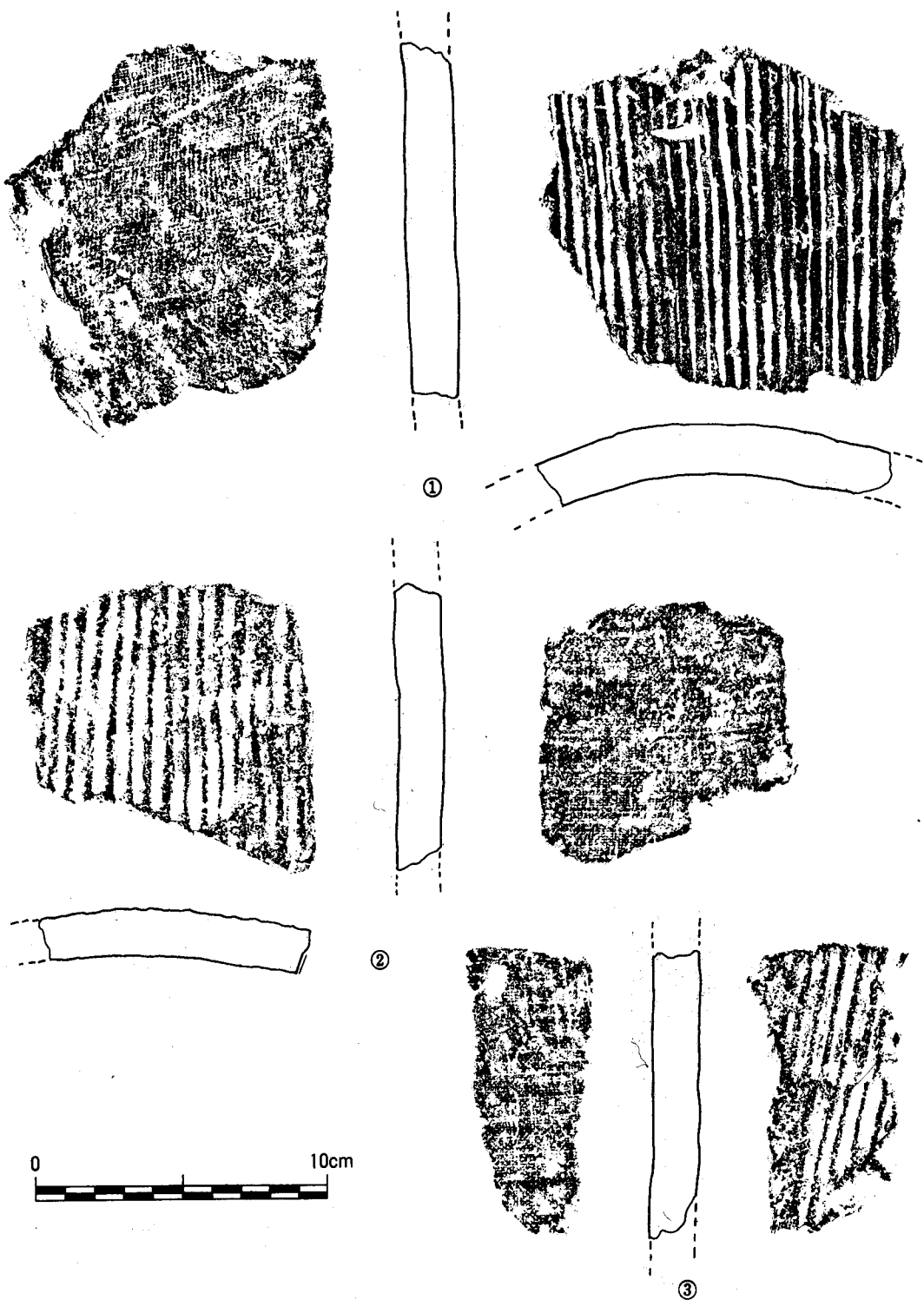
[도면 73] 해미산성 수습 선조문·어골문 숫기와편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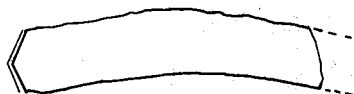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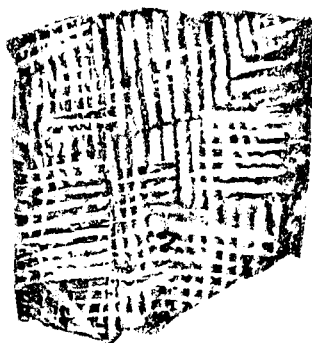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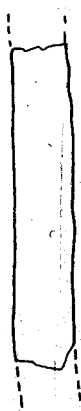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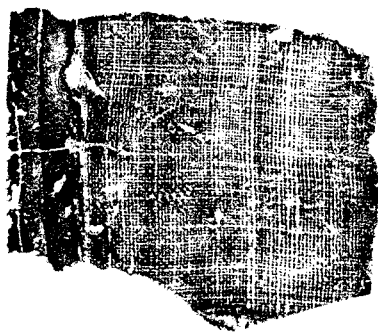
(도면 74) 해미산성 수습 선조문 암기와편 실측도



[도면 75] 해미산성 수습 선조문 암기와편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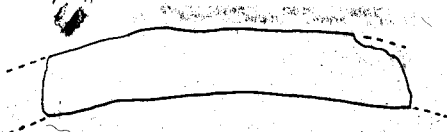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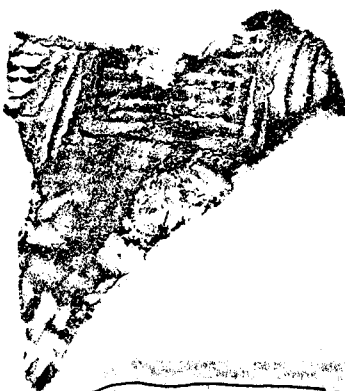
[도면 76] 해미산성 수습 선조문 암기와편 실측도



①



②



③



[도면 77] 해미산성 수습 집선문 암기와편



[사진 1] 영원산성에서 본 치악골 모습



[사진 2] 영원산성에서 본 해미산성 모습



[사진 3] 영원사에서 영원산성에 이르는 등산로 모습



[사진 4] 영원산성 동남벽 남단 모습



[사진 5] 영원산성 동남벽 남단 모습



[사진 6] 영원산성 동남벽 남단 석축 잔존부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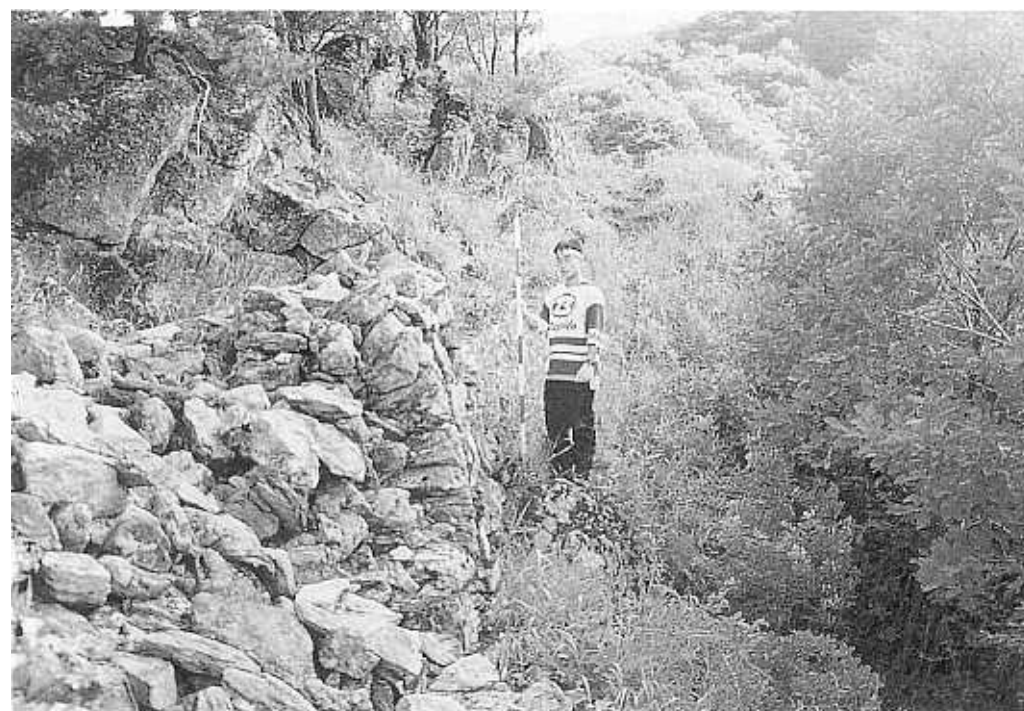
[사진 7] 영원산성 동남벽 모습 : #1 지점(북→남)



[사진 8] 영원산성 동남벽 모습 : #1 지점(남→북)



[사진 9] 영원산성 동남벽 단면모습 #1 지점(북→남)



[사진 10] 영원산성 동남벽 모습 : #1~#2 구간(남→북)



[사진 11] 영원산성 동남벽 모습 #1~#2 구간(남→북)



[사진 12] 영원산성 동남벽 모습 : #1~#2 구간(남→북)



[사진 13] 영원산성 동남벽 모습 #1~#2 구간(북→남)



[사진 14] 영원산성 동남벽 석축 붕괴 모습 #1~#2 구간(북→남)



사진 15) 영원산성 동남벽 모습 : #2~남문지 구간(남→북)



[사진 16] 영원산성 동남벽 모습 : #2~남문지 구간(남→북)



〔사진 17〕 영원산성 동남벽 여장 입면 모습 #3 지점(안쪽에서)



〔사진 18〕 영원산성 동남벽 여장 입면 모습 #2~남문지 구간(남→북)



[사진 19] 영원산성 동남벽 여장 입면 모습 : #2~#3 구간(남→북)



[사진 20] 영원산성 동남벽 여장 단면 모습 #3 지점(남→북)



[사진 21] 영원산성 남문지 모습(북→남)



[사진 22] 영원산성 남문지 안쪽 숯가마 모습



[사진 23] 영원산성 남문지 문쩌귀 모습



[사진 24] 영원산성 남문지 모습(밖에서)



〔사진 25〕 영원산성 남문지 남쪽 외부 석축 모습



〔사진 26〕 영원산성 남문지 북쪽 외부 석축 모습



[사진 27] 영원산성 동남벽 모습 : #6~#3 구간(북→남)



[사진 28] 영원산성 동남벽 남문지 위쪽 모습



[사진 29] 영원산성 동남벽 모습 : 남문지~#3 구간(북→남)



[사진 30] 영원산성 동남벽 모습 : #7~남문지 구간(북→남)



[사진 31] 영원산성 동남벽 모습 : #7~남문지 구간(북→남)



[사진 32] 영원산성 동남벽 모습 : #7 지점(북→남)



[사진 33] 영원산성 동남벽 모습 #8 지점(북→남)



[사진 34] 영원산성 동남벽 모습 #8 지점 曲部 내려다 봄



[사진 35] 영원산성 동남벽 모습 #8~#9 구간 붕괴 지역(북→남)



[사진 36] 영원산성 #9 지점에서 본 북벽 866.1고지 장대 모습



[사진 37] 영원산성 동남벽 모습 #8~#9 구간 붕괴지역(남→북)



[사진 38] 영원산성 동남벽 모습 : #9 지점 석축 잔존부



[사진 39] 영원산성 동남벽 모습 #9~#10 구간(남→북)



[사진 40] 영원산성 동남벽 모습 #9~#10 구간(북→남)



[사진 41] 영원산성 동남벽 모습 : #9~#10 구간(남→북)



[사진 42] 영원산성 동남벽 모습 #10~#11 구간(남→북)



[사진 43] 영원산성 동남벽 모습 #10 지점(남→북)



[사진 44] 영원산성 동남벽 모습 #10~#11 구간(남→북)



〔사진 44〕 영원산성 동남벽 모습 #10~#11 구간(남→북)



〔사진 46〕 영원산성 동남벽 모습 : #10~#11 구간(남→북)



[사진 47] 영원산성 동남벽 모습 : #11~#12 구간(남→북)



[사진 48] 영원산성 동남벽 모습 #11~#12 구간(남→북)



[사진 49] 영원산성 동남벽 모습 #12~#11 구간(북→남)



[사진 50] 영원산성 동남벽 모습 #11~#14 구간(남→북)



[사진 51] 영원산성 동남벽 모습 : #13~#12 구간(북→남)



[사진 52] 영원산성 동남벽 모습 #12~#15 구간(남→북)



[사진 53] 영원산성 동남벽 모습 : #12~#14 구간(남→북)



[사진 54] 영원산성 동남벽 모습 : #14~#12 구간(북→남)



[사진 55] 영원산성 #10 지점에서 본 정상부(甬道) 모습



[사진 56] 영원산성 동남벽 모습 #14~#15 구간(남→북)



[사진 57] 영원산성 甬道 아래 #13 지점 건물지 모습



[사진 58] 영원산성 甬道 아래 건물지 및 석축 모습 : #14~#15 구간(북→남)



[사진 59] 영원산성 甬道 모습 #15~정상부 구간



[사진 60] 영원산성 甬道 정상부 모습 : #16~#17 구간



〔사진 61〕 영원산성 甬道 정상부에서 본 서벽 866.1고지 능선 남쪽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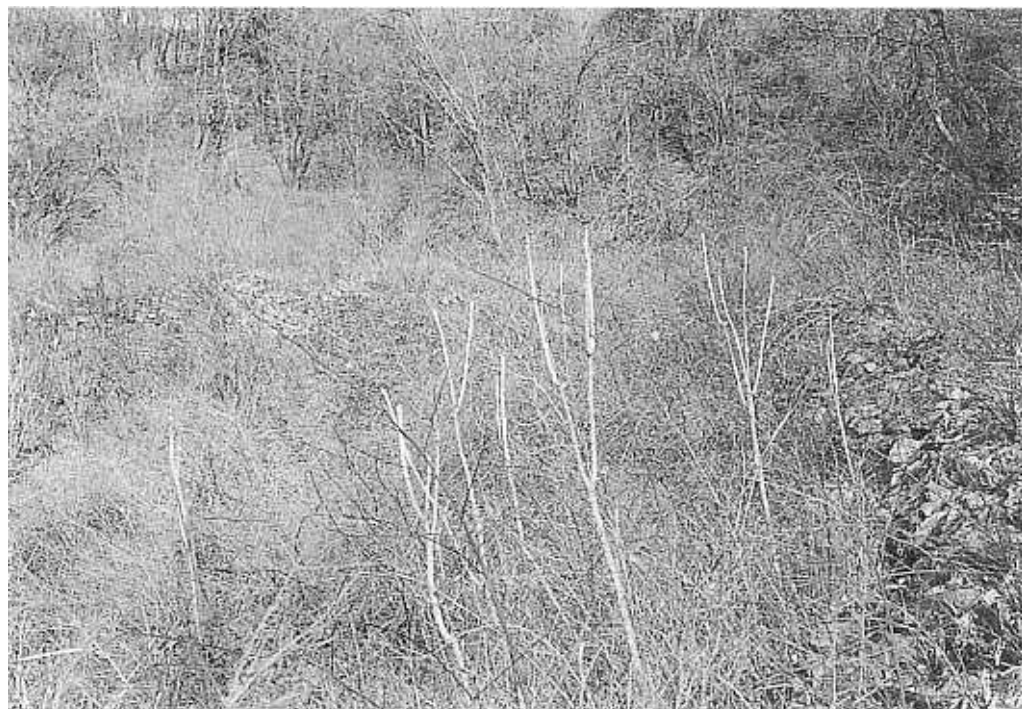
〔사진 62〕 영원산성 甬道에서 본 원주시 모습



[사진 63] 영원산성 북벽 모습 : #18 지점



[사진 64] 영원산성 북벽 모습 : #18 지점



[사진 65] 영원산성 북벽 모습 : #18~#19 구간(남→북)



[사진 66] 영원산성 북벽 안쪽 숯가마 모습



[사진 67] 영원산성 북벽 안쪽 숲가마 화구 모습



[사진 68] 영원산성 북벽 모습 : #19 지점(동→서)



[사진 69] 영원산성 북벽 모습 : #19 지점 바깥쪽



[사진 70] 영원산성 북문지 모습(밖에서)



〔사진 71〕 영원산성 북문지 남벽 석축 모습



〔사진 72〕 영원산성 북벽 雉城 남벽 모습



[사진 73] 영원산성 북벽 雉城 남벽 모습



[사진 74] 영원산성 북문지 뒤편 건물지 모습



[사진 75] 영원산성 서벽 866.1고지에서 본 甬道쪽 모습



[사진 76] 영원산성 서벽 모습 : #24 지점



[사진 77] 영원산성 서벽 내환도 모습 : #24 지점(북→남)



[사진 78] 영원산성 서벽 헬리포트 모습(북→남)



[사진 79] 영원산성 서벽 내환도 모습 #24~#25 구간(북→서)



[사진 80] 영원산성 서벽 모습 #25 지점(북→남)



[사진 81] 영원산성 서벽 모습 : #25 지점(남→북)



[사진 82] 영원산성 서벽 모습 : #25 지점 부근 단면(남→북)



[사진 83] 영원산성 서벽 모습 : #25~#27 구간 부근(남→북)



[사진 84] 영원산성 서벽 모습 : #27 지점 바깥쪽



[사진 85] 영원산성 서벽 암벽 모습



[사진 86] 영원산성 서벽 水口址 모습



[사진 B7] 경원산성 서벽 水口址 모습



[사진 38] 경원산성 서벽 水口址 남쪽 잔존석축 모습 #28 지점(서→동)



〔사진 89〕 영원산성 서벽 水口址 남쪽 잔존석축 단면 모습 #28 지점(북→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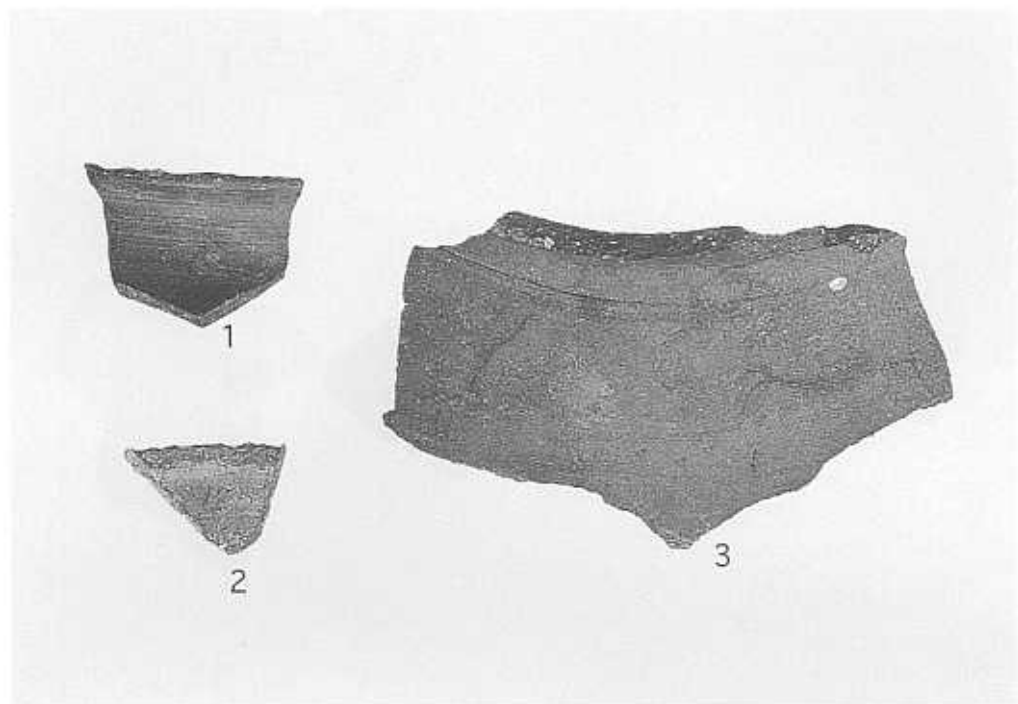
〔사진 90〕 영원사 모습(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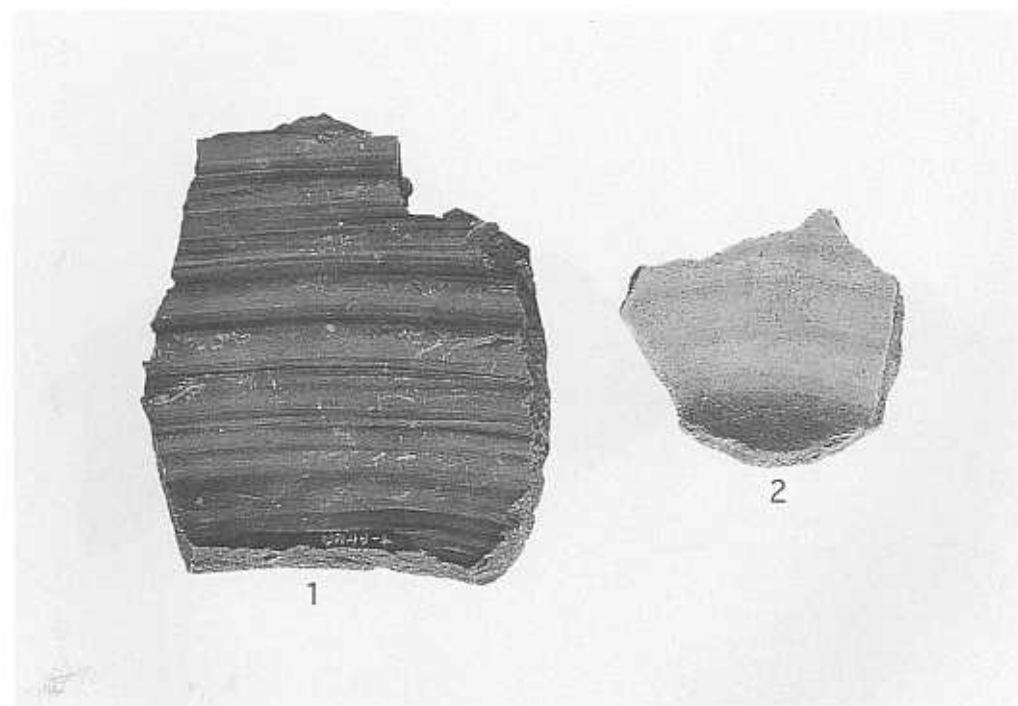
[사진 91] 영원사 모습(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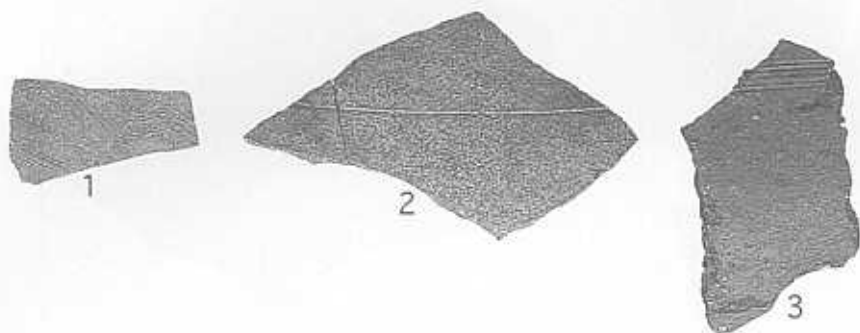
[사진 92] 영원사 내 연화문 대좌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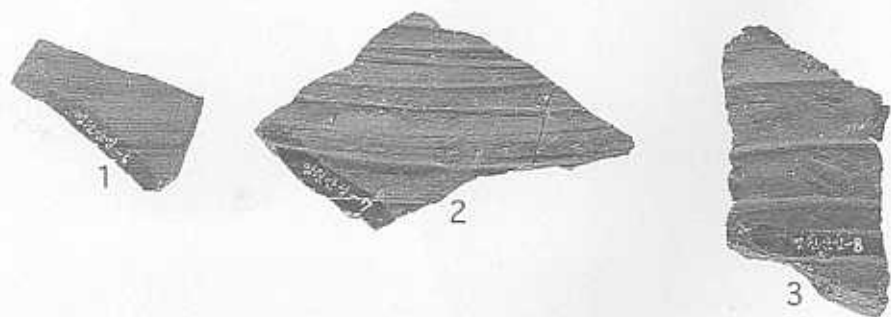
[사진 93] 영원산성 수습 회청색 토기 구연부편·어깨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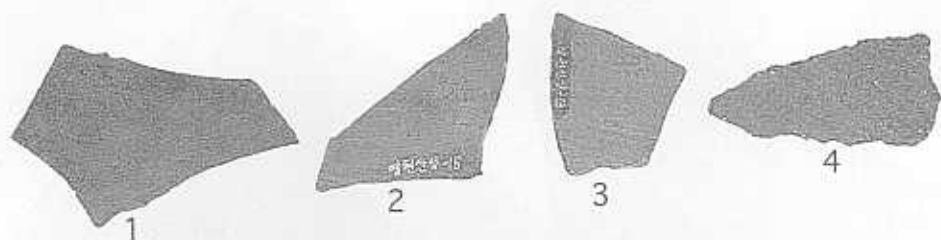
[사진 94] 영원산성 수습 토기 저부편(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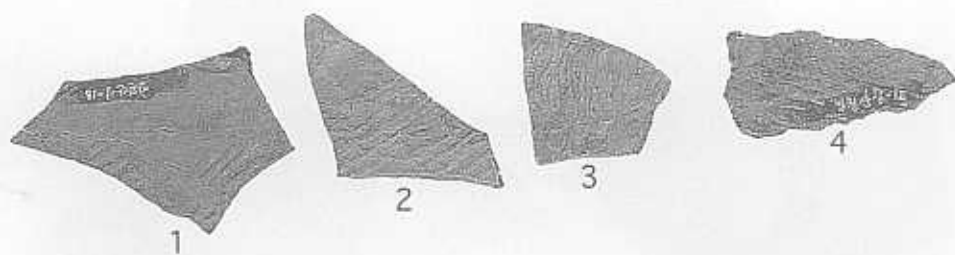
[사진 95] 영원산성 수습 경질토기 동체부편(표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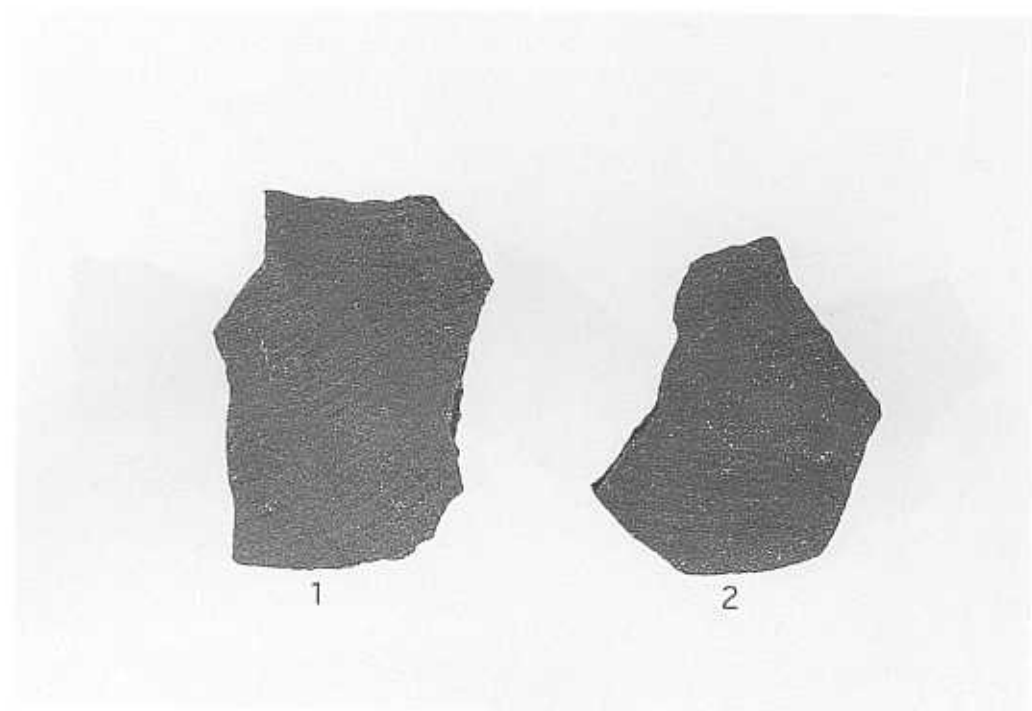
[사진 96] 영원산성 수습 경질토기 동체부편(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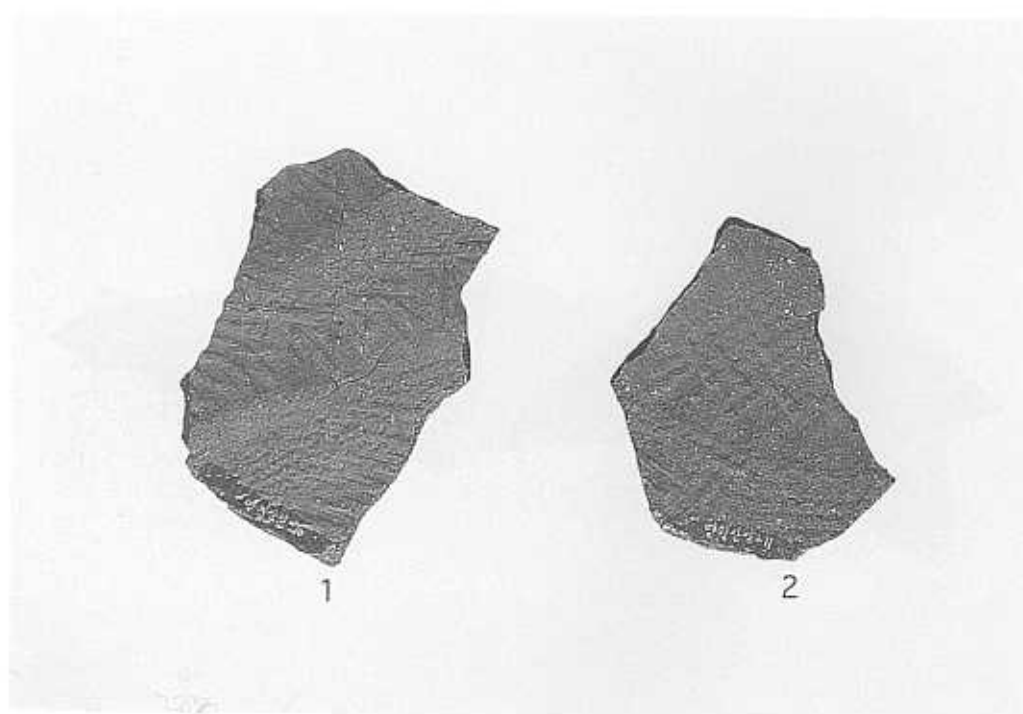
[사진 97] 영원산성 수습 경질토기 동체부편(표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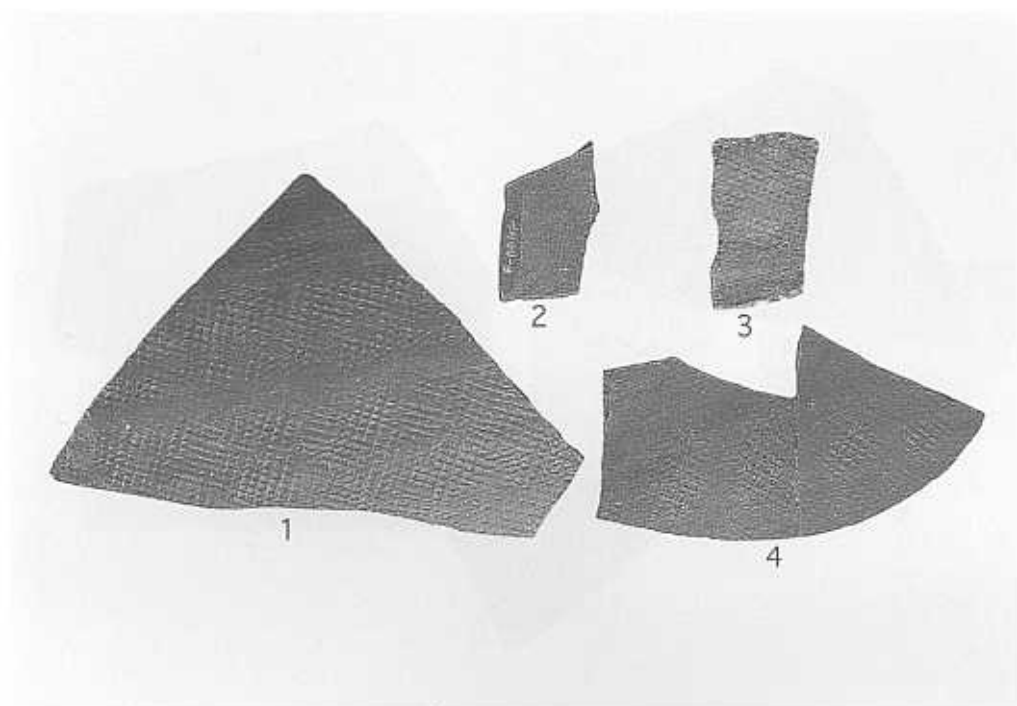
[사진 98] 영원산성 수습 경질토기 동체부편(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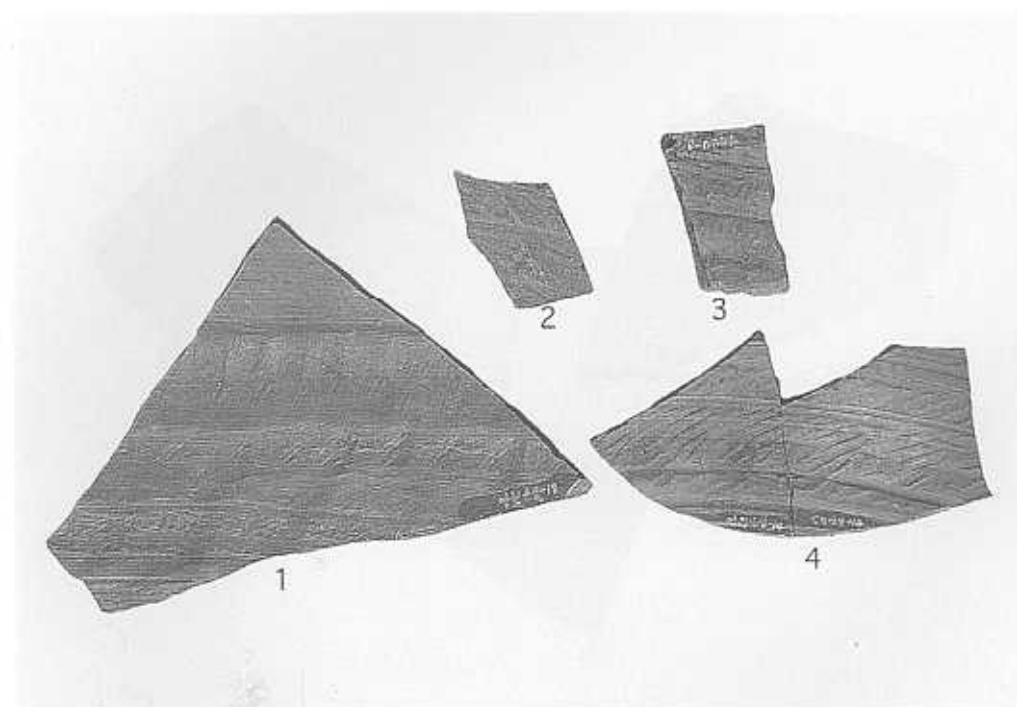
[사진 99] 영원산성 수습 경질토기 동체부편(표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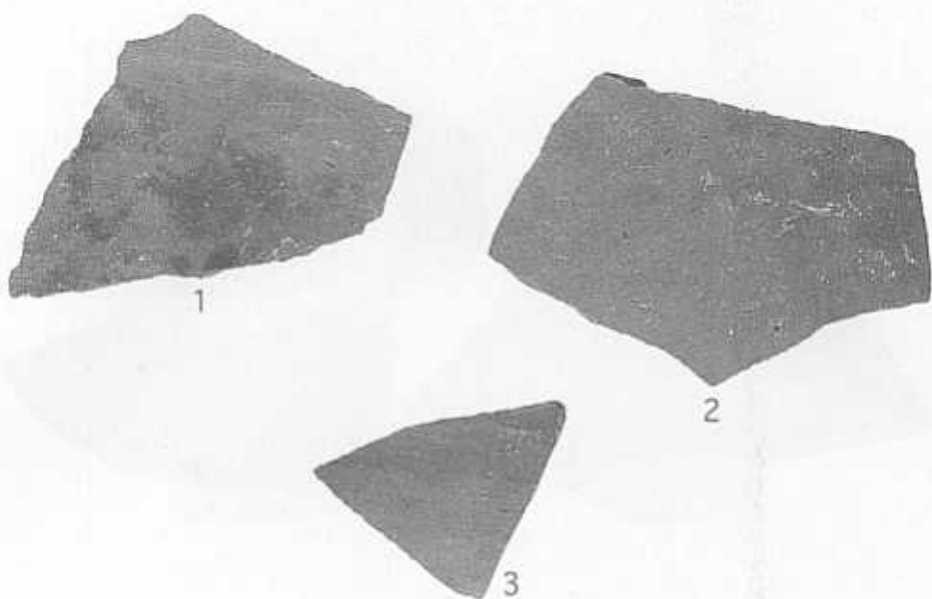
[사진 100] 영원산성 수습 경질토기 동체부편(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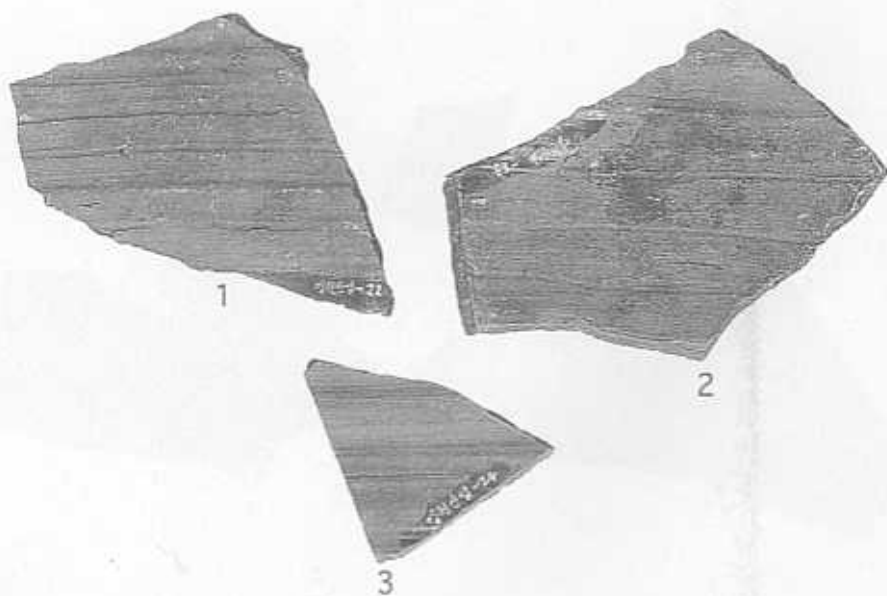
[사진 101] 영원산성 수습 경질토기 동체부편(표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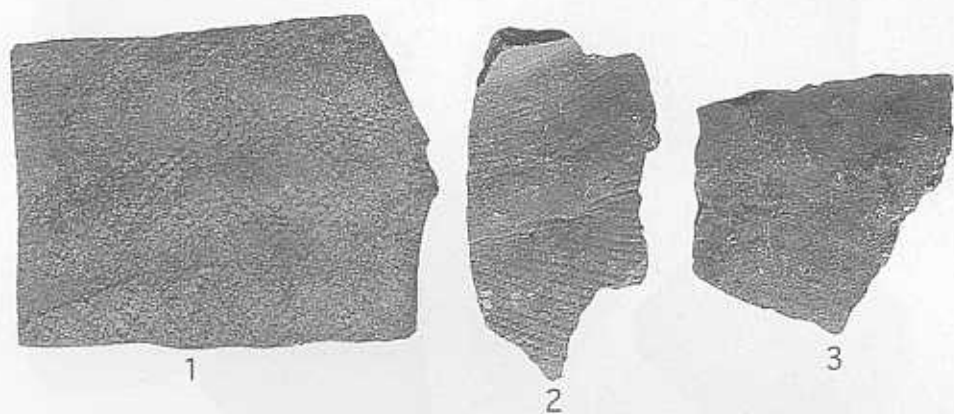
[사진 102] 영원산성 수습 경질토기 동체부편(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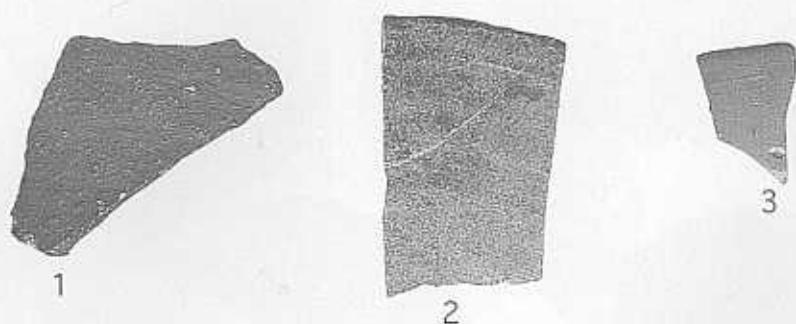
[사진 103] 영원산성 수습 경질토기 동체부편(표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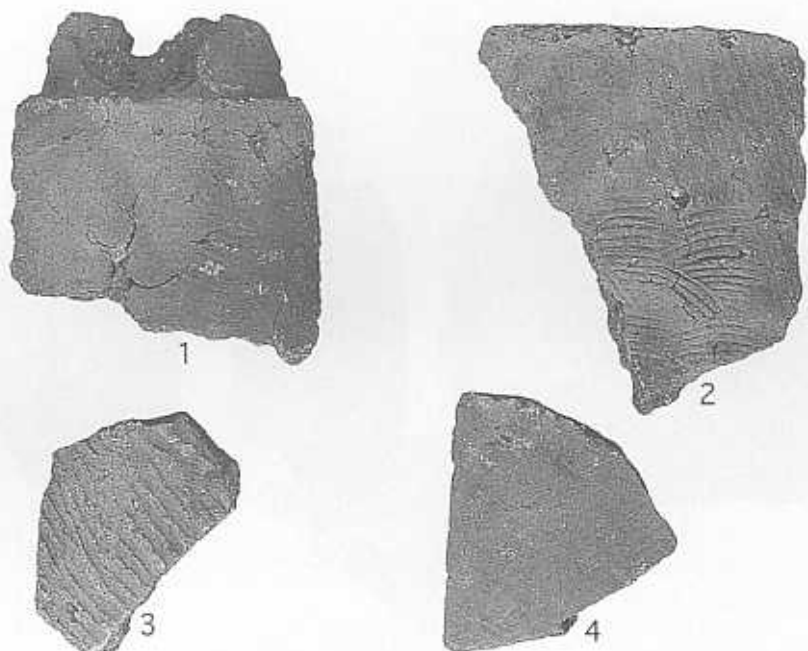
[사진 104] 영원산성 수습 경질토기 동체부편(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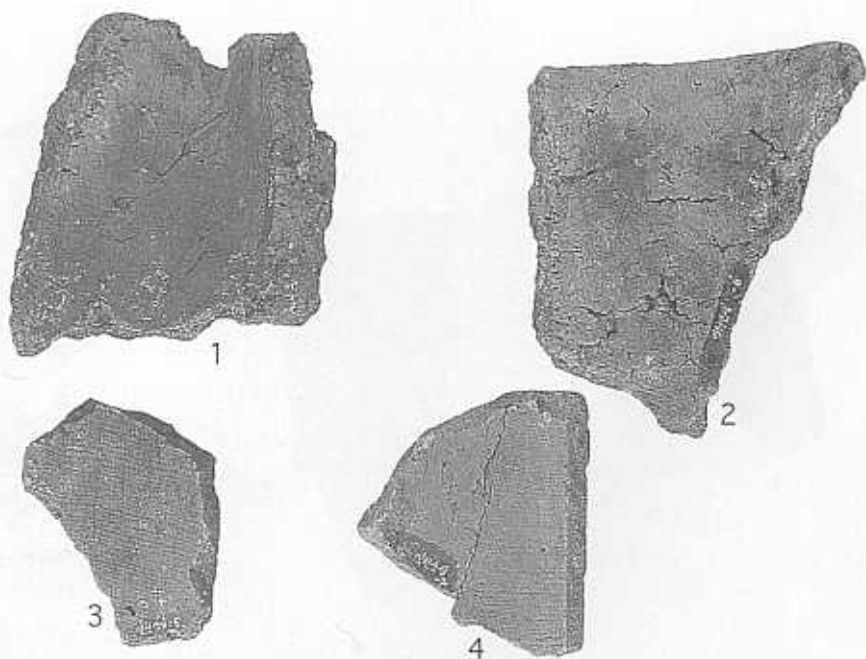
[사진 105] 영원산성 수습 경질토기 동체부편(표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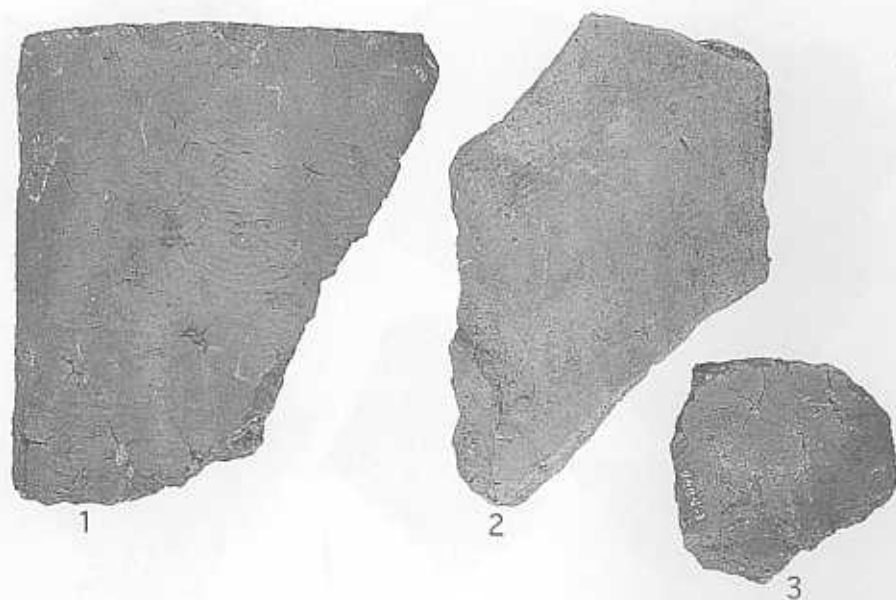
[사진 106] 영원산성 수습 경질토기 동체부편(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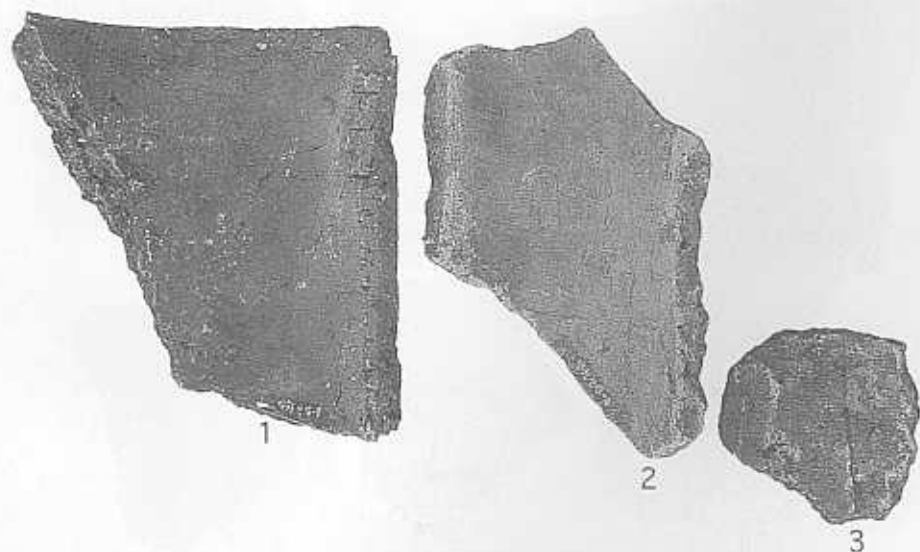
[사진 107] 영원산성 수습 청해파문·선조문 숫기외편(표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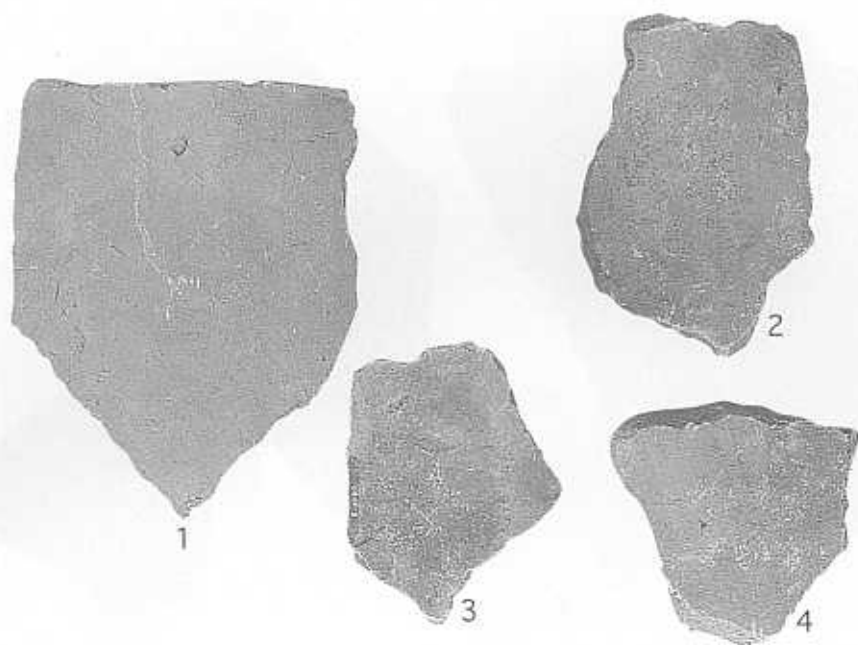
[사진 108] 영원산성 수습 청해파문·선조문 숫기외편(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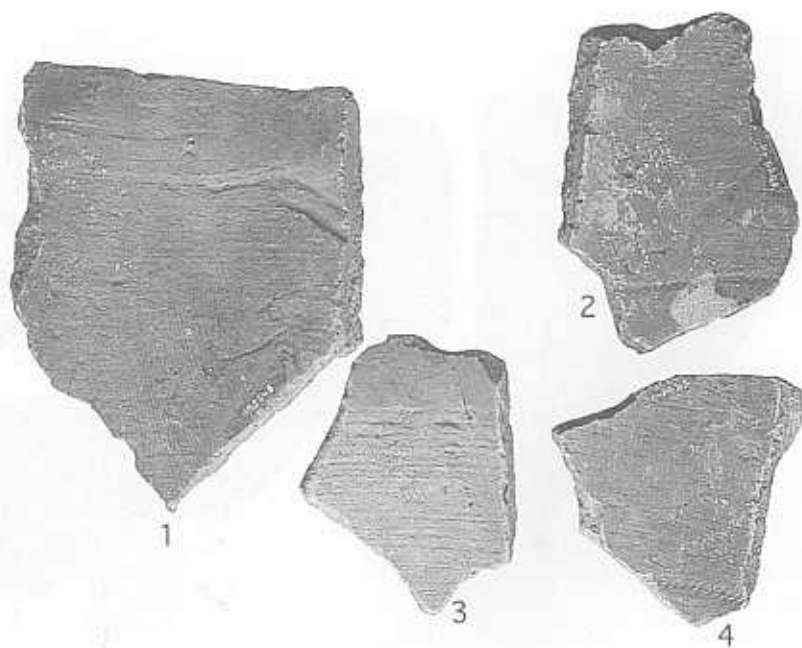
[사진 109] 영원산성 수습 청해파문·무문 암기와편(표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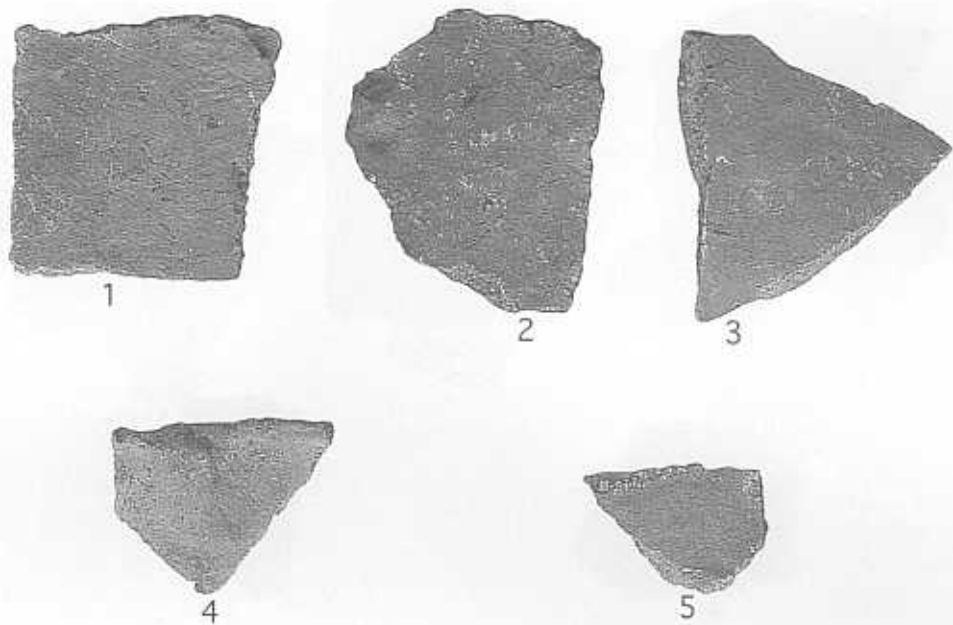
[사진 110] 영원산성 수습 청해파문·무문 암기와편(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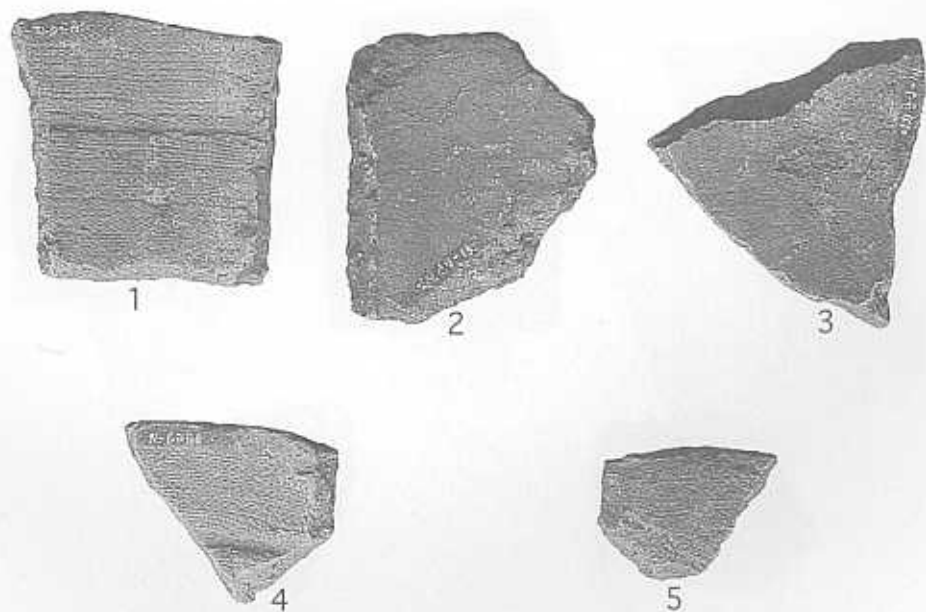
[사진 111] 영원산성 수습 무문 암기외편(표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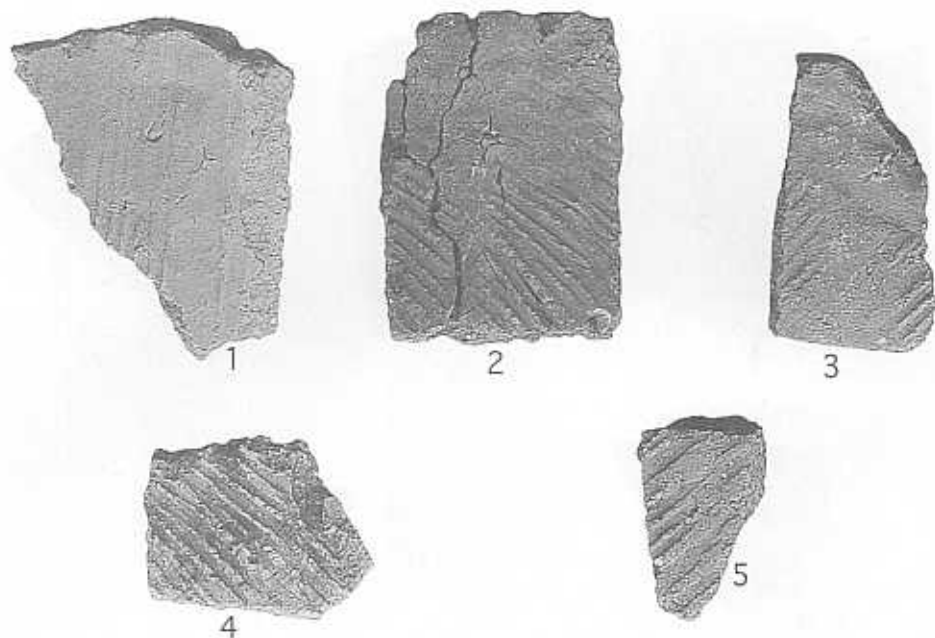
[사진 112] 영원산성 수습 무문 암기외편(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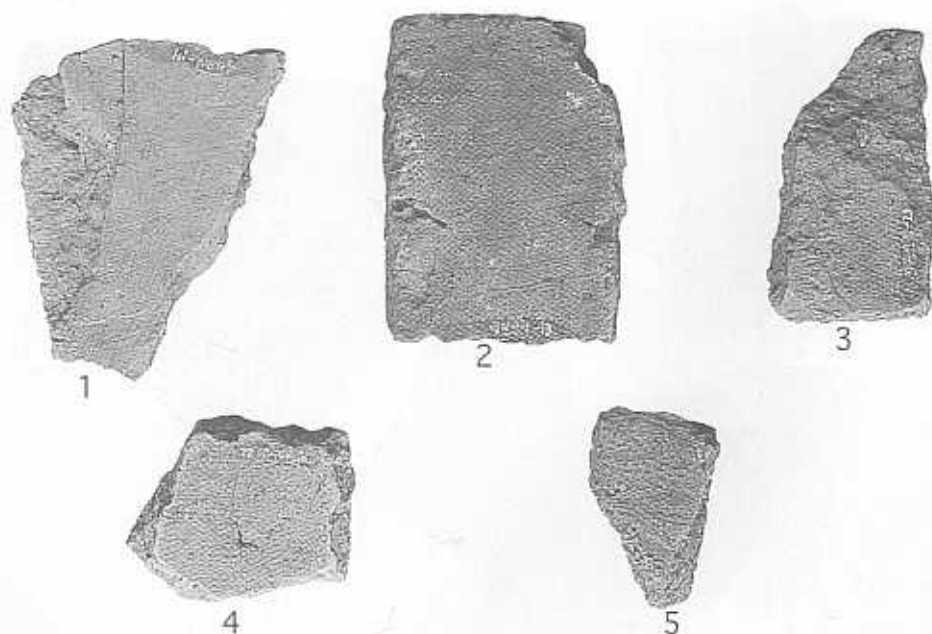
[사진 113] 영원산성 수습 무문 암기와편(표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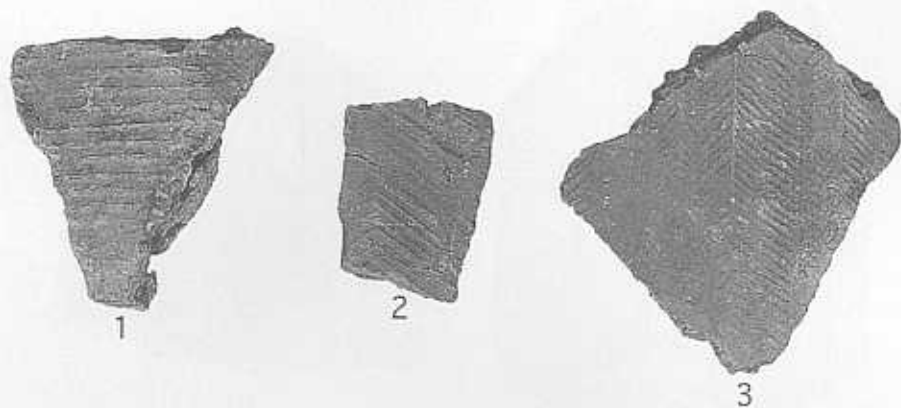
[사진 114] 영원산성 수습 무문 암기와편(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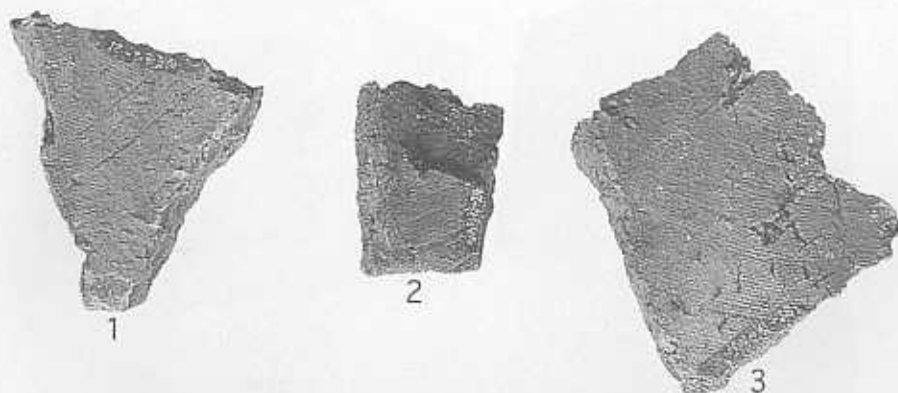
(사진 115) 영원산성 수습 선조문 암기와편(표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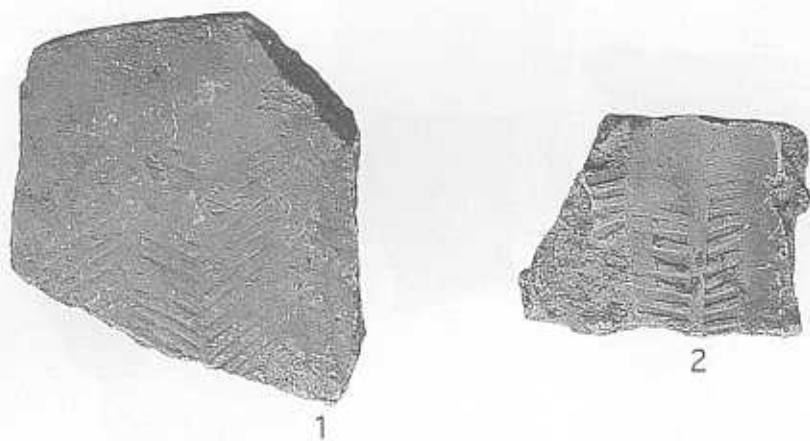
(사진 116) 영원산성 수습 선조문 암기와편(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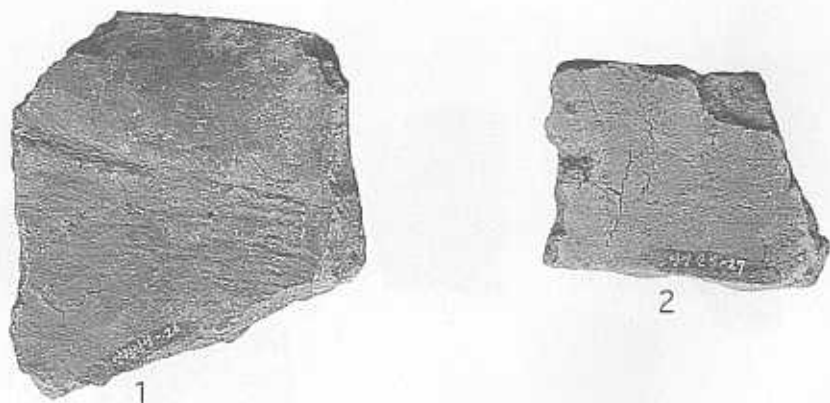
[사진 117] 영원산성 수습 사선문·어골문 암기와편(표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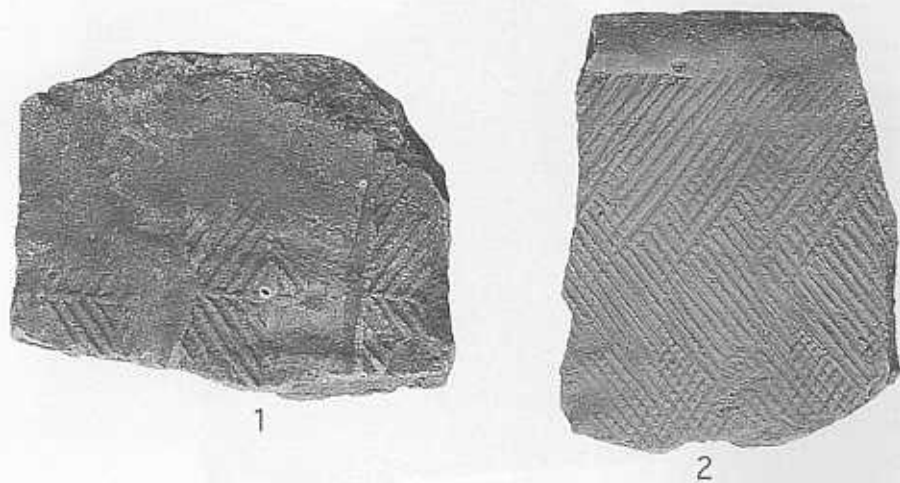
[사진 118] 영원산성 수습 사선문·어골문 암기와편(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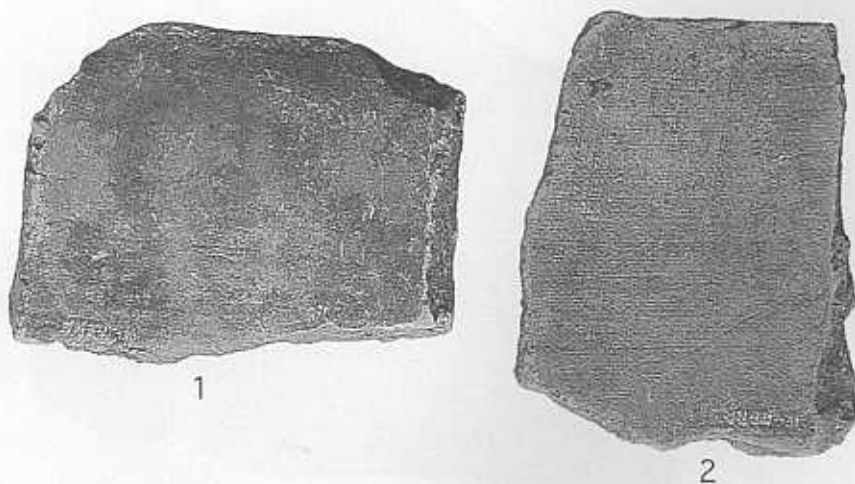
[사진 119] 영원산성 수습 태선 어골문 암기와편(표면)



[사진 120] 영원산성 수습 태선 어골문 암기와편(이면)



[사진 121] 영원산성 수습 집선문 암기와편(표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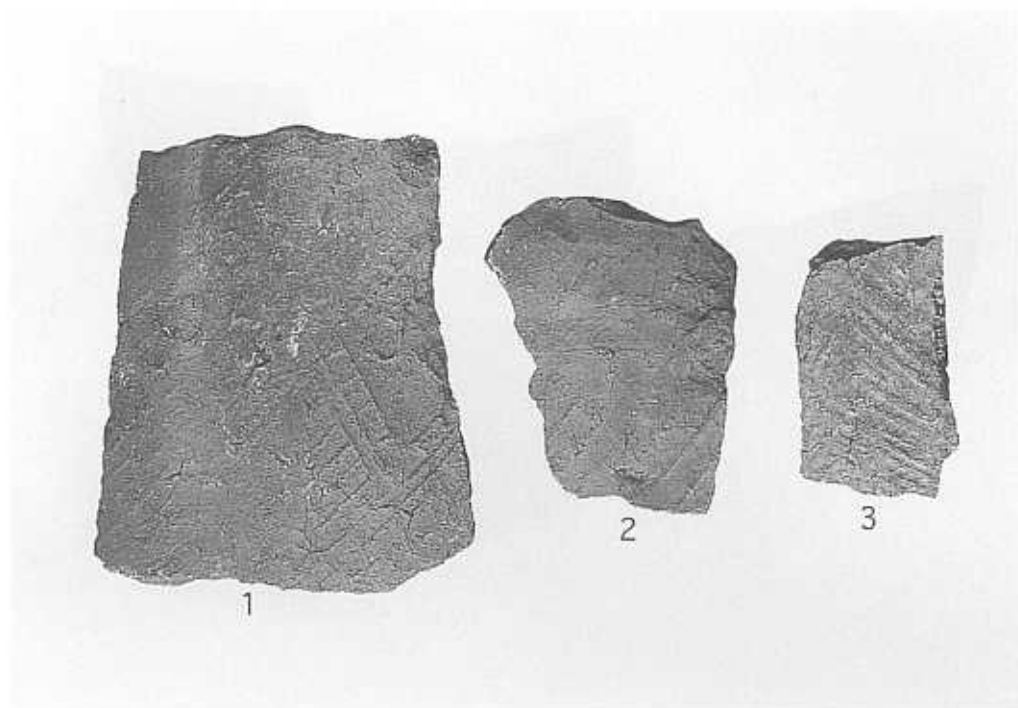
[사진 122] 영원산성 수습 집선문 암기와편(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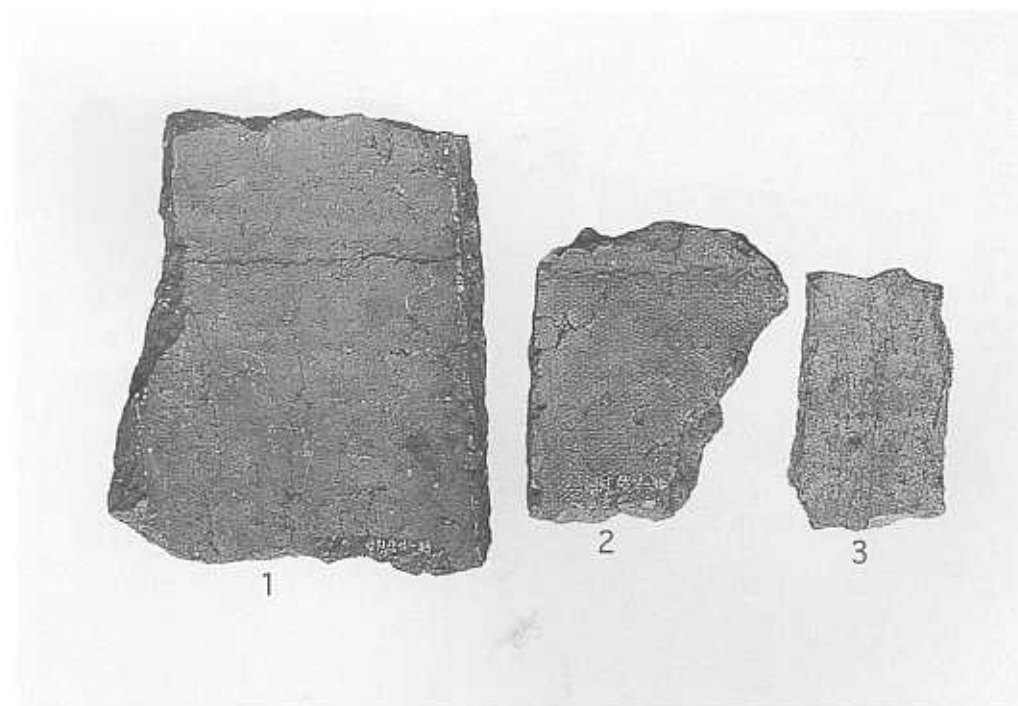
[사진 123] 영원산성 수습 草文 암기와편(표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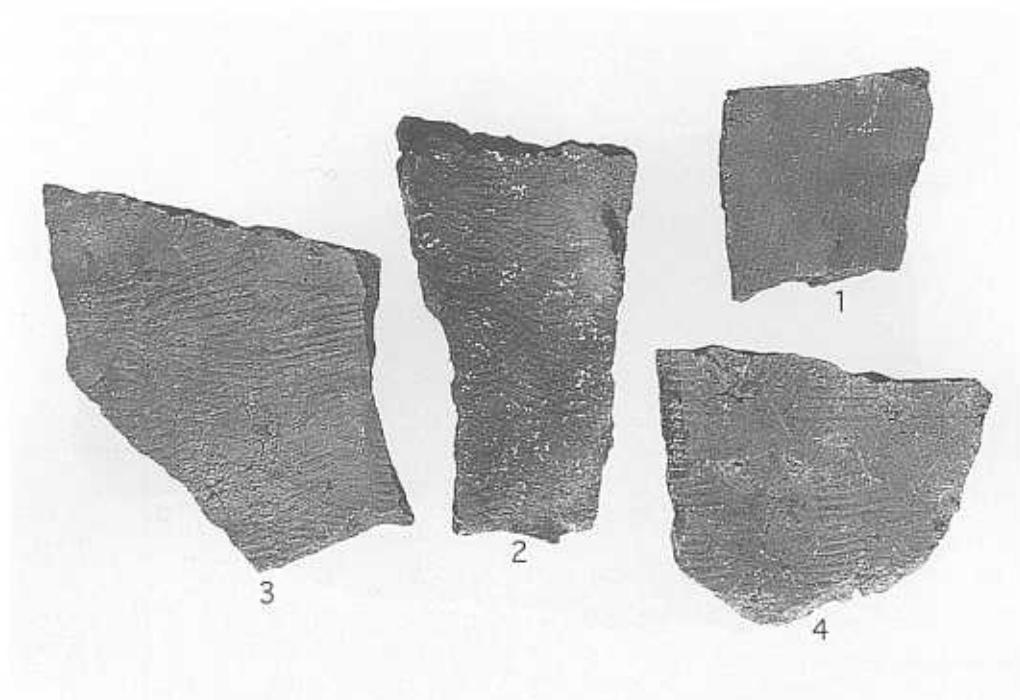
[사진 124] 영원산성 수습 草文 암기와편(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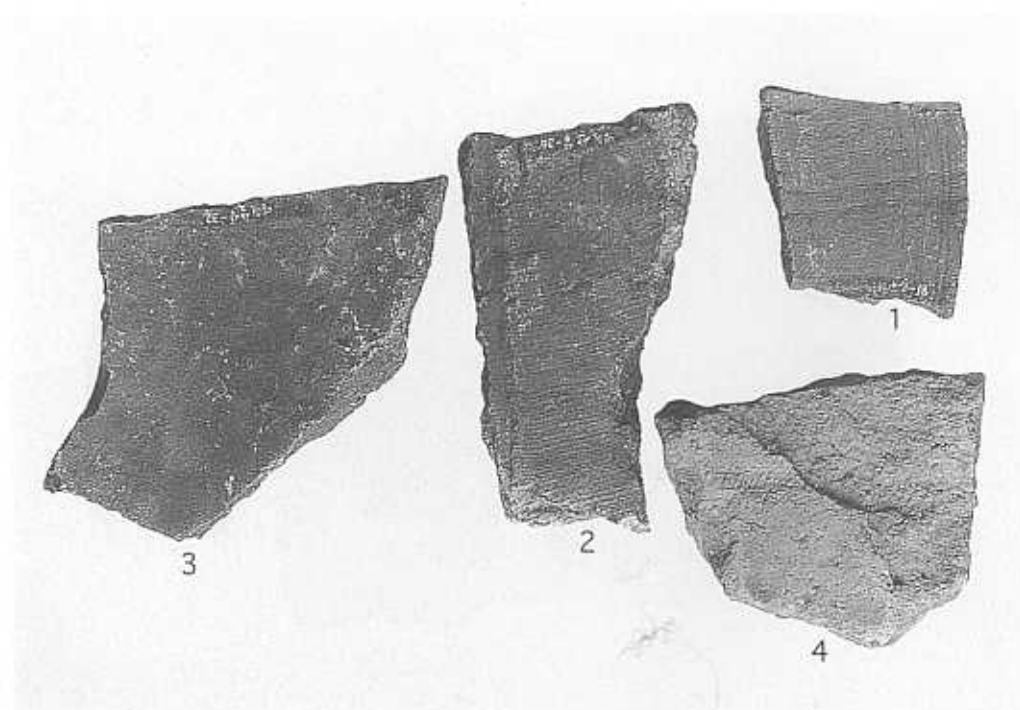
[사진 125] 영원산성 수습 복합문·격자문 암기와편(표면)



[사진 126] 영원산성 수습 복합문·격자문 암기와편(이면)



[사진 127] 영원산성 수습 집선문·청해파문 암기와편(표면)



[사진 128] 영원산성 수습 집선문·청해파문 암기와편(이면)



[사진 129] 해미산성에서 본 금대리 모습



[사진 130] 해미산성에서 본 제천방면 모습



[사진 131] 해미산성에서 본 영원산성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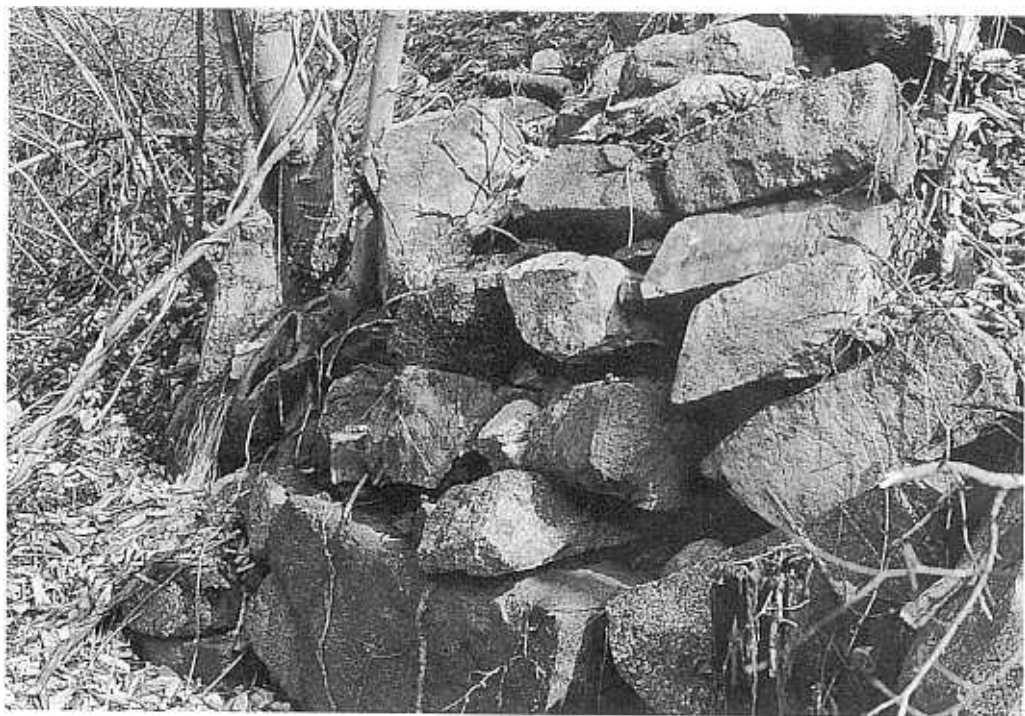
[사진 132] 해미산성 동남쪽 모습



(사진 133) 해미산성 남벽 수구터 모습(원경)



(사진 134) 해미산성 남벽 수구터 모습(근경)



[사진 135] 해미산성 남벽 수구터~동문 구간 잔존 성벽 모습



[사진 136] 해미산성 남벽 수구터~동문 구간 잔존 성벽 모습



[사진 137] 해미산성 남벽



[사진 138] 해미산성 남벽



[사진 139] 해미산성 남벽



[사진 140] 해미산성 동암문지 모습(북→남)



[사진 141] 해미산성 동암문지 門道모습(안쪽→바깥쪽)



[사진 142] 해미산성 동암문지 북벽 모습



[사진 143] 해미산성 동암문지~627.5m 고지 구간 내한도 모습(남→북)



[사진 144] 해미산성 동암문지 북벽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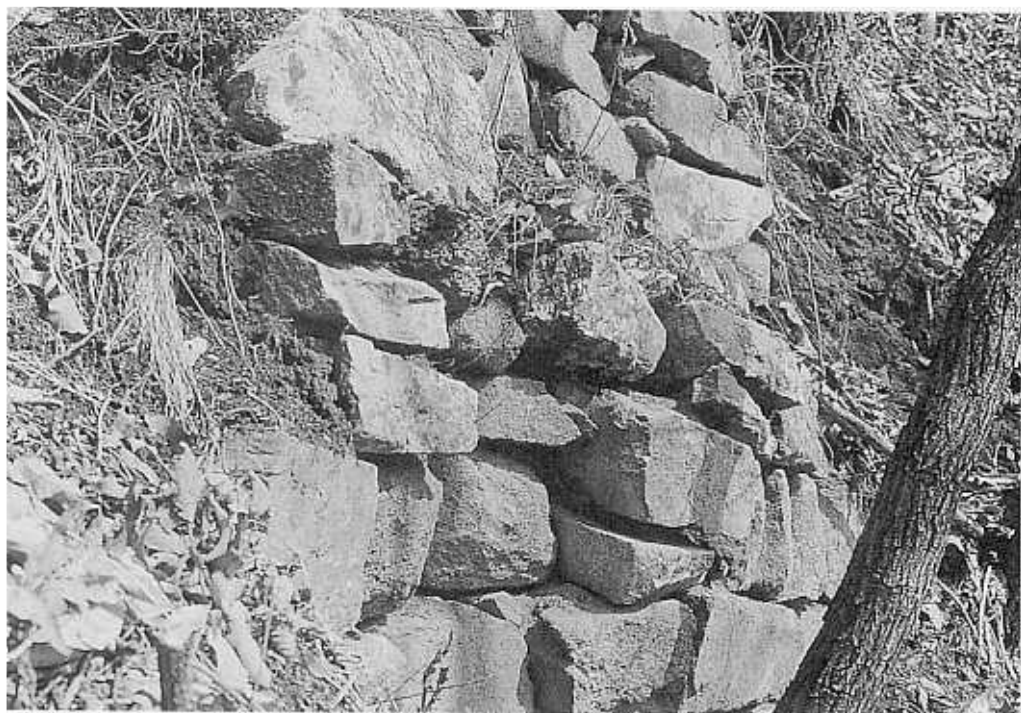
〔사진 145〕 해미산성 동벽 동암문지~627.5m 고지 구간 회절부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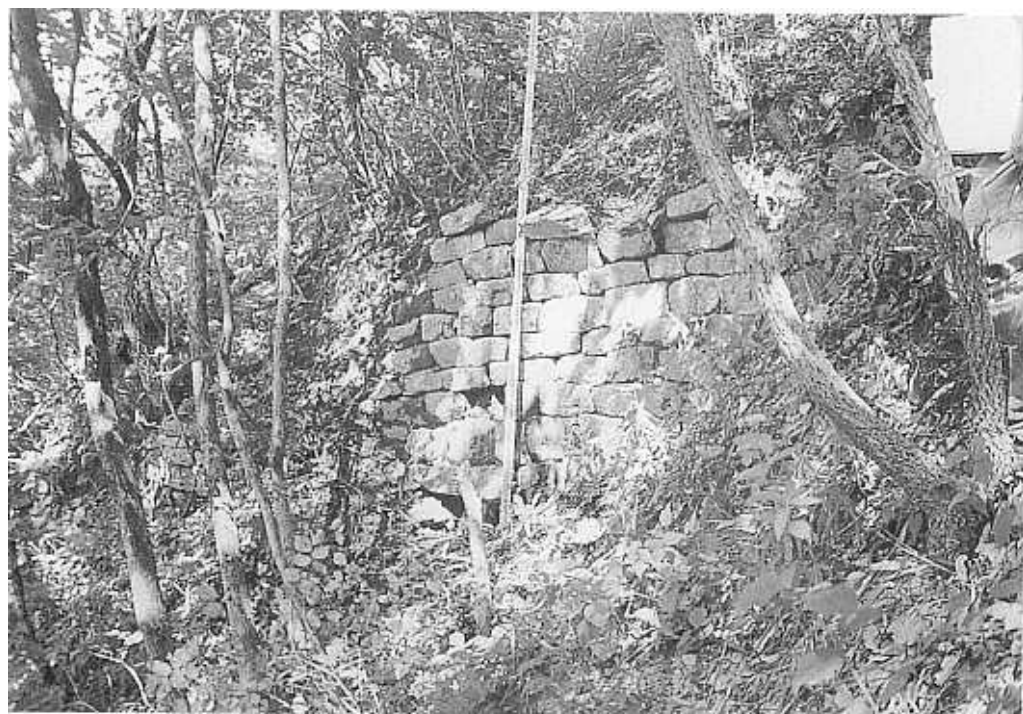
〔사진 146〕 해미산성 동벽 동암문지~627.5m 고지 구간 잔존 석축 모습



[사진 147] 해미산성 동벽 동암문지~627.5m 고지 구간 석축잔존부 모습 #3지점



[사진 148] 해미산성 동벽 동암문지~627.5m 고지 구간 석축잔존부 모습 : #3지점



〔사진 149〕 해미산성 동벽 동암문지~627.5m 고지 구간 석축잔존부 모습 : #3지점



〔사진 150〕 해미산성 동벽 627.5m 고지 안쪽 평탄지 모습



[사진 151] 해미산성 동벽 627.5m 고지 석축 모습 : #4 지점



[사진 152] 해미산성 동벽 627.5m 고지~북문지 구간 건물지 모습(남→북)



[사진 153] 해미산성 동벽 627.5m 고지~북문지 구간 건물지 모습(북→남)



[사진 154] 해미산성 북문지 모습(바깥쪽에서)



[사진 155] 해미산성 북문지 모습(안쪽에서)



[사진 156] 해미산성 북문지 동쪽 석축 모습



[사진 157] 해미산성 북문지 서쪽 석축 모습



[사진 158] 해미산성 북벽 석축 모습



[사진 159] 해미산성 북벽 석축 모습



[사진 160] 해미산성 북벽 여장 모습 : #7 지점



[사진 161] 해미산성 북벽 석축 모습 : #7 지점



[사진 162] 해미산성 북벽 석축 붕괴 모습 : #7 지점



[사진 163] 해미산성 북벽 석축 모습 : #7 지점



[사진 164] 해미산성 북벽 남단 안쪽 모습



[사진 165] 해미산성 서벽 水口址 모습



[사진 166] 해미산성 서벽 안쪽 우물터 모습



[사진 167] 해미산성 서벽 안쪽 우물터 모습



[사진 168] 해미산성 남벽 치성 안쪽 건물지 돌쩌귀 모습



[사진 169] 해미산성 남벽 雉城 서측면 모습 : #8 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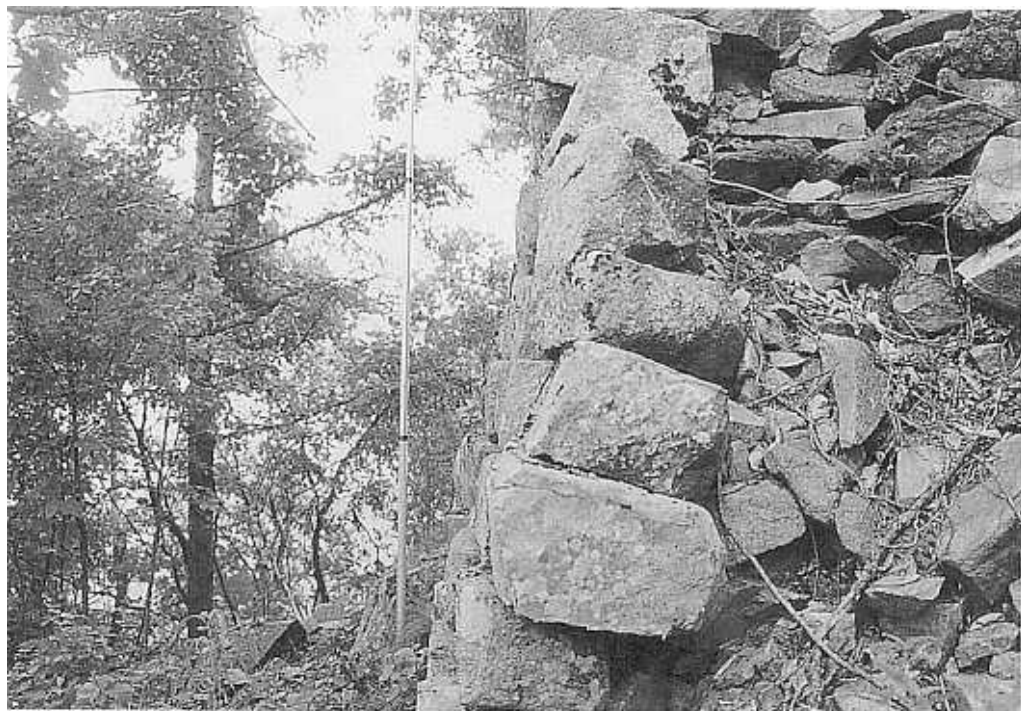
[사진 170] 해미산성 남벽 雉城 前面 모습



[사진 71] 해미산성 남벽 雉城 동측면 모습



[사진 172] 해미산성 남벽 雉城 동측면 모습



[사진 173] 해미산성 남벽 치성 동측면 단면 모습



[사진 174] 해미산성 남벽 雉城~남문 구간 잔존 성벽 모습(#10 지점)



(사진 175) 해미산성 남문지 모습(밖에서)



(사진 176) 해미산성 남문지 門道 모습(안쪽→바깥쪽)



[사진 177] 해미산성 남문지 서벽 잔존 석축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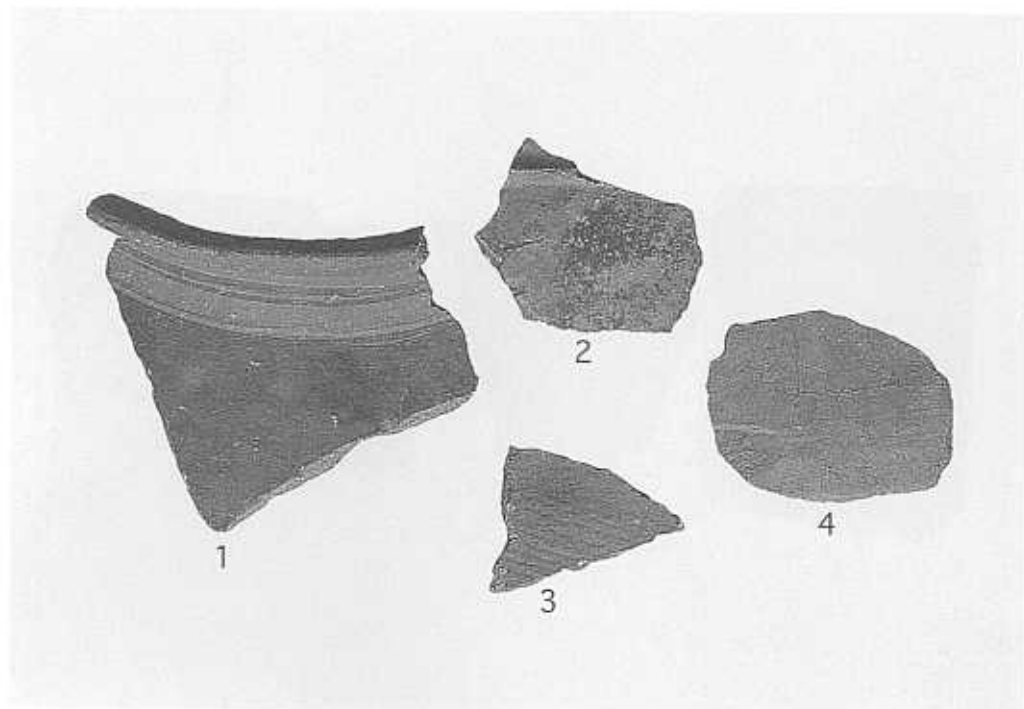
[사진 178] 해미산성 남문지 동벽 잔존 석축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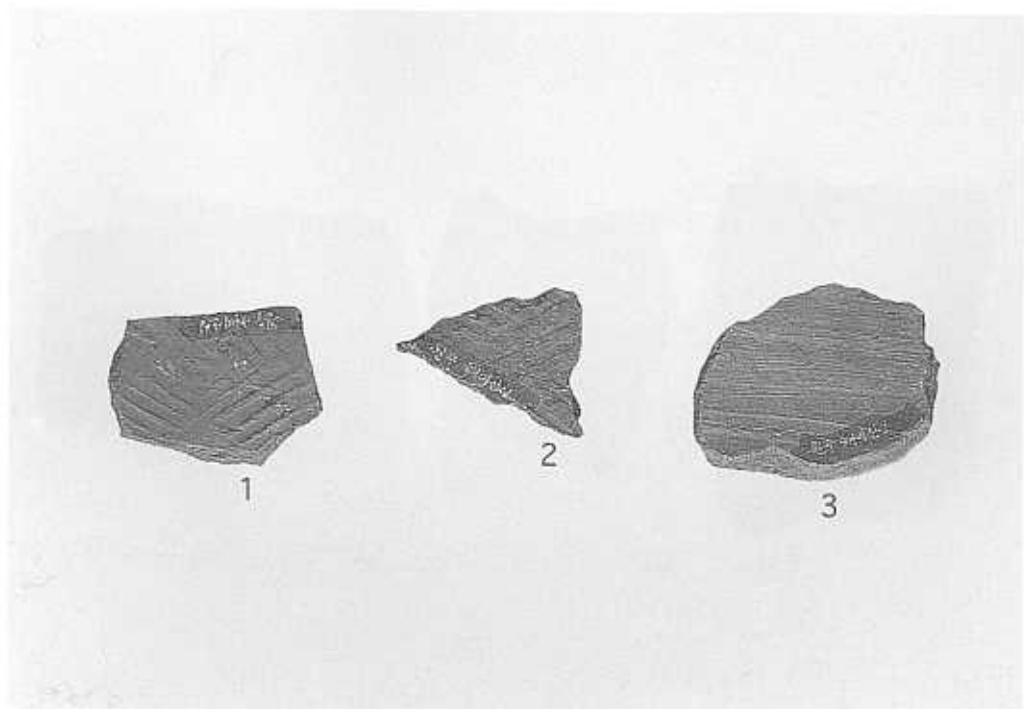
[사진 179] 해미산성 남암문지 石物 모습(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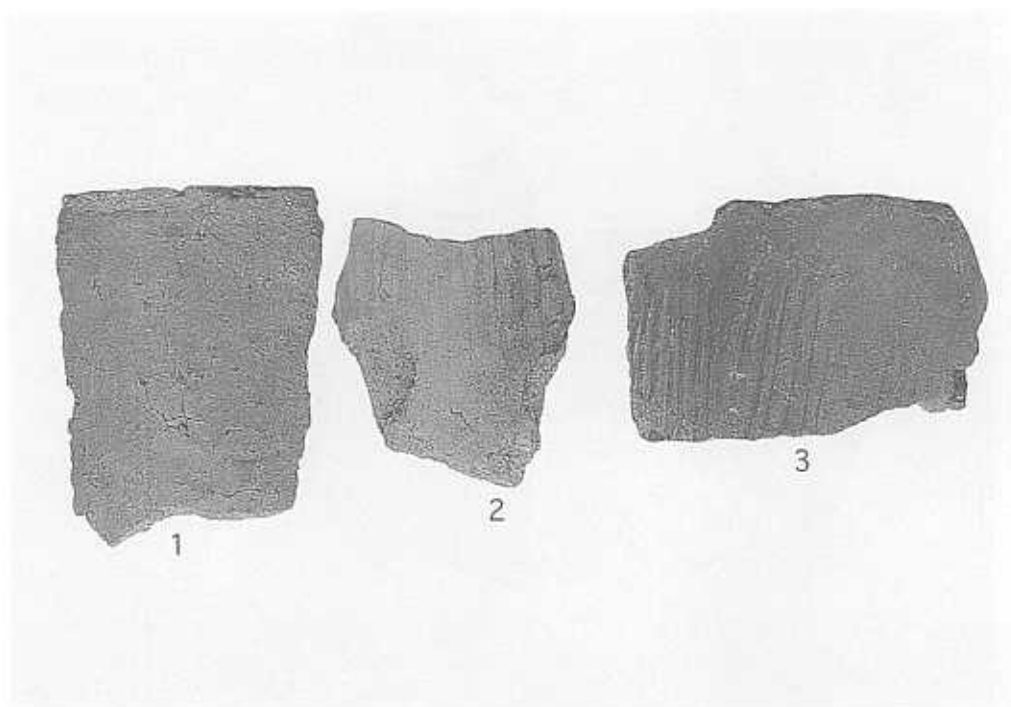
[사진 180] 해미산성 남암문지 石物 모습(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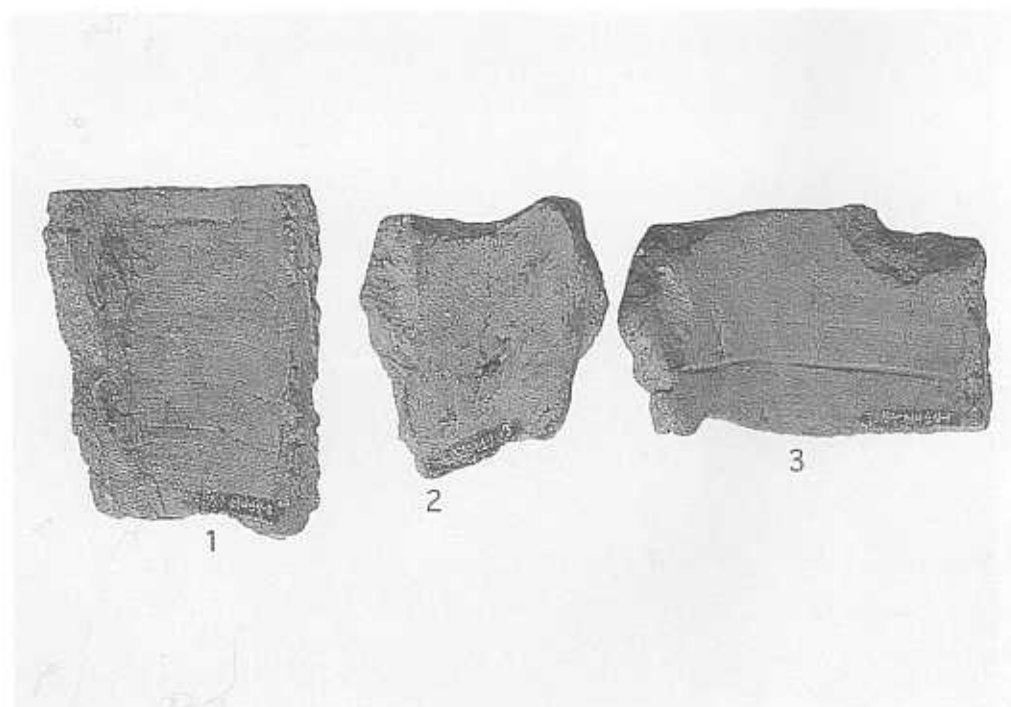
[사진 181] 해미산성 수습 토기 구연부편 · 동체부편(표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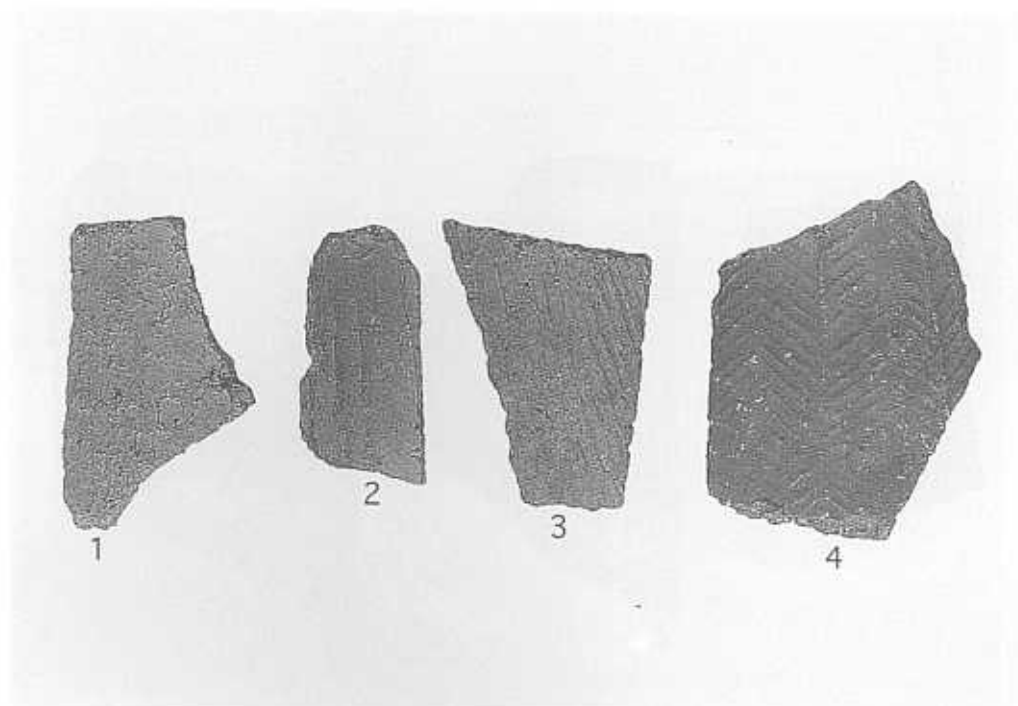
[사진 182] 해미산성 수습 토기 구연부편 · 동체부편(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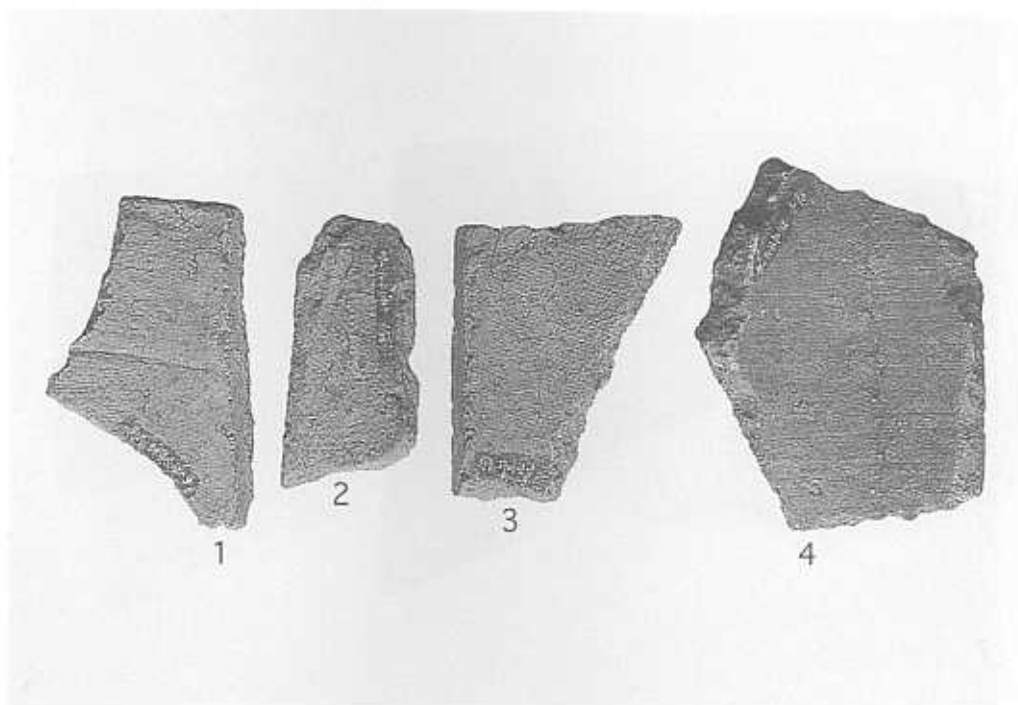
[사진 183] 해미산성 수습 선조문 숫기왓편(표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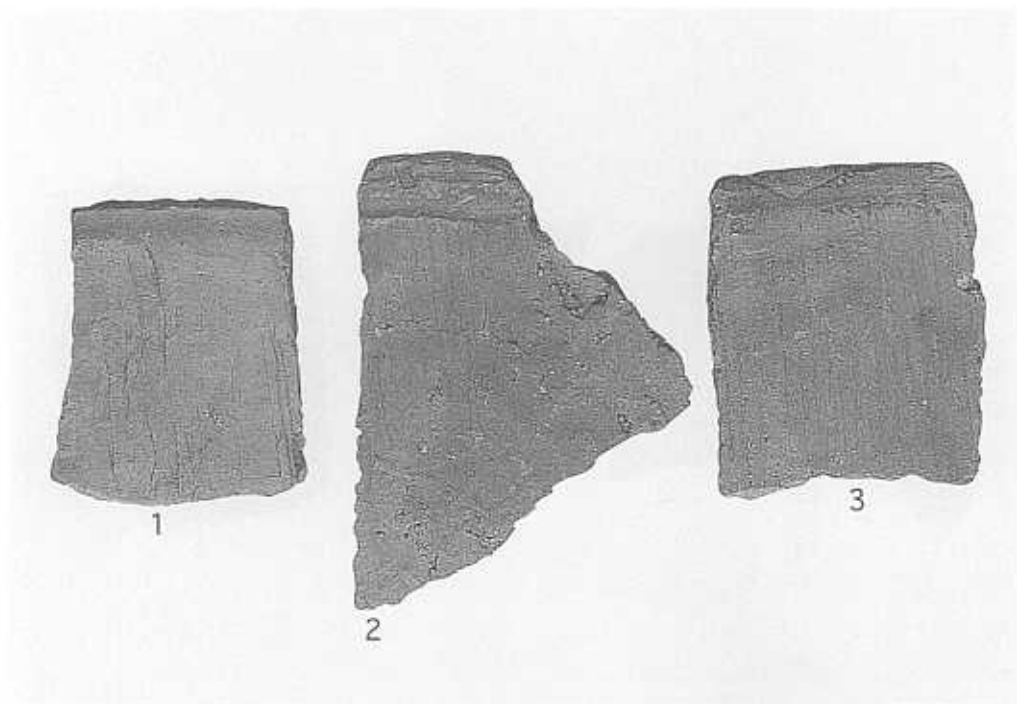
[사진 184] 해미산성 수습 선조문 숫기왓편(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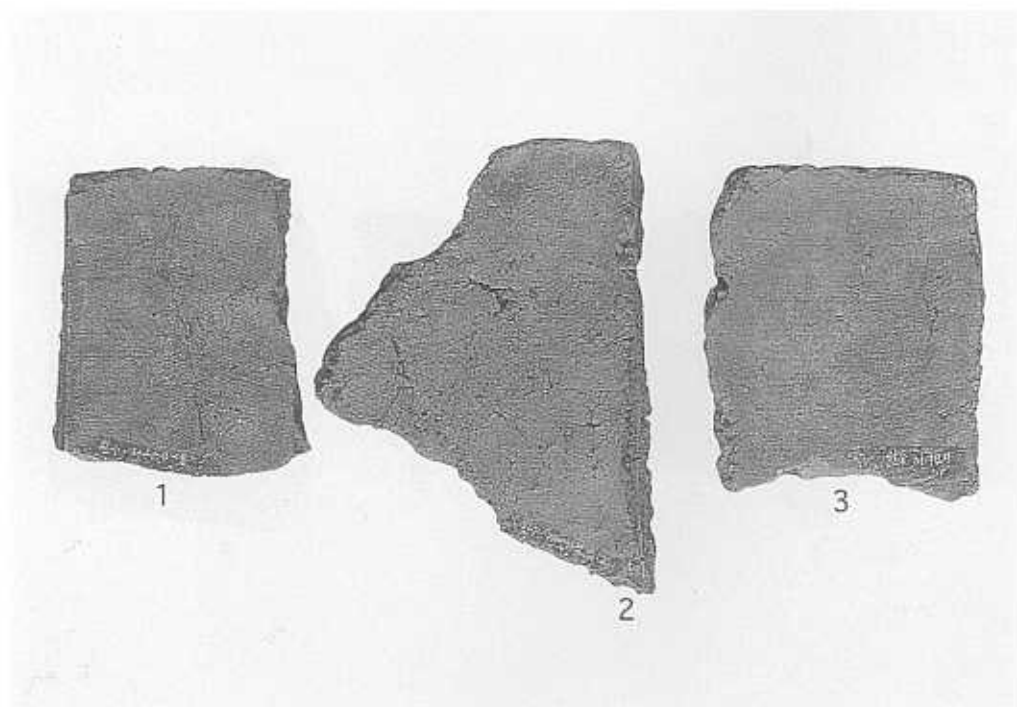
[사진 185] 해미산성 수습 선조문·어골문 숫기와편(표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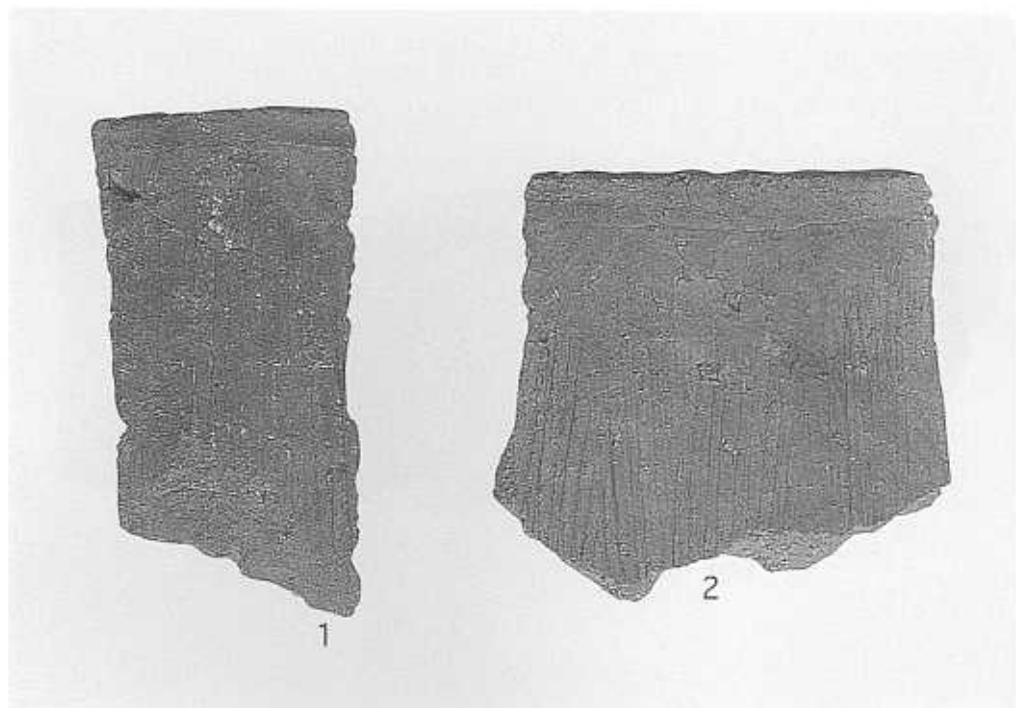
[사진 186] 해미산성 수습 선조문·어골문 숫기와편(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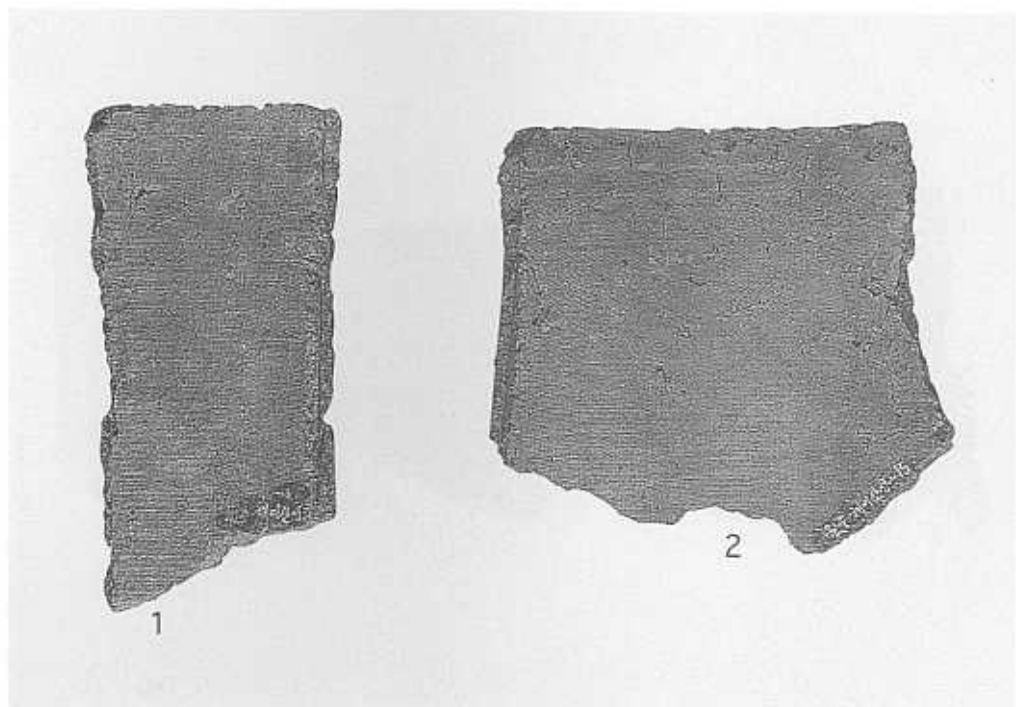
[사진 187] 해미산성 수습 선조문 암기와편(표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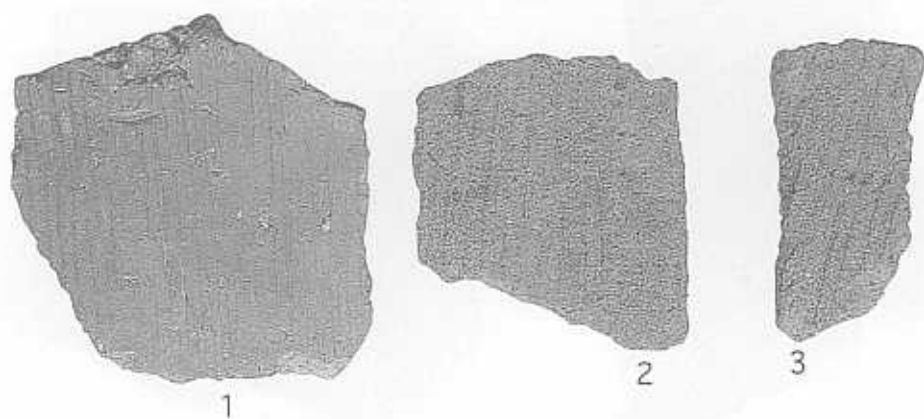
[사진 188] 해미산성 수습 선조문 암기와편(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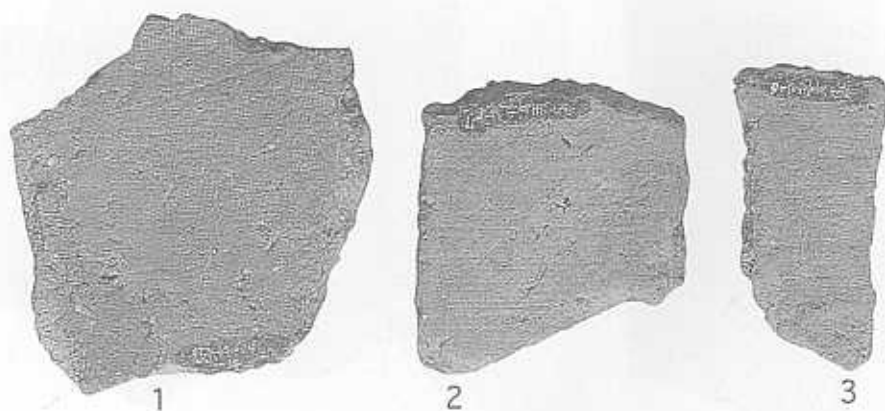
[사진 189] 해미산성 수습 선조문 암기와편(표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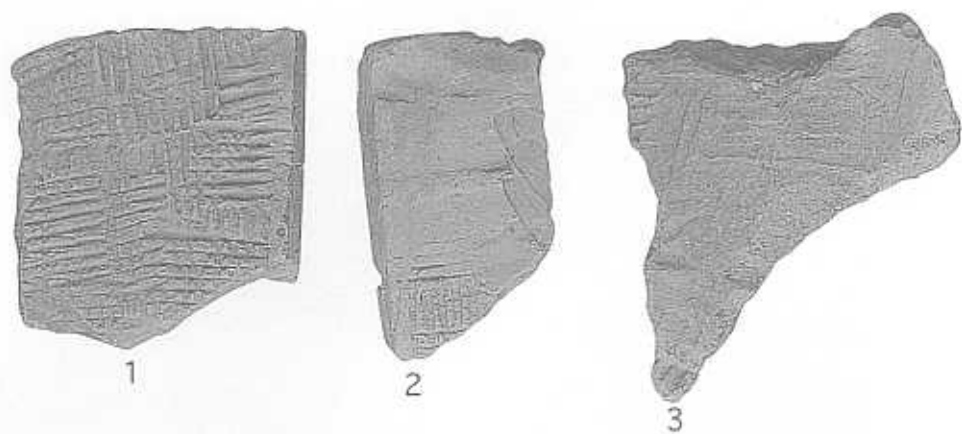
[사진 190] 해미산성 수습 선조문 암기와편(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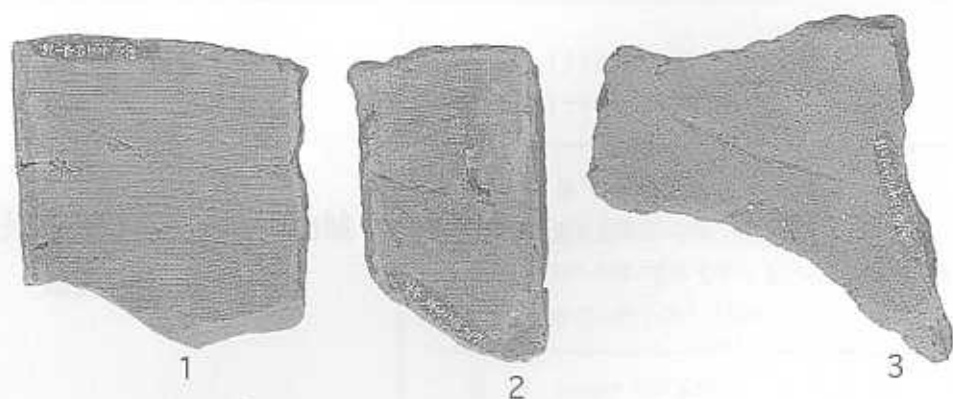
[사진 191] 해미산성 수습 선조문 암기와편(표면)



[사진 192] 해미산성 수습 선조문 암기와편(이면)



[사진 193] 해미산성 수습 집선문 암기와편(표면)



[사진 194] 해미산성 수습 집선문 암기와편(이면)

中原文化研究叢書 第 5 冊

原州 鵠原山城・海美山城
地表調査 報告書

인쇄일 : 1998년 8월 5일

발행일 : 1998년 8월 10일

편 집 : 原 州 市

발 행 :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주 소 : 361-763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산 48

☎ (0431) 261-2167

인 쇄 : 도서출판 학연문화사

☎ (02) 865-5072 / FAX 02) 853-3679